

#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영혼의 닻이다

성경에서는 죽음, 심판, 하늘나라 그리고  
미래에 회복된 땅의 생활에 대하여 진정  
무어라고 말해주고 있는가

John W. Schoenheit

잔 W 쉐인 하이트

Note: Most Scriptures quoted this book are from *the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References taken from other translations of versions are noted as such, e.g., King James Version= (KJV), *New American Stander Bible* = (NAMSB), etc. In verses or quotations form other authors in **bold print** indicate our own emphasis and words inside [brackets] from Scripture or from other authors are ours.

Unless otherwise noted, Scripture is taken from 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1973, 1978,1984 by the international Bible society. Used by permission of Zondervan Publishing House. All rights reserved.

Scripture quotation marked (NASB) are taken from The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 Bible, 1960, 1962, 1963, 1968, 1971, 1972, 1973, 1975, 1977,1995 by the Lockman Foundation, La Habra, California. Used by permission. All rights reserved.

Scripture quotations marked (NASB-1995) are taken from The New Americans Stander Version Bible, 1960, 1962, 1963, 1968, 1971, 1972, 1973, 1975, 1977, 1995 by the Lockman Foundation, La Habra, California. Used by permission. All rights reserved.

Scripture quotations marked (AMP) are taken form The Amplified Bible, Old Testament, 1965, 1987, by The Zondervan Corporation. The Amplified New Testament, 1954, 1958, 1987, by the Lockman Foundation, La Habra, California. Used by permission.

Scripture quotation marked (Moffatt) are taken form The Bible: James Moffatt Translation, 1922, 1924, 1925, 1935, by Harper Collins, 1950, 1952, 1953, 1954, by James A. R. Moffatt. Used by permission. All right reserved.

Scripture quotation marked (NRSV) are taken from the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Bible, 1989, Division of Christian Education of the National Counsel of Churches of Christ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ed by permission. All rights reserved.

Scripture quotation marked (RSV) are taken from the revised standard Version Bible, 1946, 1952, 1971, Division of Christian Education of the National Counsel of Churches of Christ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ed by permission. All rights reserved.

Scripture Quotation marked (NKJV) are taken form the New King James version Bible, 1982, by Thomas Nelson, Inc. Used by permission. All rights reserved.

ISBN# 978-0-9853674-9-7  
Third Edition 2016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book by reproduced in a retrieval system, of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mechanical,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wise, without the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publisher except in the case of brief quotations embodied in critical articles and reviews, academic papers and other no-commercial uses.

Spirit & Truth Fellowship International  
180 Robert Curry Drive  
Martinsville, IN 46151  
888.255.6189, M-F 9 to 5  
[STF@STFonline.org](mailto:STF@STFonline.org)  
STFonline.org

Printe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차례

사례.....	7
기도.....	9
머리말.....	10
<b>제 1 과목: 닻 우리의 가치.....</b>	<b>13</b>
성경적으로 보는 “소망” .....	13
영혼의 닻.....	15
심리학적으로 소망의 가치.....	17
<b>제 2 과목: 이스라엘의 소망.....</b>	<b>20</b>
다시 창조된 땅에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생활.....	21
무덤에서 나와서 땅으로 들어가다.....	24
회복시킨다는 예언들.....	29
<b>제 3 과목: 그리스도인의 소망.....</b>	<b>31</b>
들림 받음 (rapture) 과 칠년 동안 하늘에서 – 이스라엘과 그리스도 교의 사이에 구별이 있음.....	32
이스라엘은 환희(들림) 받지 않는다.....	35
교회의 결국의 목적지: 땅.....	38
<b>제 4 과목: 땅에서 미래에 두 번 있을 왕국.....</b>	<b>45</b>
천년왕국과 영원한 왕국.....	45
천년왕국위 특징 – 1000 – 년 동안 그리스도의 통치.....	48
성경에서 나오는 천년왕국의 이름들.....	67
천년왕국에서 훌륭한 생활의 품질들을 약속해 주셨다.....	69
천년왕국에 대하여 간추린 대략.....	77
천년왕국의 끝.....	80
천년왕국과 영원한 왕국의 사이.....	82

영원한 왕국.....	83
영원한 왕국의 특징.....	83
천년왕국과 영원한 왕국의 비교.....	87
<b>제 5 과목: 새 몸: 보기 좋고 기분 좋음.....</b>	<b>89</b>
옛 것을 벗어나서 새것으로 들어가다.....	89
옛 것과 새 것에 서로 비슷한 점과 다른 점.....	93
<b>제 6 과목: 미래 왕국에서 받는 보상.....</b>	<b>97</b>
구원: 이것이 첫 단계임.....	97
행한 그대로 받음.....	99
주님의 두려움.....	114
면류관: 하나님의 “과 외의 신용” 프로그램.....	119
미래 왕국에서 직업.....	122
믿은 자들이 언제 그들의 상을 받는가?.....	127
보상으로 인하여 원동력[motivated-모티베이션]이 나게 할 필요가 있는가?.....	130
<b>제 7 과목: 정설 파 교의 근원 (The Origin of Orthodox).....</b>	<b>133</b>
믿는 자들이 천당, 곧 하늘에서 영원히 산다는 아이디어가 어디서 생겼는가?.....	133
교회가 하늘나라의 교훈을 강화 시키다.....	140
<b>제 8 과목: 소망을 재 건설하다.....</b>	<b>143</b>
산상설교.....	143
산상수훈의 아름다움.....	147
<b>제 9 과목: 죄와, 용서와, 그리고 거룩함.....</b>	<b>154</b>
죄와 용서.....	154
그 거룩함에 부르심.....	156
싸우고 있는 두려움, 낙심, 정죄.....	161
<b>제 10 과목: 이생의 가치.....</b>	<b>166</b>
우리 내생[미래 삶]의 그림이 어떠함에 따라서 이생[현재 삶]의 태도에 영향을 줌.....	166

Don't retreat – 후퇴하지 말라 – Relish – 풍미를 도우라.....	169
<b>제 11 과목: 이곳과 지금에 집중하다.....</b>	<b>173</b>
땀을 감시하지 마시오 – 배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173
“선한 일 하는 자”가 되다.....	175
<b>제 12 과목: 완전한 원형으로 돌아오다.....</b>	<b>181</b>
From paradise to paradise – 낙원에서 낙원으로.....	181
<b>부록 (appendix) A: 소망을 깨닫는데 알아야 할 중요한 사건들.....</b>	<b>184</b>
<b>부록 (appendix) B: 우리의 미래에 영원히 살 곳이 하늘이라고 한 아이디어를 보충하기 위해서 가끔 사용한 구절들.....</b>	<b>187</b>
“어려운 구절들” .....	187
엘리야 하늘에 있다.....	189
하늘에 있는 보상.....	190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리라.....	191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192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197
홀과 육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199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	200
하늘에 앉혔다.....	201
저희가 더 나은 본향[나라]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203
<b>부록 (appendix) C: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영구[잃을 수 없는].....</b>	<b>206</b>
성경에 있는 세대들.....	209
독창적이고 영구한 [잃을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구원.....	215
<b>부록 (appendix) D: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분배한 지역들.....</b>	<b>225</b>
<b>부록 (appendix) E: 틀림없는 예언.....</b>	<b>229</b>
<b>부록 (appendix) F: 어려운 잠언을 깨닫다.....</b>	<b>251</b>

부록 (appendix) G: 주님이 심판을 지금 하십니까 아니면 심판 때 합니까?.....	258
부록 (appendix) H: “거듭나야 하리라” .....	269
요한복음 3:1-10 절에서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의 설명.....	269

## 사례

누구 보다 제일 먼저 감사 드려야 할 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곧 내 주입니다. 진실로 그들이 “눈먼 소경의 눈을 떠우고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한때는 나 (John Schoenheit) 역시도 눈먼 “소경”으로서 이 책에 있는 진리와 사실 그리고 영원한 삶의 소망을 잘 깨닫지 못한 것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의 은사와 미래에 약속하신 영생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넘칩니다. 또한 나에게 특별히 이 소망을 알게 함으로 채워 주셨음을 심히 감사하고, 나에게 뿐만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도 알려줌을 심히 감사합니다.

혼자 쓴 독불장군이 없다고 흔히 말하는 그 말이 이 책을 쓸 때에 꼭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나 혼자서만 성경을 읽고 조사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전에도 다름 영건한 남 여 분들이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역사의 기록으로 인하여 내가 딛고 전진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놓았습니다. 이 분들의 공부한 것들 얼마를 교과서 에다 토 달아 놓았으며 혹 가끔씩 교과서에 토 달아 놓은 것을 이 책에서 말 할 것입니다.

나의 가족에게 특별히 감사하며, 특히 나의 사랑스런 동반자, 성실한 친구 그리고 나의 기도 파트너인 내 아내 재니비[Jenivee]에게 감사합니다. 그의 사랑과 협조가 나 하는 일에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마아크 그레이설[Mark Graeser] 에게 특별 감사함은 이 책에 대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시간을 드려서 나와 같이 논의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새로운 생각에 가치가 있고 또 철학자인데 그와 그와 같이 나눈 대화가 많은 논제에 대한 확실함을 밝혀 주었습니다. 잔 린[John Lynn] 역시 논제에 대하여 나와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그가 이 책을 피곤한줄 모르고 교정했습니다. 나는 문법상에서 내가 손수 낸 실수를 모르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잔이 이 책을 교정만 했을 뿐 아니라 구두점과 문법도 바르게 고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어떤 것은 한 문구를 말이 가장 잘되게 돌려놓기도 했으며 여러모로 그의 충고가 이 책을 개량 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디 두푸이스[Judy Dupuis], 캔 스케얼멀 [Ken Schleimer], 씬디 후리멘[Cindy Freeman], 마이크 콜롬보로[Mike Colombaro], 그리고 샬니 뷁꺼리 박사[Dr. Shawnee Vickery] 이 분들이 많은 개정과 도움되는 충고를 주었습니다. 에디 디부루힐[Eddie DeBruhl] 은 내가 이 책을 완성시킬 때까지 끊임없는 깨달음의 자료였었고 감동심을 일으켜 주었으며, 그와 같이 이 소망에 대하여 논한지가 이 책 끝낼 때까지 근 10 년 전부터 었습니다. 그의 깨달음은 예민하고 그의 충고는 생각심이 많으며

또 그의 친구간 의리는 값을 붙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요한복을 3 장을 깨닫게 된 것도 이분의 도움이 많았으며 이 구절들의 해설이 이 책 뒷면 부록 H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책을 좀더 알기 쉽게 하는 지도와 그래프[도표]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려 주신 분 세란 화테겔[Sharon Whitaker]과 라빈로랜스[Robin Lawrence], 이 분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지도와 그래프에 일 하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해 주심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이 책을 발행하는 데에 수고하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재넷 스피크스[Janet Speakes], 와 뤼네이 두겐[Renee Dugan]이 마지막 인쇄 원고에 많은 연출을 끊임없이 읽었으며 편집과 짜임 바탕에 많이 도왔습니다. 린시 추림블[Lindsey Trimble]이 이 책 앞면 그림을 설치했고 이 책에 다른 것들도 미학적으로 만족하게끔 단속했습니다. 더스틴 윌리엄스[Dustin Williams] 가 이 책의 활동과 제작 전체를 감시했습니다. 라옌 메얼[Ryan Maher] 이 인터넷으로 이것이 세계로 퍼지게 설치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이 책의 사실이 온 세계에 퍼지기를 나와 같이 원하는 것에 대하여 내 마음속 뼈가 저리도록 감사합니다.

우리 “Spirit & Truth Fellowship International-국제 신령과 진정으로 교제”에서 많은 조사연구자 동요들이 이 책을 읽고 논평해 주었으며, 또한 그들에게 특별 존중 감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로 가족을 이루고 또한 그 가족들이 단합하여 최고의 축복의 역사를 이룹니다. 만일 이 책이 축복이 된다면, 하나님의 가족들이 단합하여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John W Schoenheit  
쟌 W 쉐하이트

## 기도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하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데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지만, 기도함으로써 말씀을 깨닫는 말은 무어라고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상고할 때 하나님께 깨달음을 구하지 않음으로 얻지 못하여 실하고 외면합니다.

야고보서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2). 진실로 주님이 우리의 눈을 밝힘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심으로 켈 수 없는 기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십니다. 나의 기도는 나와 여러분이 이 책을 읽을 때 이 책이 원서는 아니지만, 아래에 기록한 기도는 2000 년 전에 사도 바울의 포부였고 그가 에베소서 교에게 한 연감한 기도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 **에베소서 1:18**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부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 머리말

“죽으면 하늘로 올라간다.” 이 말을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다 세계적으로 믿고 있으며 요즈음엔 (하다못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속에서도 이렇게 알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장례식에서 담대하게 주장하며, 영화에서,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은 죽음 후의 미래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사실입니까? 그리고 “하늘”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숙명입니까? 하늘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떠한 곳일까요? 진정 사람이 죽는 그 순간이 하늘로 “피신”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 모든 것이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문답을 받는 것이 적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미래에 대한 것을 희미하게 알고 있는 이유는 이 점에 대하여 확실하고 명백한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불구하고, 성경에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약속한 회복시킬 땅에 대하여 감탄할 미래의 정보가 수두룩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린 이유는 사람이 죽으면 하늘로 올라가 그곳이 영원한 숙명인 것으로 배웠음으로 장래를 희미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짝이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처럼,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많은 면으로 되어있고 아주 밝게 빛이 납니다. 이 소망에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을 영광의 새 몸을 입고 정의가 있는 새로 창조한 땅에서, 평화, 안전, 풍성한 음식, 그리고 마냥 웃을 수 있는 웃음과 즐거움이 가득히 있을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행히도 몇 세기에 걸쳐서 구원받은 자들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이 사실을 바꾸어 가지고 구원받은 자들이 죽으면 “하늘나라” 공중으로 올라가 떠다니는 것이 영원히 살 곳으로 믿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자의 영원히 살 곳이 땅이라는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라고 하셨습니다.

---

1.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흔히 들어볼 수 있는데, 그 뜻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으로는 “영원[eternal]”라는 뜻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영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와 함께한다는 것은 “영원히[everlasting]” 이 두 단어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이 정확한 뜻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매우 유익한 일이 될 것이며 또한 나 역시 이 책에서 그렇게 해 보기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왕국-The Kingdom]”에 대한 복음 [좋은 소식]을 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23; 9:35). 이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로 예언했고 (다니엘 7:14) 또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바울이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28:23).

전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천국[왕국]이 가장 중심적이었지만 누구든지 무슨 나라인지 알고 있지 않는 이 상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50 번 말씀하셨고 마가복음에서 15 번, 누가복음에서 39 번,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4 번, 모두 종합해서 108 번을 말씀하셨습니다.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네 복음 뿐만 아니라 온 성경에서 말하는 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점에 대하여 깊이 묻어져 있음으로 보통 그리스도인이 왕국이 어떠한 것인지 제대로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 그리고 신약성경을 기록한 분들이 말씀하신 이 천국[왕국]은 예수님이 다시 땅으로 오셔서 나라를 세우시고 그가 그 나라의 왕이 되는 그때를 말함에 대한 사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때의 땅이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는, 미래에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땅에서 즐기며 산다고 하는 구절들을 모조리 뒤져서 밝혀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미래의 생활에 대하여 여러가지 모양으로 표현하셨는데 그 중에 하다못해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할 것 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에, 각 사람이 이 생에서 어떠한 일을 한 것에 따라서 직무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심판할 때, 두님께서 경건한 생활을 한 믿는 자들에게는 풍성한 보상을 주시나 한편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한 자들은 작은 보상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 책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땅에서 산다는 것을 대신해서 하늘로 올라가 하늘나라 어느곳에서 산다고 하는 믿음을 정통적 신념의 교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게 된 근거도 밝혀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 외에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천국[왕국]의 “길”이고 “문”이라는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투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이 소망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태풍의 유혹과 의심이 밀려올 때 믿음 안에서 강하게 서서 닦을 내린 다는 것이 매우 힘든 일 이다는 것입니다. 전통으로 내려온 희미하고 빛나가는 가르침 대신에 다시 또록, 또록 하게 볼 수 있는 미래의 생활에 대하여 성경으로 풍성하게 구성 시켜 놓은 것으로 바로잡는 것이 매우,

---

2. 성경에 “천국[왕국 또는 나라=Kingdom]” 을 말하는 구절들이 이 책에다 견본으로 내놓은 것들보다 더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어떠한 성서 책 [concordance] 이든지 성서 책이면 거기에서 “천국[왕국, 나라=Kingdom]”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 믿는 자의 장래 소망이 뚜렷하고 확실한 것을 알면 바위처럼 굳게 서서 죽을 때 까지든지 주님이 강림 하시는 날 까지든지 어느 것이 먼저 오든 간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피곤하지 않고 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뚜렷하게 바라보지 못하면 지침과 실망, 그리고 유혹에 넘어 감과 세상일의 근심에서 벗어날 가망이 거의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좀 더 신중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 책에 담겨 있는 지식이 더욱 더 중요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 1

## 뜻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다

### *설경 적으로 보는 “소망”*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을 정상으로 깨달으려면 ‘소망’이란 단어에 뜻을 정확하게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합니다. “소망”의 뜻은 하나의 소원 혹은 어떤 좋은 기대, 특히 그 일이 꼭 이루어 질 것을 장담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보통 영어와 성경에서 “소망”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또한 “소망”이란 단어를 다른 면에서 사용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되는데 그것은 장래에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좋은 기대를 간직해 놓은 것들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들림 받음,” 새 몸을 입는 것, 영광의 몸, 그리고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 보통 사용하는 “소망”은 소원한 것이 어쩌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가능성을 줍니다, 하지만 성경은 “소망”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가리켜 하셨고 “소망”이란 단어의 뜻이 어떠한 기회가 있으면 이루어지다 하기 보다 꼭 이루어진다 로 변합니다. 실용적인 뜻은 배를 완전하게 붙들어 줍니다.

성경적으로 “좋은 것을 기대하는” 면에서 나오는 “소망”의 뜻이 사도행전 27 장 20 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잡혀서 로마로 배에 실려 갈 때 이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량이 그대로 있을 때 구원의 **여망(소망, hope)**이 다 없어졌다.” 이와 같은 식으로 또 다른 건본이 요한 3 서 14 절에,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하기를 “속히 보기를 **바라 노니(소망, hope)**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매일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말, “이번 주에 비 오기를 바란다(소망, hope)” 혹은 “건강 회복되기를 바람(소망, hope)니다 하는 식으로 성경에서도 사용하는 건본들입니다. 그런데 영생과 거기에 따르는 축복에 대하여 사용한 단어 “**소망(hope)**”에 관한 뜻은 다르며 이러한 구절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 장 23 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들은바 복음의 소망에서” 등등과 같이 “장래에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을 복음으로 나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1. 사람의 폐하여진 마음 때문에 말의 뜻이 점점 기력을 잃은 것입니다. E. W. Bullinger – 불닝얼이란 분이 성서 학자였고 또 그리스어, 히브리어, 아람어, 라틴어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 문어가 능숙한 분이었습니다. 그 분이 언어를 공부하는 도중에 이 신기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의 책에서 말하기를 “폐하여진 사람의 마음으로 보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의 단어 가용이 이상하게 변경되는 것에 대한 절차는 ; 말이 항상 일정하게 한 방향으로 변하고; 항상 더 나쁘게 변경되다. 그리고 말 최고 상의 뜻을 나타내는 것은 한번도 찾아 볼 수 없다! 항상 그 뜻이 점점 떨어지기를 사람이 점점 부패하듯이 하는데 그가 부패하는 도중에 그가 사용하는 단어의 원 뜻도 끌어 내린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막다(prevent)”라는 말 그 뜻의 변함이 어데서 온 것을 아십니까? [불닝얼, Bullinger 분이 “막다(prevent)”라는 단어를 기록할 때 초대 영문으로는 이 단어를 어떤 면에서 사용했나 하면 “.....보다 먼저(precede), 먼저 앞서가다, 먼저 왔다 갔다”]인데 이 말이 변한 이유는 누가 앞서갈 때에 보통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였고, 요란을 일으켰고 많은 상처를 주었고 다른 사람에게 손상을 주었기 때문에; 이 말이 변해서 그 뜻이 낮아지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사과(apology)라는 말도 원래는 정당방위(defense)를 뜻했다. 재판소 피고 측에서 사과(즉 정당방위-defense)라는 말을 재 건설 한 것이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방위가 서투름으로써 이 말의 뜻이 겨우 실례의 뜻으로 표현하게 되었다. 영어에 비난 혹은 비난(censure)이라는 말이 단순히 판단(judgment)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는데 형편에 따라서 사정을 봐줄 수 있으나 대부분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하는 판단을 의미한 것인데 오늘날에는 이 단어가 단지 책망(blame)으로 사용된다. 원래 영어로 이야기(story)라는 말이 짧은 말로 역사(history)라는 말이었는데 하도 많은 역사와 이야기들이 [지어내고 꾸며 냈음으로], 진실이 아닌 것으로 뜻이 변한 것이다 간사(cunning)라는 말이 겨우 아는데 불과하다는 뜻인데 안다는 사람들이 보통 너무 많이 알거나 알고 있는 지식을 나쁜 목적으로 사용했음으로 현재 사용 하는 뜻으로 변경 됐다. 악당(villain)이란 말이 대 주택의 혹은 큰 농장 집의 종을 뜻한다. 그 집안에 선한 뜻이 있는 것을 종들이 잊어버림으로 뜻이 변경되었다.” E. W. 불닝얼(E. W. Bullinger) 이 쓴, 성경을 어떻게 즐기나 하는 책(Samuel Bagster and Sons. Ltd., London, 이라는 출판사에서 1970년에 다시 인쇄했음). 230 페이지, 소망의 워 뜻도 그 말의 시력이 떨어졌습니다. 이 뜻이 운이 좋으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되어있고 현대 영어의 “소망(hope)”이란 말을 사실은 소망이 이루어지는 가망이 없는 면을 더 많이 뜻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오늘 가게 가는 것은 하나에 소망이다.” 할 것 같으면 그날 가게 갈 수 있는 가를 의심하는 것을 표현 합니다.

“소망”의 단어 뜻이 변하여 보통 사용하는 영어 “바람(wish)”에 비슷한 말 뜻과 같이 사용하게 된 것이 참 유감스럽습니다. “이번 주 안에 비 오기를 바람(소망, hope)”을 성상으로 사용했을 것 같으면 그 주 안에 틀림없이 비가 온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뜻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그저 “이번주에 비 오기를 바람(wish)니다.” 라고 하는 말이 정상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만약 성경에서 미래에 있을 행사를 말할 때에 사영한 단어 “소망(hope)”의 뜻은 조금도 의심 없이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미래 영생의 기대에 대하여 사용한 “소망(hope)”의 뜻이 디도서 에 있습니다.

### **디도서 1:1,2**

- (1)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 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 (2)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위의 구절들이 우리의 기대인 영원한 생명에 관한 단어 “소망(hope)”에 대한 참 좋은 견본입니다, 이 점 에서는 그저 바라거나 소원 하는 것 보다 더 큰 뜻을 말합니다. 그 뜻은 미래에 닥쳐올 것들이 틀림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해 줍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미래 영생에 대한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그 약속들을 언제 이루실 지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일이지만 그가 꼭 그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 **영혼의 닻**

성경은 장래 내생의 천국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냥 즐기며 살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무척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 들이 괴로우나 즐거우나 마음을 가다듬어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계명을 복종하겠다고 각오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상으로나 경험, 이 둘을 놓고 봐도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각오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한때는 헌신적인 그리스도인 이었으나 기도를 그치고, 성경도 읽지 않고, 다른 그리스도인과 교제도 그만두는 등, 여러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으로 인하여 믿는 자들에게 소망의 닷이 되어 그 닷이 그들을 하나님께 튼튼히 매어 주게 됩니다. 히브리서 6 장 19 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라 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소망을 닷에 비하여 사용하신 말씀이 참으로 합당하고 독특한 말씀입니다. 닷은 배가 서서히 밀려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며 또한 태풍에 휩쓸려 버리지 않게 붙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목적의 소망을 닷으로 비유하신 것이 가장 적합한 말씀입니다. 언제 고 그리스도인에게 뚜렷한 소망이 있고 또한 주님께서 수고하고 노력한 자들에게 특별히 보상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는 자기가 각오한 것에서 떠나”다른 곳으로 흘러가서” 세상이 권고하는 풍성한 유혹과 죄스러운 사욕의 쾌락에 빠져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또 그가 풍파를 당할 때 하나님으로 부터 휩쓸려 떠나가 버리지 않게 붙들어 줍니다.

소망을 닷으로 비유했기 때문에 닷이 초대 그리스도인의 표상 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부활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소망한 것을 표상하는데-에 사용했습니다, 팜페이(Pompeii), 즉 로마 도시가 주 후 97 년에 배서비어스(Vesuvius) 산에 화산이 터져 분화로 묻힌 것을 파냈는데 거기서 아름다운 닷 그림을 새겼고 그리스 말 엘피스(elpis), 즉 “소망”이라고 새겨진 반지를 발견 했습니다. 어떤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묘지에는 닷을 돌에다 새겨서 묘지 옆에다 두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표상은 십자가로 통하고 있지만 전에는 십자가가 그리스도인을 외경[우러러보다]하는 보증이 도무지 없었고 로마 제국 후에서 야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십자가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가 심히 증오하는 고문의 기구였기 때문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존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맨 처음으로 십자가에 흥미를 끌기 시작 것이 로마 제왕의 모친 왕비 헬렌나 (Queen Helena)가 주 후 326 년에 이스라엘로 여행을 가서 “참 십자가”를 발견한 후 때에 서 시작하였습니다. 그 때 전까지는 초대 그리스도인 들이 닷을 그들의 부활의 소망과 영원히 계속하는 훌륭한 미래를 포상해서 사용했습니다.

- 
2. E. M. Blaiklock(블랙락크) 그리고 R. K. Harrison (R. K. 헤어리산) 이 덧붙이기를 성경 고고학의 국제적인 사전 (International Dictionary of Biblical Archaeology) 페이지 28. (이 사전이 Regency Reference Library , Grand Rapids, Mt. 1983).
  3. 초대 그리스도인의 묘지는 공동묘지 에다 비석을 세운 것 같지 않고 그 묘지가 굴 혹은 지하 묘지(catacombs)인데 그 묘지를 큰 바위를 뚫어서 냈다. 그리고 그 묘지의 바위 옆쪽에 다가 닷을 새겨 놓은 것을 종종 볼 수가 있다.
  4. 블랙크 (Blaikock) 와 헤어리산 (Harrison). 성경 고고학 사전 (op. cit., Dictionary of Biblical Archaeology) P. 141

## 심리학적으로 소망의 가치

적[하나님의 적]이 소망에 대한 화재 거리를 결단적인 조력으로 침범해온 그 이유는 이것이 사람들을 경건하고 진실한 데다가 매어주는 닻으로서 가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정확하게 알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힘과 정력을 줌으로 괴로움이든지 쾌락이든지 잘 참고 견딜 수 있게 해 주는 역할을 이 이상 더 좋게 해주는 다른 방법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절망에 빠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적을 대항하지 못합니다. 소망 없는 사람은 기권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정력과 자극을 받아서 허구한날 주님의 일을 하며 마귀와 사람들이 주는 고난을 참고 이기려면 현실적인 소망이 앞에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도중에 힘과 정력을 주는 소망의 가치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배고픈 가족에게 십분 만 더 기다리면 저녁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의 반응과 저녁을 먹게 될지 먹지 않게 될지 모은다는 데의 반응이 전혀 다를 것입니다. 십분 만 기다리면 저녁을 먹을 수 있다 하는 소망이 배고픈 가족에게 좀 더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소망을 가지는 것이 의학 세계에서 매우 중대합니다. 현대 의약품은 소망의 치료하는 가치를 깨닫는 이유가 소망에 찬 사람들이 힘과 견딜성이 더 많게 하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병든 아이에게 말하기를, 약이 그를 “속히” 낫게 할 것이라고 말함은 그 아이로서 고통을 견디는데 건설적인 태도를 주는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확실히 보이는 소망을 앞에 두는 것이 우동 선수 경기 실항 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힘살이 지칠 대로 지친 달리는 선수나 수영 선수에게 큰 소리로 “이번이 마지막 이다”라고 소리 질러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어떤 코치 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한번만 돌면 마지막이다! 라는 말을 선수들이 듣는 순간 모든 힘을 다 모아서 끝까지 밀고 갈 힘을 얻게 됩니다. 달음질 선수나, 스키 선수나, 스케이트 선수나, 보-트 경주 선수나 어떤 선수 라도 마지막 끝나는 선을 보는 순간 간신히 지탱하고 있던 힘살이 생기를 얻게 되며 과외로 힘이

---

5. 물고기도 포대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한 표상이었으나 그것은 소망을 의미하지 안 했습니다. 이 물고기 표도 오늘날엔 원 뜻이 감추어 졌으며 또한 신약 성경에서 닻을 말하는 것처럼 상징하지 않습니다. 원래 물고기 그림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로 보증된 이유는 그리스어 *ichthus*, 가 “물고기,” 인데 그 말 첫마디를 그리스어 글로 쓰자면 “Jesus Christ God’s Son, Savior-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되기 때문입니다. 이 뜻에 대한 증족을 밝히는 책들이: Leland Ryken, James C. Wilhoit 그리고 Tremper Longman 111. 덧붙여, Dictionary of Biblical imagery (intervarsity Press, Downers Grove, 11. 1998). 페이지 290-91: F.L. Cross 그리고 E. A. Livingstone, 덧붙여, The Oxford Dictionary of Christian Church (Oxford University Press, New Uork.1974), 페이지 514.

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경주가 끝난다 하는 희망이 몸에 난데없는 힘이 나게 해 줍니다. 사람이 소망이 있음으로 계획한 일에 뜻을 내려주므로 시행하는 일에 원기와 힘을 준다는 것에 질문 할 필요도 없습니다.

소망이 원기와 힘을 주는 동시에 그와 반대로 소망이 없으면 힘을 빼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망 없이 막연한 느낌은 파괴입니다. 사람이 소망이 없고 좋은 것을 기대함이 없으면 우울증과 절망감에 빠지고 하다못해 자살할 상태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므로 영향 받는 것들이 잘 알려진 증명 서류로 밝히고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슬픔이 영생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과 똑같지 않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편지로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 하시리니” 모든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일으켜 살린다는 참 소망을 가지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데살로니가전서 4:13)” 한다는 것을 바울은 참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일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번번히 경제 문제와 고맙게 여겨주지 않는 점, 흔히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끊임없는 시간을 드려 일할 때가 많습니다. 그보다도 그리스도인들 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기때문에 투기와 질투, 권세 씨름, 의심, 사사로운 이익의 목적, 편당을 짓는 것, 사람을 돌려놓고 찍어서 말하는 것, 그리고 다른 여러가지 원하고 싶지 않는 것들, 원칙은 이렇지 안 해야 되지만 이러한 환경에서 일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누가 왜 더구나 봉사 일로 번번이 수고하고 싶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한가지 답변은 사람들이 맨 처음엔 매우 관념이 있어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관념론은 흔히 “현실” 세계에서 끈기가 없습니다. 확실히 보이는 소망이 없이는 유지해 나가기 힘들며 결국은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확실한 소망이 있으면, 사람에게 원기와 힘을 주므로 유지해 나갑니다. 누가 어떠한 학대를 받거나 자기가 수고하는 일에 아무런 고마움을 받지 않을 지라도 주님의 심판 때에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깨달으면 이 모든 것을 참고 해결해 나 갈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점에 대하여 꼭 짚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 **고린도전서 15:58**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

불행하게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수고가 주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 함을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구원이 “시작이고 끝”인 것으로 배웠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이생에서 주님을 위하여 수고한 것을 장래에 보상 받는 것이 하나에 소망이며 이것이 그들의 수고하는 일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지 못했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주의를 둘러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 수고가 매우 적으며 그들은 대부분 원기와 힘을 잃고 실망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람들이 진실로 그들의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고 확실히 알면 그들에게 수고할 힘을 줄 것입니다. 올바르게 확실하게 교육받은 소망이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힘과 기분을 돋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이 이점에 대하여 아주 강한 침범을 해 왔습니다. 이 침범한 때를 밝혀보면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보다도 소망에 대한 성경 구절들이 명백히 나타납니다. 그럼으로 이 책의 목적은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안내 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실한 소망의 지식이 있어서 그 지식의 소유로 혜택을 받게 하며, 진실로, 소망은 경건한 생활을 유지하는 영혼의 닻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2

## 이스라엘의 소망

이 과목에서 역사적으로 내려온 이스라엘 나라의 의로운 자들을 죽음에서 일으켜서 다시 창조한 아름다운 땅에서 산다는 것에 대한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써 이 소망에 대한 것을 알아야 하는 여러가지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기초 지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하면 성경에 있는 수많은 구절들을 확실히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남아 있게 됩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메시아 곧 예수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그리스도 인들도 그곳에서 그와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둘 다 이스라엘의 소망인 땅과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을 밝혀줍니다. 에베소에서 그리스도 안에

---

1. “이스라엘 소망” 이라고 기준 해 놓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시 회복시킨 땅에서 영원히 살수 있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이라고 바꾸기 전에는 “이스라엘” 이 없었으며 (창세기 32:28) 그 후에도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역사상으로 구약성서 반 이상 세월 동안엔 “이스라엘이 없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다른 여러 사람들이 물론 “믿는 자들”이었지만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모두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이스라엘이 나라로 된 후에도 이방인 조차도 의로운 생활을 한 사람은 그들이 이스라엘 족속 측에 들지 안 했어도 주 하나님께서 그 그들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역사상으로 야곱 때까지 구약성경 반이 넘었다고 하는 것이 이상한 것 같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보수적인 학사들이 구약성경에 주어진 역사들을 공부한 결과가 맨 처음 아담을 창조한 때부터 그리스도 때 까지 4,000 년이고 야곱 이 약 그리스도 전 1,800 년으로 인정 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비숍 유셀(Bishop Ussher) 이라는 분이 많은 것을 옛날 킹제 임스(King James) 성경에 역사상 공부한 날짜가 아담이 그리스도 때까지 4004 년이라고 계산해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분들 것도 읽어 보세요: Martin Anstey, *Chronology of the Old Testament* (Kregel Publication, Grand Rapids, MI, 1973), pp. 8,149; E. W. Bullinger, *The Companion Bible* (Zondervan Bible Publishers, Grand Rapids, MI, reprinted 1964), Appendix 50; Ivan Panin, *Bible Chronology* (The Association of Covenant People, Vancouver, BC) p. 143 H.B. Hackett, ed., *Smith's Dictionary of the Bible* (Bake Book House, Grand Rapids, MI, reprinted 1981), Vol. 1, pp. 432-51. 우리 국제 신령과 진정으로 교제 (Spirit and Truth Fellowship International)에서 출판해 내는 구약성경 역사 계산은 아담을 창조한 때부터 그리스도 전까지 약 3961 년이고 야곱이 태어난 때부터 그리스도 전까지 약 1794 년 내지 1793 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후사”가 된다는 것을 지도합니다(에베소서 3:6).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땅에서 통치하실 것이며 또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 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땅에서 그와 함께 할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 **다시 창조한 땅에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생활**

이스라엘의 소망을 구약에서 매우 풍성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서 다시 회복시킨 땅, 정의와 평화가 가득한 훌륭한 땅, 그 곳에서 살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엔 병들어 아픈 자나 굶주림이 없고, 하다못해 사자들도 양들과 평화로이 함께 거할 것입니다. 비록 성경에 그와 똑같은 말씀이 없지만 전통으로 내려온 화가의 그림에 “사자와 양”이 같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실은 “이리가 어린양과 함께 거하며”라고 했으며 “이리가 어린양과 함께 먹는 것을 말하며”(이사야 65:25)라고 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것이 무엇을 뚜렷하게 가리키느냐 하면 이리, 양, 표범, 염소, 송아지, 그리고 사자가 모두 함께 먹는 것을 말하며 또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라고 합니다. 그럼으로 사자와 양이 함께 먹고 그와 함께 눕는 다는 것을 마음에 상상한 그림이, 비록 성경에 이와 똑같은 구절은 없지만 맞는 그림입니다.

“산상 설교”에 그리스도께서 모인 무리들에게 다시 회복 시킨 땅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맨 첫 번에 하신 말씀들 중 한 마디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라고 하셨습니다(마태복음 5:5)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게 뜻하신 것이었으며 새로운 교훈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구약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주님께서 재 강조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은 없애 버리되 의인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 **시편 37:9-11**

- (9)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 (10)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 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 (11)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 **이사야 57:13 끝 대목**

나(여호와)를 의뢰(피신처)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에스겔 37:12**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저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

게 하리라.

### 요한계시록 5:9, 10

(9)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 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리라.

위의 구절들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소리를 수도 없이 많이 한 구절들 중에서 건본으로 몇 구절만 뽑아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하늘이” 아니었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해를 거쳐서 정도를 벗어난 신학적 가르침으로 인하여 결국은 구원 받고 죽은 자들의 갈 곳을 “땅” 대신 “하늘나라”로 변경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말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가르치지 안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결국이 “하늘나라”라고 한 것을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믿기 시작 했는가를 제 7 과목에서 설명해 드리겠으며 우선 지금은 사람의 결국이 땅이라고 한 명백한 구절들을 집중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

2.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구절은 이스라엘 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구절이 그리스도교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E. W. Bullinger (E.W.볼닝얼)분이 쓴 요한계시록 설명서(Kregel Publication, Grand Rapids, MI. 1984) 페이지 3 을 보십시오.

3. 땅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모로 말합니다. 어떤 것은 시편 37:9, 11 절과 29 절에서처럼 땅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합니다. 또 다른 것들은 시편에서 울부짖어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있지 못하게 하실 지로다” 했듯이 (시 편 104:35). 진정 이렇게 될 것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는 악한 권세들 에게 꼭 잡혔던 땅이 그들의 손에서 풀릴 것이며 영원한 왕국에서는 그들이 모두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구절은 장래 땅에 대한 특질들을 말하는데 즉 야세아 41:18 절과같이 “다산(벌거벗은 산)에 강을 열며 골짜기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사막)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라고 합니다.그 꿈에 모든 다른 왕국들을 다 친 물이 채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 하였나니”(다니엘 2:35)라고 했듯이 합니다. 미래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아래 앉으며 (이 말은 자기가 수고한 것을 안전하게 즐긴다는 뜻임) 그 칼을 쳐서 보습( 땅을 이루는 기구)을 만든다고 예언합니다(미가 4:3, 4). 이 모든 것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예언들이지 “하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엔 “하늘에서 사는”것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상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하신 약속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이라고 흔히 부르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3:15**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창세기 15:18**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 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창세기 17:8**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거(타향 생활)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생존에 이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순교자 스테반이 이것을 공회 곧 유대인의 장로회에게 뚜렷하게 설명 했습니다. 그의 말이:

**사도행전 7:4, 5**

(4) 아브라함이 갈대이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으매 하나님이 그를 너희 시방(지금)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5) 그러나 밭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 약속한 땅을 실상 한 번도 차지해 보지 못했고 이스라엘 역시도 약속한 땅을 모조리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기를 그 땅 거민들을 다 몰아내고 땅을 완전히 점령하라고 했지만 그곳 얼마 정도만 점령했지 완전히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1:8**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 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찌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해 보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1 장 19-36 절에서 이스라엘이 땅을 다 점령하지 못한 이 사실을 밝혀 줍니다. 이 땅을 거의 다 점령할 만한 때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세대였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용량을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디도서 1 장 2 절에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약속하신 것이 결코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기 때문에 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려면 오직 *부활한 후에야 되겠습니다.*

### **무덤에서 나와서 땅으로 들어가다**

이스라엘이 부활한 후에 땅을 받는 사실이 성경 구절로 명백하게 환상을 그려 놓았습니다. 에스겔에 무덤을 열고 이스라엘의 믿은 자들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을 뚜렷하게 형용해 놓았습니다.

#### **에스겔 37:12-14**

(12)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내 백성들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3) 내 백성들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라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 구절들이 뚜렷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을 열고 그들을 그들의 땅으로 다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첫 생에서는 상속을 받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온전히 받을 것입니다. 무덤을 열고 사람들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을 주목하여 관심을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외국에서 죽은 이스라엘

---

4.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순서 차례가 이릅니다. 먼저 주의 강림, 그 다음은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다른 관경을 이 책 뒷면에 덧붙여 놓은 부록-Appendix A. 에 짧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안에서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먼저 그들이 묻힌 곳에서 부활 시켜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 점을 명심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른 약속을 하시는 것에 대하여서도 이해 하기가 쉽게 하기 때문 입니다. 이 과목에서 이점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지파로 분배 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한 후에 각각 지파 대로 땅을 분배 시켜 줍니다.

### **에스겔 47:13, 14**

(13)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 지계 대로 이스라엘 십이 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분깃(묵)이니라.

(14) 내가 옛적에 맹세하여 이 땅으로 너희 열조에게 주마 하였었 나니 너희는 피차없이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구절이 땅을 “열두 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에 요셉에게는 “두 분깃(묵)”이라는 내용을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지 못한 분들은 약간 헛갈릴지 모릅니다. 요셉에게 두 분깃을 주라는 것은 요셉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이스라엘 지파 곧 르우벤, 시므온, 단 등등 과 같이 지파에 가입하 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점령할 때에 그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 다 지파의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천년 왕국에서도 그렇게 될 것을 의미 합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예언한 그 무렵에 와서는 (약 590-570 년 그리스도 탄생 전) 이스라엘 지파가 북쪽으로는 “이스라엘”로 남쪽으로는 “유다”로 해서 두 왕국으로 갈라졌었고 이스라엘은 본국에서 뿔뿔히 다른 데로 사로 잡혀 갔을 때 이었습니다. 그때에 앗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후 본토 사람을 옮겨 다른 여러 나라 에다 흩어 놓았었습니다. 그후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을 데려가 이스라엘 땅에다 까라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땅 을 기업으로

---

5. **이 책** 여기에서 처음으로 천년 왕국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 점을 예 4 과목에서 자세히 설명 해 놓았습니다.

6. “이스라엘” 과 “유다” 라고 부르는 이름이 혼동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성서 학생으로써 이점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 열두 지파(하나로 뭉친 왕국)가 두 왕국으로 갈라졌습니다. 열 지파 가 뭉쳐서 북쪽에 자리 잡은 것이 “이스라엘” 이라고 불렀습니다. 남쪽으로는 두 지파가 뭉쳐서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왕국이 둘로 되기 전

에는 모든 지파를 다 합쳐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었지만 왕국이 한번 갈라지고 난 후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

주신다고 “열두 지파” 에게 약속하심 것이 이루어지려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시 한 왕국으로 합쳐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을 선지자 에스겔 때에는 이루기가 불가능 했지만 그들의 부활 후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각 지파의 의로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 나라로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땅에서 자리잡을 것입니다. 에스겔 에서도 몇 과목을 거쳐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 온다고 한 말을 기록 했습니다. 에스겔 11 장 15 절에서 온 이스라엘 족속에 대하여 말하며 더 읽어보면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가를 말합니다.

### 에스겔 11:15-20

(15) 인자야 예루살렘 거민아 너희 형제 곧 너의 형제와 친속과 온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니라 하였나니

(16)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내가 잠간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17)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

대부분 북쪽으로 자리 잡는 왕국을 말합니다 “유다”는 왕국이 갈라지기 전에는 한 지파의 이름이었는데 나중에는 남쪽에 자리 잡은 왕국의 이름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더 헛갈리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왕국이 갈라지고 난 후에도 어떤 때는 모든 지파를 다 합쳐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또 “유다” 역시도 어떤 때는 유다의 한 지파로 의미해서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과 “유다”에 대하여 어떠한 면을 의미하는가를 알려면 읽을 때에 항상 연결되는 줄거리를 따라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더 공부할 수 있는 책: Bromiley, op. Bible Encyclopedia, Vol. 2. vpdllw 907-8 1143-48 를 찾아보십시오.

(18)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은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찌라

(19)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20)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떤 신학자들은 이 구절들이 유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를 가리킨다고 말하지만 그러할 수가 없는 이유가 몇가지 있습니다. “유다”가 (15 절)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닙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19 절)에서 말하는 “일치한 마음”이 없었고 또한 “새 신을” 주지도 안 했습니다. 그것은 고사하고 (20 절)에서 말하는 규례를 “지켜” 행하지도 안 했던 것은 물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에 있는 이 구절들은 부활 후에 온 열두 지파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에 대하여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올 때엔 일치된 마음과 그 속에 새 신을 가지고 와서 규례를 지켜 행함으로 주님을 복종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본토로 돌아온다는 예언이 구약에 에스겔 외에 다른 데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 **예레미야 3:18**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을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 한다는 장래의 일을 아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한 일종의 풍습으로 함께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아모스 3 장 3 절에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 야 어찌 동행 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동행한다는 말이 유대인들이 또 다시 갈라지지 않는 나라에서 즐긴다는 아름다운 환상을 그려 줍니다. 이것이 특히 뜻 깊은 이유는 역사에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참으로 “동행” 하여 본 것을 앗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잡아가기 전에도 한번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정치 때 여로보암이 10 지파를 뭉친 이스라엘 왕국에서 찢어서 북쪽으로 자리 잡았을 때 선지자가 말려서 화평을 권고 하지 안 했더라면 르호보암이 전쟁을 일으킬 뻔 했습니다(역대하 11:2-4). 그러나 그 화평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 때에 끝났습니다(역대

하 13:2).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 사이에 서로 다른 점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지탱한 기간을 많이 잡아서 약 220 년 동안에 전투 행위로 항상 싸움이 계속되었고 그동안에 화평한 때는 각각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몇 번 밖에 없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예언에, 부활 후에,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합하여 같이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함께 이스라엘 땅에 이르리라고 했습니다. “북에서부터 나와서”라는 말은 특별히 장치해 놓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북쪽에 있는 나라로 사로 잡혀 갔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앗수르에로 사로 잡혀갔고 유다는 바벨 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러므로 그 북쪽에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묘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비록 지금은 죽어 있지만 부활 때엔 모두 살아나서 북쪽에 서부터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사야 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토로 돌아온다는 것을 예언 했습니다. 이사야 는 말하기를 열방(이방 이스라엘 밖에)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러 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로 바친다고 했습니다:

#### **이사야 66:18-20**

(18) 내가 그들의 소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조를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19)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서 그들 중 도피한 자를 열방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룯과 밧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포하리라.

(20)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에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 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장래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로 모은다는 구절들이 여기에 내놓은 구절들 외에도 무척이나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몇 구절들을 더 드립니다. 이사야 11:10, 16; 예레미야 23:3-8; 31:8-11; 33:7; 에스겔 28:25; 37:15-28, 또 호세아 1:10, 11. 믿은 자들이 부활하여 땅을 다시 차지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엔 시편에서 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 회복시킨다는 예언들

사람의 영원히 살 곳이 땅이라고 믿을 수 있는 또 한가지 이유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살 곳에 대한 모든 예언들이 특별히 땅으로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이 구절들을 아래에 기록합니다:

- 이리가 어린양과 함께 거하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사야 11:6-9; 65:25).
-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 할 것이며 (이사야 32:15; 35:1, 2, 7; 51:3).
- 이스라엘이 땅에서 영광을 나타낼 것임 (이사야 60 장 전체).
- 이스라엘 나라를 열두 지파로 나누어 줌 (에스겔 47:13-48:29).
- 메시아 즉 이스라엘의 왕에게 따로 거룩한 구역을 줌 (에스겔 45:7; 48:21, 22).
- 예루살렘에 새 성전을 짐 (에스겔 40 장부터 44 장 까지) 성전에서 강물이 흘러 나와 땅을 치료함으로 이 물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아남 (에스겔 47:8-10).
-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 (이사야 2:1-3; 미가 4:1, 2).
-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음 (이사야 32:18).
-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가 나무 아래 앉음 (미가 4:4)

열방 나라들을 여러 군데에 연결시켜서 말합니다.

- 그들을 다스림 (시편 2:9; 다니엘 7:27; 요한계시록 2:27).
- 그들이 예배 드리려고 옴 (스가랴 8:20-23).
- 무너진 여러 나라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행복: 애굽 (이사야 19:18-25; 예레미야 48:47); 암몬 (예레미야 49:6); 엘람 (예레미야 49:39) 이 나라들이 한때는 이 지구에 있었으며 또한 그 나라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땅이 회복되고 나라들이 회복되며 그리고 특히 이리와 사자가 집 짐승들과 같이 놀 것이라는 예언들을 읽고는, 어느 누가 어떻게 해서, 이 모든 것이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예언들이 땅에서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때엔 이 땅이 창세기에서 받은 저주에서 풀리고 치료를 받아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에덴동산처럼 자기가 항상 원하신 그대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땅이 밟은 자들의 처소가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영원히 살 처소가 됩니다. 흔히 듣기로는 믿은 자들의 영원한 처소가 하늘나라라고 하는 가르침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는 사람이 하늘에서 어떻게 산다고 하는 구절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믿은 자의 영원한 처소가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 같은 잘못 깨달은 구절들이 있는 것들을 이 책 뒷면에 있는 부록-Appendix B.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들이 실상은 믿은 자들의 영원한 처소가 하늘이라고 하지 안 했습니다. 아래에 내 노은 구절을 보세요, 아주 명백하고 단순하며 정확하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 **시편 37:29**

의인이 땅을 차지함이며 거기 영영히 거하리로다.

---

7. 이 나라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똑같은 이름으로 부를 것인지 아닌지는 확실한 설명이 없으므로 알 수 없습니다.  
8. 여기에 무슨 사소한 트집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이 무슨 튼튼한 발 밟을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해 두실 점은 실상 그렇게 말해주는 구절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로 그곳에서 걸어 다닐지라도 “구멍이 나서” 땅으로 떨어지지 않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예술의 그림에도 역시 사람들이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3

## 그리스도의 소망

이 화목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믿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땅에서 영원히 거한다는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천년왕국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땅으로 내려와서 있다가 영원한 왕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과 같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아 거기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잠시 있다가 다시 그와 같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

1. 그리스도인들은 (사도행전 2 장) 에서 말하는 오순절 때에 서 부터 (데살로니가전서 4:17) 에서 말하는 “들림” 받을 때까지 (로마서 10:9, 10) 에서 말하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었으므로 “거듭난”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 책 뒷면에 있는 부록-Appendix C.에 있습니다.

2. 이스라엘과 그리스도 교회가 다른 점에 대한 설명을 이 책 뒷면에 있는 부록-Appendix C. 를 보세요.

## **들림 받음 과 칠년 동안 하늘에서 이스라엘과 그리스도 교회 사이에 큰 구별이 있음.**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의 교가, 각별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성경을 신중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에게 각각 다른 태성이 있고 다른 약속이 있고 또한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교회로 “변한” 것이라는 가르침이 가끔 있지만 이러한 가르침은 불행하게도 성경을 잘못 분별한 것입니다. 구약성경 시대에 구원 받은 자들과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다른 점들 중에서 가장 크게 구별된 점은 구원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것에 대한 예언이나 혹은 그것에 대한 구절들이 구약에 하나도 없습니다. 에스겔 에서 뚜렷하게 기록했듯이 구약성경 때 구원받은 자들은 살아나서 직접 땅 즉 그리스도께서 땅에다 세우실 왕국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31-46 을 보면 환란과 아마겟돈(Armageddon)을 치루고 난 이스라엘의 의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께서 땅에 강림하셔서 그들을 다 모아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의롭게 판단 받은 사람들은 즉시로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죽은 의인들도 부활해가지고 아마겟돈 난리를 치루고 살아남아 의인으로 판단 받은 사람들과 같이 직접 왕국에 들어갑니다.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들이나 의롭게 판단 받은 산 사람들 양편 간에 아무도 공중으로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

1. 그리스도인들은 (사도행전 2 장) 에서 말하는 오순절 때에 서부터 (데살로니가전서 4:17)에서 말하는 “들림” 받을 때까지 (로마서 10:9, 10)에서 말하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 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었으므로 “거듭난”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 책 뒷면에 있는 부록-Appendix C.에 있습니다.

2. 이스라엘과 그리스도 교회가 다른 점에 대한 것들을 더 세밀하게 알고 싶으면 이 책 뒷면 부록 Appendix C. 를 보시오

3. 이 외의 들림 받는 단 하나인 기록이 요한계시록 11:2-12 절에 있는 두 증인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들림 받듯이 부활하여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그리스도인들과 이 두 사람 사이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들림은 순식 간에 (고린도 전서 15:52) 변화하며 그리고 그저 아무도 모르게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 두 증인은 그들을 살인한 자들이 두려움으로 구경하는 도중에 하늘로 올라갑니다.

4. Arnold Fruchtenbaum (알노 후천버웁) 분이 쓴 책 제목 *In the footsteps of the Messiah- 메시아의 발 자취 안에* 주소:(Ariel Ministries Press, Tustin, CA, 1982) 페이지 121. Paul Lee Tan (포 리 텐)분이 쓴 책 제목: *A pictorial Guide to Bible Prophecy- 그림 으로 인도한 성경 예언* 주소: (Bible communications Inc.. Garland, TX, 1991. 페이지: 77-82

5. 우리 성경 교육사는 재난(환난)의 세대가 오기 전에 들림 받는 것으로 믿으며 또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는 어떤 사람은 재난(환난) 중간에 들림, 재난(환난)전 들림, 혹은 재난(환난) 후의 들림을 믿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은 공중으로 들림 받고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아니라고 다루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아시고 싶으시면 “큰 재난 전에 들림 받는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23 가지 이유”라는 책,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라는 오디오(audio) seminar-세미나가 (둘 다 Spirit & Truth Fellowship International Martinsvill, IN. U.S.A.) 에서 내 놓은 것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비교해서 데살로니가전서 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구름 속으로 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했습니다.

#### **데살로니가전서 4:16,17**

(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 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 그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하는 말을 “재림” 혹은 “들림 받음(The Rapture)” 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공중 혹은 “하늘나라”에 사는 줄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 구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밝게 말하기를 주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적 증거는 그리스도인들도 결국은 땅으로 내려와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영원히 땅에서 살 것입니다. 구원 받은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 교회의 공통 운명: 이 땅 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땅으로 내려 오기 전에 재난의 세대가 끝날 때까지 잠시 “하늘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과는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살리고(만일 죽었으면) 혹은 변화 받아(만일 살았으면) 그리고 모두 함께 환란이 끝날 때 까지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에 있을 것입니다. 그 환란이 들림-Rapture 받은 후에 시작해서 7년 동안 계속 하고 그리고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납니다.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셔서 죽은 그리스도인들과 산 그리스도인들을 땅에서 환란이 있을 동안에 들림(들어올림)을 받습니다.

---

6. 리스도의 오신다는 데에 대하여 성경에서 사용한 단어들이 아주 혼동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심”에 대한 단어를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게 오신다는 데에 관한 말과 그리스도교회에 게로 오신다는 데에 영어로는 똑같은 단어”오심 (coming)” 으로 되어 있으며 (마태복음 24:27 과 데살로니가전서 4:15) [한글 성경 마태복음엔 “오심” 이라고 했고 데살로니가전서 에는 “강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 관련된 동시에 데살로니가후서 2:1 절은 그리스도인에게 관련됩니다). 성경에서 보통, 장면이 다른데 애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이 어디에 연결되나 하는 것을 잘 분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 들이 어떤 말을 어느 데에 쓰느냐 하는

것을 동의하면 잘못 분간할 가능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이 책에서는 “들림 혹은 재림(Rapture)” 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인들을 모으는 데에 쓸 것이며 “두 번째 오심”은 그리스도께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을 마치고 자기의 왕국을 통치하는 데에 쓰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장면이 세대에 따라 다른 관경을 옹계 분간할 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의 맨 처음 오셨 음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지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 셴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재림 때를 종종 성경에서 그의 “나타나심,” 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때엔 그리스도께서 발을 땅에다 딛지 않습니다. 그때엔 단지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오셔서 공중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며 이것이 첫 번 오실 예언입니다. 둘째 오실 예언은 그리스도께서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오십니다. 그가 백마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셔서(요 한계시록 19:11 끝), 그의 통치를 세울 것이며 열국을 그에게로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을 것입니다. 스가랴 14:4 에서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란 산에 서실 것이라고 기록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의 발이 땅에 서실 것을 많은 구절 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 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앓은뱅이로 40 년이 넘는 사람을 낫게 한 다음 유대 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그들을 둘러 쌓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느 날 다시 땅 으로 오셔서 회복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둘러싼 유대인 무 리가 메시아 승천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배운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승 천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구약성경 선지자들의 예언 대로 메시아가 오시면 땅을 회복시키는 줄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 아라고 믿지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죽은 다음에 하늘로 올라갔다가 땅으로 내려오 신다는 것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만약 예수님이 메시아일 것 같으면, 왜 구 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땅을 회복시키지 안 했는가?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 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 주실 것이지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고”(사도행전 3:21) 확실하게 해 주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서 다시 오실 때가 있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 이상에 베드로가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고”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오실 때는 이미 들림 받아 공중에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 장 17 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주와 함께” 하늘에서 있다가 함께 땅으로 내려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그 매우 중요한 점을 깨닫고 난 후 엔 자주 들리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때 구원받은 자 곧 롯과 에스터 같

은 사람을 언제 살릴 것인지 흔히 들리는 대화를 들어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들림 받을 때 살아날지 혹은 의인의 부활 때 곧 들림 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두 번째 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을 끝낸 후를 말하는데 그때를 가리키는 것인지 하는 대화가 많습니다. 먼저 과목에서 설명 했지만, 거기에 내놓은 구절들 모두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무덤에서 나와서 땅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들림 받아서 그리스도교회 인들과 공중에서 함께 한다는 말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들림 받을 때에 일어나지 않고 첫 부활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들의 무덤이 열릴 것이고 그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 **이스라엘은 (환희) 들림 받지 않는다.**

들림 받음 즉 재림은 에베소서 3 장 2 절에서 말하는 은혜의 경륜(세대) 의 “비밀”, 쉽게 말해서 “감추어진” 것들 중에 한 장면을 말합니다. 이것은 일곱 교문에 속한 한 부분을 계시로 알려진 것이며 구약성경이나 4 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책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이스라엘은 들림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교회 만 들림 받지 이스라엘은 받지 않는다는 것에 혼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동된 이유는 많은 그리스도 교사들이 마태복음 24:37-41 절과 누가 복음 17:26-35 절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관한 것이지 그리스도인 에게 관하지 않는 것을 깨닫지 못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대목 구절 들을 가지고 들림 받는 것에 관한 줄로 믿지만,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 장과 누가복음 17 장

7. 유대인들이 그들의 메시아를 어떠한다고 믿은 믿음에 대한 것을 읽어볼 책: Graeser (그레이설), Lynn (렌), Shoenheit (셴하이트) 분들이 쓴 *One God & One Lord – 하나님도 하나 주도 하나* 를 (Spirit & Truth Fellowship International, Martinsville, IN 2000), Chapter 5, *The Messiah the Jews Expected*, pp. 99-132

8. 어떤 성경 해설자는 데살로니가전서 4 전 16 절에서 “그리스도안에서 죽은 자” 들이 구약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바라고 죽은 자들과 포함 된 줄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문단이 단지 그리스도인들의 교문에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인들 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 안”이라고 기록한 뜻은 에베소서 1 장 23 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이고 구약에서 믿은 자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부록- Appendix C.를 읽어보세요.

9. 비밀의 경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부록-Appendix C. 읽어보세요.

10.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특별히 그리스도교회 에다가 기록한 것이 바로 일곱 교회다 쓴 편지인데 이것을 널리 알려진 신학자들의 말에 “Church Epistles-교의 편지들” 이라고 부릅니다. 실은 이 일곱 편지가 (곧 로마서에서 부터 데살로니가서 까지를 말합니다.) 특히 그리스도교회인 들에게 중요하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자주 배우지 않고 있지만,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Graeser -그레이설, Lynn-렌, Shoenheit-셴하이트 이 세분이 쓴 책 *One God & One Lord-하나님도 하나 주도 하나* 라고 하는 책 부록-Appendix J.에 짧은 줄거리가 있지만 좀 더 풍성하게 알고 싶으면 E. W.

을 들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믿음에 불행한 결과는 독특히 다르게 오순절 날로 시작해서 들림 받음으로 갑자기 끝난다는 그리스도 교인들의 특별한 점을 무너뜨립니다. 들림 받음은 “비밀” 세대의 한 부분이며 하나님 안에 감추어 졌다가 바울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3 장). 이것이 거문외에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 기록을 알려면 두 기록 다 알아야 하는데 여기는 단지 마태가 설명한 것뿐입니다.

### **마태복음 24:37-41**

(37)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40)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 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 둬를 당할 것이요

(41) 두 여자가 맷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 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 둬를 당할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이 대목 구절들이 들림 받음에 대하여 말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에 전후를 연결시키면 이 말씀이 예수님 두번째 오심을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오셔서 땅을 판단한다고 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4 장 39 절에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비유로 얼마큼 말씀하신 후에 마태복음 25:31-33 에서 자기가 와서 무엇을 할 것에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들림 받을 때 속한 것들이 아닙니다. 들림 받을 때엔 교인들이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 합니다(데살로니가전서 4:17). 이 때에는 그가 절대로 땅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때에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땅에서 사라져 버렸음을 이해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를 것입니다. 들림 받을 때에 모든 민족들이 그를 보지도 못할 것이며 “통곡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뒤의 구절들을

---

Bullinger-E.W.볼링얼 분이 쓴 책 *The Church Epistles-교의 편지들*(원래는 이 책을 Eyre and Spottiswoode, England, 1905 에 있었는데), 지금은 *Truth for Today Inc.*, in Lafayette, Indiana 에 있습니다.

연결시키면 마태복음 24 장과 누가복음 17 장에서 그리스도가 두번째 땅으로 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을 싸워서 이기고, 판단하고 자기의 왕국을 세운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의 확실한 뜻은 그 전후 구절에서 비유로 주어진 이야기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판단하러 오실 때가 노아 때에 홍수가 나서 사람을 다 멸하였고 의로운 노아와 그의 가족만 남았었다는 때와 비슷한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에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판단을 받으려고 데려감을 당한 것이지 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염소와 양을 분별하는 판단 날에 악한 자들은 데려감을 당하여 소멸하고 동시에 의인들은 땅에 남아서 왕국의 기업을 받게 됩니다. Spiros Zodhiates-스피로스 자드하일즈 라는 분이 쓰기를:

마태복음 24:40, 41 과 누가복음 17:34, 35 에 원래는 paralambano (데려감)라는 단어를 aphiemi(남겨둠)이라는 단어와는 정 반대로 좋은 일이 아닌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전서 에서 말하는 성도들처럼 주님이 기뻐하실 자들이라고 오해해서는 안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 장 17 절에서는 들림 받은(harpazo, “꼭 쥐다, 끌어 올린다, 강한 힘처럼”) 성도들이 주님을 그름 속에서 영접합니다. 그러나 이 paralambano 동사는 대부분 유리한 점으로 데려감을 표현 하기는 하지만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5,8 절에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데려감”을 표현 했습니다. 요한복음 19:16 절에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겨줌(똑같은 말 paralambano-데려감)”으로 표현 했습니다. 또한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은 온전히 남겨놓은 동시에 그 나머지는 멸망 당한데에 비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좋은 점에서 가 아니고 형벌 받는 데로 표현 했습니다. 그럼으로 마태복음에 있는 구절과 누가복음 에 이 는, 이와 같은 구절에 사용한 paralambano 단어를 주님이 성도들에게 강림 하셔서 끌어올리는 들림 받는 것과 같은 것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단어는 노아의 홍수 때에 멸망한 것처럼 데려감을 당한 것을 의미 합니다. 그 외에는 버려둠을 당한 (aphiemi-남겨둠)자들은 복스러운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들어가고 (어떤 것은 천년 왕국으로 밝혔음)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운 정치가 땅에서 이루어 질 것입니다.

Robert Mounce-로벌트 마운스 분의 평론:

40 절에서 말하는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 감을 당한 사람과 1 절에서 말하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 감을 당한 그 한사람이 판단을 받으려고 데려 감을 당한 것입니다. (보호 받기 위하여 데려간 것이 아니고 39 절에서와 같이 홍수가 “쓸어간” 것을 의미함.)

물론 어떤 그리스도인 들은 신학자들의 가르침에, 위에서 말하는 것이 맞지 않고 “데려 감”을 당한 자들이 복을 받고 “버려 둠을 받은 자들이 판단 받기 위하여 남겨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 그렇다고 해 두고 이 해석 앞뒤에 연결되는 구절들을 맞춰서 읽어보면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여기 연결된 구절들이 아주 명백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둘러보면 이것이 두 번째 오심을 말하는 것이지 들림 받을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럼으로 어떤 편이 복을 받고 어떤 편이 판단을 받든지 간에 양편이 다 들림을 받는 것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한편은 마태복음 25:34 절에서와 같이 복을 받아 땅에 남아서 왕국에 들어갈 것이고 동시에 한편은 마태복음 25:41 절에서와 같이 판단을 받고 타는 불 속으로 데려 감을 당할 것입니다.

### **교회의 결국 목적지: 땅**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서 영원히 살 것으로 믿고 있지만 성경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에서 밝게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에베소서 2:15)가 된다고 했으며 그리스도인 또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기업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에베소서 3:6).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기업”을 받을 것이면 그 기업이 무엇인가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기업을 받는다고 했으므로 그 답은 이스라엘이 받는 것과 같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성경에는 한 구절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서” 영원히 산다고 한 구절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오랜 기일에 거기서 무엇을 한다고 밝혀 주는 구절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침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하는데 공중에 있다가 그와 함께 땅으로 내려와서, 첫째는 예루살렘에서 천년 동안 왕국 그 다음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

한 왕국에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부터 땅을 다스릴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그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면 그들도 역시 땅에 거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가 아마겟돈 전쟁 때까지 땅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때에는 오셔서 싸움으로 땅을 정복한 다음 자기의 왕국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재난이 닥치기 전에 들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다가 다시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땅으로 오실 때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함께 같이 내려옵니다. 그가 저희들을 하늘에 다 두고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을 이루실 것이며 또한 그가 땅에 거하시면 그들도 그곳에서 함께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17 절에 그리스도인들을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고 했습니다. 라틴어(Latin) 번역에 “끌어올려” 라는 말이 rapere 인데 발음이 “라펠리” 라고 합니다. 영어 번역은 “Rapture” 한글은 “들림 받음,” 그럼으로 이 말을 신학자들이 쓰는 말로 되었습니다. “Rapture-들림 받음,” 이라는 말이 땅에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영접하여 짧은 동안에 하늘에서 그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땅으로 내려와서 아마겟돈 전쟁을 싸우게 됩니다. 이것을 단순히 요한계시록 19:14 절에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 이라고 하는데 그저 홀수 “군대”라고 한 것이 아니고 “군대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와 싸운다고 했는데 그 중에 들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군천사들과 합쳐서 군대들이라고 말 한 것입니다.

사실은 원서에는 데살로니가전서 4:17 절에 그리스도인들이 땅으로 온다는 말이 담겨 있는데 불행하게도 번역할 때에 흔히 원 뜻을 잊어버립니다.

### **데살로니가전서 4:17**

그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 [apantesis-아판테시스]- 마중 혹은 전송 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1. Spiros Zodhiates, *The Complete Word Study Dictionary New Testament* IAMG Publishers, Chattanooga, TN, 1992), p. 108

12. Robert H. Mounce, *New International Biblical Commentary: Matthew* (Hendrickson Publishers, Peabody, MA, 1985 p. 229

여기서 단어 “영접 영어로 meet-만나다”를 참고해 봅니다. 위의 구절에 그리스어에 apantesis-아판테시스 라는 말이 영어로 meet-만나다는 뜻도 되지만 apantesis 가 이외에 작용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옛날 고적 시대의 때는 지도 도, 거리 이름 싸인 도, 혹은 집 번호도 없었을 때에 어떤 높은 벼슬 있는 분이 한 고을을 방문 할 때면 그 마을 고관들이 마을 밖으로 나가서 자기 마을로 모셔(영접해) 들입니다. Apantesis-아판테시스 라는 단어가 이 뜻입니다.

Hellenistic-헬렌니틱 때(Alexander-알렉산더 대왕 이후의 그리스도인 문화) 위대한 인물이 어떤 도나 성에 출마할 때, 그가 그 성에 가까워지면 그 성의 백성들이 나가서 그를 만나 성으로 영접해 드리는 것을 보고 apantesis-아판테시스 라고 한다. 그럼으로 49 년 B.C (주전 49 년)에 Julius Caesar 의 출마가 이탈리아에 접근할 때 Cicero-고대 로마의 높은 정치자가 감격한 음성으로 말하기를 “그 시민들에게 얼마나 큰 apantesis-아판테시스 (영접)을 받을지 누가 상상해 보았을까, 어마,어마한 존경을 받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그리스도를 존경하는 apantesis-아판테시스 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잠시(7 년 재난 동안) 그와 함께 있다가 다시 그를 땅으로 영접할 것입니다. 물론 위대한 분의 방문이 목적지에 가까워지면 그를 영접하러 잠시 축하의 좌석을 마련하여 즐기고 또 나머지 여행길에 대한 정확성을 서로 주고 받는 것이 적합한 일입니다. 수고스러운 여행으로 말미암아 이 즐거운 apantesis-아판테시스를 이루어 준 것에 대한 사례가 이 행사의 일종입니다. 그럼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apantesis-아판테시스) 하여 땅으로 모셔 들이기 전에 잠시 하늘에서 그와 함께 있다가 다시 땅으로 모셔 드린다는 것으로 종말 짓는 것이 엉뚱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어 신약성경에 apantesis-아판테시스 가 네 번 나옵니다. 세 번은 분명히 마중 나가서 맞아들이는 뜻에 대하여 사용했습니다. 마태복음 25 장 시초에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Apantesis-아판테시스를 첫번째와 두번째로 사용한 것이 이 비유 안에 있습니다. 이 단어를 열 처녀가 신랑을 apantesis-아판테시스(맞으러) 나간 것에 대한 참고로 사용했습니다. 이 비유 내용의 시작이 열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가서 신랑을 만다 다시 돌아오려고 기다립니다(마태복음 25:1, 6). 그 중에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혹시 신랑이 늦을 경우를 위해서 기름을 충분히 예비해 가지고 왔으나 한편 미련한 자들 다섯은 그렇게 하지 안 했습

니다. 그런데 신랑이 늦었음으로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나간 사이에 신랑이 옴으로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를 맞아 신부 집의 잔치로 올라왔습니다. Apantesis-아판테시스 단어를 이 비유에서 어떻게 사용한 점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처녀들이 신랑이 지나가는 길로 그를 맞으려고 나가서 그를 맞아서 다시 신부 집으로 돌아옵니다.

Apantesis-아판테시스 를 세 번째 사용 한데가 사도행전 28:15 절이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잡혀서 로마에 있는 감옥소로 끌려갈 때입니다. 로마에 사는 믿는 형제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와 함께 apantesis-아판테시스 를 하려고 장소를 잡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들이 로마에서 압비오 저자와 (로마에서 압비오 저자까지 43 마일) 그리고 삼관(로마에서 삼관까지 33 마일)까지 나와서 바울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와 함께 로마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 구절에서 apantesis-아판테시스 단어에 대한 뜻을 완전히 확실하게 나타냅니다. 이 믿는 형제들이 바울을 얼마나 존경했는지 바울을 맞으려고 로마에서 하루가 넘는 길을 나와서 그를 만나 그와 함께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용한 apantesis-아판테시스 는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4:17 절에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apantesis-아판테시스 한다는 등등 그들을 공중으로 끌어 올려서 그를 영접하여 (칠년 재난이 끝날 때까지 그와 함께 하늘에서 있다가) 그와 함께 땅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우리가 apantesis-아판테시스 단어를 공부한 결과에 그리스도인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으로 단정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땅으로 내려 와야만 된다는 더 다른 증거는 그들이 다시 돌아와야 만이 “아브라함에게 준 복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 에게도 준다고 약속했으며 땅도 이 약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갈라디아서 3:14**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13. F. F. Bruce, *Word Biblical Commentary: 1 & 2 Thessalonians* (Word Books Publisher, Dallas, TX, 1990) p. 102

14. 이 구절을 선뜻 읽을 때 복 주신 것이 성령으로 여겨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읽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

갈라디아서가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에:

#### **창세기 28:4**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위의 구절에서 또록 또록 하게 말했듯이 아브라함에게 준 복 안에 이스라엘 땅도 포함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 과목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서 땅을 준다고 약속 하셨습니다(창세기 13:15; 15:18; 17:8), 특히 갈라디아서 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데 그들이 그리스도교회에 가입한 자들이고, 그들에게 준다고 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교회가 땅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또 한 가지 증거가 됩니다. 만약 그리스도교회의 목적지가 결국 땅이 아니라면 갈라디아서 삼장 십 사절에서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복이 그들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땅으로 다시 내려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고린도전서에 또 하나 있습니다.

#### **고린도전서 6:2**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  
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  
겠느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세상 판단에 참례하고 아마겟돈 전쟁에 싸운다는 것이 사실인 것을 아는 동시에 이보다 더 큰 사실이 이 구절에 있습니다. 그리스어에서 번역한 단어 “판단”이라는 말을 만약 매일 판단하는 일이면 그리스말로는 “섬기다-minister”라고 하거나 혹은 “관리하다”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쓰는 “판단”이라는 말 뜻은 전쟁 후

---

함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성령의 약속은 나중에 아브라함의 자손(씨)에게 한 것이고 갈라디아서 3:29 첫마디말씀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씨)”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땅을 의미한 것이었지 성령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15. Nahum M. Sarna, *The JPS torah Commentary: Genesis*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New York, 1989), p. 196. S. R. Driver, *The Book of Genesis* (Methuen & Co., London, 1904), pp. 186 and 263.

“판단”한다는 것을 뜻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 준다는 것과 다툼을 해결하는 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매일 매일 일어나는 일을 도와주는 관리 직무로도 뜻합니다. 이와 같이 James Moffatt-제임스 모팸트)분은 여기에 따르는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2 (Moffatt-모팸트)**

성도가 세상을 관리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정당한 변호를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판단” 이 관리로 표현한 것을 Amplified Bible-뜻을 확대한 성경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1Corinthians 6:2 (AMP) (parenthesis and brackets are theirs)**

Do you not know that the saints (the believers) will [one day] judge and govern the world? And if the world [itself] is to be judged and ruled by you, are you unworthy and incompetent to try [such petty matters] of the smallest courts of justice?

**고린도전서 6:2 (AMP-확대 성경) (이성경의 사용 단어를 ()가  
와 []가로 묶음 표 안에다 표시했습니다.)**

[어느 날엔]성도(믿는 자)가 세상을 판단하고 다스릴 줄을 모르느냐? 세상 [자체]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이 구절이 확실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는 세상에서 관리하는 일을 도울 것이며 다스리는 일 모두가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편 우리가 “하늘”에서 어떠한 일로 어떻게 돕는 일에 대한 구절들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경적 강력한 증거는 의심할 여지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하여 그가 땅을 다스림에 영원히 참례할 것입니다. 우리가 들림 받아서 그와 함께 잠시 하늘에 있을 것이나 다시 그와 함께 땅으로 내려 올 것입니다. 이럼으로 “온유한 자(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포함)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훌륭한 영원한 생명이, 새로워진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을

---

16.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5:25-28 절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왕국에 계신다는 것을 뚜렷하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원수를, 사망까지 합쳐서, 멸망할 때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아버지께 복종케 된다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의 소망에 하나의 매우 중요하고 재미를 주는 요소입니다.

# 4

## 땅에서 미래에 두 번 있을 왕국

### *천년 왕국과 영원한 왕국*

성경에는 미래의 왕국이 둘인데 하나가 끝나면 또 한 왕국이 그 뒤를 따릅니다. 첫 번 왕국은 1000 년인데 이것을 “Millennial Kingdom-밀레니오 킹덤”이라고 부르는데 mill(밀)-이 천이고 annus(에니어스)- 가 년 그리고 Kingdom(킹덤)- 이 왕국, 이렇게 해서 천년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두번째 왕국은 성경 주제가 자체 곧 하나님 그대로 영원하신 것 같이 “영원한 왕국” 이라고 부릅니다. 천년 왕국에서는 예수그리스도가 재난 세대가 끝날 무렵에 땅으

로 내려 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을 이기고 천년 동안 왕으로 지배 합니다(요한계시록 19 장). 영원한 왕국은 천년 왕국이 끝나고 마귀와 그의 사단들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 심판 후에 이루어집니다(요한계시록 21). 이러한 순서로 이루어지는 두 왕국에 대한 장면을 대강 간추려 놓은 줄거리가 요한계시록 19-22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칠년 재난 끝에 예수그리스도가 그를 따르는 군대들과 함께 백마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와 아마겟돈 전쟁에서 싸웁니다. 그가 그 전쟁을 이기고 땅을 정복합니다(요한계시록 19 장). 그 전쟁 후에 마귀가 “결박”되고 “첫째 부활”이 시행됩니다(요한계시록 20 장). 첫째 부활에 가입한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가*) 믿은 자들 곧 구원 받은 자들인데 구약성경 때부터 사도행전 2 장에 오순절 날까지 살다가 죽은 자들. 그리고 *나*) 믿은 자들 곧 구원 받은 자들이 칠년 재난의 세대에 살다가 죽은 자들입니다. 이 두 종류에 속한 사람들이 그때에 살아나서 이미 들림 받은 그리스도인들과 합쳐서 1000 년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 할 것입니다(요한계시록 20:4-7). 1000 년 그리스도의 통치가 다 차면 마귀가 “결박에서” 풀려 나와서 또 다른 군사들을 모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해서 싸움을 붙입니다. 이때에는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마귀의 군대들이 멸망해 버립니다(요한계시록 20:7-10). 이 승리를 뒤쫓아서 둘째 부활을 준행하여 마지막 심판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없어지지 아니할 왕국 곧 영원한 왕국을 세우십니다.

이 두 왕국에 대한 예언을 온 성경에 깔아 놓았는데 그 예언들에 다가 어떤 것이 “천년 왕국”이고 어떤 것이 “영원한 왕국”이라고 표시를 안 했습니다. 어떤 예언이 이 두 왕국 중에 속하는가를 분별하려면 단지 예언의 자세한 내용을 공부해야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 
1. 이 책 뒷면에 있는 Appendix-부록 A 에 순서대로 그려 놓은 도표에 이 두 왕국의 묘사가 있습니다.
  2. 아마겟돈 전쟁으로 적그리스도의 통치와 재난의 세대가 끝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자세한 것들, 즉, 통치, 나팔소리, vials- 입이 좁은 병, 이와 같은 것들의 자세한 설명과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그의 통치가 어떠한 것에 대한 것은 이 책 외에 다른 책에 많이 있으므로 구태여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매우 훌륭하게 내놓은 책은 Bullinger, Op. cit., Commentary on Revelation 을 읽어 보세요.
  3. “아마겟돈 전쟁” 이 마지막 전쟁이라는 가르침이 가끔 가다가 있습니다만 그럴 수가 없는 것은 요한계시록 19 장과 20 장에서 이점을 밝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9:11-21 절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과 전쟁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 후에 20 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을 세우고 그 왕국 끝에 가서 또 다른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이 성경으로는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리스도의 대적을 순식 간에 멸망시킵니다. 이 마지막 전쟁에서는 그리스도께서나 그리스도인들이 싸운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책 뒷면에 있는 부록 A. events 8 과 12 를 읽어 보시오.

항상 참고해 둘 것은 성경은 서로 반복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예언은 (에스겔 40-48) 미래 왕국에 성전이 있을 것을 말하는 동시에 어떤 예언은(요한계시록 21:22) 미래 왕국에 성전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 장에 1000 년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이 끝나고 난 후에 세운 왕국에는 성전이 필요 없다고 했으므로 성전에 대한 문제는 분별하기 쉽습니다. 1000 년 그리스도의 왕국 다음에 있는 것은 단지 영원한 왕국 뿐입니다. 그럼으로 요한계시록 21 장에 있는 예언은 영원한 왕국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에 있는 예언은 성전에 대한 것들을 많이 형용했으므로 천년왕국에 속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죽음에 대하여 서로 반복되게 예언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예언들을 보면 왕국 세대 때 사람들이 죽는 것으로 예언하는 (이사야 65:20, “곧 백세에 죽는 자가 아이 겠고 백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동시에 한편 어떤 예언에서는 죽음이 다시는 없다고 합니다(요한계시록 21:4 “다시 사망이 없고”). 이 예언들이 이렇게 서로 반복되는 것을 옳게 풀어주는 한 가지 방법은 천년 왕국이 끝나고 영원한 왕국을 세우기 바로 직전에 사망과 음부(무덤)가 멸망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요한계시록 20:14). 예언이 서로 반복되는 것을 옳게 풀어주는 것에 대한 또 한가지 방법은 각각 그 왕국에 누가 사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에는 세가지 “그룹”의 사람들로 채웁니다: ㄱ) 들림 받을 때에 죽은 몸이 썩지 않을 몸과 산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 받은 사람들; ㄴ) 첫째 부활 때에 살아나서 죽지 않을 몸으로 된 사람들, 그리고 ㄷ) 재난 세대 때 끝까지 충성하고 살아남아서 의인으로 판단 받고 왕국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맨 마지막 “그룹”은 왕국에 들어올 때 육의 몸 그대로 들어와서 결국은 죽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육의 사람이라 결국은 죽듯이 또한 이 사람들이 아기를 낳을 것입니다. 이와 다르게 영원한 왕국은 단지 죽지 않게 변화 받은 사람들만 살게 됩니다. 이 종목이: ㄱ) 천년왕국 때 이미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 받은 사람들; ㄴ)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땅에서 실행되는 둘째 부활 때 살아난 믿는 자들; 그리고 ㄷ) 영원한 왕국이 될 때까지 아직도 살아남아 의롭게 판단 받아서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러므로 천년 왕국에는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사람들이

---

4. 성경은 이 그룹에 특별히 꼬집어 내지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마귀가 천년 왕국 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꼬였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가 한번도 그렇게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환란 세대 동안에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나라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럼으로 천년왕국에서 육의 사람이 들어가듯이 영원하 왕국에도 육의 사람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은 천년왕국에 속함 은 육의 사람이 늙어서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왕국에서는 그렇지 않는 것은 모두 다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 받기 때문입니다.

있기 때문에 사망이 있으나 영원한 왕국에는 오직 죽지 않는 사람만 살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 **천년왕국의 특징들---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통치**

성경에 천년 왕국이 어떻다고 자세하게 묘사한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 아닌 것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태반이 이 때에 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천년왕국 때 일어날 뜻 깊은 특징 몇가지를 아래에 기록해 드리겠습니다.

### **천년왕국을 새 하늘 새 땅 이라고 한다.(이사야 65:17; 66:22)**

사실 천년왕국을 “새 하늘과 새 땅” 이라고 부르는 것이 매우 혼동 될 수 있는 이유는 영원한 왕국도 “새 하늘 새 땅” 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요한계시록 21:1).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재 지구 상태와 예언대로 닦쳐 올 모든 상태를 종합해서 자세히 생각해 보면 왜 이 두 왕국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인간들이 많은 땅을 부정케 하고 망쳐 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물이 나빠서 마실 수 없고 공기도 나빠서 숨을 들이킬 수 없게 된 곳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많은 식물들과 많은 생물들 종자가 끊어져서 없어졌고 계속 더 매일 없어져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재난 세대 때는 더 많은 들짐승들과 그 땅에 살고 있는 것들이 망가지게 될 것이고 그 남은 세상에서 더 이상 생명이 살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 더 이상 망가지질 수 없고 단지 다시 회복시킴으로 인하여 그 땅을 “낙원 곧 에덴동산” 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실은 예언에서 천년왕국을 또한 “낙원”이라고 부름으로써 새로워진 것을 표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모든 게 새롭게 되면-the renewal of all things) 라고 말씀 하신 것입니다(마태복음 19:28). 그리스도께서 망가진 땅에다가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고 목마른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이사야 35 장), 나빠진 물을 소성(깨끗)하게 하고 (에스겔 47 장), 공중의 공기도 새롭게 되어 맑고 깨끗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시킨 후에 낙원- “새 하

---

5. 여기서 “새 하늘” 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계시 곳을 새로 짓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라는 이 단어를 이 대목에서는 “공중 분위기”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 말을 “공중(하늘)의 새” 라고 말하는 식으로 또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 라고 하듯이 이와 같은 뜻에서 사용한 말입니다(욥기 35:11; 신명기 11:11 번역가가 어떤데는 “하늘”이라는 단어를 “공중”이라고도 했습니다). 공중의 분위기를 사람들이 망쳐 놓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들리고 있는 공기가 아주 나빠졌으며 어떤 때는 공기에 독성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천년왕국 때에는 심지어 공중의 분위기까지 고쳐서 또다시 새롭게 할 것입니다.

늘과 새 땅”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새로워진 세상이 천년왕국 끝에 가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옴으로 인하여 완전히 없어지고 모든 것을 다시 창조하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영원한 왕국 역시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릅니다(요한계시록 21:1).

### **천년왕국이 왕국이며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 다스릴 것임**

구약성경 때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셔서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창세기 49:10; 민수기 24:17-19; 시편 2 장; 시편 110 장; 다니엘 2:44; 7:14) 다윗의 손에서 난다고 말했습니다(이사야 9:6,7; 시편 132:11; 이사야 16:5). 그가 2000 년 전에 오셔서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리스도 곧 왕이신 분이, 앞으로 닥쳐올 자기의 왕국에 대하여 손수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 16:28; 요한 복음 18:33, 등등).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그 왕국을 다스린다고 말했습니다(요한계시록 11:15). 미래 나라의 정치는 민주주의, 공화주의, 독재정권, 과두정치, 기타들이 아니고 왕국으로 세운다는 것이 아주 확실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왕국을 다스릴 것이고 육의 생존에 충성했던 자들은 그를 도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것이 미래에 받을 보상의 일종이며 또한 믿은 자들의 매일 매일 의로운 생활을 했던 것에 대하여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가 다 똑같은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항상 충성했던 믿은 자들은 더 큰 보상을 받고 더 많은 권력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일을 도울 것입니다. 사사(판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시켜서(이사야 1:26); “방백(주권자)들이 공평으로 정사(다스릴)할 것이며”(이사야 32:1);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합하는 목자들을 주어 지식과 명철로 백성들을 양육할 것입니다(예레미야 3:15).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들 양편 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할 것이라고 약속 해 주었습니다.

아래에 내놓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과 칠년 재난 때에 살았던

#### **요한계시록 2:26, 27**

(26)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7) 그가 철 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

6. 성경은 천년왕국안에 살고 있던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땅을 멸망할 동안에 어디로 가 있는가에

사람들에게 속합니다.

이와 같은 약속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한 것, 등등, 어느 그리스도인 이든지 끈기 있게 충성하고 순종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 한다고 했습니다.

### **디모데 후서 2:11,12**

(11) 미쁘다 이 말이며,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12)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미래 왕국에 믿는 자들이 모두 다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지금 사는 동안에 견디고 끈기 있게 충성하고 순종으로 행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행동한 행함으로 그를 버리고 (많은 번역이 “부인한” 이라고 함)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나라들을 다스리는 특권에서 부인 당하고 그보다 낮은 다른 지위를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고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로 ‘닷’을 내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데에 꼭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천년왕국 인구는 세가지 “종류” 다시 말해서 세가지 “타입”의 사람들로 채웁니다.**

가) 그리스도의 세대가 끝날 무렵에 공중으로 들림 받았다가 그리스도가 아마겟돈 전쟁을 싸우려고 두 번째 오실 때 함께 땅으로 내려온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천년왕국에서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각자가 영광스런 새 몸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 몸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 곧 영광스런 몸과 같은 형체로 변하게 됩니다(빌립보서 3:21).

나) 오순절 날까지, 이 날 전에(사도행전 2 장) 믿은 자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살다가 죽은 자들과 재난 세대에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는 것을 보고 첫 부활이라고 하며 그때에 부활 시켜서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 받는 사람들인데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 끝난 후입니다.(에스겔 37:12-14; 요한계시록 20:4-6). 이 종류 그룹에 또한 아브라함과 사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 여호수아, 롯, 사무엘, 다윗, 에스더, 다니엘, 같은 사람들 그리고

---

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하늘”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 같지만 이것을 알아볼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하나의 비밀입니다.

재난 세대에 짐승에게 숭배하기를 거절함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모두 다 살아나서 가입 합니다(요한계시록 13:15).

ㄷ) 재난 과 아마겟돈 전쟁에서 살아남아 “의롭”게 판단 받은 그룹은 “육의 몸” 곧 죽을 수 있는 몸을 가진 믿는 사람들 입니다(마태복음 25:31-46). 이 타입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도 들어 있습니다. “육의 몸”이라는 말은 죽을 수 있는 몸에 있는 사람들과 죽지 않을 몸을 입은 사람들 사이를 분별하기 위해서 보충해 놓은 단어 인데 “육의 몸’을 벗어나 보통이 아닌 이 사람들은 가 타입과 나 타입에 속합니다. 여기서 “육의 몸”에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완전히 자연적이고, 자랄 수 있고, 결혼도 하고, 임신도 하고, 늙기도 하고, 그리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이사야 65:20-25).

성경이 밝게 말씀 하시기를 재난과 아마겟돈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으로 판단 받고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실하게 말 합니다. 이 점을 확실히 알아야 할 이유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나면 땅에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물론 그때에 땅에 거한 사람들은 거의 다 죽는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사야 13:12 절과 24:6 절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남은 자가 적으며,”라고 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 때에 땅에 살고 있는 인구가 60 억이 넘는다고 하니까 “남은 자가 적으며”라는 말이 몇 백만 뿐 이라고도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을 25:31-46 절에서 내포하기를 그리스도께서 1000 년 왕국을 시작하시기 전에 모든 민족을 그 앞으로 모으신 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한 수가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왕국 때엔 전쟁도 없고 음식도 매우 풍성하기 때문에 인구가 무척 많이 번성해서 온 땅을 다시 채우게 됩니다. 사실은 그들의 번성하는 율이 곱절로 번성하기 때문에 천년이 다 찰 무렵에는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라고 했습니다(요한계시록 20:8). 인구가 이러한 속도로 늘어가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구약에 애굽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수가 칠십 명이었습니다(창세기 46:27).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나올 때는 그들의 수가 삼백만 민족이 넘었습니다. 그때엔 그들의 생활 환경이 매우 어렵고 비참

---

7. 요한계시록이 누구에게 해당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은 분에게 이 책을 소개합니다.

Ballinger, op. cit., Commentary on Revelation 페이지 1-114

8. 믿는 자들의 보상과 보상을 잃는 것은 제 6 과목에서 나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이렇게 번성했습니다. 이러하데 만약 천년 왕국 시초에 인구가 몇 백만 뿐이라고 계산해 보더라도 그 때엔 신성한 환경에 전쟁도 없으므로 평화롭고 모든 것이 풍성한 환경에서 얼마나 인구가 많이 번성할 것인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일찍이 말씀드렸지만, “육의 몸”의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패를 모읍니다, 왜냐 하면 그들의 몸이 아직도 “육의 몸”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약한 몸에 속하므로 죄를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 그들이 비록 천국에 살지만, 그들을 “철 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라고 했습니다. 이 뜻이 그리스도께서 잔인하거나 사납게 다스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철 장으로 다스린다.”는 뜻은 헌법을 강조함으로써 죄를 범하는 자들을 없게 하고 사람들이 안전하고 무사히 살 수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King James-킹 제임스 성경 번역에는 이 말을 “rod of iron-철 장” 이라고 한글 번역은 똑 같습니다. 이 말 “철 장” 혹은 “rod of iron”이라는 말이 성경 네 구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2:9; 요한계시록 2:27; 12:5; 19:15. 그리고 철 장을 가지고 다스리는 결과의 환경에 관련된 구절들이 이와 같이 따릅니다: 이사야 11:4; 14:2; 49:22, 23; 60:10-14; 61:5, 6; 66:12; 미가 7:14-17; 그리고 스가랴 14:16-19

그리스도께서 철 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린다는 예언이 천년 왕국 때에 사는 사람들 속에 적어도 얼마의 부분은 구원 받지 않은 보통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증거 합니다. 여기에 한 폭 더 붙여서 보면 이 모든 예언들이 분명히 장래 일에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첫 번째 오셨을 때 이 예언들이 하나도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에 대한 구절들이 이렇게 또록또록 하게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기록한 그대로 1000 동안 왕 노릇 한다는 것을 믿지 않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왕이 미래에 오신다는 것조차도 믿지 않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이 두가지 믿음이 맞는다고 친다면, 그리스도께서 철 장으로 저희를 다스린다는 것이 단지 영원한 왕국에 사는 구원받은 믿는 자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영원한 왕국은 그곳에서 철 장으로 다스림을 받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않습니다. 다행에도 성경 역시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다. 철 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린

---

9. 어떤 사람들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1000 년 왕국이 현재 이 시대에 “영적” 으로 진행된다고 엉뚱하게 믿고 있습니다. 읽어 보실 책:작가 이름 Robert Clouse, ed., 책 이름 The Meaning of the Millennium-천년왕국의 뜻 (출판사 이름 Inter Varsity Press. 주소 Downers Grove,11., 1977) pp.155-87

10. 천년왕국 끝에 가서 사탄을 풀어놓는 사실은, 천년왕국을 세운 이유들 중의 한 가지가 불만 있는 반역자들을 사탄이 끄러 모음으로써 그 사람들은 다시 변경시킬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보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는 말은 천년왕국 세대에서 살고 있는 아직 변화 받지 않은 “육의 몸”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사실은 “육의 몸”의 사람들로써 아직도 죄의 성품이 있으므로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죄를 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천국에서 살 것이며 선심이 가득한 곳에 있지만 그 중에도 불만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와 성경을 놓고 봐도 잘 먹고 건강한 몸으로 잘살며 경제상 모든 것이 풍성하고 안전함으로 불만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데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불평할 기회를 찾아 항상 불평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판결하는 일이 많이 차지고 있는 이유는 “육의 몸”의 사람들이 그 중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4; 마라기 4:3). 스가랴 에서 말씀이 어느 나라이든지 독단적으로 생각하고 여호와께 송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나라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스가랴 14:17). 이 구절이 “육의 몸”의 사람들 속에 물들어 있는 “귀찮으니까 가지 말자” 하는 이기주의의 생각 심보를 보여줍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왜 철장을 휘둘러야만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견본이기도 합니다. 천년이 다 차면 사탄이 놓여서 이 육의 몸”의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속여서 하나님과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대적해서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소멸함으로써 그들의 대적을 무너뜨립니다(요한계시록 20:7-9).

이 천년왕국에 육의 몸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왜 그때에 제사장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서도 깨닫게 되며(에스겔 42:13, 14; 44:15-31; 요한계시록 5:10). 제사장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면을 청원하거나 혹은 중개 하는 사람입니다. 아론이 제사장이 된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굳게 서서 역할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천년왕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해서 각자가 하나님과 거리낌 없이 교제할 수 있다면 거기에 제사장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천년왕국에 “육의 몸”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사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미래에 두 왕국이 땅에서 순서대로 뚜렷하게 문단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이유는 완전히 변화 받은 사람들과 “육의 몸”인 (보통)사람들이 땅 한 곳에서 함께 어울려 산다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 이러한 장면에 대한 것들을 “영적”으로 돌려서 이것들이 문단 그대로의 뜻이 아니고 비유라고 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성경 구절들을 취급하는 것이 옳바르지 못합니다. 이

구절들은 매우 명백하게 기록되었고 이것들이 비유라고 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미래의 일을 기록하신 것을 믿을 수가 없거나 어려워서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문단 그대로 뜻한 것이 아니고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Millennial-밀레니오 왕국이 1000 년 계속 됨(요한계시록 20:1-4**

#### **요한계시록 20:1-4**

- (1)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 (2)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 요 사단이라 잡아 일천 년 동안 결박하여
- (3) 무저갱 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간 놓이 리라.
- (4)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 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 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 하니

천년왕국은 그리스도가 두번째 오셔서 아마겟돈 전쟁 후 땅을 정복한 다음에 시작되어서 그것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소멸함으로 인하여 끝나게 되고 그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 장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천년왕국 때는 unprecedented-전례가 없는 기쁨과, 평화와, 행복이 흡족하게 있음.**

사람들이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지니라.” (이사야 65:18)함은 그 왕국에 행복한 생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에 큰 기쁨이 있는 이유는 마귀가 결박되었으므로 사람들을 괴롭게 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 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밝혀 주는 구절들 몇 개만 여기 드립니다(이사야 24:21, 22; 요한계시록 20:2)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에 왕일 뿐만 아니라 또한 제사장으로 구약성경에서 예언한 모든 것들을 모조리 다 이루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왕과 제사장이 된다고 확실하게 기록된 구절이 스가랴에 있습니다.

**스가랴 6:12, 13**

(12)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나서 여호와와의  
전을 건축 하리라.

(13) 그가 여호와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영어로는 “He will be a  
priest-그가 또 제사장 직분에 앉아”)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  
의 의논이 있으리라.

천년왕국에 특별한 특징은 성경말씀에, 왕의 보좌와 제사장의 직분 사이에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얼마나 드문가를 역사가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치자와 종교자 사이에 항상 경쟁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역사상으로 보아도 거의 다 그렇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주교 -Roman Catholic Church (대표자 Cardinal Richelieu)와 왕관-Crown (대표자 Louis X111)의 사이에 일어난 경쟁이 The Three Musketeers-세 머스킷 총병이라는 역사소설 원 바탕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정치자와 종교자 사이의 경쟁이 사회에 항상 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에서는 이러한 경쟁이 그치고 왕관과 제사장 사이에 “평화” (평화, 번창, 행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구절에 성전이 있음으로 인하여 왕국이 둘이며 서로 다르다는 것을 더 확실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 드렸듯이, 영원한 왕국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럼으로 이 구절에 성전과 기타 여러가지를 보아서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가지 관심을 끄는 점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가랴 6 장 12 절과 13 절에서 왕권을 말할 때는 문단 그대로라고 하면서 성전에 대한 것은 문단 그대로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성전은 “영적”(비유를 뜻한)으로 교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신약성경 곧 그리스도의 몸인 믿는 자들을 성전이라고 한 구절들 가지고 그렇니다. 그러나 한 그룹을 보고 성전이라고 한 것을 가지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도 영적인 비유지 실체가 아니라고 하지 못하듯이 에스겔에서 말하는 성전도 무조건 성전이라고 해서

영적인 비유 지 실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구절들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때에 실제 성전을 건축하고 그가 문단 그대로 왕과 대제사장이 된다는 기록이 뚜렷합니다.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각각, 여호수아가 구약에서 땅을 분배하여 준 것처럼 특별히 분배하여 주는 땅을 받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여서 이스라엘 지파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천년왕국에서도 그 땅을 다시 분배하여 지파 대로 나누어 주는데 그때에 매우 다른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엔 지파 별 땅의 척수가 똑같지 않고 지경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다르게 천년왕국 때에 준다고 약속한 땅은 분배된 지경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일정하게 되었고 척수가 똑같게 나누어집니다(에스겔 47:14-48:29). 지파 상 나누어진 지경의 폭 넓이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주어진 이스라엘 경계선을 조사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 뒷면에 있는 Appendix D.-부록 D.에 여호수아가 분배한 지도와 천년왕국에서 분배될 지도를 세밀하게 그려 놓았습니다.

**천년왕국때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자리 잡고 있는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긴 사각형으로 된 자리가 있는데 그곳을 하나님께서 “예물”로 드릴 땅이라고 하는데 그 중앙을 “구별한 거룩한 구역”이라(에스겔 48:8-10) 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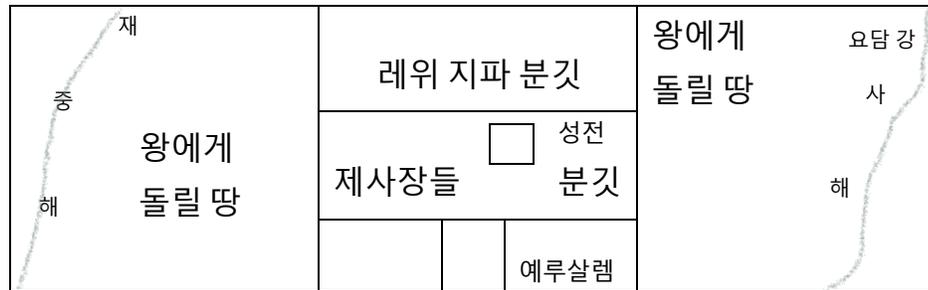
이 “예물”로 드릴 땅의 길이가 다른 지파들의 지역과 같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하는 이곳은 특별히 넓이의 척수 (.....에서부터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만 25,000 cubit 이라고 말해줍니다. 이 “특별한 예물”의 땅은 특별히 제사장들과, 레이 족속과, 성전과, 예루살렘과, 그리고 메시아께서 계실 곳을 위하여 정해 놓은 곳입니다(에스겔 45:1-7; 48:8-22). “특별한 예물”로 드릴 땅 중앙에 “구별한 거룩한 구역”은 장이 25,000 cubits 약 8 마일 정도로 네모가 반듯합니다 (에스겔 45:1-6, 48:8-15). 이 “구별한 거룩한 구역”이 세목으로 분배 됩니다. 레위

---

11. 에스겔에 사용한 척 - 영어로 cubit - 큐빗 이 큰 혹은 “국왕의 - royal” 치수 라고 하는데 이것을 큐빗 이라고 하고 또는 손 뺨 - handbreadth 만하다고 합니다 (에스겔 40:5). 정확한 치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학사들의 태반의 계산이 약 20.4 내지 20.7 인치 가량 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 큐빗 이 20.5 인치라고 한다면 25,000 척-큐빗 = 512,500 인치 혹은 8 마일 (8.09 마일) 정도가 간신히 되며 10 척-큐빗 = 205,000 인치 혹은 3 마일이 좀 넘는 (3.2 마일) 정도가 됩니다. 5,000 척 - 큐빗 = 102,500 인치 혹은 1.5 마일이 약간 넘는 (1.46 마일)입니다. 4,500 척 - 큐빗 = 92,250 인치 혹은 1.5 마일 약간 못되는 (1.46 마일) 입니다. 500 척 - 큐빗 = 10,250 인치 혹은 (854 뿔-feet) 입니다. 읽어볼 책 Bromiley, op. cit., Bible Encyclopedia, Vol. 4. Pp. 1046-55.

사람의 분깃이 북쪽 구역인데 이 척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25,000 cubits 이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10,000 cubits 인데 가로 약 8 마일 세로 약 3 마일입니다 (에스겔 45:5; 48:13;-14). 대 제사장이 중앙을 차지하며, 역시 가로가 25,000 cubits 이고 세로가 10,000 cubits 입니다. 이곳에 성전이 있습니다(에스겔 45:5; 48:13, 14). 예루살렘은 남쪽으로 자리잡아 가로 25,000 cubits 세로 5,000 cubits – 약 가로 8 마일 세로 1.5 마일로 차지하게 됩니다(에스겔 45:6). 그 중앙에 있는 성만 정 4 각형인데 각 면이 4,500 cubits -약 1.5 마일 입니다(에스겔 48:16).

**“예물로 드릴 곳에 대한 자세한 설명 약도**



벤야민 지파의 분깃

이 장소들의 상태 물 자세들은 성전과 성소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을 것이며 성소가 “구별한 거룩한 구역” 중앙에 자리 잡게 될 것인데(에스겔 48:8 이곳에 있는 모든 장소들은 전부 제사장들의 소유로 분배 됩니다(에스더 48:10). 성읍이 남쪽으로 차지했으므로(에스겔 40:2) 레위 족속은 구역을 꼭 북쪽으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예물”로 드릴 땅 그 전체 안에 “성소”가 동쪽에서 서쪽까지 25,척 – 큐빗 정사각형 인데 그 곳을 “왕”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에게 드립니다(에스겔 45:7, 8, 48:21, 22).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과 왕의 몫으로 특별히 배당할 구역을 옛날 구약성경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을 그들에게 분배한 것과 비교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에 레위 족속들에 게는 그들의 몫으로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보충해 주는 사십 팔 성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일만 했습니다(민수기 35:1-8; 여호수아 21). 그러나 천년왕국에서는 “구별한 거룩한 곳”을 따로 정해 놓았는데 그 이유들 중의 한가지는 레위 족속을 위한 것입니다. 그때도 역시 다른 지파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지 않지만 그때엔 그들의 몫으로 따로 정해진 곳에서 살면서 주님과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에스겔 45:5). 제사장들도 “구별한 거룩한 곳” 안에 여호수아 때와 같이 그들의 몫으로 따로 준 성읍에서 살게 됩니다(여호수아 21:19, 에스겔 45:3, 4; 48:9-12). 가나안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점령당했을 때에 그 나라를 점령한 장군(여호수아)의 몫으로 따로 땅을 상속받았습니다(여호수아 19:49, 50). 이와 비슷하게 전쟁을 이긴 장군, 즉 “왕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의 몫으로 따로 정해진 땅을 받게 됩니다(에스겔 45:7; 48:21, 22).

### **천년왕국의 시작으로, 미래 이스라엘 나라의 눈에 보이는 물질과 온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급진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천년왕국 때엔 온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과 같지 않고 큰 변화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놓고 보면 지진이 일어나서 올리브 산을 (Mount of Olives) 둘로 나눕니다. 북쪽에 있는 반은 북쪽으로 가고 남쪽에 있는 반은 남쪽 에다가 옮겨 놓음으로 인하여 동쪽에서 서쪽으로는 산 골짜기 되어 예루살렘에서 사해로 내려 갑니다. 그 동시에 예루살렘은 솟아올라 높은 산으로 변하여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아니 세계에서 가장 큰 산으로 됩니다(이사야 2:2; 에스겔 20:40;40:2; 마라기 4:1). 이것을 선뜻 생각하면 별로 행복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팔레스키나 왕국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에 있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높은데 올라가기를 누가 좋아하겠으며 누가 성전에 가고자 하겠습니까? 산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에버래스트-Everest 라고 하는 산이 29,000 feet 이므로 산소를 배급하지 않고는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재난 세대 때는 큰 지진들이 일어나서 모든 게 다 무너져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높은 산들이 평지(혹 높이가 낮아지거나)로 변합니다(이사야 40:4; 54:10; 요한계시록 6:14; 16:18-20). 이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산이 세계에서 가장 높을 지라도 오늘의 산에다 비하면 별로 높지가 않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산 높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것을 단념하지 않을 것입니다.

#### **이사야 2:3a**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호와와 그의 산이 이스라엘 “구별한 거룩한 곳” 안에 있습니다. 성전이 그 산 꼭대기에 있을 것이며 예루살렘 성읍이 그 산 남쪽 옆으로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에스겔 40:2). 그리고 생수의 강이 여호와와 그의 산으로 부터 흘러 사해를 거쳐서 서해 곧 지중해-Mediterranean Sea 로 흐를 것입니다(에스겔 47:1; 스가랴 14:8).

### 천년왕국 때엔 성전을 여호와와 그의 산 그 꼭대기 위에다 세울 것입니다(에스겔 40-44)

성전의 치수는 사면 다 높이와 길이가 오백 척 씩으로 네모반듯한데 feet 수로는 850feet 씩 입니다(에스겔 42:15-20; 45:2). 전에 이 점에 대하여 많이 강조해 드렸지만 이렇게 성전이 있는 것을 보아서 미래에 왕국이 둘 이라는 것을 확실히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21 장 22 절에서 말하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는 성전이 필요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모양에 대하여 에스겔 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을 읽어 보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적인 성전이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단정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교인을 보고 “성전”이라고 비유로 한 말씀이 맞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그 비유가 실제로 그 말 자체의 뜻대로 자리 잡게 됩니다. 교인이 비유사적으로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교인과 실제 성전 둘 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에서 말하는 “성전”은 신약 에서 교인들을 보고 “성전”이라고 하는 말과 다르게 사용했습니다. 에스겔 에서 말하는 성 전은 그의 모양을 자세하게 형용했으며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 에 있는 성전은 그 모양에 대하여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든지 성경공부 책들이나 성경 사전들을 보면 거기에 약도와 그

---

12. 비유에 대한 말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들 중에서 엄격한 학자의 실력을 요구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방면에 대하여 지식을 능숙하게 단련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비유의 말씀을 200 마디가 넘게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말은 그의 뜻을 대충대충 함부로 게으르게 사용한 말도 있기는 하지만 비유의 말씀은 그 뜻이 아주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Simile- 직유법*은 닮은 것을 비교해서 (“너는 돼지 **같이** 먹는다!”) 하고 *Metaphor- 은유법* 표현을 대신 한 것을 비교해서 하나로 (“너는 돼지야!”)라고 하고, 또 *Hypocatastasis* 라는 문법 단어는 한글 사전에 없지만 이 단어 뜻은 합한 비교로 (“**돼지**”) 라고 합니다. 성경 구절에서 교가 성전이라고 할 때는 그것이 *Metaphor-은유법* 입니다. (에베소서 2:21).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거기에 대하여 문과 벽과 대문과 제단과 같은 것들 등등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단지 “성전” 이라는 말 밖에 사용하지 안 했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형용사 곧 비유사에 대한 종류 *Simile- 직유법, Metaphor-은유법*, 그리고 또 성경에 200 이 넘게 사용한 형용사들에 대하여 공부해 놓은 책을 읽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작가 이름: E. W. Bullinger, 책 이름: *Figures of Speech Used in the Bible*, (주소: Baker Book House, Grand Rapids, MI, reprinted 1968). 13.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성경에 미래 오는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들을 가지고 그 중에서 에스겔 에서 말하는 성전만 “영적의 뜻” 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데에서는 이러한 식으로 이 예언들의 뜻을 “영적인 뜻”으로 돌리기 때문에 미래 천년왕국에 대한 사실에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 잘못된 점들이 이렇게 따

형상을 그려 놓았습니다. 이 설명이 얼마나 완전 한지 아무리 편견이 없지 만은 (에스겔 40-44, 46) 이 대목을 읽어본 사람들은 이것이 실제 빌딩, 성전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에스겔에 있는 성전은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록된 그대로 미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직분을 맡아서 관리하 실 성전입니다. 이 작가는 성 막이나 성전이 Metaphors-은유법 곧 비유라고 논하여 제출하는 가르침은 하나도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실제 빌딩이라는 것을 문의해 볼 필요도 없이 받아 드리며 그 형체의 모양과 거기에 대한 직무를 성경은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성막과 거기에 대한 직무를 기록한 것이 12 과목입니다(출애굽기 25:31; 35-39). 역대하 에 솔로몬의 성전에 대하여 세 과목을 기록했습니다(역대하 3-5). 천년왕국의 성전과 그의 직무에 대해서는 에스겔에 여섯 과목으로 기록했습니다(에스겔 40-44, 46). 이와는 아주 다르게 이렇게 많은 설명들이 신약에서 성전을 그리스도교 에다 비유 사로 사용하는데에는 이러한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에스겔 에서 말하는 성전이 어느 날에는 기록한 그대로 실제 성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에스겔에 기록한 설계서와 치수 그대로 건축될 것이며 그리스도가 거기서 대제사장으로 직무 하실 것입니다.

조심성 있는 그리스도인 학사들 태반은 에스겔 에서 말하는 성전은 그 모양을 어떻게 철저하게 다 형용해 놓았든지 문단 그대로 실제 건물이라고 인식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이 미래에 세울 성전인 것과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이유와 단순히 이 건물이 실상 한번도 건축되지 안 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사들 태반은 선지자 에스겔이 바벨론 으로 잡혀간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예언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포로로 잡혀서 끌려갈 때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불에 타서 로 말합니다. 아래 The New Bible Dictionary-성경 새 사전에서 이 점을 잘 설명해 줍니다.

룹니다. 미래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부귀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며, 미래 천년왕국 때에 있을 기쁨과 평화를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누리고 있다고 하며, 미래 이스라엘로 인하여 세계를 통치할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된다 하는 등등, 이와 같은 식으로 돌려서 말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예언을 영적의 뜻으로 돌리는 자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인 교가 “ 영적의 뜻으로 이스라엘” 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문단을 전도 선교사 교파들 중에서 가끔씩 들 수 있지만 성경에는 이러한 말이 기록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와 동시에 그리스도교가 미래에 이스라엘과 합친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는 이스라엘과 그리스도교가 둘로 갈라져 있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에게 약속하신 것은 기록한 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14. 읽어볼 책: Howard Marshal, ed. *New Bible Dictionary* (Inter varsity Press, Downers Grove, IL. 3<sup>rd</sup> edition 1996), pp. 1157-58.

15. 읽어볼 책: Hackett, op. cit., *Smith's Dictionary of the Bible*, Vol. 4, p.320

바닥만 남았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상하고 가슴 아플 때 이었습니다. 이러므로 어느 학사들은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성전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것으

The exiles were heartened in their grief by the  
Vision granted to Ezekiel. More details are  
Given of this [temple] than of Solomon's structure.  
Although it was never built.

에스겔에게 준 환상의 계시로 인한 이 고향 추방은  
그들의 마음이 상해서 비통 안에 잠기게 했다. 이 [성전]  
설계서의 자세한 내용은 솔로몬이 진 성전 설계서의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데 이 성전은 한번도 건축했던 역사가 없다.

Smith's Dictionary of the Bible 스민 의 성경 사전도 위와 같이 동감하기를 이 성전을 한번도  
건축했던 역사가 없다고 하며 여기에 덧붙여서 :

It is not a description of a temple that ever was  
Built of ever could be erected at Jerusalem.

이 설계서 에서 나타나는 성전 모양은 전에 한번도 건축  
안 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예루살렘 에다가 세울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으로 잡혀간 포로들에게 도무지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 거기에 대한 설계의 계시를 주셨다는 것은 너무도 터무니 없는 아이디어 입니다.  
더구나 구 설계가 원 성전과 같지 않은 허위 계시를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습니다. 에스겔 의 성전에 대한 여러가지 자세한 내용의 예시가 아홉 과목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데 “거짓이 없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시를 주시고 이것이 응하지  
않겠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반박합니다.

에스겔에 예언한 성전이 현재까지 건축한 역사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날엔 분명  
히 건축할 것이고 이것이 천년왕국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전 모양에 대한  
모든 자세한 설명서가 매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천년 동안 세계적으로 시선을 끄는 중심이  
될 것이며 땅에 모든 사람들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곳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르는  
구절들은 성전 모양을 설명한 구절들입니다 장소 (에스겔 45:3, 4,; 48:9, 10); 크기와 모양  
(에스겔 42:15-20; 45:2); 벽, 바깥뜰, 골방들, 문들, 성전 문 현관들, 출입 문구들, 계단, 뜰들,  
장식, 여호와의 앞의 상, 성소, 지성소, 제단, 제사장들의 옷 (에스겔 40-44). 여기서 관심을

고는 점은 언약 과 가 없습니다(예레미야 3:16). 왜냐 하면 구약성경 때에는 하나님이 자비 석과 나란히 한 언약 과 안에 계셨음으로 사람들이 그를 거기서 대면 했었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때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대하십니다.

희생과 제물을 말함으로 인하여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에스겔 의 계시의 성전은 실제 건물이 아니고 비유라고 합니다. 그들의 말에는 희생 제는 이제 해제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희생 제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이 “새” 희생 제가 “구약”에서 드린 희생 제 목적과 똑같은 줄로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아주실 점은 이 “새” 희생 제가 구원을 받는 길이라고 한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위하여 단번에 희생 드렸다고 히브리서에서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그럼으로 미래에 드리는 제사는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이미 지나간 유월 절 제사를 기념으로 드리는 것과 같이 지난 일을 기억하는 제사일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성실을 증명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행위를 용서해달라고 드리는 제사일 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간에 드린 제물은 구약 때처럼 제사장 들과 레위 사람들의 식물이 됩니다.

#### **에스겔 44:28-30**

(28) 그들은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나는 그 산업이 됨이니라.

(30) 또 각 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로 네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에스겔 에서 제물과 희생 제물을 말하는 것을 이유로 삼아 성전을 없애 버리고 “영적의 성전”이라고 하거나 혹은 비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왕과 대제사장이 된다는 예언이 그 예언 그대로 응하게 될 것입니다.

#### **천년왕국 때엔 예루살렘이 세계의 수도가 됨(이사야 1-7).**

예루살렘이 북쪽에 있는 유다 지파와 남쪽으로 베냐민 사이에 있는 “구별된 거룩한 구역” 이 남쪽으로 자리잡게 됩니다(에스겔 48:7-23). 이 성읍이 여호와의 산에서 남쪽으로 자리 잡게 되고 (에스겔 40:2) 그리고 그 성읍의 범위가 동, 서, 남, 북 모두가 4500 척 곧 1.5 마일

씩으로 네모 반듯합니다.(에스겔 48:16). 이 성읍은 심히 아름답고 온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이사야 62:7).

### **천년왕국이 아직도 미래에 있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기도문이 “주님의 기도” 인데 이 기도문에서 알고 계시듯이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나라가 임하옵시며-Thy Kingdom Come” 라고 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마태복음 6:10 누가복음 11:2). 만일 그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면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가 임하게 해 달라는 기도를 하시지도 안 했을 것이며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지 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지 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해 주신 지 거의 2000 년이 지난 오늘날, 사람들이 그의 나라가 임하게 해 달라는 기도를 여전히 기도문 삼아 되풀이 하는 이유는 아직도 그의 나라가 임하지 안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묻기를 주께서 나라를 회복 시키실 때가 이 때냐 고 물었습니다(사도행전 1:6). 그들은 참으로 그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렸으며 이 괴롭고 고통스런 세상이 속히 끝나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귀 띄움 해 주시기를 자기가 왕국을 잡을 때 그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 지파를 판단할 것이라고 일러준 적이 있었습니다(마태복음 19:28).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친절히 대답하시기를 나라가 임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사도행전 1:7). 이 결과를 보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 이 왕국을 세우시지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 후와 승천 후에도 그의 나라를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땅으로 다시 내려오시면 그때에 이 나라가 분명하게 세워 집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세상을 다스릴 것이며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스가랴 9:10) 라고 한 말씀이 응할 것이며 그 때엔 예언과 약속으로 말씀하신 기쁨, 평강, 음식, 그리고 건강,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 집니다. 봉사와 앓은뱅이가 고침을 받고 정의가 땅을 덮을 것입니다. 메마른 사막 지대가 백합화처럼 피어나겠고 생명의 강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산에서부터 갈라진 골짜기로 흘러 내려와서 사해를 살아나게 고칠 것입니다.

이 왕국이 이미 닥쳐 온 것인지 아니면 미래에 남아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끔 혼돈합니다. 이 혼돈에 한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번역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한 이 구절 때문이고 둘째는 이 구절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이미 왕국에 속한 줄로 혼동된 생각 때문입니다. 이 두가지 이유를 각각 신중히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 장 21 절을 대부분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번역 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기록한 구절이 단지 이 한 구절만 있는 것처럼 인용 하며 아주 자신 만만 하게 설명 합니다. 반어적으로 이 구절이 야 말로 가장 외따로 사용해서 왕국에 대한 모든 사실을 보이지 않게 묻어 버립니다. 한편 수백 구절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기도문까지 합쳐서 아무 “안에” 있지 않다고 성경 뿐만 아니라 현재 생활 경험적인 증거로도 그의 나라가 아직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실하게 밝혀 줍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를 둘러싼 무리가 예수님과 그의 아버지를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이 었 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도자”라고 했습니다(요한복음 8:19). 물론 그들 안에 왕국이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버림받을 위험한 단계에 놓인 자들입니다(마태 복음 21:23-31).

한가지 중요한 점은 누가복음 17 장 21 절에 연결된 그 전 구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있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구절의 번역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20, 21**

(20)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때에 임하나이까 물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질문은 어느때에 임하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누가 생각하기를 바리새인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

---

16.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의 성령 은사(선물)이 그들의 속에 인치 (돌이킬 수 없는, 보증서)되어 있으며 그럼으로 골로새서 1:27 에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하셨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지 안 했습니다.

의 나라가 이미 왔다고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을 모조리 다 읽고 보면 이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나라를 찾을 필요가 없다고 (23 절)에서 말씀하신 이유는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뜻하여 온 천하를 비침으로 모두 다 보게 될 것을 (24 절)에서 말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26 절)에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에(그전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미래) 그러하리라.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대답한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있다는 것이 확실 합니다.

이 구절에 있는 단어 “안에”를 “중에”라고 혹은 “너희들 중앙에”라고 번역 했어야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동화적 신념 그리스도교가 다른 구절들은 다 제쳐 놓고 하필이면 번역이 잘못된 이 구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말을 강조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각자 안에 있다고 단언 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아주 빛나가는 이유는 성경 조사하는 공부 방식 중에서 두가지를 무시하는데: ㄱ)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말씀 하시는가 를 무시했고 ㄴ) 앞 뒤 구절에 연결되는 화젯거리를 무시했습니다. 전에 말했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 바리새인들 에게 말씀 하셨고 여기에 연결된 구절들은 하나님의 아라가 미래에 올 것을 확실하게 말해 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에서 하신 것일까요? 이 구절을 맞게 깨달으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그들이 늘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를 허위 자로 몰기 위해서 늘 책잡으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때에 임하느냐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거만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메시아이고 왕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음으로 그것을 무마시키고자 노력한 것입니다. 그럼으로 그들의 생각에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것을 골라서 묻기를 “만약

---

17. 예수님이 모르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상상도 못하는 많은 신학자들에게 이 구절이 큰 문제거리가 됩니다. 그럼으로 필사본(manuscripts)을 인쇄할 때 “아들도 모르고”라는 말을 빼어버린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논의 한 것이 많은 역사책에 기록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 책: 작가 - Bart D. Ehrman 책 이름: *The Orthodox Corruption of Scripture*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1993) pp. 91-92; 작가 - Bruce Metzger, cor. 책 이름: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Deutsche Biblegesellschaft/German Bible Society, Stuttgart.1994), pp. 51-52; 작가 - Bruce Metzger,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Its Transmission, Corruption and restor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1992), p.202 예수님께서 왜 이 일을 모르고 계셨는가 에 대하여 더 아시고 싶으면 작가: Graeser, Lynn, and Schoenheit, op. cit., *One God & One Lord* 이라는 책을 보시오.

네가 왕이면 그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하고 질문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서 이러한 일에 상대하여 대답할 의무 곧 적어도 바리새인들이 기대하는 의무감을 책임지지 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 이 질문에 단순하게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답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 하면 그의 제자들에게는 왕국이 올 날과 때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간단하게 대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 마태복음 24:36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서 그의 제자들에게는 왕국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쉽게 말했지만 거만하고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는 확실한 대답을 주시지 안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이 보통 그들에 대답하는 식 곧 정체를 알 수 없는 대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 말로 “안에”를 “중에” 혹은 더 나은 번역은 “너희 중앙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비록 실제 왕국이 아직 나타나 있지는 안 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알고 계셨음으로 그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중에 있느니라.” 라고 자기를 가리켜서 대답 하신 것입니다. “중에”라고 번역된 성경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알아보지도 못하며 혹은 그 구절을 인용 하지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에 왕국이 비유의 왕국으로 인식하게 된 큰 이유가 되어 어찌 된 일인지 그 왕국이 그리스도인들 각자 안에 있다고 인식되어 있지 실제 왕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왕국을 비유로 만드므로 써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대답하

---

18. 그리스도께서 땅에다가 실제 왕국을 세우는 것을 비유로 바꾸어 놓은 이유로 비 법적 신학이 되며 그럼으로 캄캄해서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결과를 줍니다. 어느 그리스도인 이든지 하나님의 왕국이 자기 안에 있다고 말하는 분은 보통 자기가 말하는 뜻에 어렴풋한 아이디어 뿐입니다.

19.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은 비록 실상의 왕국이 미래에 있지만 왕이 현장에 계실 때에는 왕국도 현장에 있는 것처럼 종종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2: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여 왕이 현장에 계시는 표현을 하느라고 이 같은 구절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현장에 계시미 미래의 왕국이 임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와 비슷하게, 완전한 왕국이 임할 때에 경험할 것을 현재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성경 역사적으로 내려온 것을 보면 병 고침을 받음과 기적과 음식을 몇 곱절 씹 늘려 먹임으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게 한 일과 등등 여러가지를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그 왕국의 “어렴풋한” 것들을 보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왕국이 현재 임했다는 증거 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왕이 현장에 계실 때엔 그의 왕국을 현장에 있는 것처럼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Bullinger-볼닝얼 학사의 말씀에 “The Kingdom depends on the PERSON of the king-왕국은 왕 자체에 매어 있습니다. 왕이 왕국을 왕이 왕국을 세우는 것이지 왕국이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 Kingdom-킹덤 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말이

신 것은 주님께서 거만한 바리새인들을 은근히 조롱하신 것인데 그 이유는 왕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고 싶어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왕이 그들 가운데 서있는 것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를 불경건한 자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불구하고 태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에 “중에”라고 하지 않고 “안에”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꽤 많은 성경에 “중에”라고 혹은 “중간에”라고 번역 했는데 이와 같은 성경들입니다: New American Standard Bible,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The New English Bible, (by J. B. Rotherham). The Bible: James Moffatt Translation, Complete Jewish Bible (by David Stern). God’s New Covenant (by Heinz Cassirer). 그리고 또한 동시에 존재한 사투리 말을 번역한 (by Eugene Peterson) 이라는 분의 책 The Message 라는 책도 이 위의 성경들과 동의 합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임한 것으로 믿는가 하는 이유가 또 한가지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것처럼 된 몇가지 구절들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1:13 절에 “우리를 흠암의 권세에서 건져 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이미 의의 나라에 들어간 것 같이 말합니다. 이렇게 반박된 구절들을 해결하는 문답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사투리 말 “Prophetic perfect – 완전한 예언”을 깨달음에 있습니다. 이 말을 어느 때에 사용하는가 하면 언제든지 미래를 말할 때에 그것이 꼭 이루어 진다고 작성된 예언을 말할 때에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그리스도인들을 현재 그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말은 그들이 미래에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보고 “Prophetic perfect- 완전한 예언” 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원 성경의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사용했던 idiom-사투리 말 입니다. 이 완전한 예언의 효가 가 신학과 성경을 적합하게 이해하는 것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투리 말을 이 책 뒷면 부록 E. -Appendix E. 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 **성경에서 나오는 천년왕국의 이름들**

천년왕국에 대한 이름을 성경에서는 여러가지로 부릅니다. 이러한 것을 성경에서 흔히 볼

---

dom-덤 그 juris diction-사법 이라는 뜻을 말합니다. Dom 이라는 말이 doom-파멸 이라는 말을 약자로 사용한 것인데 혹은 심판이라고도 뜻합니다.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엇이든지 여기에 견본으로 준 따르는 말 같이 earl-dom-백작의 지위, wisdom-지혜, Christen-dom-그리스도-교국, 이러한 식으로 사용함이 나타납니다. 때문에 왕국은 언제든지 사법과 규율을 실행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으로 왕이 없으면 왕국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대적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중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21)라고 하신 말씀은 왕이신 사람을 뜻하신 것입니다. 그가 자기를 대적하여

수 있습니다. 사람 이름이나 어느 고장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부르는 것이 성경에 두루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다윗 성(사무엘하 5:7, 9), “하나님의 성”(시편 64:4), “살렘”(시편 76:2), “시온”(시편 76:2), “여호와 우리의 의”(예레미야 33:16), “소돔”(에스겔 16:46), “큰 왕의 성”(시편 48:2 마태복음 5:35), “아리엘”(이사야 29:1, 2, 7, 이 뜻은 “하나님의 사자” 혹은 “하나님의 노변”), “진리의 성읍”(스가랴 8:3), 이 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름들이 다 예루살렘에 관련된 증거로 확실하게 말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뉴욕 시티를 “Big Apple-큰 사과”라고 하며 뉴욕에 있는 브로드웨이를 “코리아 타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배우는 초기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다르게 부르는 이름들이 많은 혼동을 줄 염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천년왕국에도 여러가지 이름으로 부르지만 이러한 것이 우리를 혼동되게 하지 안 해야 되겠습니다. 이 이름들의 연결된 구절들을 공부해 보면 모두가 다 같은 한 왕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마가복음 1:15).

천국-곧 하늘나라 (마태복음 4:17).

나라이[하나님의]-Your [God’s] Kingdom. (마태복음 6:10 “주님의 기도”).

자기 아버지 나라 (마태복음 13:43; “자기” 는 거기서 살 의인들을 말합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 (마가복음 11:10; 그리스도의 왕국이 다윗의 왕국을 이어질 것으로 알려진 이유는 예언에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리에 앉아 나라를 다스린다는 예언이 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나라 (누가복음 23:43; 고린도후서 12:4; 요한계시록 2:7; 미래 그리스도의 나라가 땅에서 낙원으로 변경될 것입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골로새서 1:13)

그의 천국 (디모데 4:18).

우리 주의 영원한 나라 (베드로후서 1:11).

. 왕이신 것을 거절하고 그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의 각자 마음 “안에” 있다고 한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Op. cit., 책 이름; *Figures of Speech Used in the Bible*, p.991

20. 한가지를 여러 이름으로 부르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를 한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도지도 그러한 식으로 부른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베들레헴 과 예루살렘 둘을 다 다윗의 성이라고 부릅니다(누가복음 2:4, 11; 사무엘하 5:9).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했지만 예루살렘을 정복하고는 그곳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 천년왕국에서 훌륭한 생활의 품질들을 약속해 주셨다

영원히 살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태반이 그 생활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고자 합니다 고맙게도 성경에서 그 의문을 풀어줍니다. 사실은 천년왕국에서 생활의 여러 면을 세밀하고 명백하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미래의 약속들과 예언들이 너무나 좋아서 “사실이라고 하기는 거의 과분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약속들이 반드시 응하게 됩니다. 이러한 약속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확실하게 알면 알수록, 이 약속 하나하나에 침을 흘리게 되고 그 왕국이 어서 오기를 “champing at the bit-말이 자갈을 물고 몸이 달아오르는” 식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감동해서 기를 쓰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훌륭한 점들의 세밀한 설명을 몇가지만 아래다 뽑아 놓았습니다.

---

21. 위에 내놓은 구절들은 철저히 다 내놓은 구절들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단지 한 구절을 참고로 내놓았지만 이 한 이름을 여러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22. “천국-하늘나라”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왕국이 하늘에 있는 근본으로 혹은 그의 품질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무렵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려고 “여호와 하나님” 표현하는 것을 대신하여 “하늘”이라고 흔히 말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되찾은 아들의 비유; 낭비하는 아들에 대한 비유,”를 보면 그 아들이 아버지께 말하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 사오니” 여기서 하늘이 “하나님께”라는 뜻입니다 현재 우리 한국말로도 “하나님이여”를 대신해서 “하늘이여”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이 아실 것이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아실 것이다.”라는 말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럼으로 “하늘나라”라는 말을 간단히 말해서 유대인의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읽어볼 책: Leon Morris 분이 쓴 책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Grand Rapids, MI, 1992), p. 53

23. “낙원”이라는 말은 누가복음, 고린도후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미래 그리스도의 왕국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에덴동산 역시도 “낙원”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에덴이라는 말이 “즐거움” 혹은 호사” 그리고 70 인 역 그리스어 성서에는 항상 “paradeisos,-페레데이소스”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 뜻은 “정원 혹은 화려하고 쾌적한 감의 장소를 포함시킵니다.”paradeisos-페레데이소스”는 말기 라틴어로 paradisis-페레다이스에서 받아 드려서 오늘날 영어로 “paradise-페레다이스”라고 부르게 된 것인데 한국말로는 “낙원”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미래 왕국을 “낙원”이라고 부름을 성경구절들이 미래 왕국을 에덴동산과 연결시킵니다. 에덴동산과 미래의 왕국 둘 다 “낙원”입니다. 미래 그리스도의 왕국이 글자 그대로 “회복시킨 낙원”입니다. “낙원”이라는 단어가 천년왕국을 의미한 뜻으로 연결시켜서 사용했지만 영원한 왕국을 “낙원”이라고 의미하는 것도 확실합니다. 그럼으로 이 단어를 두 왕국을 다 의미할 수 있습니다.

24. 여기에 “영원한 나라” 라고 하는 말에 연결된 구절들이, 사실은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영원”이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aionios-에이안스, 라고 하는데 그의 뜻은 “age abiding-머무르는 세대” 혹은 everlasting-끝이 없는, 혹은 영원한”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천년왕국을 “영원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왕국에 들어오는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영원한 나라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미 지정되었기 때문이거나 혹은 천년왕국이 1000 년동안뿐임으로 hyperbole-과장법(양쪽에 사용되는 문법) 이기도 합니다.

## **그 때엔 땅에 정의가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2:4, 7; 11:1-5; 32:1, 2, 5; 예레미야 23:5, 6; 33:15)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의 왕국]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사야 9:7). 뇌물과 부패, 편협한 행위와 인종차별, 미움과 관용성이 없음으로 인간이 부패에 떨어진 후로 붙어 지금까지 공정한 판단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수백 년이 넘도록 부패된 인간의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성미의 결과로 법관에서 정의로써 처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 왕국에서는 정의로 다스리는 이유가 여러가지인데 적어도 그리스도, 그가 모든 인간의 마음을 다 아시며, 그가 재판관들의 “총 위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 **전쟁이 없어집니다.**

(이사야 2:4; 9:4-7; 마라기 4:3, 4; 스가랴 9:9, 10) 창세기 때부터 전쟁이 인간을 매질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 안에 어느 곳인가 항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보통 여러 군데서). 이외에 비록 큰 전쟁이 아니 라도 종족 간에 싸움을 계속함과 “냉정한 경쟁”으로 인생길을 망쳐버리는 일이 흔하게 있습니다. 만약 전쟁 무기에 돈을 들이는 것, 군인 훈련, 그리고 그 군대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비용이 아니면, 수억 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들의 소질 대로, 더 좋은 일을 하는 생활의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에서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 하리라” 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재난 시대와 아마겟돈 전쟁이 끝날 때까지 무기를 없애지 않고 그 후에 전쟁 무기를 쳐서 농사 짓는 도구를 만듭니다.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이사야 2:4; 미가 4:3).

## **부활한 믿은 자와 들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완전 건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사야 29:18; 32:3, 4; 33:24; 35:5, 6,; 57:19; 예레미야 33:6; 말라기 4:2)

몹쓸 병들과 그 고통으로 인하여 인간 생활의 즐거움을 빼앗아 갑니다. 아무리 유명한 의학박 사라도 고칠 수 없는 병을 주님께서서는 그의 왕국에서 부활한 자들과 들림 받은

---

25. 원래 이 책을 쓴 작가께서 단어 “champing-몸이 달아오르다” 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영어로 “champing” 이라는 말은 말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을 순종케 하는 역할을 하는데 말을 몰고 달리다가 중단시켜서 잠시 멈추고 있을 때 말이 순종을 하면서 그저 빨리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입을 위로 쳐들어 고개를 흔들며 이빨을 하얗게 내 보이는 모습을 보고 champing -챔핑 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들의 몸쓸 병에 고통한자들을 모두 건강하게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축복스러운 일입니까?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 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33:24)

그때엔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병어리의 혀는 노래 하리니” (이사야 35: 5, 6) 천년왕국 때 거주하는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의 건강에 대하여서는 성경에서 확실하게 밝히지 안 했습니다. 그들은 죽을 수 있습니다(이사야 65:20; 에스겔 44:25), 그러나 그들이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고 걸을 것을 말했지만 그 뜻이 아파서 고통스럽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서 인지 아니면 건강하게 잘 살다가 늙어서 몸의 기력이 떨어져서 죽는지 여기에 대한 자초지정을 확실하게 밝혀 주지 안 했습니다. 스가랴 8 장 4 절에 사람들이 나이 많음으로 물론 천년왕국 동안에는 마귀와 그의 악령들을 결박하여 놓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2; 다니엘 7:12), 영적으로 일어나는 병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관심을 주어야 할 중요 점은 영원한 왕국에서는 죽음과 병들이 영원히 살아져 버리고 모두가 완전히 건강해 집니다 (요한계시록 21:4).

### **인간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사야 11:6-9; 32:18; 54:14-17; 60:11, 17, 18; 65:17, 25; 예레미야 23:4; 30:10; 33:6; 에스겔 28:26; 34:25-31; 미가 5:4, 5; 스바냐 3:13-17).

아담과 이브가 에덴동산에서 쫓겨 난 후로, 비통의 대하 소설과 슬픔은 대체적으로 세상에 안전함이 모자란 결과 입니다. 예기치 않은 비극들로 끊임없이 많은 생명과 가족 생활을 망가뜨리며, 불행의 장애물에 부딪침으로 인하여 받는 고통과 부서진 뼈로 인하여 불유쾌 한 분들, 기영아, 장애자, 그리고 죽음까지도. 이 모든 비극들이 순전히 사고로, “자연”에 근거로, 자신-고통, 혹은 다른 사람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하루 별로 보아서, 여러가지 신문 기사와 끊임없이 공급하는 재난들로 인생에게 재앙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매일 신중히 생각 해야 할 일이 개인의 안전보장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에서는 이러한 입장이 달라집니다. 이리가 양과 같이 눕게 되며 물릴 염려 없이 어린 아이가 독사 굴에 손을 넣고 장난할 수 있 다는 것입니다(이사야 11:6-8).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것과는 아주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평강과 안전”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예레미야 33:6).

## 땅이 고침을 받고 사막이 피어나게 됩니다.

(이사야 32:15; 35:1, 2, 6, 7; 41:18-20; 44:3; 51:3; 에스겔 47:8, 9; 호세아 2:21, 22; 요엘 2:21-23)

역사로 내려온 것을 보면 사막들과 쓸모 없는 땅들 때문에 사람들이 땅에서 소득 내는 즐거움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농부들이 많은 수고를 하여야만 원만한 소득을 냅니다. 이 문제가 점점 더 악화되기 때문에 좋은 땅이 오염되지 않게 방지하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앞으로 땅의 소득은 더 줄어들거나 혹은 쓸모 없는 땅으로 점점 변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구의 토양 표면 태반이 씻겨 내렸거나 혹은 매우 쇠약해 졌고 거센 기후로 많은 농산물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메시아의 나라에서는 땅이 풍성한 소득을 낼 것이 라고 했습니다. 그때엔 “광야 (desert-사막)가 아름다운 (fertile-기름진)밭이 되며 아름다운(fertile-기름진)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이사야 32:15)라고 했으니 얼마나 좋을까요?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사야 35:6, 7)

## 음식이 풍성함으로 굶주림과 하다못해 배고픈 것 까지도 없어집니다.

(이사야 25:6; 30:23-26; 32:15; 35:1, 6, 7; 51:3; 예레미야 31:5, 11-14; 에스겔 47:1, 2, 7-12; 요엘 2:18-26; 3:18; 아모스 9:13)

천년왕국 때엔 땅이 고침을 받고 물도 농사 짓기 좋게 될 것임으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 지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이사야 25:6). 예레미야 31 장 12 절 같은 구절들은 양떼와 소떼들을 말해 줍니다. 이 구절을 이사야 25 장 6 절과 합치면 천년왕국 때에 사람들이 채소만 먹는 것이 아니라 고기도 먹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굶주림을 한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지만, 역사상

---

26. 여기 이사야 에서 말하는 예언에 특별히 천년왕국에서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이 구절을 알고 계셨고 그럼으로 미래 왕국에 포도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회를 잡수실 때 그의 제자들을 향한 사랑과 각오를 표시하면서 장담하시고 이르신 말씀이,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 하신다고 (마태복음 36:29)하셨습니다. 이 각오를 그가 꼭 지키실 것을 여러분이 보증할 수 있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후에 그의 제자들과 포도주를 드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는 그의 왕국을 잡을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27. 이사야 25 장 6 절, 이 구절이 천년왕국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고기를 먹는다고 똑똑하게 말해줍니다. 이 구절 번역이 영어 킹 제임스 성서와 똑같이 번역되었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라고 했는데 “기름진 것과 골수가 가득한 것”이 고기라는 것을 똑똑하게 표현합니다.

으로 보면 배고픔과 굶주림이 세상에 끔찍한 문제거리가 되고 이 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이 천년왕국에서는 없어지게 되는 이유는 거기엔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음식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짐승까지도 먹을 것이 풍부함으로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육지 창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이사야 30: 24).

### **신학적 논쟁과 말다툼이 그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같이 희미하나”, 현재는 하나님과 진실에 대한 것들에 보통 동감하지 않거나 혹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슬프게도, 역사에 아주 많은 종교적 의견 반대와 논쟁 때문에 친구도 끊어지고 가족도 파산이 나고 이 문제로 헐박과 고문까지 했으며 종교적 전쟁도 일어났고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가득히 있습니다. 그러

나 천년왕국 때에는 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사람들이 서로 논쟁하는 것이 쉽게 해결될 것임은 누가 무엇을 모르는 것이 있으면 주님께 가서 직접 문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사야 29:23, 24; 예레미야 31:33, 34; 에스겔 11:18-20).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전서 13:12).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을 다스릴 때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알 수 있는 일이 그전에는 한번도 있어 본 일이 없습니다. 이사야 11 장 9 절과 하박국 2 장 14 절에서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 **사람들이 거룩해지고 행복하고 거기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4:2-5; 35:10; 51:3; 60:1-22; 61:4-11; 62:1-12; 65:17-25; 예레미야 30:18, 19; 31:4, 12-14)

천년왕국 때에 행복과 기쁨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건강하고 잘 먹고 거기엔 전쟁이 일어날 염려가 없고 여러가지 풍파와 혹은 위험한 일들이 없다는

---

28. 어떤 때는 하나님을 “성령” 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성이라는 뜻은 거룩하다는 뜻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가 신령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때에는 하나님의 은사(선물)를 몇 사람에게만 주었고 그 은사를 오늘날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부여 주시는 것도 (사도행전 2:33) 역시 성령이고 그럼으로 이것을 “성령의 은사(선물)” (사도행전 2:28)라고 합니다. 선물은 누구가 아닙니다. 이것을 옳게 분별하지 못해서 한국성경에는 우리 안에 있는 선물인 “것” 성령을 “성령이 임하시다” 혹은 “오시다”라는 누구를 말하는 식으로 번역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따르는 이야기

것을 아는 자는 그때의 생활이 얼마나 재미있을까 하는 상상을 매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생활이 참으로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에 이러한 구절들을 많이 기록해 놓았으며,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예레미야 30:19)고 했습니다.

**천년왕국에 있는 모든 믿는 자 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은사(선물)를 받게 됩니다.**  
(이사야 32:15; 44:3-5; 에스겔 11:19; 요엘 2:28-32; 요한복음 7:37-39; 14:16, 17; 사도행전 1:8; 2:16-18, 38, 39)

구약성경 때에는 하나님께서 몇 사람만 골라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때가 차면 만민에게 그의 신을 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킹 제임스 번역에는 “모든 육 에게” 라고 했습니다(요엘 2:28). 오순절 날 교회 에다 성령을 부어준 후에 베드로가 이 뜻을 알고 요엘에 기록한 말을 가리켰습니다(사도행전 2:17). 오순절 날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성령

---

앞 뒤를 맞추어서 읽어야 되고, 영어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은 “the gift of holy spirit”을, 곧 은사(선물)를 말할 때는 h 와 s 를 소문자

로 사용하고 하나님을 말할 때는 Holy Spirit 이라고 H 와 s 를 대문자로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번역입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이 이것을 옳게 번역하지 안 했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는 자가 앞 뒤 연결된 말에 맞춰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은사 (선물)를 말하는 것인지 잘 분간하여 읽어야 합니다. 각각 믿는 자 안에 있는 선물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구약성경 때 성령의 은사가 함께한 자들이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에 표시한 [시]자가 없어야 됩니다)너희가 권능 (power-능력)을 받고” 라고 하셨습니다(사도행전 1:8). 옛 그리스어 원서에 하나님과 선물인 성령을 모두 PNEUMA HAGION-푸누마 하기온 이라고 부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사회에 큰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 옛 원서에는 모든 글자가 전부 대문자 이었고 단어 사이도 간격도 없고 계속 연결 되었으므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의 신성한 “선물인 성령을”) 말하는 것인지 분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이것을 우리가 옳게 분별해야 됩니다. 특히 영어로는 대문자와 소문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옳게 분별하기가 아주 편리합니다. 옛 원서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아시고 싶으면 Graeser, Lynn, and Schoenheit 분들이 쓴 책 op. cit., *One God & One Lord*. Appendix A. 노트에 히브리서 1:8 을 보세요. 하나님을 “성령”이라고 부르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성령”이라고 부르는 두 사이를 분별하는 것에 대한 것을 더 자세히 아시고 싶으면 Graeser, Lynn, and Schoenheit, 분들이 쓴 책 *The Gift of Holy Spirit: Every Christian's Divine Deposit* (Spirit & Truth Fellowship International, Martinsville, IN 1995), pp.17-21, 그리고 E. W. Bullinger 분이 쓴 책, *The Giver and His Gifts* (Kregel Publications, Grand Rapids, MI, 1979), pp. 26-41. 을 보시오.

29. “만민”-킹 제임스 번역에는 “모든 육,” 히브리 원서에도 모든 육 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가지고 논하기를, 요엘서를 이스라엘에게 기록했고 또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말했기 때문에 어찌면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고 다른 나라 에게는 해당되지 않을까 할지 모릅니다. 이러한 해석이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염려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이라는 말을 “누구든지”라고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연결되는 내용을 보면 “모든 육”이라는 말이 figure of speech-연설 그림이라는 형용사 인데 그 형용사 이름은 Hyperbole-과장법 혹은 Exaggeration-과대시 (과분하게 늘린 말)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불려서 한 말이지 문자 그대로 표현함이 아닌 것이 분명한데 그 이유는 모

부어주었다는 것을 말함으로, 의인이 살아나는 부활 때에만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돌이켜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기준해서 천년왕국 때 성령을 부어준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생각도 바르게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때에 부활해서 살아난 사람에게만 성령을 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육”에게, “모든”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와 그 구절 범위에 적합한 뜻으로 “모든 믿는 자”를 말합니다. 오순절 날 이러한 일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은사(선물)가 올 것에 대한 가르침에 들어맞았습니다.

**요한복음 7:37-39**

(37) 명절 끝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39)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전에 설명 했지만, 천년왕국에 육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초기엔 어느정도 다 믿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수십년이 지나면 새로 난 자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성경

---

든 짐승들도 “육”이 지만 그들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안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상상력을 넓게 하고자 하  
 실 때에 Hyperbole-과장법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을 더 밝혀주는 다른 견본들: 그리스도께서 네 손이 죄를 짓거든 “찍어내  
 버리라.” 물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누가 돌아서서 무엇을 흠뻑다가 뉘우치고는 자기 손을 잘라버리는 것을 보면 기겁할  
 것입니다 이 Hyperbole-과장법을 쓰는 이유는 누가 죄를 지면 그 버릇을 고치는 데에 어떻게 신중한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all creation-모든 창조물(한글 성경에는 “만민” 이라고  
 했음)”에게 전파하라고 하셨을 때 Hyperbole-과장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견본 또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마가  
 복음 16:15).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짐승들도 창조물이지만 물론 누구나 이 복음을 짐승들에게 전하라는 말이  
 아닌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문자 그대로 표현하셨을 것 같으면 “모든 인간”이라고 말씀하셨을  
 것이지만 Hyperbole-과장법을 사용함으로 그의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누구를 가리지 말고 사람이면 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근 십년 간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요엘서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 하다못해 종들과 어린 아이들 까지 성령을  
 주실 거라고 믿기는 아주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엘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까지 성령을  
 주실 거라고 믿기는 너무나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Hyperbole-과장법을 사용해서 “모든 육”  
 이라고 하신 이유는 그가 정말로 모든 인간에게 라는 것이 정확하다는 것을 강하게 나타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30 “모든”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이점에 대한 구절들을 Graeser, Lynn,  
 Schoenheit 의 책 op. cit., One God & One Lord-하나님도 하나 주도 하나 부록 A 골로새서 1:15-20Numbers 5. pp. 510-11

말씀에 그들은 성령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다들 성령을 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들은 나중에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요한복음 7 장 39 절) 하신 말씀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써 천년왕국에서 육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있을지라도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이 사실에 혼동되지 안 해야 되겠습니다. 선물인 성령이 사람을 강제로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지 않습니다. 구약성경때를 보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인 데도 실수하고, 불순종하고, 심지어 터놓고 하나님에게 반항적인, 이러한 여러 견본들이 수두룩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성령이 있었지만 실수하여 기브온 족속과 약속했습니다(여호수아 9 장). 기드온에게 성령이 있었지만 에봇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숭배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성령이 있었지만 하나님에게 불순종을 되풀이 했습니다. 다윗에게 성령이 있었지만 밋세바와 동침하여 간음죄를 짓고 우리아를 꺾하여 죽였습니다. 솔로몬에게 성령이 있었지만 “여호와와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라고 했습니다(열왕기상 11:6). 이러한 식으로 신약성경에도 계속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죄 안에서 살고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나 그 소리는 “매우 조용한 음성이고,” 매우 온순하게 인도하심으로, 누구든지 불순종하기로 들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세대에서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인들 모조리)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므로, 성령을 받았으면, 보통 구원받은 것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세대에서는 그렇지 안 했습니다. 구약성경 때나 4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때엔 그렇지 안 했고 그리고 또 천년왕국 때에도 그렇지 않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선물로 인하여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더 거대한 교제를 경험할 수 있으나 그것이 사람으로 죄를 지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선물은 사람을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지 않습니다.

---

31. 비록 그리스도인들 중에 태반이, 이 구절에서 예언한 것이 오순절 날에 부여준 성령을 가리킨 것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구약성경을 밝혀 “성경에 이름과 같이” 라고 한 것은 이사야 58 장 11 절인데 이것이 그리스도교를 가리킨 것이 아니고 순전히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약속의 성령을” (에베소서 1:13)받았으나 그 이유로써 이 예언이 특별히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교인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순전히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 예언은 특별히 천년왕국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32. 누가 하나님께 몹시 자주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있는 성령을 빼앗아 버린 적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이렇게 했습니다(사무엘상 16:14). 그러나 누구에게든지 다 그렇게 하시지 안 했습니다.

**각 나라에서 사람들이 그들의 고토인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올 것이며 이방인 들도 단에서 희생제를 드린 수 있게 합니다.**

(이사야 2:2, 3; 14:1; 19:18-25; 56:4-8; 60:3, 9, 14; 66:21; 스가랴 2:11; 8:20-23; 14:16)

이사야가 예언한 예언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유명해질 것이며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말이 응하게 될 것입니다(이사야 56:7). 어쩌면 열방에서 온 사람들 중에서 뽑아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을 것입니다. 유대인들 생각엔 언약과 성전이 순전히 자기네들만 위한 것인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방인이 성전에 오거나 (혹 유대인들이 데리고 오더라도) 그들을 사형시켰습니다(사도행전 21:27-32).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대제사장 이 되셔서 그의 보좌에 앉으시면 이러한 것들이 다 변경됩니다. 그때는 만민들 (모든 사람 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나라들은 환란과 아마겟돈 전쟁 때 (혹은 전에) 멸망하고 다시 새로 세우게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진 많은 나라들의 파괴에 대한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나라를 세우실 때에 많은 나라들의 행운이 회복되는 것을 명확하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 나라들 중에 애굽 (이사야 19:18-25; 예레미야 46:26). 앗수르 (이사야 19:23-25). 모압 (예레미야 48:47). 암몬 (예레미야 49:6). 그리고 엘람 (49:39) 나라들이 그를 숭배합니다. 이 나라들 사람들 중에 많은 백성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를 숭배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과거에는 하나님의 적이었고 우상 숭배자들이었지만 예언에 그들의 회개하는 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모든 나라들의 기도하는 집이 됩니다.

### **천년왕국에 대하여 간추린 대략**

이제 여러가지 논점이 밝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첫째이고 가장 중요한 논점은 천년왕국이 미래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천년왕국이 미래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건강, 안전, 정의, 전쟁이 없는 것, 굶주림이 없는 것, 그리고 기쁨이 세상에 가들 찬다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약속의 예언들

---

33. 오순절 날 전에 누구에게 성령이 “임한” 것과 오순절 후에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으로 “난” 것이 다른 점 (그리스교가 오순절 후에 시작되었음)을 Graeser, Lynn, Schoenheit 분들이 쓴 op. cit., *The Gift of Holy Spirit- 성령의 은사(선물)*라는 책 pp. 24, 102 에다 완전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 아직도 응하지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의 종교 인도자인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잘못 생각에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왕국도 올 줄로 알았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왕국이 없으니까 불경한 자와 사기꾼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가 두번째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땅을 정복하실 때 올 왕국이 미래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왕국이 땅에 있을 것인지 하늘에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밝혀 줍니다. 만약에 아무도 땅에서 살지 않고 농사 저서 즐길 사람도 없을 것 같으면 땅을 고칠 필요가 없고 사막도 백합화 같이 피어나게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땅에 아무도 없는데 무엇때문에 땅을 고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와 옛 선지자들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라고 하셨지 “하늘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라고 하시지 안 했습니다.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것을 옳게 깨닫는 것이 믿는 사람들로 여기에 참례하는 것을 사모 하게 합니다. 메시아에 왕국을 참으로 깨달은 후에 누가 여기에 참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책이 바로 미래에 있는 영광스런 생활의 소망이 영혼에 닳이라는 것을 간추려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망이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각오를 세운 사람들의 생활에 닳이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게 하는 큰 역할을 합니다. 너무도 흔히 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불에 던지는

---

**34.** 어떤 사람들 말엔 누가복음 16:19-31 절에 있는 부자와 거지-나사로의 비유를 가지고 고통을 현상하고 있지만 이 구절들은 사실을 그대로 현상하는 현실이 아니고 비유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악한사람들은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비유로 하여 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비유를 말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과 같이 된 것은 바리새인을 얻고자 함”이라는 (고린도전서 9:19-22) 에서 말하는 지혜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비록 죽음에서 되돌아온다 해도 마음의 마음에서 믿지 않는다는 것을 꼬집어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사로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환경이 같은 식으로 나타난 셈이 됩니다. 기록된 나사로가 사실이고 비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우김이 ㄱ) 예수님께서 비유라고 하시지 안 했고 ㄴ) 다른 비유에는 실제의 명칭이 들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ㄱ)의 답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먼저 이것이 비유라고 하시지 않고 하신 비유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몇가지 견본의 구절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포도원의 품꾼들 마태복음 20-1-26)과, 두 아들 (21:28-32), 슬기 있고 미련한 처녀들 (25:1-13), 그리고 달란트 (25:14-30 이 비유는 누가복음 19:11-27 에서 나오는 므나의 비유와 다릅니다). 누가복음 15 장과 16 에서 나오는 비유의 시작이 이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되찾은 아들 (누가복음 15:11-32) 이 비유의 시작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 (누가복음 16:1-13) 이 비유 시작이 다른 비유들과 같은 식으로 된 것을 보아서라도 이것이 예수님께서 연속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것의 강한 증거가 됩니다. ㄴ)의 답변, 비유에는 실제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규율이 없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비유에는 매우 명확한 항목들이 담겨 있는데, 돈 금액 혹은 물품들, 그날의 시간 그리고 하다못해 도시의 명확한 이름들 까지도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비를 베푸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예루살렘과 여리고 두 도시 이름이 있습니다(그리고 이것이 비유라고 시작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라고

무서운 상상을 그려 주어서 그리스도로 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고대 문학에서 이야기, 악마가 사람들을 태우거나 혹 고문하고, 부글부글 끓는 불뭇에 머리부터 집어넣는다는 등, 불에 빨갱게 달군 쇠스랑으로 찢림을 당한다는 이러한 것들은 도무지 성경에서 나온 말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옥의 흉악한 것으로 “무서움을 주어서 구원으로” 오게 하시는 것보다 에덴동산 (낙원) 에 매우 좋고 훌륭한 것들로써 사람들로 구원을 받고 싶게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믿는 사람들에게 미래의 생활이 얼마나 좋고 훌륭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에베소서 5:1) 고 했으므로, 우리도 그의 선하신 것들로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미래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하여 공부하여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럼으로써 여기에 지식이 능숙하여 숙달하게 표현할 수 있음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쉽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 하나 하나가 앞으로 닥쳐올 왕국의 매우 좋고 훌륭한 일들에 대하여 저절로 재미가 나서 굉장히 좋아하게 되는 것이 정상이고 그럼으로써 이 점에 지식이 점점 늘어서 이 큰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 어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

시작함). 부자와 거지-나사로의 이야기에 있는 주인공들이 사실의 기록에 나타났고 성경을 공부한 신학적 도서 원들과 조심성 있는 사람은 모조리 그리고 전통화 신념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비유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는 철저한 목록은 여기에 적합하지 않지만 그 재료는 여기에 기록된 외에도 매우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들 몇가지가: Henry Alford, *The Greek Testament*; Geoffrey W. Bromiley, ed., *The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E. W. Bullinger, *The Companion Bible*; Trent Butler, ed., *Holman Bible Dictionary*; F. L. Cross, and E. A. Livingstone, eds., *The Oxford Dictionary of the Christian Church*; Edward Fudge, *The fire that Consumes*; H. B. Hackett, ed., *Smith's Dictionary of the Bible*; James Hastings, *A Dictionary of the Bible*; R. C. H. Lenski, *The Interpretation of St. Luke's Gospel*; John Lightfoot, *A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from the Talmud and Hebraica*; Watson Mills, ed., *Mercer Dictionary of the Bible*; W. R. Nicoll, *The Expositor's Greek New Testament*; Alfred Plummer, *The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The Gospel According to S. Luke*; A. T. Roberson, *Word Pictures in the New Testament*; R. C. Trench, *Notes on the Parables of Our Lord*, and Claus Westermann, *The Parables of Jesus in the Light of the Old Testament*.

성경은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지막 죽음에 대하여 생생하게 묘사해 줍니다. 그들은 불뭇에 던지움을 받아 소각, 곧 타서 재가 됩니다. 흔히 듣는 말은 불뭇에 던지움을 받아 그 속에서 영원히 불 속에서 타고있을 것이라고 합니다만 이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말의 원인이 요한계시록 20 장 10 절에 있는 구절 같은 깨닫기 어려운 몇 구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사람이 살아서 영원히 불에 타고 있다면 그들 역시도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영생을 얻으려면 구원을 받아야만 된다고 쉽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구절들이 구원 받지 못한 자는 완전히 소멸 당한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다못해 Gehenna-게해나 뿐 아니라 아무데 서든지 영원히 살수가 없습니다. 불뭇에 던지움을 받은 사람들의 결국은 타서 없어집니다. 읽어볼 책: Graeser, Lynn, Schoenheit 분들이 쓴 *Is There Death After Life?- 죽은 후에 생명이 있는가?* (Spirit & Truth Fellowship International, Martinsville, IN 1993), pp. 45-51, 88-91. See also Edward Fudge, *The Fire that Consumes- 불은 소멸이다.* (Providential Press, Houston, TX, 1982).

## 천년왕국의 끝

1000 년 후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왕국이 끝납니다. 이 끝을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쳐 줍니다.

### 요한계시록 20:7-10

- (7) 천년이 차매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 (8)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 (9)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 (10)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는 그 짐승과 거짓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구절들 에서 말하듯이 1000 년이 차면 마귀가 놓입니다. 그러면 그가 나가서 “백성(nations)”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성 (nation)”은 천년왕국 때에 세계에 살고 있는 “육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반항적인 육의 사람들이 재난 세대를 거쳐 살아남아 의롭다고 판단 받고 왕국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고생 속에서 배워 세운 나라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 듯이 이 사람들도 그들의 조상들이 재난 세대와 아마겟돈 전쟁 때에 겪고 배운 것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것 이야말로 관심 있는 인간 심리의 해설서 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대대로 각각 하나님을 반항하는 것을 발견하고 결국은 자연 파괴로 끝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이 백성들에게 죄의 성품이 있지만 에덴동산 같은 땅에서 그리스도의 정치가 강하지만 정의롭게 다스리기를 계속 1000 년이 다 찰 때까지 하시다가, 천년이 다 차매 “사탄” 곧 마귀와 그의 악령들이 옥에서 놓입니다(요한계시록 20:2; 다니엘 7:12). 그후에 마귀가 그의 본질 곧 지족하지 못하는 것과 질투와 욕심과 증오의 씨를 심기 시작하여 수백만 사람들이 한패가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들의 무기는 마마 그 당시에 가장 기억하고 있는 원시의 무기 같을 것인데 어쩌면 성경 시대 때 사용한 것들 비슷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무기들은 농사짓는 도구로 만들어버렸고 (이사야

2:4; 마라기 4:3) 혹은 다 태워서 없애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9:5). 천년왕국의 끝에는 반항하는 대적들이 현재 있는 생 무기를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죽이는 무기로 사용하는 창과 칼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때에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러한 무기로 침범하기 때문에 매우 잘 알려진 이사야서 에서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한 기계 (NASB. 성경

에는 ‘기계’를 weapin-무기)가 날카롭지 (NASB. 성경에는 ‘날카롭다’를 prosper-성립) 못할 것 이라 (이사야 54:17)”라고 했습니다. 이 믿지 않는 군대가 성립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무기가 “성립”하지 못하고 그 전쟁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 전쟁이 시작했다는 말조차도 없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둘러 서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다 태워 죽입니다(요한계시록 20:9).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흔히 듣기는 이사야 54 장 17 절을 따다가 그 구절이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것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실한 것은, 불의한 자들의 여러가지 무기에 매일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시초부터 그들이 총살당하고, 칼로 찢리고, 독약으로 죽음 당하는 기타 이 외에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쟁이나, 범죄 사건이나, 그리고 특히 그리스도인을 증오 곧 몹시 미워해서 행한 것들 안에 실체가 됩니다. 이사야서 에 있는 이 구절의 임박한 연결을 보면 이것이 천년왕국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들과 거기에 있는 믿은 부활한 자들에게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혹은 부활한 이스라엘백성들 (모세나 다윗 같은 사람들) 혹은 이방인들 (노아 나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반항 자의 휘두르는 무기를 무서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하늘만 없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땅도 없애 버립니다. 이사실을 따르는 구절에서 세밀하게 말해줍니다:

### **베드로후서 3:10-12**

(10)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 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  
려니와.....

천년왕국 끝에 세상이 불로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새 예루살렘인 땅으로 오게 하려면, 그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것을 요한계시록 21:1 절에서 말하기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 **천년왕국과 영원한 왕국의 사이**

영원한 왕국을 시작하기 전에, 천년 왕국의 모든 일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한가지 일만 해도, 수백만 사람들을 다 판단해야 합니다. 이 두 왕국사이에서 잘 알려진 “두번째 부활” 혹은 “Resurrection of Unjust 불 의인의 부활” 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 됩니다. 이것을 두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부활이 이미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요한계시록 20:4). 그리고 또 이것을 “불 의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으킴을 받을 사람들의 대수가 불의인 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담 때 에서 천년왕국 때까지 살다가 죽은 의인들은 이미 들림을 받았거나 혹은 “....Resurrection of the Just- 의인들의 부활” 때에 이미 일어났기 때문입니다(킹 제임스 번역 누가복음 14:14). 단지 부활한 의인들은 천년왕국 때 육의 사람들이 살다가 죽은 자들 뿐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모든 불의인 들과, 천년왕국 동안에 살면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로 더불어 부활할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단지 이 “불 의인의 부활”때에 처음으로 살아납니다. 그때에는, 누구든지 살다가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모조리 다 일으킵니다.

두번째 부활 때에 판단하는 것을 보고 “Final Judgement-마지막 심판”이라고 알려진 것은 성경에서는 이것이 역대상 순서로 맨 마지막으로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보고 “White Throne Judgment- 흰 보좌 심판” 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그리스도 께서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 **요한계시록 20:11-15**

- (11)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 (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  
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고 또 사망  
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 사망과 음부도 불 못에 던지우니 이것을 둘째 사망 곧  
불 못이라

(15) 누구든지 [이름이] 생명 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  
못에 던지우더라.

흰 보좌 판단이 하나님이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도록 길을 깨끗이 치워 줍니다. 누구든지  
이름이 생명 책에 기록된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 동시에 한편 이름이 생명 책에 없는  
자는 불 못에 던져서 재가 되므로, “둘째 사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흰 보좌 심판 후에, 사망  
이 폐지(없어짐)됩니다. 영원한 왕국, 거기에는 사망이 다시는 없습니다.

### **영원한 왕국**

마지막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거기에다가 새 왕국을  
세우십니다. 그가 홀로 자기의 아들과 새 예루살렘에서 손수 왕국을 다스리십니다. 비록  
성경에서는 이 왕국의 이름이 없지만 “영원한 왕국”이 합당한 이름인 것은 이 왕국은 영원  
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년왕국과 영원한 왕국에 비슷한 것들이 많지만 또 거기에  
독특하게 다른 점들의-증거로 인하여 이 두 왕국이 확실히 다른 것이 분명합니다.

### **영원한 왕국의 특징**

비록 성경에서는 영원한 왕국에 대한 것을 천년왕국에 대한 것보다 적게 기록했지만, 그 두  
왕국에 대한 것들이 둘 다 깨우침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따르는 구절들은 영원한 왕국에  
대한 독특한 특징과 품질들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

35.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수 심판하십니다(요한복음 5:22; 사도행전 17:31). 많은 사람들이 킹 제임스 번역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번역에 “before God-하나님 앞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어로 된 본서를 공부해보면 원래 본서에는 “throne 보좌”라고 했고 “God-하나님” 이라고 안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대에 번역된 성경들은 한글 성경도 포함해서 태반이 “before the throne-보좌 앞에”라고 했습니다.

- 1) 이 왕국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땅을 없애 버린 다음에 시작되고 (베드로 후서 (3:10-12; 요한계시록 20:7-10)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 하십니다(요한계시록 21:1).
- 2) 이 왕국은 영원히 진행합니다(요한계시록 22:5).
- 3) 마귀와 그의 귀신들이 없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날 때, 그들은 모두 불 못에 던져서 태워 버립니다(요한계시록 20:10).
- 4) 오직 믿은 자, 곧 구원받은 사람들로 만 이 왕국을 채웁니다. 믿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고 불 못에 던져서 불에 타 없어집니다(요한계시록 20:11-15).
- 5) 이 왕국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이것은 맨 처음 아담과 이브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후로부터 천년왕국 때까지 성경에 기록한 모든 왕국들과는 정 반대입니다 (요한계시록 21:4). 사망이 없다는 뜻은 짐승들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원 에덴동산에서는 사람과 짐승들이 모두 채식을 했습니다(창세기 1:28-30). 어쩌면 영원한 왕국에서도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이 점에 대하여 자초지정을 특별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 6)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거주하실 것이며 손수 다스릴 것인데 (요한계시록 21:2). 이 성(도시)이 세계에서 제일 으뜸 하게 큰 성(도시)인데 전에 이렇게 큰 성(도시)은 한 번도 있어 본 역사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환상에서 본

36. 언제 고 성경에서 “사망” 을 말할 때는 종종 이 둘째 죽음을 의미합니다. 잠언에서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을 appendix F-부록 F.를 보시오.

37. 킹 제임스 번역에는, “the lake of fire and brimstone-불과 유황 못” 이라고 하는데 “Brimstone” 이라는 말은 고적 말로 sulfur-유황 이라고 합니다. 어떤 논리 자들은 그리스 언어의 구조를 따라서 이 문단을 비유 Hendiadys 라고 해서, sulfur-유황”은 사실 “burning sulfur-타는 유황”이라고 단정합니다.

38. 교과서 에서 그 성(도시)의 광(넓이)과 고(높이)가 같아서 이것이 논리 자들에게 문제거리가 되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사실같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좌우지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라”(요한 계시록 21:4)라고 한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는 해가 없는데 어떻게 빛이 있겠다고 믿겠으며(요한 계시록 21:23; 22:5) 또 밤도 없다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겠습니까(요한계시록 21:25; 22:5)? 누가 그 도시와 거리를 정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믿겠습니까(요한계시록 21:18, 21)? 그런데 이것들이 다 그렇고, 이 모든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확 실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도시가 반듯한 네모일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도시 나 혹은 그 성 중앙에 높은 산이 있고 어쩌면 그 꼭대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성경은 12,000 stadia-스다디아 높이가 성전 전체를 말하는지 아니면 한군데만 인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단순히 그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같다고만 합니다. 여기서 제일 좋은 수는 요한이 계시로 본 것을 그대로 받아 드리고 이것을 가지고 “비유”라고 만들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러한 구조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시)과 그의 범위를 형용함이 이릅니다. “그 성(도시)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길이와 넓이)이 같은지라.....”(요한계시록 21:16). 그리스어 교과 서에서 내놓은 이 성(도시)의 범위는 길이와 넓이가 “12,000 stadia-스다디아”; 이고 높이도 이와 같습니다(요한계시록 21:16). 로마의 stadia-스테디아, 로마 척수로 625 척, 혹은 606 ¼척이고 미국 feet= 척 으로 대강 계산해서 이 성(도시)양면이 약 1,400 마일 정도 입니다. 그 성(도시)이 무척 큼으로 모든 세대에 구원받는 자들이 다 거기서 편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7) 거기엔 성전이 새 예루살렘 안에 있을 것입니다(요한계시록 21:22). 이것이 영원한 왕국과 천년왕국이 다른 점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는 열쇠입니다. 비록 이것이 포인트가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이 매우 뜻 깊은 점입니다. 요한계시록 21:22 절에서 영원한 왕국에는 성전이 없다고 한 이유는 “.....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양이 그 성전 이심이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단어 “성전”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이 구절의 뜻을 알게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첫 천국, 곧 에덴동산, 거기에서는 아담과 이브가 규정 적으로 성전이라고 하는 빌딩으로 가서 하나님께 숭배 하지 안 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손수” 아담과 이브에게 나타나셨 습니다. 그는 그들과 정다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었 습니다. 그러했는데,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에게 불순종 했으므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더 이상 세상에 “거주”하시지 않게 된 것 입니다. 그가 가끔씩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기록을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데, 아브라함을 포함해서(창세기 12:7; 15:1; 17:1; 18:1). 모세에게 와 어떤 노인들 에게 (출애굽기 24:9-11). 사무엘 에게(사무엘상 3:10). 이사야 에게(이사야 6:1-5), 그리고 다니엘 에게(다니엘 7:9-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빌딩이 있는 후에도 그가 종종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교의 세대에, 거기에도 성전 빌딩이 없었 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선물)로 인하여 믿는 각자가 하나님과 사실 교통할 수 있게 하셨고, 이러하므로 곧 교가 비유

---

39.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손수 사람과 교제하셨다는 가르침이 보편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점을 연속해서 다 넓게 공부한 내용을 graeser Lynn, 그리고 Schoenheit 분들이 쓴 책 One God & One Lord Appendix-부록 A. 창세기 18:1-2 를 보시거나 혹은 w.w.w.BiblicalUnitarian.com 을 찾아 보시오.

로 “성전”이라고 합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성전 빌딩을 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접근하시는 곳으로 소개합니다. 그가 사사로 소개하시지 않는 이유는 그 왕국에는 아직도 죄가 육의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왕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손수 자기를 소개하기를 그가 에덴동산에서 하셨듯이 하실 것은 거기엔 죄가 다시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엔 성전 빌딩이 필요 없음은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양이 그 성전 이심이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영원한 왕국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 시리니.....”(요한계시록 21:3)라고 했습니다. 사실을 들여다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국 에서와 같이 천년왕국에서는 직접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5:24 절에서 알려 주는데 맨 나중에는 그리스도께서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습니다. 천년왕국 동안에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과 같이 그리고 왕으로 써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다스릴 것이고 그가 에스겔 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전에서 하나님을 숭배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없음은 그때는 아직 하나님이 손수 내려오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왕국이 시작될 때는,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자기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것입니다.

- 8) 그 성(도시)에 생명 나무가 자랍니다(요한계시록 22:2). 에덴동산 후로부터 이 구절 까지 생명 나무를 처음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47:12 절에서 천년왕국에 연결된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나무는 그 나무의 품질과 사실들은 생명 나무와 비슷한데 그것 “생명 나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 9) 영원한 왕국, 거기에는 해와 달이 없으므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낮과 밤이 없습니다. 또한, 거기엔 밤이 없음은 하나님이 직접 그 성에 빛을 주시기 때문입니다(요한계시록 21:23 과 25 절; 22:5). 천년왕국에는, 낮(주)과 밤(야)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사야 60:11).

### 천년왕국과 영원한 왕국의 비교

천년왕국과 영원한 왕국을 서로 맞대 놓고 거기서 일어나는 것들을 비교해 봄으로써 서로 다른 점을 쉽게 보게 볼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천년왕국	영원한 왕국
새 하늘과 땅 (옛 것은 재난과 아마겟돈 전쟁으로 망가졌음)	새 하늘과 새 땅 (옛 것은 불로) 멸망했음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과 그리스도 두 분이 보좌에 앉으시고 통치하심
예루살렘이 수도	새 예루살렘이 수도
예루살렘이 4,500 쿠빗, square 약간 모자란 1 ½ 마일	새 예루살렘이 12,000 스테디아 square 약간 모자란 1,400 마일
1,000 년 후에 끝남	영원히 있음
불 난리로 끝남	영원히 끝이 없음
마귀를 결박하고 가둠(무저갱이에 던져 잠그고 인봉함)	마귀를 타는 불 못에 던져서 소멸됨.
거주하는 사람들: 구원 받고 구원 받지 않은 자 등등 죽지 않을 몸들과 죽을 몸들로 채움	단지 구원받은 자들, 영원히 죽지 않을 몸을 입은 사람들만으로 채움
‘철 장을 휘둘러서’ 나라들을 다스림	‘철 장을 휘둘러’ 필요가 없음
거기엔 사망이 있음	거기엔 사망이 없음
이스라엘 열 두 지파가 각각 이스라엘 땅을 나눠 가짐	이스라엘 지파가 새 예루살렘에서 각각 자기 이름을 자기 문 위에 새김
해와 달과 낮과 밤이 있음	해와 달과 밤이 없음

성경에 이 말할 수 없이 좋고 훌륭한 미래 왕국에 대하여 형용해 주는 구절들이 수 백 구절이 넘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고 훌륭한 미래를 보여주심으로 우리 보고 “생명을 택하라”(신명기 30:19)라고 하시는 것을 현저하게 나타내십니다. 한층 더, 누가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이 좋고 훌륭한 보상을 준다는 약속들로 “땀”을 내려 남 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게 그들의 각오를 굳세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사신-ambassadors” (고린도전서 5:20)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 왕국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만이 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약속 할 수 없으나, 우리 각자 모두가 미래에 올 매우 훌륭한 왕국에 대한 “복음 [좋은 소식]은 장담하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 5

## 새 몸: 보기 좋고 기분 좋음

### *옛 것을 벗어나서 새 것으로 들어가다*

성경에 내놓은 소망의 한 부분이 구원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새롭고 영광스런 몸을 받는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누구든지 40 이 넘게 살은 사람들은 대부분 한 두 번쯤은 “이보다 좀 더 좋은 몸”을 가졌으면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중년에 도달 한 사람들은 몸이 쭈시고 아픈 것이 좀 덜했으면, 좀더 기력이 있었으면, 몸이

좀더 부드러웠으면, 좀더 힘이 있었으면, 눈 시력이 20/20 이었으면, 귀가 좀 더 밝았으면, 좀 더 젊은 살결이었으면, 늘어지는 주름살이 좀 없었으면, 그리고 이와 같은 종목이 끝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좀더 나은 몸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좋은 소식을 안겨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원받은 자들에게 새롭고 매우 잘 재건설한 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인들이 이 몸을 들림 받을 때 받습니다. 구약성경 때에 믿은 사람들과 재난 세대 때 믿은 사람들은 첫째 부활 때에 죽은 자들을 일으켜서 이 몸을 받습니다. 재난 세대 때 살아남은 믿은 자들은 흰 보좌 심판 때에 옳다고 인정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둘째 부활 때에 이 새 몸을 받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의 몸은 죄의 자연 작용과 우리 자신의 죄와 학대로, 영양부족과 질병으로 쇠약해 졌고, 그리고 또 오래 전부터 불리한 일이 조상 때부터 내려온 망가진 인종들의 황폐 한 몸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육의 몸을 “씩을 것,” “죽을 것,” 흠에 속한다,” “욕된(천한)것,” “약한 것,” 낮은 몸,” 그리고 육의 몸,”이라고 합니다(고린도전서 15:43-44, 그리고 54; 빌립보서 3:21). 이와 반대로 그와 같은 구절들에서 말하는 새 몸은 “씩지 않을 것”, 죽지 않을 것”, 하늘에 속한 자”,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그리고 신령한 몸”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단어들 이 새 몸을 형용해 주는데 이것을 따르는 구절을 빌립보서에다 간추려 놓았습니다.

### **빌립보서 3:21**

그가[예수그리스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예수그리스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만일 우리의 몸이 항상 젊고, 건강하고, 그리고 원기가 있으면 땅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울까, 라는 것에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새롭고 영광의 몸을 받는다는 약속은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것이 또한 구원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세지를 전하는 데에 생기 나게 해 주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새 몸이 “신령”하고 육 적”이 아니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신령한 몸이 무슨 뜻인가를 부분 적으로 밝혀 줍니다.

### **고린도전서 15:45-49**

- (45)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 (46)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자니라.
- (47)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 (48)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 (49)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첫 몸을 “육에 있는 자”라고 하는 이유는 육의 사람을 통해서 육적으로 난 사람과 같이 낳기 때문입니다. 새 몸은 “신령한 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신성의 자동으로 통해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은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그들의 새 몸을 받을 것인데 이것이 그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몸을 받을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육의 몸은 몸을 force-완력, 성경에서 말하는 “혼”으로 살게 했지만 새 몸은 그렇지 않고 “신령”으로 생기(살게 하는)를 줍니다. 이것을 위에 있는 45 절에서 명백히 드러내 주지만, 불행하게도, NIV 성경에서와 한글 성경에서 번역이 매우 모자라서 그 뜻을 확실하게 드러내지 못합니다. NASB-1995 년도 성경이 좀 도움이 됩니다. 영어로 내 놓고 그것을 그대로 한글로 번역 하겠습니다:

**1Corinthians 15:45 (NASB-1995)**

So also it is written, “the first MAN Adam, BECAME A LIVING SOUL.” The last Adam became a life-giving spirit.

**고린도전서 15:45 (NASB-1995)**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신령이 되었나니.

NASB-1995 번역의 구조와 이 번역이 뜻을 밝혀주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첫째는, NASB-1995 성경에서 대문자로 인하여 이 대목이 구약 성경에서 온 질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둘째는, 단어 “soul-혼”이 연결된 말씀에, NIV 번역에서 “being-존재, 한글 성경은 ‘영’”이라고 한 것보다 더 합당한 번역입니다. 비록 단어 “soul-혼” 혹은 “person-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대목에 연결되어 서로 교환 할 수 있지만, 이 대목에 연결시켜 교환하면,

언제 고 “soul-혼” 은 “spirit-신령”과 독특하게 다르기 때문에 뜻을 흐리게 합니다. 이 질문이 구약성경 창세기 2:7 절에서 온 것인데, 하나님이 아담의 코 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아담이 “living soul-생령”이 되었다고 합니다(히브리어로 *nephesh- נפש* = soul-혼). 아담이 아름다웠지만 생명이 없었고, 하나님이 생기를 그의 코에 “불어넣으실”때까지, 아담이 죽어 있다가 그 후에 그가 살아난 것입니다.

아담, “soul-생령”이 된 자와는 정 반대로, 예수는 살려주는 “spirit-신령”이 되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지적하는 “soul-혼”은 첫 아담에 대하여 한 것이지만, “spirit-신령”은 마지막 아담, 예수에 대한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가 뼈와 육이 없는 신령이 될 수 없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나란히 대조합니다. 성경에서 아담이 “soul-생령”이 되었다고 한 것이, 몸이 없다고 한 뜻이 아닙니다. 그[아담]에게 있는 육체의 몸을 살게 하는 힘을 “soul-혼, 생령”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가 “life-giving spirit-살려 주는 신령”이라고 한 것은 그가 육체의 몸 형을 벗어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육의 형체가 있으나 spirit-신령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예수 님 손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자기가 spirit-신령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부활 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처음 그를 본 자들이 “spirit-신령” 을 본 줄로 알았습니다. 유감스럽게도, NIV 성경번역 에서 그리스어 *pneuma-푸누마* 를 “ghost-귀신”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옳은 번역이 “spirit-신령”이며,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자기가 spirit-신령이 아니고 사람으로서 살과 뼈가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한층 더, 그는 “I myself-나인 줄” 이라는 말로 “자기가 다른 것”이 아니고 자기라는 것을 강하게 표현 하셨습니다.

### 누가복음 24:39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한가지 우리의 마음에 간직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위의 구절에서는 마태복음 16:17(킹 제임스 번역)에서 하신 말과 같이 “혈과 육”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안 했습니다. 그 대신에 “살과 뼈”라는 말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예수의 새 몸은 피가 없다고 단정을 내리는데, 이 구절에서 예수의 새 몸에 피가 없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구절에서도 예수의 새 몸에 피가 없는지 있는지 확실히 기록한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전서에서 확실한 것은 새 몸을 살게 하는 힘은 spirit-신령이라고 합니다. “옛” 몸 곧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합니다

(레위기 17:11). 만일 새 몸에 피가 있다면, 그 피가 새 몸에서는 그의 작용이 옛 몸에서 하는 것과 다를 것입니다.

### **옛 것과 새 것에서 서로 비슷한 점과 다른 점**

새 몸과 옛 몸이 꽤 많이 다른 반면에, 거기엔 또한 눈에 띄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가 살과 뼈가 있음을 말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살과 뼈는 육체적이고 육체에 속합니다. 예수가 육체적 몸이 없는 spirit-신령이 아닙니다. 그건 그렇고, 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권세들” 위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므로써 (마태복음 28:18). 물론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이 할 수 있는 물리학 규칙으로 제한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후 문이 잠긴 집 안으로 나타나셨고 ( 요한복음 20:19 절과 26). 순식간에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실 수 있었으며(누가복음 24:31) 그리고 하늘로 올라 가셨습니다(사도행전 1:9; 히브리서 4:14). 그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의 몸이 살과 뼈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혹은 “육체적”이 아니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이 뜻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준 권능을 사용하심으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새 몸에 대한 모든 재능에 대하여 말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의 재능들을 확실하게 형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록 된 말씀을 기초 삼아, 대강 어떠하다고 이치에 맞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몸이 육체적이라는 것을 이미 보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신기한 기술을 부리신 것을 보아서, 그가 신기한 기능이 있다는 것으로 이치에 맞게 결론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론 은 성경 과 반박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으로 신기한 기술을 부릴 수 있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와 베드로가 물로 걷은 것을 우리가 읽어 보는데, 그들이 사람의 몸 보다 가벼운 몸이어서 그럴 수 있다는 말이 전혀 없으며, 혹은 물로 걷는 것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이 에데오 피아 내시를 만난 곳에서 순식간에 아소도에 나타났다는 것을 읽어 보지만, 사람이 보통 “경충 뛰어” 이리저리 옮겨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가 풀무 불에서 살아 나와서 그들이 알기를 사람이 보통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

---

1. 이 책을 쓰는 도중에 새 몸이 얼마를 “더” 할 수 있고 없고 에 대한 정확한 것들에 대한 화젯거리에 우리가 무척 많이 논의 했습니다, 이 능력과 혹은 재능의 층 하는 미래에 사람들의 말은 직무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주의 주로 “모든 권세”가 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천사들은 다른 천사들 보다 더 권세 적인 것을 약간씩 비

지 안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보통 선을 넘어서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기적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새 몸이 이러한 것들의 타입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치에 맞을 듯 합니다. 분명히, 거기엔 ‘보통’길의 반응이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엔 그보다 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이 잠긴 방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그가 부활하신 후로는 다시는 문을 열고 드나드시지 않는다고 하는 근신한 기초를 세울 수 없습니다. 사실을 보면 천년왕국에서,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실 정확한 문을 지정해 놓았습니다(에스겔 46:1-8). 여기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행하신 이 모든 일을 가지고 그의 새 몸과 혹은 우리의 새 몸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구약성경에 미래에 있는 천년왕국에서 하는 보통 일들이 지금 우리의 보통 생활에서 하는 일로 여기는 것들과 같이 형용한 예언들이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예언에서 미래에 농사를 짓는다고 하며, 낚시질을 한다고 하며 (물 위에 서가 아니고 강 가에서), 그리고 집들 (사람들이 보통 벽과 대문과 문을 사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들이 필요 없을 것임). 그리고 “보통”인 다른 직무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땀나는 것 까지도 말해 줍니다(에스겔 44:18). 또한 영원한 왕국이 올 때까지 사람들이 육적으로 복종할 수 있는 새 몸 입은 사람들만 살고 있지만 거기에서도 담과 대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금으로 된 거리에 사람들이 뚱뚱 떠 다닌다고 하지 않고 걸어 다닌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새 몸이 지금 우리의 몸과 꽤 많이 같은 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또 한가지 이유는 지금 우리의 육신이 불구 된 자로 아직 완전하게 고침 받지 못한 사람들을 그때엔 모두 다 완전하게 고친다는 예언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35:6 절에 그 왕국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저는 자가 사슴같이 뿔 것이라-이러한 약속들은 그 회복된 왕국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현재에 불구 된 자들을 그때엔 완전히 고쳐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자가 새들처럼 나를 것이다”라는 예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대신 이 예언들이 말하기를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눈이 그때에도 볼 수 있는 데 사용된

---

추어 줍니다 (에스겔 28:12-14; 다니엘 10:12-14 요한계시록 10:1; 18:21). 그 신기한 능력이 어찌면 그 사람에게 준 일과를 성취하는데 에 따라서 있다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어찌면 우리의 새 몸이 성경에서는 힌트도 주지 않은 일을 할 것인지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에베소서 3:20) 하실 수 있으므로, 또한 그 새 몸에 대한 것들을 그가 많이 알려 주시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라는 말은 지금 현재 있는 두 귀가 미래에서도 소리를 들을 때에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이사야 32:4),라는 말은 현재 정신적으로 생각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자들이 다 정상적으로 생각을 밝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며; 그리고 “...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이사야 32:4),라는 말은 현재 누구든지 말을 분명하게 하지 못해서 문제 있는 자들이 그때에는 정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예언자들로 그려 놓은 사진들은 모은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사탄의 시달림으로 사람들이 망가지기 전에,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훌륭하고, 능력 있는 육체적 몸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완전하고 원기 왕성한 살과 뼈로 된 몸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새 몸이 옛 몸과 무척 같을 것이지만, 그러나 새 몸은 어느정도 신기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때엔 사람이 다시는 죽지 않을 것이며, 건강할 것이며, 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육일째 지으신 후, 그가 지으신 것을 보시고 “심히 좋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지으신 사람을 보시고 만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하나의 “원형 살과 뼈”로 그저 실험 삼아 디자인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무데도 하나님께서 그가 디자인 한 것에 불만족해서 없애 버리고 앞으로는 살과 뼈를 제하고 그저 사람을 신령으로 만들겠다고 가르치는 구절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주 생기는 질문이 있는데 우리가 새 몸을 입으면 이 생에서 행한 것들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새 몸을 입으신 후로도 똑같은 분이었으며, 그전 생활의 일들을 완전히 기억하셨으며, 지금도 같으신 분입니다. 믿은 자들의 몸도 그리스도의 새 몸과 같게 만들었으므로 믿은 자들도 그들의 그전 생활의 모든 것을 완전히 기억할 것입니다. 천년왕국과 영원한 왕국에서 말하는 여러가지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그전 생활의 일들을 기억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천년왕국에서 땅을 분배할 것이며, 그 성전, 그리고 만일 기억하지 못한다면, 다른 육체적인 미래들과 성품들에 대하여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곽에 있는 기초 석이 열두 제자들의 이름으로 될 것이며, 그리고 열두 문 위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요한계시록 21:12-14). 만일 누가 사도인지 누가 이스라엘 지파인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한 일이 됩니다. 한층 더, 성경은 사람들이 판단 받을 때 그들이 한 그대로 보상을 받는다고 말해 줍니다. 만일 사람

이 그전 생활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보상이 부정당하게-arbitrarily[제멋대로] 주어진 것이 됩니다. 또한, 요한일서 2:28 절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부끄러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한 일들을 기억하지 않는 이상에 아무도 부끄러워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12 절에서 그때, 미래에는 사람들이 “온전히 알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그들의 전 일을 기억함이 없을 것 같으면, 이것 역시도 불현실 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그 전일을 기억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혼동이 대부분 이사야 65:17 절에서 말하기를 천년왕국에서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 할 것이라”라고 한 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다음 대목에서 첫 대목을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지난 것을 전혀 기억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명백하고 이보다 더 명백한 것은 천년왕국 에서와 영원한 왕국에서 매우 고통스런 기억과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이사야 25:8; 요한계시록 21:4). 하지만 그 왕국의 풍성함과 그 기쁨으로 인하여, 그 고통스런 기억이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들의 과거에 고통스런 경험이 있었지만 마음이 완전히 치료되었음으로 즐거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지난 일을 “기억하지”않는 것을 인식하고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가 여기서 정신적 수용력을 말해준 것이 아니고 전에 고통스런 과거에 대한 기억들이 있는 사람들에 관하여 말 한 것입니다.

생기 있는 능력과 젊음의 활기 있고 영광스런 새 몸을 가진 그 기쁨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훌륭한 몸과 사랑에 가득한 사람들만 사는 세상, 그리고 거기에 있는 평화, 안전, 그리고 품질 좋은 음식이 풍성하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훌륭한 것들을 믿은 자들과 누구든지 예수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오는 자들에게 약속해 놓았습니다.

# 6

## 미래 왕국에서 받는 보상

### *구원: 이것이 첫 단계임*

사람이 그 왕국에서 보상을 받기 전에, 먼저 그들이 그 왕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뜻은 사람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이 “rescued-구조, 혹은 구출해 냈다”라는 뜻이며, 그리고 그 뜻은 각 사람이 죽음에서 구출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16 절에 따라서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perish-멸망”한다고

---

1. 비록 구원과 보상에 대한 성경적으로 된 화젯거리가 역사를 거쳐서 세대마다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용들을 세대마다 낫낫이 세밀하게 전체를 다 여기다 해결하기는 너무 벅찬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과목에서는 성경적으로 된 세대들 중에서 현재 그리스도교의 세대에 관계되는 구원과 보상에 대한 화젯거리들만 집중하겠습니다.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rescued-구조, 구출 받기”를 원하시므로 성경에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말해 줍니다. 이 message-메세지는 항상 한결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매우 정확한 구절이 로마서에서:

**로마서 10: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비록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으려면 온갖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말을 하지만, 성경이 증명하는 구원은 쉽습니다. 빌립보 성에서 감옥 간수가 바울과 또 그와 같이한 실라에게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하고 물었을 때: 그들의 대답이 짧고 간단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했습니다(사도행전 16:30 절과 31). 구원받는 것은 쉽습니다. 한층 더 이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고 또 영구, 곧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당신이 미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보장합니다. 한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시는 그의 영생을 잃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어떤 사람들과 교 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행위를 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갈” 수 있다고 가르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샀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그리고 그들에게는 구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구원 받았고 또 확실히 왕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면, 그 다음에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직무와 책임을 주는가? 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실제 세상에서 “왕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느 왕국이든지 여러 가지 다른 직무들이 있습니다. 어떤 직무는 좀 더 존귀하고 세력이 많고 어떤 직무는 세력이 좀 적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미래에 얻을 직무가 지금 이생에서 사는 동안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어떻게 이루는 데에 매어 있다고 확실하게 말해 줍니다.

- 
2.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이 영구 곧 돌이킬 수 없다는 것에 좀 더 깊이 공부하시고 싶으면 Appendix C.를 보십시오
  3. 만일 당신이 구원을 받지 안 했으면, 혹은 당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확실히 모르면,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을 신중히 생각하세요. 만일 당신이 이 책에 내놓은 내용보다 더 알고 싶으면, 작지만 잘 설명해 놓은 booklet-소책자, *그리스도인이 되다, 왜? 어떻게?* 라는 책과 또 다른 책들도 Spirit & Truth Fellowship International, 에 있으며 또 다른 책들도 있습니다..

### **행한 그대로 받음**

사람들이 각자 “구원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오직 목적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을 흔히 듣습니다. 물론 영생을 보장해 주신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보다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매우 확실히 밝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사실]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입니다(디모데 전서 2:4). 확실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 오직 단 한가지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외에 구원받은 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사실]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사실]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미래 왕국에서 우리가 받을 보상이 우리가 행한 그대로 받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사람이 진리[사실]를 알면, 그러면 그가 그의 생활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주님을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세워지고 그리고 왕국에서 보상 받을 것을 벌 수 있습니다. 슬픈 말은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종교가 truth-사실보다 유전으로 내려온 바탕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유전들은 십자가-목적 성경을 따릅니다.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따르는 유전들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실을 강조해주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든 유전이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못하게 진리[사실]의 말씀을 범한다고 했습니다.

### **마태복음 15:3**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유전만이 진리를 순종하는 길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진정으로 말해주는 사실을 잘못 알은 잘못된 믿음도 사람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는 병 고침을 금지한 것이 그들이 믿기를, 그게 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유전은 좋았으나,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내용에서는 틀렸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도 경고하십니다.

### **누가복음 12:47-48**

(47)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48)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이 점을 확실하게 밝히시기를 “빛”을 조사해 보라, 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올바른 지, 그리고 그것이 어둡지 아니한 가, 등등 “틀림”이 있나 보라고 확실하게 밝히십니다.

### **누가복음 11:35**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 가 보라

이 구절들의 말씀이 좀 냉정한 것 같지만, 이 말씀이 무조건 유전만 혹은 자기 교과의 교훈만 따르는, 특히 그들이 하는 것이 어데인가 모르게 잘못이라는 것을 “gut feeling-창자 감각”에 느끼면서도 따르는 자들에게 경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미래 왕국에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 정상이며, 그러므로 그들이 경건한 생활과 순종하는 생활 방도를 취하게 합니다. 성경을 옳게 알면 이러한 일을 무척 하고싶게 합니다.

판단 때에 우리의 보상과 상을 잃는다는 화젯거리를 논하기 전에 꼭 알아 둘 점은, 비록 상을 잃고, 부끄럽고, 그리고 판단 때 형벌까지 받는다는 구절이 성경에 있지만, 이보다, 미래에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말해주는 구절들은 말할 수 없이 더 많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자와 그의 복된 언약을 믿고 감동된 마음으로 그를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로마서 2:4)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에 보상을 준다는 말씀을 무척 많이 하십니다.

언제 고 하나님께서 상을 잃는다는 말을 하실 때는, 절대로 위협을 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는 거기에 대한 사실의 내용을 알려서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일 네가 불순종하면 ‘x,’ 내가 너를 왕국에서 제일 낮은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라는 언어를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는 사람의 자유 선택을 존경하기 때 문에 거기에 대한 사실적 내용들을 내놓으시고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보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십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디모데후서 2:12). 이 말씀에 위협이 없으며, 그저 사실 내용을 알려 주심으로 사람들이 어떤 길과 미래를 택하여서, 각자가 그의 행위로 성취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분이시므로 아무런 경고도 없이

모든 것을 맨 마지막 재판 때까지 내버려 두었다가 그때 가서 갑자기 너희가 행한 그대로 보상해 준다고 “놀라게”해 주는 것이, 하나님에게 올바른 혹은 정의로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들은 판단 때에 그들의 보상을 잃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공통적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러한 가르침을 처음으로 듣는다면, 아마 이 과목을 읽으면서 쇼크를 받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내놓은 구절들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토록 인자하시고 올바른 분이므로 이러한 일들을 미리 알려 주심으로 우리가 잘 알고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의 현재 매일-매일 생활 행위를 고치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은, 심판이 이르면 행위를 고치기는 이미 때가 늦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결국은 그들이 행한 것을 그대로 받는다는 선언을 되풀이 합니다. 바울이 쓴 신약들에 의하면,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들 중의 하나라고 믿는, 욥기 서 에서 따온 말인데, 그 제목이 하나님은 사람들의 행실 그대로 보응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따르는 구절 예레미야 에서 좋은 예를 들어 줍니다.

#### **예레미야 17:10**

나 여호와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 하나니

다른 구절들 에서도 똑같은 사실을 단어-위에-단어가 똑같은 말: 욥기 34:11, 시편 62:12, 잠언 24:12, 예레미야 32:19, 에스겔 33:20, 마태복음 16:27, 로마서 2:6 그리고 고린도전서 3:8 절입니다.

Southern Baptist 목사, Rick Howard-릭 하워드 분이 이렇게 기록했음:

나는 구원이 선한 일로 달성한 것이 아니고 혹은 그것으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 줄 알고 있지만, 하늘에 있는 보상과 직무는 선한 일로 달성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믿은 자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들의 행실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들의 생활한 열매를 따라서 받습니다. 이 심판은 절대로 그들의 구원이 있느냐 혹은 잃었느냐 에 반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믿은 자들의 섬김이 보상을 받느냐 혹은 잃느냐 의 결정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 자들은 구원을 받았고 안전할 뿐만 아니라; 이미 그들이 하늘에 올라갈 것입니다! 은혜는 공짜이나, 직무는 공짜가 아니며- 그리고 공짜 은혜는 싸구려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 난 것은 목적과 쓸모가 있으라고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로 당신에게서 분명한 것들을 바랍니다, 어찌지 바울이 심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 노니....”라고 했습니다(고린도후서 5:11).

Howard-하워드 분의 말에 미래에, 믿은 자들이 모두 같은 곳에 직무가 있지 않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점을 성경에서는 미래 심판을 말해주고 또 사람이 보상을 받는지 혹은 잃는지에 대하여 확실하게 말해주는 많은 구절들을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절들:

**마태복음 16:27**

인자가(son of man-사람의 아들)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누가복음 9:26**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 하리라.

**고린도후서 5:10**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 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

4. Rick C. Howard-릭 C. 하워드 분의, *The Judgement Seat of Christ-그리스도의 심판대* (Naioth Sound and Publishing, Woodside, CA, 94062, 1990). PP. 5, 12-13. 이 책, 이 대목에서 Howard-하워드 분이 말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미 하늘에 올라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쓴 이 책에 이미 기록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과 함께 땅으로 내려 옵니다.

5. “심판대”를 그리스어로 *bema-베마*라고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bema-베마*라는 곳은 오직 보상만 주는 곳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의 *bema-베마*는 “심판대”라는 단어 자체가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bema-베마*라는 말이 혼동되었으므로, 잠깐 이 단어를 공부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Vine’s Greek Lexicon s-바인 그리스어 사전*은 *bema-베마*라는 단어 뜻을 깨닫는데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첫째로, 이 말이 계단, 한걸음 거리

### 골로새서 3:23-25

(23)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24)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앎이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25)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 데살로니가전서 4:3-6

(3)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

을 버리고

(4)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

(5)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좇지 말고

(6)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

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

(동쪽 bema-베마 로, 로 가다). 사도행전 7:5 (킹 제임스 번역)와 같이, 'to set (his foot) 발 붙일 nyx 언덕에 있는 Athens-에펜스에, 모이는 곳에; 무대, 정식 연설을 한 곳이었습니다. 이 단어를 설교 단으로 사용했고, 그리스법관에서 둘을 사용했는데, 하나는 고발자로 또 하나는 피고인으로: 이것을 로마 행전 판 혹은 통치자의 재판소로 사용했습니다." 이 점을 공부한 책; W. E. Vine, *The Expanded Vine's Expository Dictionary of New Testament Words* (Bethany Publishers, MN, 1984). 페. 612. 신약 성경에서 사용한 bema-베마 라는 말 뜻을 확실하게 밝혀주는데: 이것을 발판으로 (사도행전 7:5), 이것을 관중 앞에 서서 연설하는 연설 단으로 (사도행전 12:21) 그리고 또 이것을 심판대로 사용 했습니다 (마태복음 27:19; 요한복음 19:19; 사도행전 18:12, 16 절과 17 절; 25:6, 10 절과 17 절; 로마서 14:10; 고린도후서 5:10).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형 죄 판단을 bema-베마에서 받으셨고 또 유대인들이 바울을 Gallio's-갈리오스 bema-베마로 데려 가서 재판 받은 기록 (사도행전 18:12, 16 절과 17 절)을 보면 이 좌석이 그저 연설 단과 보상만 주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6. 어떤 때는 형벌을 받는다는 구절들을 가지고 그 벌을 현생에서 받는 것이지 미래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현재에 형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 "prune-쓸모 없는 가지를 잘라" 주시지만 이것은 사람을 쳐서 상하게 하거나 혹은 형벌을 주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과목에 내놓은 구절들은 보상을 잃는 곳과 부끄러움과, 혹은 형벌을 마지막 심판 때에 불순종한 대가를 하나님께 받는 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 줍니다. 이 점에 대하여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자세히 설명한 것과 어려운 구절들을 Appendix G.에 설명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하시는 지에 대하여 더 아시고 싶으시면 Graeser-그레이설, Lynn-린, Schoenheit-췌하이트, op., cit., *Don't Blame God! -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책 제 7 과,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 페이지 95-106 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처음으로 인식한 사람들이 이러한 구절들이 그들로 매우 큰 깨달음을 줄 것입니다. 또한 이 점을 인식함으로써 자기의 경건치 못한 행위를 진실로 느껴서 회개심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하게끔 불순종에서 돌아서게 하는 중요한 역할, 이것을 기대합니다.

죄에서 회개하여 돌아서서 경건하게 행한 좋은 견본을 사도 베드로의 생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 셔서 심문 받으실 때, 베드로가 자기의 주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미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고, 대제사장 집에서 그를 보았을 때 자기가 무슨 짓을 한 것을 너무도 잘 알았고 그럼으로 나가서 씩씩한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 후에, 주님의 도움으로, 그가 돌아 설 수" 있었던 것이며, 그리고 죄 감과 고통에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다시 돌아와서" 주님을 위해서 강하게 섰고, 그럼으로 인하여 심판 때에 그가 주님의 얼굴을 담대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는 다르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이기주의로 인하여 그들이 심판대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대면할 때 그들의 온 평생에 그들의 주를 무시 했거나 혹은 부인했던 까닭으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요한이 기록하기를:

#### **요한일서 2:28**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이 생소한 개념입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귀에 들리는 옛 찬송가 "....When we all get to heaven, what a day of rejoicing that will be – 우리 모두 하늘나라 가면 그날이 얼마나 기쁜 날이 될까..." 하는 노래 가사가 그들의 마음에 메아리 치는 동시에, 누구든지 구원 받아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는 그날이 즐거운 날인 것이 사실이지만, 한편 요한일서 2:26 절과 누가복음 9:26 절에서 말하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 부끄러운 마음이 얼마나 길게 가나 하는 것에 아무런 설명이 없지만, 미래에 땅이 축복받아 기쁨이 가득할 것은 분명 합니다. 하지만 그때에 부끄러움을 말해주는 구절들이 여기에 내 놓은 두 구절 외에도 많이 있음으로, 이생에서 자기만 위해 산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부끄러움을 받을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심판 때에

책망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세상 적이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불쾌한 생각을 줄 수 있겠지만, 이것을 성경에서 부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행한 일을 보고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활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Joseph Dillow-요셉 델로우 라는 분의 노트에 의하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결말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맛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노트:

세상적인 행위의 대가와 그것들의 결말에 대한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둘 다 똑같이 맛있는 일입니다. 사람이 한번 거듭나면, 그가 하나님의 가족이며,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아버지들과 같이 신성의 아버지께서도 자기의 자손들의 마음가짐에 대하여 자기의 자손이 아닌 다들보다 더욱 관심을 주십니다. 육욕[세속]의 현저한 결말은 보상의 상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은 받았는데 그의 평생을 이기적, 자기만 위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영원한 보상과 왕국에서 세력 있는 자리를 얻지 못하면 그것처럼 큰 비극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대하여 가장 뚜렷한 그림을 그려주는 대목들 중에 하나가 에스겔 서에서 나옵니다.

#### **에스겔 44:10-16**

(10)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하여 그 우상을 좇아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 하리라

(11)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전 문을 맡을 것이며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 게 되리라

(12).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죄악에 거치게 하였음으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로 그 죄악을 담당하여

(13) 내게 가까이 나아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며 또 내 성 물 곧 지성 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

7. 읽어 볼 책: Dillow, op. cit., The reign of the Servant Kings PP. 341-4

수욕과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 리라,  
 (14)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전을 수적 하게 하고 전에 모든 수종 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15)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음 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아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찌니라 나 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16)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아와 내 게 수종들어 나의 맡긴 직분을 지키되...

이 대목 구절에서 레위인 들과 제사장들의 두가지 그림을 그려 주는데: 그들의 첫 평생에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육적”, 하다못해 우상으로 끌려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첫 생에서 우상을 섬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자기에게 시종드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을 성경은 간단하게 말해줍니다. 그들이 성전에 대한 일은 할 수 있어도, “...그들이 자기의 수욕[부끄러움]과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 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기록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고 또한 죄 속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깨어나서 그들의 행위의 결과가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해 주어야 됩니다. 좋은 소식은 누구든지 자기의 남은 생활을 그리스도께 헌신함으로써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워 할 필요가 없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상을 받고 잃는 것을 설명해 주는 또 다른 대목 구절들이 이렇게 기록 되었음:

**고린도전서 3:10-17**

(10)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기를 조심 할찌니라.

---

8. 이 대목을 읽는 분들에게 어떤 제사장들은 그들의 첫 생에서 우상을 섬겼어요 천년왕국에 들어갔다는 것에 혼동되지 안 했기를 바랍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숭배하는 동시에 우상도 숭배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에 가서 하나님을 숭배하나. 신문에 나오는 잠 성 술을 보고는 그것으로 그들의 매일 생활을 안내 하거나, 혹은 물체 적인 것 [미국에서] 토끼 밭. [한국은] 복조리 같은 것, 부적, “재수 있는 동전” “[미국은] 재수 있는 모자 [한국은] 재수 있는 옷” 이와 같은 것들로 그들의 영적 도움을 취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물체 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신기한 도움”을 찾는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 (11)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그리스도라.
- (12)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 (13)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그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 (14)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 (15)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 (16) 너희가 [복수 = “너희들”]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복수]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 (17)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mat-손상]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 [손상] 하시리라

우리가 10 절에서 참고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슬픈 말이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나 행하는 것들이 그리스도를 해치게 하고, 그리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자기 만족시키는 일만 하며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일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13 절에서 각 사람이 행한 일의 품질을 말해줍니다. 웃 구절의 말씀들은 그저 빈 말이 아니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4 절과 15 절이 더욱 정신차리게 합니다.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선한일을 했으면 상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값어치 있는 일을 하지 낳은 사람들은 상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어서 지도적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집중하여 복종하고 노력하도록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슬기로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말씀들로 정신을 차려서 어째서 소망을 영혼의 “땃”이라고 부르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여러분의 마음에다 어떠한 행위가 보상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잃을 것인지 잘 타일러 줌으로 인하여 되도록이면 경건함을 선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바랍니다.

9. E. W. Bullinger 분 *A Critical Lexicon- 결정적 성경 사전*과 *Concordance of the New Testament* (Samuel Bagster 분과 Sons, Ltd., London, 969), P. 220. 그 정답은 보통 알려진 것이며 *Lexicon -성경 사전 Thayer's Greek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Vine, op. cit., *dictionary of New Testament Words*, P.234 을 조사해 보시오 (“corrupt”),

10 우에 내는 구절에 “너희”가 복수라 는 것을 []안에다 표시해 놓았습니다.왜냐 하면 어떤 가르침은 사람의 몸이 성전

15 절에서 말해주는 사실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비록 생활한 품행의 결과로 상을 잃고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간 것을 보고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영생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때문에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해 줍니다. 죄의 결과로 인하여 상을 심히 잃어버릴 수는 있지만, 거기에 구원을 잃는다는 것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한번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나면” “씩지 않는 씨”입니다. 이것을 깨달음으로 17 절을 보면 이 구절에 설명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단어 “destroy-멸망”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그리스어로 *phtheiro- 피뜨로*라고 하는데 그 뜻은, “부채, 손상, 좋지 않은 상태를 가져오다, 망쳐 놓다”입니다. *phtheiro- 피뜨로*는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고린도전서 15:33)” 와 “...**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에베소서 4:22)같은 구절들에 사용했습니다. 위에 내 놓은 고린도전서 3:16 절과 17 절에서, “성전”이라는 말이 각 성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 전체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 장에 연결된 말씀에 의하면, 단어 *phtheiro- 피뜨로*가 가장 잘 알려진 뜻이 “아주 좋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혹은 “손상”을 주는, 이와 같은 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도 “멸”할 수 없습니다. 이 구절의 가르치는 점은 만일 어느 그리스도인이 “아주 좋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교회를 손상하고는 자기가 그 대가를 받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 장에서 또 한가지 사실은 13 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라고 하십니다. 보상 받는다는 말에는 “공력, 영어로는 quality-품질”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단지 짧은 기간에 주님을 섬겼습니다. 세레 요한을 예를 들면, 직무에 활동한지 비록 6 개월도 채 못하고 분봉 왕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레 요한보다 큰이가 일어 남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이 길어서 주님을 섬기는 기일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그럼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얼마나 오래 섬겼는가 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품질에 집중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온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섬기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이라고 잘못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자기 몸을 함부로 취하지 안 해야 되지만 이 대목에서는 그 점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11. 마태복음 11:11 에서 왕국에서 값진 위치를 보여 줍니다. 읽는 이 구절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 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레요한보다 큰이가 일어 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 심은 사람들로 의로운 생활을 하고 왕국에 들어가라고 동기를 북돋아주는 가정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었지만, 왕국에 들어가지 못했음은 아직 왕국이 오지 안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품질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은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동기[사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그리스도인들이 정결한 동기[사상]로 경건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으로 자기를 섬기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자기가 죽기 짧은 직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동기[사상]에 대하여 말해 주었습니다.

**역대상 28:9 가**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찌어다. 여호와께서는 못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니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번역가의 설명: [“사상”이 영어로는 “motive”인데 영 한 사전에는 동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 정확한 뜻은 “사상”입니다. 하나님 에게는 사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회에서 좋게 보이려고 혹은 자기 사업때문에 교회에 가지만 하나님을 속이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저 사람에게 보이려고 상점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는 것과 같이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마태복음 6:5). 야고보서에서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했습니다(야고보서 4:8).

따르는 구절들은 디모데 역시도 구원과 보상에 관하여 다른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 Timothy 2:11-13 (NASB)**

- (11) It is a trustworthy statement: For If we died with Him, we shall also life with Him;
- (12) If we endure, we shall also reign with Him; If we deny Him, He also will deny us
- (13) If we are faithless, He remains faithful; for He Cannot deny Himself

**디모데후서 2:11-13 (NASB 성결 번역)**

- (11) 신용할 수 있는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 (12) 견디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 (13) 우리는 성실이 없을 지라도 주는 일항 성실 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 리라

이러한 구절들은 우리가 매우 조심히 성경적 깨달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우에 내놓은 고린도전서에 있는 구절들과 같이, 디모데전서에 있는 구절들도 모두 다 말하기를 보상은 벌어야 되고 새로 난 것은 영속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11 절은 그리스도의 구원이 온전히 안전하 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문단 “...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이라는 말은 주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리스도인의 신분증을 말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로마서 6:3-8 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그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러함으로 그는 *그와 함께 살립니다*. 이 말에 하나도 의심할 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사는 것이 영원한 보상하고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은혜 고, 왕국에서 보상 받는 것은 벌어야 됩니다.

12 절에서 보상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와함께 영원히 *왕 노릇*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12 절에서, [이생에서] “견디면, [미래에] 또한 함께 왕 노릇 할 것이요,” 그러나 [이생에서]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미래 보상에 대한 판단 때]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충성한 자들은 왕 노릇 하는 동시에 충성하지 않은 자들은 부인하심으로 손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구원에 대한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13 절에서는 믿은 자들이 비록 충성은 안 했어도, 주님이 충실하심으로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이 구절이 다른 구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므로, 그가 그리스도인을 부인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언제 고 심판에 대하여 공부해 보면 심판은 각각 받는 것이지 단체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이 사람을 각자 판단하시지 단체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 죄와 불순종이 기분에 “안전한” 줄로 여기고 따르는 것이 어리석은 짓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각각 판단”하신다고 확실하게 밝힙니다. 구약성경에 4 천년이라는 기간을 들여서, 여러가지 사건을 세밀하게 기록하여 그것들을 거울삼아 섬기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0 장에서 구약성경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방향할 때 일어난 사건들의 기록을 말합니다. 그들의 원망, 성욕, 음란한 성적 관계, 하나님을 시험한 것, 그리고 우상 숭배한 것 들을 말한 후에,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영어로 ‘their bodies were scattered over the desert-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깔렸느니라.’]라고 했습니다(고린도전서 10: 5).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진 죄를 “단체적으로” 했다고 실례로 봐 주지 안 했습니다. 11 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다시 보여 주십니다.

### **고린도전서 10:11**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세대]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현재 문화가, 특히 경건치 못한 문화를 밝혀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들 불순종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바알을 숭배하는 죄를 지었을 때 “모두” 사로 잡혀 샀습니다(사사기 3:7 절과 8 절)

창세기 6 장 “모두”가 죄를 짐으로 -창세기 7 에서 그들의 허사로 인하여 홍수를 냈습니다. 창세기 19 장에 “모두” 죄를 짐으로 인하여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모든 사람에게 내렸습니다. 창세기 6 장과 19 장의 기록이 이러한 식으로 미래에 세상 마지막 때에 심판의 그림자 타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베드로 후서 2:5). 이것을 재 강조할 만한 점은: 하나님께서 “모두” 죄를 짓는다고 해서 자기의 기준을 변경시키지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층 더, 우리가 미래에는 다른 식으로 변경시켜서 처리할 것이라고 기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그들의 죄와 죄인들에게서 떠나 예레미야 의 본을 받아서 따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레미야 15:17**

내가 기뻐하는 자의 호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 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으로 인하여 홀로 앉았 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  
우셨음이니이다.

홀로 앉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나, “모두”죄를 짓는 사람들 속에 같이 앉아 노는 것보다 낫습니다. 다행이 감사하게도, 오늘날에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자들을 찾아서 교제할 것입니다.

---

12. 고린도전서 10:1-11 절들이 고린도전서 9:24-27 바울의 기록을 자세히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것에 더 많이 연결됩니다. 고린도전서 9 에서 바울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 (상)과 자기 몸을 쳐 복종하게 한 이유가 자기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영어로 disqualified for the prize-상 받을 자격을 잃다]될까”에 대한 말들입니다. 그의 구원을 잃는다고 하나, 이것을 더 큰 범위에 연결시키면 이 화젯거리가 보상에 대한 말이지 구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 생활에서 행한 그대로 미래에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수도 없이 말하고 이러한 구절들을 다 이 책에 기록하 자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내놓은 구절들은 그 중에서 조금만 내놓았습니다:

마태복음 5:12. 핍박을 대적해서 견디어 낸 자에게 준 상

마태복음 5:19. 계명을 지키에 따라 미래의 직책을 받는데 에 도움이 된다.

마태복음 6:1 과 5. 사람에게 [잘]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고 기도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을 주님께게서 보상해 줌으로 할 것.

마태복음 10:41 과 42. 선지자를 영접하고 대접을 잘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음.

마태복음 16:24-27.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각 사람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갚음

마태복음 18:1-4 (마가복음 9:33). 왕국에서 누가 제일 큰 자(가장 중요한 직책, 높은 자리 등등)인가?

마태복음 19:29 와 30. 주의 이름을 위해서 값진 것들을 버린 자는, 상이 있음.

마태복음 20:20-28.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리스도께 자기 아들을 그의 왕국이 임하면 하나는 우편에 (왕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 또 하나는 좌편에 (둘째 높은 자리)에 앉게 해 달라고 부탁 했음.

마태복음 25:14-19. 달란트의 비유로 충성한 사람들은 그들의 충성의 상을 받는 동시에, 악하고 게으른 사람은 그들이 가진 것까지 잃게 됨.

고린도전서 3:12-15.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그리스도의 터에다 어떻게 세운 대로 상을 받음.

고린도후서 5:9. 와 10. 사람들이 선 악 간에 몸으로 행한 대가를 받음.

골로새서 3:23-25. 그리스도인들이 상을 받거나 혹은 그들이 행한 대가를 갚아주고,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

데살로니가전서 4:3-8.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은 성적 죄는 형벌을 받을 것임.

요한일서 2:28. 우리가 주님 강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계속 주안에서 순종할 것.

요한이서 8. 우리가 온전한 상을 얻기 위하여 삼가 [watchful-감시]할 것.

우리가 상을 받는다는 최후의 목적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확실하게 말해 줍니다. 이렇게 깨달은 것을 비춰서 보면 어떤 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노력하라고 할 뿐만 아니라 뛰어난[진보]게 하라는 확실한 명령들이 성경에 수두룩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라고 성경에 두루, 두루 명령했습니다. 로마서 12:12 에서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고 했고, 골로새서 4:2 에서 “기도를 항상 힘쓰고”라고 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기도의 생활을 하지 않거나 기도하는 것이 약하다면 거기에 대하여 핑계 잡아 주지 마세요. 그 대신 기도하는 것을 배우세요. 성경에 두루, 두루, 명령해 놓은 또 한가지는 주는 것과 후히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연보 궤에다 두 “렙돈” (1 dollar-천원)밖에 내지 못한 어떤 가난한 과부에게 칭찬해 주셨습니다(마가복음 12:42).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가난한 과부가 그날 연보[봉사 금]준 모든 사람들 보다 더 많이 주었다고 한 이유는 자기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줄 것이 없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다.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2:13 에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라고 했습니다.

부지런과 각오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큰 상을 약속해 줍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 이라”라는 어구를 두 경우에 사용하셨습니다(마태복음 5:12; 누가복음 6:23 과 35).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큰 상을 받으려면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길러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그 다음엔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직접 관계 됩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꽤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진정한* 순종은 우리의 사상과 행위를 상당히 바꾸는 데에 직접 관계되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것들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약점과 모자란 점들을 대면해서 변화를 시키는 것이 값진 것은 그 변화가 결국은 *영원한* 상의 약속을 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같이 자기 위치를 버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는 애굽 [Egypt-이집트] 왕자였습니다. 그는 “좋은 생활”을 달성 했었고, 거기엔 좋은 음식, 권위 명성, 좋은 옷, 고대의 유람 마차도 몇 대, 시종들, 이러한 것들도 다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는 매우 호화로운 생활 속에서 살았었는데 그것들을 모두 다 버렸습니다, 왜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 말하기를 미래에 있는 상을 위해서 버렸다고 합니다.

---

13. 렙 [동전]을 연보 궤 에다 넣은 것을 많은 번역에 “mite-멜” 라고 번역 했는데 곧 lepto-렙토 라고 하며, 한 denarius-데나리우스 의 1/ 128 이며, 보통 월급 하루 벌이 정도 됩니다. 만일 일꾼 한 시간 당 8 딸라를 받고 하루에 8 시간을 일하면 64 딸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1/128 이 반 딸라 입니다. 과부가 두 렙돈-coins 을 넣었으므로 곧 일 딸라 인데 성전 운영에 별로 도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취한 것을 보시지 않고, 그는 주는 자의 심장-heart 을 보십니다. Bromiley, op. cit., *Bible Encyclopedias*, Vol. 1, p. 923

14. 사실은 상을 예수님이 왕국을 세우실 때 땅에서 줍니다. Appendix B-부록 B, “The Reward in Heaven-하늘에 있는 상”, 이 대목을 보십시오.

## 히브리서 11:24-26

(24)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25)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이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이집트]의 모든 보화 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 봄이라.

모세가 이 좋은 생활을 버린 이유는 그가 “미래를 바라보았고” 그가 왕국에서 상을 받는다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근시[앞을 내다볼 줄 모르는]하지 마십시오. 우리모두가 미래에 받을 수 있는 우리 앞에 있는 상을 보고 그리고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따르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 주님의 두려움

“주님의 두려움”이라는 문단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아는 말입니다. 이것을 이해 할 수 있는 것은 이 문단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에 100 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 알려짐의 관념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두려움”이라는 말을 제대로 감을 잡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교에 나가는 사람들 태반 이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야 할 이유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 용서, 자비로운, 그리고 은혜롭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 “하나님”과 “두려움” 이 두 단어가 그저 서로 어울리지 않으며,, 결국은 현대 철학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문단이 성경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성경이 무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고 자비하신 것이 사실인 동시에, 또한 그는 정의 이십니다. 심판 날에는 그가 남자 이던 여자이던 간에 자기가 한 그 대가를 주십니다. 아버가 마음이 아파도 자식을 가르치

---

15. 말투가 다르게 똑 같은 말을 한 것들입니다. 문단과 함께, “하나님의 두려움,” 여호와를 경외[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라,” 등등.

16. 단어 “두려움”이라는 말의 뜻이 진실로는 “존경” 혹은 “경외” 라고 가르치는 것을 자주 들어봅니다. 이것이 어떤 점에는 맞는 말이지만, “존경”과 “경외”를 모든 점에 적용하는 줄로 생각하면 큰 실수입니다. 이 단어를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공부한 것과 “두려움”이 나타나는 연결된 대목을 조사해본 결과에 두 말이 고통 적으로 알려진 것이 종종 일부러 행한 뜻으로 밝게 들어납니다. [찾아볼 책] Bromiley, op. cit., *Bible Encyclopedia*, Vol. 2, pp. 289-92 그리고 Marshal, op. cit., *New Bible Dictionary*, p.365

17. 부록 c.를 보면 “구원받았다” 라는 단어가 성경적으로 어느 세대이든지 누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에 채용됩니다

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각 사람을 심판 하실 것입니다. 슬프게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불  
 못에 던지어서 타버리고 없어집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이 자  
 체가 훌륭한 선물입니다!) 주시는데 왕국에서 상이 적느냐 혹은 없느냐 입니다(고린도전서  
 3:13-15).

성경 구절에, 하나님의 두려움이라는 말이 종종 순종하는 사상에 대하여 말할 때에 나타  
 납니다. 부모들은 이 관념[관한 뜻]을 압니다. 부모들은 아무리 그의 아이들이 사랑과 보통  
 올바른 뜻 안에서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아이들이 종종 어떤 결과를 받을까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을 부모로써 잘 압니다. 하나님의 두려움도 이와 같아서, 그의 심판의 뜻을  
 알면, 죄를 그치거나 혹은 죄를 짓기 전에 그것을 피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매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이 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매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예수에게 비방을 퍼부을 때 입을 열어 대꾸한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일생이 끝나고 앞으로  
 심판이 임박해진 것이 나타난 것을 보고 같이 동행한 행악자 에게 소리 질러 “...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누가복음 23:40)라고 한 것입니다. 이 행악자는, 비록 모든 면으로  
 봐서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비방하므로써 오직 심판 때에 진노만  
 가져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겸손히 간구하기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  
 하소서!”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 이야말로 어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로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된 영원한 위로의 말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행악자 에게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오늘날 네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죄를 자복하지 안 해서 용서받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시해 버리신다는 것이  
 참으로 옳다고 생각 됩니다? 그건 그렇고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더  
 기록해 놓았습니다.

---

18. 행 악 자가 그날 “낙원” [여기서 나오는 낙원을 한국 사람들은 보통 “천국-Paradise” 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천국이  
 에덴동산과 같은 곳, 바로 낙원]을 뜻합니다.]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 날 왕국이 세워진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에도 세워지지 안했기 때문입니다. 이 행악자 가 언제 여기에 들어가느냐 하면 의인의 부활 때입니다. 읽어볼 책:  
 Graeser, Lynn. Schoenheit 분이 쓴 “Is There Death After Life?- 죽은 후 바로 사는데 가 있는가? 페이지 91.

19. 우에 구절 27 절에서 “... [God-하나님] 을 대적하는 자 들을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한 말을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3:10-17 절에서 말한 것과 그 “불”이 불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소멸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지만 (로마서 8:37-39). 불로 그들의 행한 일들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그 시험에 합격을  
 못하면 그가 (행한 공력)이 소멸될 것이고 그 믿은 자의 (상)을 잃어버립니다. 그 믿은 자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고린도전서 3:15)라고 했습니다. 불로 소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적” 구원받지 못한 자들, 마귀  
 그리고 귀신들입니다(마태복음 25:41-46; 요한계시록 20:10 과 15).

**히브리서 10:26, 27 그리고 31**

(26)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 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27)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31)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  
진저.....

이 구절들이 읽는 자들에게 매우 냉정하고, 매우 딱딱하고 그리고 매우 사랑하지 않는 기분을 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모든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와 똑같은 감동으로 기록된 구절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누구든지 행한 그대로 갚아 주십니다. 그는 “차별 장난”을 하시지 않습니다. 또는 누가 믿음을 위해서 힘들게 몸부림치며 견뎌낸 사람 일의 상을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과 같이 취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그들의 생활을 신중히 생각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에 신중히 하라는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순종할까 말까 하는 단계에 있을 때, 하나님의 두려움이 순종 쪽의 “저울추”를 올려 줍니다.

Jay Carty-제이 카티 분, 곧 Yes! Ministries-네! 교회 라고 부르는 교회를 세우신 분인데, 이분이 순종에 대한 가치와 죄에 대한 대가를 가르칩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이 가끔씩,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한 말은 듣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분이 대꾸 한 말입니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제이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말을 신중히 들어 보십시오. 나는 반평생을 도로에서[여러 곳에 방문의 표현] 보내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두려움이 내 코를 깨끗이[죄를 범하지 않게] 간직할 수 있게 해 준 경우가 한두 번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일부러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싶을 정도에 이를 때도 있었으나, 내가 그 대가를 받는 것이 두려워서 금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Jay Cary-제이 칼티 분은 자기의 경험이 무엇을 가르친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우리로 코를 깨끗케[죄를 범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그의 자비에 반응하기를 원하신다고 확실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 **로마서 2:4**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  
성함을 멸시하느뇨?

비록 하나님은 모두들 그의 자비, 온유 그리고 사랑 때문에 순종하기를 원하시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부패된 태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 **누가복음 12:4 와 5**

- (4)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 노니 몸을 죽이고 그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 (5)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Gehenna 거헤나 골짜기]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하나님] 두려워하라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나 혹은 하나님의 두려움이 우리로 죄를 그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6 장과 7 장에 의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살지 않으므로 죄의 가혹적인 법 아래 빠진 것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6:16 과 17 절에서는 “죄의 종”이라고 까지 표현합니다. 어느 때고 누구든지 세상 속에서 살아본 자들은 사람들이 죄[마귀]의 울 무 에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26). 하지만, 자복하지 않은 죄의 대가가 자기 책임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현재 생활 각오에서 흔들리지 않게 돕는 닻이 됩니다.

다른 대목 구절, 전도서의 “결론”이 주님을 두려워하라 와 오는 심판을 위하여 순종하는 생활에 연결시킴:

**전도서 12:13 과 14**

(13)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fear God-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 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14)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 악 간에 심판 하시리라.

하나님의 “결론”은 확실히 정당함: 하나님을 경외[두려워]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

20. Jay Carty 분의 책. *“Counterattack Taking Back Ground Lost to Sin- 죄로 잃어버린 땅을 반격 행으로 되 찾다”* (Multnomah, Portland, OR, 1988), p. 114.

21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수만 명이 모여” (누가복음 12:1) 있는 무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중에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의심 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 말씀이 그리스도교회가 시작된 오순절 날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죄를 지면 (Gehenna-거헤나 골짜기에 던져 넣는다고 가르치면 절대 안됩니다.

### **면류관: 하나님의 “과외의 신용” 프로그램**

두려움이 강한 동기[하고싶게 하는]가 될 수 있는 동시에, 하나님의 첫째 동기[하고싶게 하는]는 사랑입니다. 그럼으로 하나님께서 “과에 넘치게” 수고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보상이 있다는 것을 묘사해 주십니다. 모든 학생들은[미국 에서] 누구든지 “과외의 점수”에 대한 개념이 낯 익는 말입니다. 보통 이것을 숙제 끝이나 혹은 요구하지 않은 시험이지만 그 시험을 보면 bonus-뽀나쓰 점수를 받는데, 보통 그 학생이 먼저 시험에서 떨어질 것 같으면 다시 점수를 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교사들, 물론 부모들, 그리고 고용주들[사업 주인들]은 상에 대한 약속이 열심히 일하도록 강한 유인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외의 점수” 프로그램을 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과외 격 려들”을 성경말씀에서는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비록 그 면류관의 정확한 것과 어디에 필요한 것은 명확하게 밝히지 안 했으나, 그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행하라고 한 다른 행위들의 과외의 점수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대강 논의 할 만한 문제가 됩니다.

다섯 가지 면류관:

- 1) 썩지 아니할 면류관: 자기의 절제 심을 훈련시키면서 힘닿는데 까지 주님을 위해서 행하면 (고린도전서 9:25 킹 제임스 번역)
- 2) 기쁨의 면류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오도록 승리하면 (데살로니가전서 2:19 킹 제임스 번역).
- 3) 의의 면류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디모데후서 4:8 킹 제임스 번역).
- 4) 생명의 면류관: 시험 [trial-시련, 고난, 재난]을 참고 견딘 사람에게 (야고보서 1:12).
- 5) 영광의 면류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양 무리를 치는 자에게 (베드로전서 5:4 킹 제임스 번역).

**썩지 아니할 면류관** 은 고린도전서 9 장 25 절에서 말하는데 이 구절에 “절제 라는 말이 운동가들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엄한 훈련을 받는다는 말에 연결됩니다. NIV 성경 번역에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면류관.” The Amplified 성경에는 “...모든 운동가들이 훈련 받을 때는 자신을 지도하고 모든 일에 자신을 제한 한다.”라고 했습니다. 훌륭한 운동가는 “그만하면 되겠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열심히 더 나아지려고 연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마음 태도로 열심히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스도의 목적은 죄만 피하는 것으로 뿐만 아니라, 의로움에 뛰어나서-말하자면 “hit a home run-야구에서 단번 치고 한바퀴 돌다”에 도달 하라는 것입니다. 경건히 훌륭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적극적으로 뛰어나게 노력한 자들에게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줍니다.

**기쁨의 면류관**은 누구를 그리스도로 오도록 승리한 자에게입니다. NIV 성경에는 “...면류관 곧 우리가 영광 받을 것...”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이끌어서 결국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고 싶어해야 할 일입니다. 이 일은 자비적인 행위임은 누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거절하면 마지막엔 불 못에 던짐을 받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누가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 **로마서 10:13 과 14**

(13)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가 말하지 않는데 듣는 자가 어떻게 잘 듣겠습니까? 남녀 할 것없이 망설이지 않고 불타는 집에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들어 누구를 구원하는 사라들이, 종종 거부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혹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매우 거북한 기분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자의 마지막엔 불타는 집에서 갇혀서-불에 타 죽는 사람과 똑 같습니다. 비록 다들 전도의 은사로 부름을 받지 안 했지만,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 이면 “복음-좋은 소식”을 전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니다. 전도가 어렵고, 두렵게 할 수 있고 또한 가끔씩 위험하기도 한 것은 듣는 자들이 항상 감사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오게끔 노력해서 승리한 사람에게는 기쁨의 면류관으로 상을 주십니다.

**의의 면류관**은 누구든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줍니다(킹 제임스 번역).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생활에 너무도 잘 적응해서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든지 그들에게는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보통 건강하고 편안히 살며,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이 진실로 그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을 보지 못합니다. 또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하고 순종하는 생활을 하고 싶은 강한 소원이 없는데, 어쩌면 그 이유가 그렇게 살면(디모데후서 3:12-“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라는 말씀대로 될까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대부분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을 원치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유는 그들의 죄를 그치기 싫거나 혹은 심판을 대

면하기 싫어서입니다. 그리스도인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다시 오시기를 “사모-NI v 번역에 long for-기다리는”하는 자들은 주로 이 세상에 다 확립하지 않고 보통 그들의 생활 태도가 경건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그리스도인 누구든지 시련[유혹]과 고난 중에도 참고 꾸준히 성실한 자에게 줍니다. 성경과 역사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각오에 한평생을 충성하며 사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가르칩니다. 너무나 번번이, 사람들이 주님에게 “불타다”가 그 불이 “식어져”서 그들의 각오를 버립니다. 불행 이도, 불이 식어지는 것이 흔히 그들의 주변 그리스도 사회에서 보는 것과 그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취급 받은 결과로 인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선자인 것이 비밀이 아닌 것과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솔직한 자들을 낙심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시작된 지 한 2000 년 후로부터, 수백만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그리스도의 각오에서 떠난 이유가 교에서 나쁜 것을 보았거나 혹은 자기의 그리스도 회원에게 매우 좋지 않은 취급을 받은 결과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과분한 말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어떤 사람은 식어진 이유가 시련[유혹]과 고난 때문이기도 합니다. 시련[유혹]과 고난이 여러 모양으로 오는데, 범위를 넓게 포함한 두가지: 바로 압력 (학대)이거나 혹은 쾌락 (“죄악의 낙”-히브리서 11:25)입니다. 그리스도인 누구든지 이러한 속에서도 평생을 충실하게 유진 한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은 그리스도인 누구든지 돈 때문에도 아니고 못 사람들 위에 “왕 노릇” 하고자 해서도 아니고 그들은 그저 사람들을 섬기는 이유가 그 사람들의 영적 가능성을 최대로 길러주고 싶어 하는 열심 대문에, 자의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인도한 자들에게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꽤 감사치 않고 불만족 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 자들은 누구나 거의 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경건하게 유진 하고 축복해 주나 하는 일에 힘이 빠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래서 직책을 그만둔 목사가 한두 분이 아니고, 장로, 혹은 관리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안 해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사람들과 일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에 하다못해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백성들에 태도와 행위에 진절머리 내시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모두 다 내버리려고 하신 단계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는 사람들의 감사 받지 못하는 끊임없이 힘든 일에 대한 것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직무를 경건한 태도로 이 끌어 나간 자들에게 면류관을 주십니다.

## 미래 왕국에서 직업

정당 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하늘 나라에서 영원히 무엇을 할까?하는 질문이 한두 번씩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작가, Peter Kreeft-피털 크리이후트 분이 정당 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대로 하늘나라에 대하여 쓴 *당신은 하늘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항상 알고 싶은데 한번도 질문한다는 것은 꿈 꾸어 보지 못했다.* 라는 내용을 책에 확대해 놓았습니다. 제 3 과목, 제목, “우리가 하늘에서 무엇을 하나?” Kreeft 분의 말에, “대부분 사람들이 하늘에 대한 것이 첫번째 질문입니다.” 아래 내놓은 대목이 그 답을 간추려 놓았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답 기초 바탕이 *Thinking About Religion-종교에 대하여 생각하는* 이라는 Richard Purtill-리찰드 폴틸 분의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제 10 과목에 “죽음 후 생활: 이것이 어떻게 생겼을까?”-그분은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할 일을 세가지로 했는데 그 순서가 이러함: (1)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의 지상 생활을 깨닫는 일, (2) 다른 사람들 생활을 분담하는 일, 그리고 (3) 하나님에게 폭발, 이렇게 세가지로 가정 합니다.

Kreeft 분의 대답은 잘 꾸민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 나라에서 무엇을 하는가를 성경에서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Kreeft 분은 다른 사람의 책에서 “가정”한 것을 가지고 대답합니다. “가정”하는 것은 그러할 것이라고 하거나 혹은 짐작해서 내 놓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Kreeft 분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서 무엇을 하나에 대한 그의 최고의 대답이 하늘이라고 한 하나에 짐작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인식하지 못한 것은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이 없는 이유가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에서 영원히 살지 않기 때문인 것을 모릅니다! 성경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잠시 동안 있다가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이 땅에 세운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그들의 책임들을 가지고 참례하게 됩니다.

미래 왕국에는 여러가지 다른 종류의 직무 수준과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서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합니다(고린도후서 5:10). 그러므로 모두 다 똑같은 상을 받지 않을 것이며 혹은 책임들이 같을 것이라고 짐작

22. Peter Kreeft, *Everything You Ever Wanted to Know About Heaven But Never Dreamed of Asking* (Ignatius Press, San Francisco, 1990), p. 51.

23. *Ibid.*, p. 52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이 “우리가 하늘에서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미래 땅에서 무엇을 할까?”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을 글자 그대로 “에덴동산” 곧 “낙원-Paradise” 새 땅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신 원 낙원에서 일하게 한 것처럼, 앞으로 오는 낙원에서도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 시초를 돌아보면 원 에덴동산이 원형, 혹은 한 장면으로 앞으로 올 낙원-Paradise 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알려주는 것을 보충해줍니다. 창세기 2:15 에서 아담과 이브가 실행해야 할 두 직무에 대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동산에 두어 “...[1] 다스리며-(work 일하며) [2] 지키게-(take care of it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NASB 성경에서는 “...경작하고 간직하게”라고 말합니다. 많은 농장이나 혹은 정원과 같이, 에덴 동산도 일 혹은 “경작”을 요구 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정원을 경작 했어야 하기를 많은 농부들이 농장을 경작하고 흙을 가꾸며 식물을 보살피는 것 같이 했습니다.

에덴 동상이 밟이며 거기에 매우 좋은 실과와 채소가 있었고, 그럼으로 그들의 둘째 직무가 그것을 “간직”하는 일이었습니다. “보관”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단어는 shamar-사말, 이 뜻은 “관리하다, 보호하다, 간직하다, 다스리는 권리, 치다(목장 동물들을). 지키다, 보다, 보관하다” 입니다.세상에 동물들이 가득하였었고, 원 낙원에서 그들이 다 푸른 풀을 먹었습니다(창세기 1:30). 아담과 이부의 일과들 중에 한 직분이 들짐승들이 에덴 동산에 들어 오지 못하게 동산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브가 자기 집에서 창문으로 내다보면서 소리 질러; 아담, 사자가 와서 내가 좋아하는 딸기를 먹어요. 아담! 저것들을 내 딸기밭에서 쫓아내요 빨리, 빨리! 미래에 사자가 다시 풀을 먹는다는 예언을 기억하고 보면, 아마 당신도 역시 채소밭에 들어오는 들짐승을 쫓아내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다스리는 권세와 책임감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일과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미래 새 땅에서도 여러가지 종류의 일을 하면서 생활한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아래에 내놓은 일의 타입들은 거의 다 천년왕국 때에 관한 예언들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영원한 왕국 때가 아닙니다. 어떤 일들의 타입들, 즉 “장사[매장]하는 일을 하는 자,” 이러한 일은 영원한 왕국에서는 없어지는 이유가 그때에는 죽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그때에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도 없어집니다. 어떤 일의 타입은 뚜렷하게 나타냈고 어떤 일의 타입은 넌지시 암시

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내놓은 것들은 뚜렷한 것들임:

- *정부와 통치자*(이사야 1:26; 32:1; 예레미야 3:15; 23:4; 에스겔 44:24; 마태복음 19:28; 고린도전서 6:2 와 3; 디모데후서 2:12; 요한계시록 2:26 과 27).
- *건축가*(이사야 54:12; 60:10; 61:4; 예레미야 30:18; 에스겔 36:10 과 33; 아모스 9:14).
- *청소부*(이사야 9:5; 에스겔 39:14 와 15).
- *농부*(이사야 30:23 과 24; 32:20; 61:5; 62:9; 예레미야 31:5 와 12; 에스겔 36:9 와 34; 47:12; 48:19; 아모스 9:13 과 14).
- *어부*(에스겔 47:10).
- *장사매장하는 사람*(에스겔 39:14 와 15).
- *목동*(이사야 30:23 과 24; 60:6 과 7; 61:5; 예레미야 31:12).
- *조경 새 정원, 경치, 등등을 꾸미는 사람*(이사야 60:13).
- *금속 세공인[혹 철공인]*(이사야 2:4; 60:17; 미가 4:3).
- *노비[종]*(이사야 14:2).
- *전에 수종 드는 일과, 전쟁에서 마음이 성결치 못한 레위사람에게*(에스겔 44:15 와 16).
- *포도원*(이사야 25:6; 62:9; 예레미야 31:12; 아모스 9:13 과 14).
- *역사하는 자 일꾼*(에스겔 48:19).

직업 타입은 말은 했지만 누구에게 해당된다고 표현하지 않은 것들:

- *요리사, 백정, 빵 굽는 일*(이사야 25:6).
- *음악가들*, 비록 그때는 모두 다 노래 부르며 즐거워 하지만, 평시와 같이 전문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이사야 35:10; 65:14; 예레미야 30:19; 31:4).
- *장막 천막 만드는 사람*(이사야 54:2; 예레미야 30:18).
- *베 짜는 사람, 양복 재봉사 그리고 여복 양재사*(왕국에서 옷을 입음)(에스겔 44:17-19; 요한계시록 19:13 과 14).

성경은 일의 책임들을 설명해 놓았고 또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할 것이라는 일들의 종류

에 전반적인 대요가 넘치지 암시된 것을 보충해 줍니다. 이때에 일할 사람들은 왕국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었는데: 그리스도인들, 부활한 사람들, 그리고 양과 염소의 심판받고 왕국에 들어간 “육의-natural” 사람들입니다. 비록 천년왕국에서, 사람들이 받은 직책들은 서로 상당한 차이가 나지만, 그때는 아무도 굶주리거나 혹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 14:30 에서,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빈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라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그려 놓은 미래왕국의 그림은 평시에 사람들이 매우 즐기는 것들로 그려 놓았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일하고, 놀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교제를 즐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미래의 일들에 대하여 완전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으며,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엔 웃이 있으므로, 양복사와 양재사가 있을 것이지만 그 일을 할 사람들이 누구라고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거기엔 여러가지 질그릇이 있지만, 누가 토기장이일을 할 것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거기엔 광주리와 방바닥에 까는 것들이 있지만, 그 왕국에서 누가 그것들을 만들어서 매매 할 것이라는 설명이 없습니다.

결점은: 미래 땅에서 평화롭고 부귀한 낮 익은 배경에서 생활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영생, 곧 영원한 생활이라 하면, 이생 곧 지금 살고 있는 생활과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육체적으로 지으신 것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창조하신 후에 그가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내 주시는 미래 생활에 대한 것들을 보면, 몇 세기를 거쳐서 사람들이 평시에 생활해 온 것들과 비슷한 것들인데 미래 세상때는 질병과 전쟁과 불의와 굶주림 같은 등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다가 우리가 알 만큼만 기록해서 우리로 이점에 대하여 엉뚱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방지해 주십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미래가 어떠한 것은: 맨 시초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지 않고 이 세상을 정복 하여 그대로 후손이 내려 왔었다면 그것과 똑 같다는 것입니다.

왕국 때가 되어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낙원-paradise 에서,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주장하고 Kreeft 분이 말한 것같이 자기들이 살아온 지난 과거를 경건한 빛으로 비춰서 깨달으려고 노력할 것입니까? 성경으로 보아서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사야 65:17 에서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통스러운 과거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빌립보서 4:8 에서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 하고 더 나가서 에베소서 5:12 에서는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고 까지 말합니다. 만일 이 말씀이 죄의 세상 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에게 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면, 죄가 없어진 낙원-Paradise 에서는 즐기는 것이 얼마나 더 사실이겠습니까? 은밀히 행하는 것들과 오늘날 사람들의 죄스런 행위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며, 은밀히 감추어 놓은 모든 것들이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서 죄진 자들이 이미 그 대가를 받았습니다(전도서 12:14). 그리스도인 들이 그들의 영광스런 새 몸으로 낙원-Paradise 에서 살 때에는 저주에 빠졌던 지난 과거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

24. 비록 우리가 지난 과거에서 살지 않더라도, 거기에 어떤 것들은 기억합니다.  
이 책 제 5 과목 “옛 것과 새것에 서로 비슷한 점과다른 점”을 읽어 보시오.

## 믿은 자들이 언제 그들의 상을 받는가?

누구든지 하나님을 순종한 사람들은 미래에 상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해 줍니다. 하지만 성경에 언제 라고 특별히 설명해 놓은 구절들이 없습니다. 어쩌면 각자의 상을 한꺼번에 은행에서 목돈을 받듯이 다 받지 않고, 차츰차츰 받을지 모릅니다. 그 상이 왕국에서 계급 일 수 있고 또한 맡은 직책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그 상을 몇 년이고 “살면서” 받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있는 심판들: 들림 받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심판이 있고, 양과 염소의 심판이 있고, 첫 부활에 관한 심판이 있으며, 그리고 또 두번째 심판-의롭지 못한 자들의 부활 (“흰 보좌”의 심판)의 심판이 있습니다. 역대 상으로 보면, 첫번째 심판에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합니다. 이것이 들림 후에 실행되는데, 들림을 받고나서 얼마 후라는 것은 특별하게 설명하지 안 했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땅으로 내려오기 전에, 그와 함께 하늘에 있는 동안에 심판대 앞에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군인들처럼 함께 오신다는 것을 보아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판단을 받아서 각각 다른 계급들과 권세들을 받았다는 것을 내포 합니다. 어디인가 모르게 그리스도인들이 들림을 받아 칠년 환란 시대가 끝날 때까지 하늘에서 기다렸다가 내려와서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좀 불합당합니다.

양과 염소의 심판에 관한 것과 첫째 부활 심판에 관한 것, 이 두 심판은 매우 짧은 기간 사이에 있거나 혹 어쩌면 그 동시에 있습니다. 이 “양과 염소의 심판”은 (마태복음 25:31-46) 그리스도께서 아마겟돈-Armageddon 전쟁에서 싸워서 땅을 정복하시고 난 후에 있을 것입니다. 그가 온 땅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다 모으고 그들을 판단하십니다. 누구든지 의롭다고 판단 받은 사람들은 왕국에 들어가고, 한편 불의하다고 판단 받은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 버립니다.

이 양과 염소의 심판과 바로 관계되는 심판이 첫째 부활, 곧 의인들의 부활(누가복음 14:14)입니다. 첫째 부활은 구약성경 때부터 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때까지 믿은 자들이 의롭 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고 또 환란 때에 살다가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서 판단합니다. 이 부활에서 살아난 사람들의 심판이 환란 때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심판 전인지 후인지 혹은 같은 때인지 성경에서 특별하게 밝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왕국 통치 시작에서부터 얼마동안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기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왕국을 세운 때부터 판단을 시작해서 얼마동안 걸린다는 심판기간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보면 계산 할 수 있습니다. 환란 기간이 칠년 입니다. 마지막 반 환란이, 삼 년 반을 예언적으로 “한때 두 때와 반 때”(다니엘 7:25; 12:7; 요한계시록 12:14)라고 하며, 마흔 두 달(요한계시록 11:2; 13:5)이라고 하며 혹은 일천 이백 육십일(요한계시록 12:6)이라고도 합니다. 아마겟돈-Armageddon 전쟁이 칠년 환란 세대를 끝마칩니다. 다니엘서에서 삼 년 반이 마지막 환란의 반이라고 말해주고 거기에 따르는 다음 구절에서는 거기에다 더 보탠 날짜가 아래와 같음:

### **다니엘 12:11 과 12**

(11)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일천 이백 구십 일을 지낼 것이요

(12) 기다려서 일천 삼백 삼십 오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다니엘 여기에서 말한 1290 일은 적그리스도가 완전통치한 그 때의 지경 기간 1260 일 보다 30 일이 더 깁니다. 이 과외의 30 일이 아마겟돈-Armageddon 후에 양과 염소의 심판을 위해서 모든 나라들을 모아들이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니엘서에서 말하기를 1335 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고 합니다. 1290 일과 1335 일에서 날 수가 다른 것이 45 일이 다릅니다. 이것이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천년 왕국에 들여보내기 전에 45 일 동안 판단하는 기간일 것입니다. 어쩐지 다니엘 12:12 에서 “기다려서 일천 삼백 삼십 오일 까지 이르는 사람은 진정 “복 있는” 사람인 것은, 그 사람들은 의롭다는 판단을 받고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하기 때문 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심판을 요한계시록 20:11-15 에서 흰 보좌 심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찍이 이 책에서 논의 했듯이, 이 부활의 심판을 “두번째 부활”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첫” 부활이 이미 왕국을 시작할 때 실행되었기 때문입니다(요한계시록 20:4). 이 심판이 또한 “불의인의 심판”으로 도 알려 졌는데 그 이유는 이때에 일으킴을 받은 사람들은 거의 다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세대에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인데 이 부활 때에 모두 일으켜서 그 크고 흰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심판에 또한 천년왕국 끝에 살아있는 “육의” 사람들도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 마지막 심판 때에,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 받은 사람들은 모두 불 못에 집어 던짐을 당

합니다(요한계시록 20:15). 감사하게도 그 때에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 받고 영원한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십니다.

사람 하나하나 마다 태어나서 살아온 사람들은 지금 말한 네 심판중의 하나 중에 대면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 들림 받을 때, 양과 염소의 심판 때, 첫째 부활에 관계된 심판 때, 혹은 흰 보좌 심판 때입니다. 이것들이 정한 때에 모두 실행됨으로, 성경은 “심판 날”에 대하여 말씀을 많이 합니다(마태복음 10:15; 11:22 와 24; 12:36; 베드로후서 2:9; 3:7; 요한 1 서 4:17; 유다서 6). 사람들이 죽으면, 누가 말하는 것처럼, 바로 판단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7:31 에서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

25. 이 외에 가능한 부활은 요한계시록 11:3-12 에서 나오는 두 증인 이라고 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 **보상으로 인하여 원동력 [motived-모티베이션]이 나에게 할 필요가 있는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미래 왕국에서 보상받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나, 어떤 다른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확신했으므로 감사에 넘쳐서 “이것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기 때문 이거나 혹은 “그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로 또 혹은 “만일 그들이 순종 하면 더 축복을 받는다.”라는 이유로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랑에 움직여서 순종하는 것이 왕국에서 상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순결한 마음인 것같이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사랑, 감사에 찬, 직무 기 때문에, 그리고 축복을 받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고귀한 동기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면 이 세상에서도 더 축복한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이 책 목적들 중에서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순종하면 상을 주신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하고 또 이렇게 계획[designed-디자인]해 놓으신 이유가 경건한 생활하는 데에 대부분 동기[motivation-모티베이션]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엔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진술된 것들 역시도 보여 드립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저 거기에 복종만 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종종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은 그의 말씀에서 가르치기를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에 유익은 언제 든지 단지 사랑 안에서 행하면 얻는다고 했습니다(고린도전서 13:3).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따뜻하고 포근한 기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건한 행위가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과 사람들의 축복을 위해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것을 자기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연속해서 간구했지만, 결국은 십자가로 가심으로 인하여 최대의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사랑과 친절로 그들에게 대하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매일같이 사랑을 표시하므로 그를 순종하면, *하나님*은 고맙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말씀을 무시해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규율을 세워 놓으셨고, 보상에 대한 모든 상황을 조직해 놓으셨습니다. 미래에 상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며- 이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에 일부가 됩니다. 낙원-Paradise 에서 받을 상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는 닻의 소망들 중의 한 부분입니다.

보상에 대한 것들을 앎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폭풍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밖으로 날라가거나 혹 그에게서 밀려 나가지 않게 하며, 세상 매력에 마음을 끄는 것에 가지 못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인을 튼튼히 잡아 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경험이 말해주기를 불순종의 대가가 어떠하다는 것을 인식하므로써 종종 거룩하게 유진하고 순종하는 쪽으로 결정짓게 하는 도움을 줍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매우 훌륭한 동시에, 거기엔 또한 값어치 있는 상을 보고 순종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왕국에서 상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해주시지 안 했어도 되었을 텐데, 그는 말씀 하셨으므로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의 귀에 크게 들렸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을 부유하게 상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의로우시므로, 그것을 받을 만큼 수고한 자들 에게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천부 께 순종하는 것과 자기의 행함을 현명하게 하는 것은 각자 그리스도인에게 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순종이 종말에는 매우 “값진 것으로” 될 확실한 것을 지금 실행할 수 있습니다.



# 7

## 정설 파 교의 근원 (The Origin of Orthodoxy)

### *믿는 자들이 천당, 곧 하늘에서 영원히 산다는 아이디어가 어디서 생겼는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정설과 그리스도의 기본적 가르침은 의인들의 “영혼들-souls” 혹은 “영들-spirits” 은 “하늘” 혹은 “행복에 넘친” 곳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그릇된 교훈은 그들의 영적인 원인을 알기 전에는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일찍이, 에덴 동산 때의 초기서부터, 악마와 그의 귀신들이, 사람이 죽으면 참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전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만일 네가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년 죽으리라” 한 후에, 악마가 이브에게 거짓으로 말하기를,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했습니다(창세기 3:4). 이 후로부터 악마는 이 똑같은 거짓을 할 수만 있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활동적으로 선전합니다. 불행하게도, 사람이 죽은 후에 계속 산다는 아이디어가 종교들 거의 다, 정설 파 그리스도까지 포함해서 그 종교들 사회안에서 호응하는 번성 율 있는 발이라는 것을 찾게 됩니다.

---

1. 의인의 영혼의 결국 쉴 수 있는 곳이 하늘이라는 것의 근원을 넓게 취급하자면 서적들을 채워야 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짧은 책에서는 정설 파 믿음에서 눈에 잘 띄는 것들 중에서도 단지 조금만 취급한 것입니다.

태반의 그리스도인 파들이 죽음이라는 것이 없는 것으로 가르칩니다(만일 “죽음”을 합당하게 밝히면 “생명에서 완전한 결석”과 같음). 그 대신에, 그들의 가르침을 보면 언제고 몸이 죽으면, 그 “영혼,” 곧 “진짜 당신”은 하늘로 혹은 지옥으로 가서 행복이 넘친 생활이거나 혹은 고통속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들 때문에 태반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이 죽을 때 진짜로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의 장례식에 가보면 열려 있는 관속에 죽은 시체가 누워 있는 것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말하는 것이 “이러이러한 사람이 지금 하늘에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악마의 가장 중요한 계획이 그 전부터,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들로 “네가 결코 죽지 아니 하리라: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므로 태반의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이 죽었지만 어대인가 계속 살 것이라는 것을 어느정도 믿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이든지, 당신의 영혼, 혹은 어떤 다른 “품질”이든지 간에 결국은 항상 똑같은 뜻-“당신”은 죽은 후의라도 완전한 의식이 있으며 사실이, “죽지” (즉,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닌 것)아니 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성경적 바탕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합된 조직으로 몸을 디자인했기 때문에, 영혼과, 영을 함께 합쳐서 완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담의 몸을 완전히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 넣으시기 전에는 그저 “흙-dust”이였습니다(창세기 2:7). 아담의 “생명” (이것을 영혼이라고 하던 혹은 영이라고 하던 간에)이것이 전에는 의식이 없었으며 혹은 그 몸을 떠나서 독단적으로 살고 있지 안 했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몸을 떠나서도 귀신처럼 의식이 있고 몸이 없어도 움직이며 이동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이 거기서 살 때에 유대교

---

2. 이 매우 중요한 점을 Graeser, Lynn 분, 그리고 Schoenheit 분이 쓴 *Is There Death After Life?- 죽은 후 살고 있나?*라는 책 페이지 3-15 에 집중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 화젯거리에 대하여 공부해 놓은 다른 책들도 여기에 포함: Anthony Buzzard 분의 책. *What Happens When We Die?- 우리가 죽은 후 어떻게 되나?* (Atlanta Bible College. Morrow, GA. 1986); Oscar Cullmann 분의 책. *Immortality of the Soul- 죽지 않는 혼[영혼] 혹은 Resurrection of the Dead?- 죽은 자의 부활?* (The Epworth Press, London, 1958); LeRoy E. Froom 분의 책, *the Conditionalist Faith of Our Fathers* (Review and Herald Publishing Assn., Washington DC. 1966); Sindy Hatch 분의 책, *Daring to Differ; Adventures in Conditional Immortality* (Brief Bible Studies, Sherwood, OR. 1991); Percy E. White 분의 책, *The Doctrine of the Immortality of the Soul* (Christadelphian Scripture Study Service, Torrens Park, South Africa); Victor Paul Wierwille 분의 책 *Are the Dead Alive Now? - 죽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가?* (American Christian Press, New Knoxville, OH, 1973).

3. 우리가 기억해야 할 흥미를 끄는 것은 내내 구약성경에서는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관념인데, 그 영혼이 사람전에 있었다는 흔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혹은 죽지 않는다는 것이 없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창조 활동인 것입니다(창세기 2:7). 단지 페르시아인들과 그리스인들 영향아래서 비실적인 개념으로 전에 있었던 영혼을 하늘에서 내려 주셔서, 사람의 몸에 감옥처럼 강금 되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것이 유대교에 쪽 퍼진 것입니다. 이것이 말기

로 들어온 것이고 또 다른 종교에서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영혼이 육체에서 이탈시켜[따로 떠나]서 산다는 아이디어는 성경책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은 후 어떠한 형체 이든지 살고 있다는 믿음이 성경에서 나오는 계시하고 정 반대입니다. 성경에 따라서는, 남 여 간에 사람이 죽으면 주 예수께서 그를 다시 살려서 심판대들 중 하나의 앞에 세울 때까지 죽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날” 혹은 심판의 때라고 말 하지 사람이 죽을 때 마다 심판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0:4-6 에서 어떠한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는 동시에, 어떤 자들은 아직 살아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13 에서 바다와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어 줌으로 인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한다고 말합니다. 만일 사람이 죽으면 바로 지옥으로 갈지 하늘 나라로 갈지 판단을 받았다면, 그들이 “심판 날에” 판단 받기 위하여 죽음에서 살아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죽었을 때 이미 판단을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하늘에 있는 자나 지옥에 있는 자들을 끌어들여서 또 판단을 하겠습니까?

세상 종교들이 몸이 죽으면 “영혼” 혹은 “영”은 죽지 않는 다는 아이디어를 한번 받아들이고 나서는, 다음 단계는 그것의 사후를 정하는 것, 다시 말해서, 몸이 죽은 후 영혼이 어데서 사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종교마다 조금씩 다른데, 거기에 얼마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세상 종교들을 공부한 결과를 보여준 것을 보면, “선한”사람들은 신들에게 머무르거나 (어떤 때는 “하늘” 이라고 함), 혹은 어떤 훌륭한 땅으로 가는 동시에, 악한 사람은 형벌, 혹은 고통 당하는 곳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공통 믿음 인데, 오늘날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결국 유대교와 그리스도에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초기 *하늘나라의 역사*, J. Edward Wright-J.엔월드 우라이트 분이 죽은 사람에게 어떻게 되는가의 성경적 관념을 지적해서 말해 주고 있음:

시편에 두 구절들이 하늘에 있는 인간의 생후의 곳을 성경적 관념으로 간추려 놓았음: “하늘은 여호와와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 도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 하나니 적막한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 로다”(시편 115:16, 17). 이 구절들이 인생의 곳이 우주 하늘에는- 그들이 있을 곳이 거기

---

유대 주변 무대에 등장한 것입니다. Karl-Josef Kuschel, *Born Before All Time Dispute over Christ's Origin* (Crossroads, New York,1992), p. 184.

에 없다는 것을 성경의 tradents-전달자의 의사는 뽀족하게 겨누어 가리켜 주고 있습니다.

Wright-우라이트 분이 유대교와 그리스도 교 둘 다 죽은 후에 사는 아이디어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 속에서 받아들인 것을 계속 고집어 내고 있음:

제 5 세기 BCE 에, 죽은 후 하늘로 간다는 믿음이 발전해가지고 Mediterranean-매디추레니안[지중해 인종] 세계에 퍼져가지고 고대의 동부 근처까지 짝 퍼졌습니다. 결국은 유대교와 그리스도 교에서 인생이 하늘에 있는 나라에 살 곳이 있다고 믿는 부분을 받아들여서...그 세계의 유대교의 관념들과 합친 것인데 사람이 죽으면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가 아니고 고적 성경 유전들과 Greco- Roman-그레코- 로마 시대 때에 종교와 과학에서 새로 유행하는 것들을 상호 작용한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유전과 유대교의 표현인 새로 나온 Hellenistic-헬렌니스틱(Alexander- 알릭센덜 대왕 이후의) 그리스인의 문화, 곧 그리스 식으로 된 이 둘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죽은 후 “하늘의” 믿음, 이와 반대로 죽은 후 “지상의” 혹은 “세상의-로도 아닌”이 믿음이, 맨 마지막 예언을 기록한 마라기 선지자가 죽고 난 후 퍼진 것입니다. 마라기 가 죽고 난 후 몇명이 남아서 이 거짓 교훈이 유대교에 침입하는 것을 반대 했습니다. Josephus-요셉파스 분이 작가 이시고 역사 저작가에다가 첫 세기에 살았던 분인데 그분이 이 본실 Essene-엣센스에 대하여 책을 썼습니다. 이것들이 그의 생존에 유대인들의 sects-섹터-부문들 중의 하나가 되었고 Dead Sea Scrolls-사해 두루마리를 기록한 많은 작가들이 있습니다. 요셉파스 분의 기록한 것을 보면, 그들이 Greeks=그리스인들이 믿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 확실한데, 육의 몸은 행복하지가 못하고 혼이 갇혀 있는 감옥 같아서 몸이 죽으면 영혼이 자유로 놓여서 즐거워 할 뿐 더러 한발 더 나가서 자유로 놓인 다음에, 영혼이 하늘로 올라 간다고 믿었습니다.

---

4. J. Edward Wright-J. 엔월드 우라이트 분의 책, *The Early History of Heaven*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2000). P. 85. “Tradent-추라덴” 이라는 단어는 매우 드문 말이며, 사전에서 찾아 볼 수 없습니다. Tradent-추라덴 은 어떤 사람이 무슨 소유물, 물체 적인 것이나 혹은 지력을 작용시키는 것을 이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에게 배달하는 것을 뜻합니다.

5. Ibid., pp. 117-18 “BCE” 뜻은 “Before the Common Era-공통의 시대 (역사상으로) 전” 이라는 것이고 또 “BC” 라는 뜻은 “Before Christ-그리스도 주 전” 에 세속화 시킨 도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교훈이 이러함: 그 육체는 썩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이유는 그것을 영구 하게 만들지 안 했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계속하며; 그리고 그것이 매우 은은한 공기 속에서 나와서, 사람같이 그의 몸에 합쳐서, 어떤 자연스런 유혹에 빠져 있었으나; 그것이 육체에 갇혀 있었던 데서 해방되면, 그때는, 오래 갇혀 있었던 데서 놓여, 기쁨으로 돌아가고 똥똥 떠올라 갑니다.

역사적인 교과서가 소망에 대하여 이렇게 잘못된 정보의 타입들을 들어내고 이것이 성경 시대 때의 문화에 순행하는 영원한 생명을 유대인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양쪽 다 영향을 주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양편 다 그들이 믿고 있는 영원한 미래에 대하여 여러가지 아이디어가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인 교과서가 드러냅니다. 불행하게도, 설경 교과를 번번이 잘못 깨닫고 최후의 권력의 근원인 성경을 번번이 무시했는데,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 종교와 그리스 언어가 유대인들의 죽은 후의 삶의 교훈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과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Alexander-알렉산더 대왕이 주전 332 년에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결과가, 대략 주전 250 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나라 말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읽을 줄 몰랐음) 이리므로 그리스나라말로 구약성경을 번역해야 되는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번역을 *Septugint- 셉투어진*이라고 부릅니다. 번역가가 히브리 성경에 있는 단어 “Sheol-쉐오” 를 그리스말 “Hades- 헤이디스”라고 번역한 것이 굉장히 뜻깊은 일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선택한 것이 매우 큰 역할을 했는데 그 이유는 성경에 영혼이 Sheol-쉐오에 있는 것이 다들 죽었고, 영혼이 Hades- 헤이디스에 있는 것이 Homer-호머 과 다른 그리스와 로마 기록들에 따라서는 다들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번역가의 펜 끝 날림으로 구약성경에 죽어서 무덤에 있는 자들이 모두 살고 있는 것으로 돌려 놓았습니다. 언어학자이고 학사이신 E. W. Bullinger-E. W. 불링얼이라는 분이 Sheol-쉐오 라는 곧 살아있지 않고 죽은 시체가 있는 곳에 대하여 기록했습니다. 그분이 성경에 Sheol-쉐오 가 나오는 말을 모조리 다 빼놓은 후에 그의 결말이:

(가) 그 방향은 그것이 밑으로

---

6. William Whiston, *The Works of Josephus* (Baker Book House, Grand Rapids, 1974), Vol. 1, p. 149

(나) 그 처소는 그것이 땅 속으로

(다) 그 본질은 죽음의 상태로 두는데, 죽는 종이 아니고 영어로나 한글에는 이 점에 대한 단어가 없지만, 죽음의 상태 혹은 죽음의 장기간이라는 말은 있습니다. 어구를 새로 만든 말을 대신 하자면, Grave-dom-무덤, 이 뜻이 grave-무덤의 지배권 혹은 그의 세력을 말 합니다.

(라) 이것의 *관계*는 살아있는 상태에다 대조해 보려면 신명기 30:15, 19, 그리고 사무엘상 2:6-8 을 보십시오. 이것을 이 구절들에 대조해 보면, 한번도 살아있는데 에다 연결하지 안 했습니다.

(마) 이것의 *연합*은 이것을 사용한 연결이:애통하는 (창세기 37:34, 35); 슬픔 (창세기 42:38; 사무엘하 22:6; 시편 18:5; 116:3); 두려움과 심한 공포 (민수기 16:27-34); 통곡 (이사야 38:3, 10, 15, 20); 잠잠한 (시편 31:17; 6:5; 전도서 9:10); 아무것도 모름 (전도서 9:5, 6, 10); 처벌 (민수기 16:27-34; 열왕기상 2:6, 9; 욥기 24:19; 시편 9:17 Revised-개역 번역, 돌아감, 그들의 부활 전에).

(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의 *기간*은 *Sheol-쉐올*의 지배권 아래 혹은 grave-무덤에서 계속하기를, 오직 *부활*로, 끝나며, 단지 이것이 나가는 입구입니다.

많은 언어학자들과 학사들이 *Sheol-쉐올* 라는 말이 죽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주목 하고 있습니다. Alice Turner-알리스터널 분의 기록:

유대인들, 단지 구약성경 증거로만 판단하는 자, 지중해 사람들의 아주 병적으로 고민하지 않거나, 혹은 상상력이 아주 작는데, 그들의 이웃과는 다르게, 죽은 자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그들은 그것들을 숭배도, 희생도, 방문도, 후생에서 다시 만나는 소망도 없고, 죽은 후에 Yahweh-야위이 [여호와] 와 서로 아무런 작용도 기대하지 않습니다-아주 반대이죠.

구약 성경은 “상상력이 아주 작은” 유대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죽음 곧 사망은 사망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로 ‘살고’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이 죽으면 먼저 죽은 조상들을 “다시 만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이유가 무덤안에 있는 자들은 아무도 살아있지 않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만나는데, 단지 *부활 후에*입니다.

히브리어 *Sheol-쇼올*, 에서는 다들 죽어 있는데 여기서 아주 대조적인 것은 그리스어 *Hades-헤이디스*, 에서는 모두들 살아 있습니다. 신화, 곧 지어낸 이야기와 전설들이 Hades-헤이디스에 대한 그리스 문학과 시 차이가 크게 나는데, 죽은 자들이 단호하게 산다고 다들 동의합니다. 사람들의 죽음에 대하여 어떠한 믿음에 따라서 그들의 상세가 다른데, 그들이 첫 생을 기억할 것인지 혹은 여러가지 *imps-엠스*[?]와 귀신들에게 고문을 당할지, 그러나 이러한 믿음들마다 죽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떤 형태로 살고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들이 부활에 대한 아이디어를 조롱했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했을 때 비웃었습니다(사도행전 17:32).

말하자면, Septuagint-쌩투어진 에서 *Sheol-쇼올* 를 *Hades-헤이디스*라고 한 번역이, 모든 죽음을 다시 살여 놓았는데, before Christ-주전 약 이백 년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죽고 그리스도인들이 시작될 무렵까지 유대인들이 죽음의 상태에 대하여 혼동될 기간이 충분했습니다. 그때 무렵에 어떤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줄 몰라서 오직 Septuagint-쌩투어진 만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이었습니다. 그들을 둘러싼 Greco Roman-그리코 로마인들 세상 속에서 이렇게 된 성경을 읽음으로써 죽음이 살아있다는 몹시 잘못된 믿음이 자리잡아 계속된 것입니다. 이 혼동이 그리스도에 까지 도달해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하여 틀린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된 것입니다.

죽음의 상태에 대한 혼동이 또한 신약성경으로도 직접 들어왔는데 그 이유는 신약성경에 죽음의 곳이 *Hades-헤이디스*라는 그리스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어와 아랍어를 하셨고 또 아랍어도 똑같이 *Sheol-쇼올* 를 사용하셨지만, 그가 말씀하신 것을 그리스어 성경에 기록했을 때 *Hades-헤이디스* 단어를 사용했 습으로 그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31 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할 때에, “...그의

7. Bullinger, op. cit. Lexicon, p. 369 (Scriptures and Scripture references relate to the KJV)

8. Alice K. Turner, *The History of Hell* (Harcourt and Brace, New York, 1993), p.40.

영혼이 음부 [*Hades-헤이디스*]에 버림이 되지 않고...” 라고 합니다(킹 제임스 번역). 단어 *Hades-헤이디스*를 사용한 그리스어로 된 신약, 특히 떠돌고 있는 Greco-Roman-그리꼬-로마 문화가, 사람들로 하여금 몸이 죽어도 영혼은 계속 살고 있다는 몹시 잘못된 믿음이 계속하게끔 원조해 주었습니다.

### **교회가 하늘나라의 교훈을 강화 시키다**

비록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이 바로 하늘로 가거나 혹은 지옥으로 간다는 믿음이 다른 종교의 영향과 번역의 결과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도 이것을 강화 시켰습니다. Asceticism,-어쌔스티씨슴[금욕주의]가 그리스도교회에 들어와서 지상의 만족은 하나도 가치가 없고 그것이 하다못해 해로운 것이라고 까지 한 아이디어를 공표 했습니다.

Alexandria-알렉산드리아의 Church Fathers Clement-교의 아버지들 클레멘트 (c. 150-215) 와 Origen-올 진[근원] (c. 185-254) 이 분들이 처음으로 asceticism-어쌔스티씨슴[금욕 주의]의 뿌리에 대한 이론상의 공부한 것 들인데, 이것을 보면 영혼을 정욕에서 깨끗하게 하는 Greek Stoics-그리스 스토아익스 학과, 곧 금욕주의에서 빌려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금욕주의자들은 세상에 것들을 단념하고 노력하고 그들의 영혼을 심한 강습으로 깨끗케 하려고 노력하고 세상에 있는 만족들을 부인합니다. 제 3 세기쯤에 와서는, 그리스도인 금욕주의가 인식되었고, 이 운동에서 점점 자라난 것이 Desert Fathers-대절 화덜 [사막 아버지들]라는 종교와 Monasticism-마네스티씨슴[수도원 제도] 이 두 종교이며, 여기에 심한 강습을 받는 monks-몽크스[수도사들, 승들도 포함됩니다. 그리스도인 금욕주의자들은 세상 부귀를 단념하고 빈궁에게 서 약하며, 맛있는 음식을 단념하고 간소한 음식으로 더불어 금식을 자주 하며, 여자와 동반하는 것을 단념하고 순결에게 서약하며, 감촉이 좋은 비단옷을 단념하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정상적인 잠을 단념하고 긴 기간을 깨어 있는 것과, 여러가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든지 지상에 있는 것, 특히 만족을 주는 것들은 악하고 하다못해 마귀적이라고 까지 믿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때당시 역사에, 믿는 자들의 영원한 거주가 “하늘”이라는 아이디어, 지상의 영향을 피할 수 있는 영혼이 사는 곳, 이러한 것들이 단단히 뿌리박고 있었습니다. 금욕주의자에게는

9. Ibid., pp. 20-29

10. *Hades-헤이디스* 단어를 함당하게 번역하고 깨닫는 것에 혼동된 것이 오늘날 현재까지도 계속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내놓은 사도행전 2:31 절이, 킹 제임스 번역에는 “hell-지옥”이라고 하는 동시에 NIV 번역에는 “grave-무덤 [한글 성경에는 ‘음부’]라고 했습니다.

11. Cross and Livingstone, op. *Dictionary of the Christian Church*, p.95

영원한 살 곳이 새로 창조한 땅에서 완전히 좋은 음식과 포도주, 그리고 즐거운 음악이 있는 곳에서 산다는 아이디어가 터무니없는 것이었습니다.

정통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로 창조한 새 땅에서 살지 하늘에서 살지 않는다는 이 큰 사실을 한번도 되찾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늘이 영원히 살 곳이라는 것을 밝혀서 성경구절들의 몹시 잘못 설명하는 것들이 점점 더 뿌리박아 유전의 베개 받침이 된 것입니다. 또한 땅에 대한 것을 말하는 뚜렷한 구절들을 가지고 “영적으로 만들어서” 그들의 아이디어에 맞추어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로 하거나 혹은 현재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영적인 생활로 해석합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평하게 말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히 하늘에서 산다는 몹시 잘못된 믿음에서 줄어들지 안 했다고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새로 창조한 땅을 기업을 받는다는 또 록 또 록한 구절들을 가르친 것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고, 그 대신에 그들에게 말씀을 잘못 처리한 것을 가지고 그 화젯거리에 그들의 말이 맞는 것으로 왜곡하였습니다. 이렇게 “확실하지 못한” 구절들을 가지고 믿는 자들이 영원히 하늘에서 산다고 한 믿음을 보충해 준 것에 대한 화젯거리가 이 책 부록 B 에 있습니다.



# 8

## 소망을 재 건설하다

### **산상 설교**

어떤 때는 인생살이가 힘든 결투일 수 있지만, 확실히 보이는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땀”이 되어주므로 경건한 생활을 하기가 좀 쉽게 해 줍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미래 소망의 형상을 뚜렷이 볼 수 없는 이유는 영원히 살 곳이 재 건설한 새 땅이라는 것을 “영원히 하늘”에서 산다는 성경적이 아닌 가르침으로 대신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지금시대만 소망을 잃어버리고 또 이것을 갖다가 나쁘게 뒤틀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다스리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마태복음 22:23; 사도행전 23:8). 그 사두개인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종

교적인 돌레에 권력자들, 그들 에게도 소망에 대하여 혼동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 장에서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원이고 선생인 데도, 예수님이 그와 이 소망에 대한 대화를 하셨을 때, 이분이 매우 혼동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와 대화를 하시는 한 대목에,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비난 하셨습니다(요한복음 3:10). 이로 인하여, 바리새인들과, 니고데모가, 어떻게 믿은 것이 그리스인과 로마인들 사회 당시의 공통된 것이라는 자취를 밟아올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믿기로는 영혼이 “진짜 자기”이고 죽을 때 그것이 몸에서 나와서 “지하세상,” 이보다 좀 나은 지상 어느 곳이든가 아니면 그들의 gods-신들이 사는 곳으로 간다고 믿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Essenes-에센스의 sect-섹터를 포함해서, 이들이 다 이 믿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직무를 시작할 무렵에는,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 태반이 혼동되어 있었고 분명히 성경적으로 이 화젯거리를 확실히 밝혀서 가르침이 매우 적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확실히 깨닫는 소망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와 세례요한 두분 다 산중으로 두루 다니시며 “회개하라 천국[왕국]이 가까웠느니라”(마태복음 3:2; 4:7)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좋은 소식”이라고 전파하신 천국[왕국]에 대한 것이 “좋은 소식”이었으며, 그것이 땅에 세워질 왕국입니다. 그리스어로는 *euaggelion* (좋은 소식)을 종종 중앙 영어로 “gospel-복음”이라고 합니다. NIV 번역에는 이 문단을 “...gospel of the Kingdom-왕국의 복음...”이라고 마태복음 24:14 에서 하는 동시에 마태복음 4:23; 9:35; 누가복음 4:43; 8:1 그리고 16:16 에서는 “good news of the Kingdom-왕국의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good news of Kingdom-왕국의 좋은 소식...”에 대하여 가르쳤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늘”에 대한 좋은 소식이라는 구절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들을 공부해보면, 그가 가르치신 것들 태반이 직접 왕국에 대한 것이거나 혹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이 나타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Kingdom-왕국”이라는 말을 가지고 누가 구원 받고 그들의 결국적 살 곳이 하늘이라는 것으로 사용하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도 보충해 주는 구절들이 없습니다. “Kingdom

---

1. 요한복음 3 장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한 기록을 태반의 그리스도인들이 혼동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니고데모 처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은 유대인들을 다시 살려서 왕국으로 들어갈 때 의인의 부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록 H.를 보십시오.

-왕국”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이 왕국을 땅에다 세우셔 가지고 그가 왕으로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가짜 소망보다 진짜 소망을 가지는 것에 대한 값어치를 아셨고, 그러므로 그의 직무 기간에 그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처음 설교, 곧 산상 설교의 중요한 대목들의 첫 시작에, 이스라엘에 소망을 재 건설하셨습니다. 태반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Beatitudes-산상수훈, 곧 산상설교 첫 부분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미래 소망 주요에 관계시킨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태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가 가르치신 것이 “새 계시”가 아니라는 것도 모릅니다. 이것을 구약성경에서 말해 주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실 때에 와서는 거의 다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흔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친 것들이 산상수훈을 이 생에 관계시킨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Beatitudes-산상수훈의 일부”를 *Mercer Dictionary of the Bible*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음:

Beatitudes-산상수훈, 이 말투는 개인이나 혹은 그룹[집단]적으로 충실한 혹은 의로운 자들이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다는 것에 지적하여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축복을 이 생에서 기대할 수 있다...*” [끝에 강조는 보탬음].

Beatitudes-산상수훈을 이렇게 이생에다가 관계 시켜서 해석한 것은 교과서의 찌그러뜨림으로 인함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이 뜻이 현재 날에도 사용되는데, 가령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불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보다 하나님을 좀더 밝게 볼 수 있으나, 이 강조의 원인은 미래에 있습니다.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를 오늘날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 하면 천국은 예수님이 땅으로 다시 오셔서 세우시기 전에는 여기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애통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어떻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를 이생에서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를 이 생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온유한 사람들이 자기 땅이 없었고 더구나 아무런 땅을 “기업-inherit[상속]” 얻지 못했습니다.

---

2. “Beatitude-산상수훈” 뜻이 “supreme blessedness-가장 높은 축복 혹은 happiness-행복, perfect bliss-더 없는 온전한 기쁨.” 그러므로, 산상설교의 첫 아홉 구절들을, “The Beatitudes-그 산상수훈” 이라고 이름을 진 것입니다. 이 구절들의 각자 시작 대목을 영어성경에서는 “Blessed are-복이 있는 자”라고 합니다.

이 축복들은 *미래에* 관계된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은 단순히 오래전에 예언자들이 가르친 것을 다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는, 세월이 가면서 믿지 않으므로 무너진 교훈의 벽을 다시 재 건설 하신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Beatitudes-산상수훈을 자기 생활에 사용하려고 노력한 끝에 그것들을 영적으로 합니다. 즉, 이것들을 문자 그대로는 제외하고 다른 것들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이 대목을 넓혀서 설명한 말이, 욕심 많고 적극적인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것을 평생에 누리지 못하나, 온유한 자는 평생에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수용력이 있으므로 진실과 끊임없는 만족을 보충한다.” 라고 했습니다. 첫째 그리고 가장 뚜렷한 문제는 이 구절에서 말하는 사실을 취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점은 “inheriting the earth-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와 “이 모든 것을 누리게”가 다릅니다. 어떤지 성경 구절들에 엄청 많은 혼동이 있어요! 만일 교사들이 기록된 그 사실을 반사하지 못하게 제멋대로 꾸민 말로 대신했으면 사실로 돌아오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안전한 짐작이지만 만일 그리스도께서 위의 설명을 관중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다면 그저 말씀하기기를, 단지

---

3. Watson Mills. Ed., 사전 이름 *Mercer Dictionary of the Bible* (Mercer University Press. GA.1990) pp. 92-93

4.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Interpretation-해석” 과 “Application-사용” 이 서로 다른 점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Interpretation-해석”은 그 구절에서 말하는 사실이 – 어떤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Application-사용” 은 사람이 그 구절에서 하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 곳과 혹은 자기 생활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5:3 절을 가지고 자기 마음이 “온유”함으로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았다.”고 그것을 자기 생활에다 사용하더라도 그 구절의 원 뜻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을 좀 더 정확하게 사용한 것이 (그리고 해석) 베드로전서 5:5 절에다 그가 사용한 것이 나옵니다.

5. Mounce, op. cit., [사전] *Matthew*, 페이지 39

6.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것과 합당하게 해석하는 것을 제대로 배운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에서 구성된 성경적 교육사는, 단순한 말로 “이 구절은 이러한 뜻이다”라고 하지, 사람들에게 성서해석 도구들 곧 concordances-성경 용어 색인들, lexicon-사전 (특히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등의) 고전어 사전, Bible Dictionaries-성경 사전, customs books-관습[풍습] 책, 등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 그들이 순수 합당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말씀을 합당하게 해석하는 교육을 받았으면 아마 오늘날 이렇게 많은 교회 파들이 있지 안 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자기의 독단으로 해석하는 것을 원하신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대한 자기의 독단적인 의견이 하나님에게 합당한 것같이 행하는 것을 종종 보지만, 성경적으로는 이러한 믿음을 보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은 여러 사실이 아니고 “The truth-단-사실”, 여러 믿음이 아니고 “한 믿음,”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전서 1:10) 고 권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당될 때에 바울이 편지에다가 그들을 꾸짖어 하는 말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고린도전서 1:13)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기본적인 몇 가지를 내놓은, *22 Principles of Bible Interpretation- 성경을 해석하는 22 가지 원리* 라는 작은 책이 (Spirit & Truth Fellowship International, Martinsville, IN) 있습니다. 또 이것을 [www.ThruthOrTradition.com](http://www.ThruthOrTradition.com) 에 내 놓았습니다.

온유한자들만 자기의 소유를 누릴 수 있다고 그 말씀만 하셨을 것입니다.

둘째 문제는 이 구절이 현재 누릴 수 있는 것에 관련된 것이라는 아이디어인데 이러한 해석은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위로와 소망을 보충해 주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관중 속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굶주리고, 자식을 잃었거나 혹은 늙기도 전에 죽은 친척들, 그리고 로마 정치아래서 압박과 하다못해 동족 유대 관리자들까지도 그들을 심하게 다스렸던 때입니다. 그들의 소유는 매우 작았고, 매우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걱정하지 말라, 욕심꾸러기들은 그들의 부귀를 누리지 못하지만 이 말이 정말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러한 말은 오늘날에도 누가 가난하고, 병들고, 그리고 억눌린 자들이라면 위로가 되지 못하겠지만 그 때에 그들에게는 더욱 더 위로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가 지금 현재보다 형편이 낫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는 것은 매우 큰 위로가 되고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한층 더, 우리의 경험이 가르쳐 주기를 훌륭한 미래의 소망은 생활이 좋은 사람들에게 보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중요합니다.

나[John Schoenheit]가 가난한 Haiti-아이티[서인도] 사람들과 Philippines-필리핀 빈민가에서 복음을 섬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good life-좋은 생활”이 어떠하다는 아이디어가 있음은 그들 위에 부자로 사는 사람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며, 그 부귀는 그들이 손댈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지족하라, 왜냐 하면 저 욕심꾸러기 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지만,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리라.” 라는 말이 위로나 혹은 용기를 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이 위로를 주고 그들에게 힘과 견뎌움을 주느냐 하면 아무리 생활이 힘들더라도 모든 힘을 다해서 온순함과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결국 어느 날에는 값진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 소망입니다. William Shakespeare-윌리엄 셰익스피어, 이분이 훌륭한 작가고 인간 생활의 예리한 관찰자인데 그가 기록하기를, “비참에는 아무런 약이 없으나, 오직 소망이다.” 감사하게도, 한 소망이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나고 생명에 관한 것은 참으로 좋은 약입니다. 이 생에서, 비록 어떤 부자들은 매우 온유하지만, 대부분 욕심쟁이들과 몰상식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 사치스러운 집에서 살면서, 긴 휴가여행, 가장 좋은 음식, 그리고 제일 좋은 옷으로 누립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의 “상을” 누리지만 미래에 이보다 훨씬 더 좋은 재건설한 훌륭한 땅은, 온유한 자에게 속합니다.

### **산상수훈의 아름다움**

사람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깨달으면, 통찰력이 깊은 의미와 그들에게 강력한 충격을 줍니

다. 그리스도, 뛰어난 선생님께서, 구약성경에 있는 사실들을 모아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산상수훈을 글자 그대로 받아 들여서 그것을 미래 왕국에 관계 시켜서 사용하면, 그가 가르치신 것이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산상수훈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엔 상당한 다른 점들 때문에 조심해서 감찰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무리에게 가르치셨고 (마태복음 5:1).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의 제자들이었으나, 태반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리는 다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산위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것을 “산 상 설교-The Sermon on the Mount”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평지(누가복음 6:17)에서 가르치셨고, 비록 무리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는 구체적으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20). 이 두 Beatitudes-산상수훈이 각각 구약성경을 밝혀주는 것을 아래에 내놓았습니다.

### **마태복음 5:3**

“심령이 가난한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시편 149:4; 이사야 29:19; 66:2; 스바냐 3:12.* 이 구절 들에서 말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 는 마음태도가 곤고하고 겸손한 자들입니다. 이 겸손한 자들은 미래 왕국을 상속 받음으로, 그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 **마태복음 5: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이사야 61:3* 지금 애통하는 모든 의로운 사람들은 미래 왕국에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 **마태복음 5: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시편 37:9-11; 이사야 57:13; 에스겔 3:8-12. 스바냐 3:8-12* 온유한 자는 물체 적인 땅을

---

7. “spirit-심령” 단어의 뜻들 중의 하나는 성경과 영어 사전 둘 다 “마음 태도” 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즐거운 사람을 보고 “in good spirits- 즐거운 심령”이라고 합니다. 작가 Graeser, Lynn, 그리고 Schoenheit op. cit., 책 *The Gift of Holy Spirit- 성령의 은사*, 페이지 104. 또 작가 Thayer, op. cit., 사전 *Lexicon*, 페이지 523

기업으로 받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알고 한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으로 오려고 하지 않은 자들은 영원히 살지 못하므로 아무것도 기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말라기에 그림을 보는듯 한 말씀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영어로는 not a root or a branch-한 뿌리도 혹은 한 가지도]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되"라고 했습니다(말라기 4:1)

### **마태복음 5: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시편 37:28, 29; 이사야 1:26; 11:4, 다니엘 9:24.* 누가 의에 목마르면 이 생에서는 그 목마름을 가시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세상은 부패와 불의가 그리스도께서 결국 다시 오셔서 마귀를 이기고 정권을 잡을 때까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비록 개인적 의는 영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죄의 성품 때문에 항상 유혹에 끌리기 때문에 실천에 관한 면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천년왕국에서는 변화를 받아서, 정의가, 개인적이든 개인적이 아니든 최고 높은 법으로 통치 할 것입니다.

### **마태복음 5:7**

공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호세아 6:6; 미가 6:8; 스가랴 7:9.* 공홀히 여기는 자들이 이 생에서는 긍휼을 받지 못했겠지만,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사람들에게 긍휼을 보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5:31-46 에,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였고, 벗은 자를 옷을 입혔고, 그리고 병들은 자나 혹은 옥에 갇힌 자를 방문한 자들에게 심판 때에 긍휼을 보이고 왕국으로 들어가게 하고, 동시에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 **마태복음 5: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시편 1; 시편 73, 특별히 13 절과 24 절; 마라기 3:16-18.* 마음이 청결한 자는 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는데, 오늘날 볼 수 있는 것과 다릅니다. 사실 이러한 식으로 하나님을 아

는 것이 오늘 날에는 없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21:3 절 같은 구절에서 “...보라 [영원한 왕국]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 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 **마태복음 5:9**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시편 37:37.* 이것은 확실히 미래에다 관계 시키는데 그 이유는 오늘날 이 땅에서 평화를 만드는 자들은 종종 겁쟁이들이고 굽히는 자들이라고 무시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가족-사이나, 인종-사이, 혹은 국제적 충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되었던지, 주님께서는 그들이 노력한 수고를 아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왕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 **마태복음 5:10-12**

(10)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11)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 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는니라.

구약성경에 핍박 받은 사람들은 너무도 잘 알려진 내용들이며 이것들을 다 이 책에 기록하기는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현재 생에서 축복이라고 할 수 없음은,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크게 받았으며, 어떤 사람들은 학살도 당했습니다. 히브리서 11 장에 이러한 사태들에 짧은 줄거리가 있는데, 거기에는 아벨, 에녹, 요셉 모세, 이와 같은 다른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말하기를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히브리서 11:36)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 (요한계시록 20:5 와 6) 그리고 “...의인들의 부활” (누가복음 14: 14 어떤 때는 “정의의 부활”이라고 번역했음)을 위하여 악형과 핍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이유가 의인의 부활, 곧 부활로 천국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무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기록했으나, 누가복음에서는 그가 특별히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했으며, 그러므로 누가복음에서는 의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심으로, 모든 사람들로 어떠한 생활을 함으로써 그가 왕으로 다시 오셔서 왕국을 세우실 때, 의미 있는 상을 얻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 **누가복음 6:20**

“...가난한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는[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그가 말씀하시는 그의 제자들이 가난했지만 보통 다들 가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궁핍은 영생에 도달하는 표가 아니고, 그를 따르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 가난한 제자들이 가난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왕국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은 주의 두려움 그리고 이와 같이, 온순한, 의로운, 화평케 하는 자, 등등,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언제 고 그가 말씀하실 때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래에 내놓은 구절들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말라기 3:16-18**

(16)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 때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 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7)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18)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의 두려워한 그 가난한 제자들은 하나님이 그의 소유를 삼으실 때 참으로 그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 **누가복음 6:21 가**

이제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이사야 25:6; 30:23-26; 32:15; 35:1; 예레미야 31:5, 11-14; 에스겔 47:7-12; 요엘 2:18-26; 3:18; 야고보 9:13. 그 천년왕국 때 거기는 음식이 풍성하다는 것을 이미 이 책에다 수립해 놓았습니다. 비록 이 제자들이 가난하고 굶주리었지만, 언제 고 왕국이 오면 그들이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잔치를 할 것입니다.

### 누가복음 6:21 나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미래 왕국에서 희락[즐거움]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보증해 주는 구절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언제 일지 모르지만 메시아께서 오시면, 그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사야 61:1 킹 제임스 번역) 그가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이사야 61:2)라고 했습니다. 현재 통곡하고 우는 자들은 그때에 큰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형용해 주는 구절들 중에 한 구절만:

### 이사야 61:3

[메시아께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보통 풍습이 누가 마음이 상하고 또 회개하면 그들이 잿더미에 앉거나 혹은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사무엘하 13:19; 에스터 4:1; 욥기 2:8; 요나 3:6). 이 구절에서 재 대신 화관을 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잘 살 때는 기름을 사용해서 자기 모습과 기분이 건강해 보이게 하고 빛나게 하지만 삶이 나쁘면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그 사회에서 보통이었습니다. (시편 45:7; 92:10; 104:15). 우에 구절의 말은 몹시 슬퍼하고 비탄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희락의 기름을 줍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슬픔이 찬송으로 변합니다. 이사야 65:17-19 에서 말하기를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나, 그 대신에,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고 합니다.

### 누가복음 6:22 와 23

(22) 인자[사람의 아들]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

8. 요한복음 3:6 에 Hebrew Text-히브리어 성서에는 “ashes-재” 라는 단어를 NIV 번역 에서는 “dust-먼지” 라고 했음

에게 복이 있도다.

(23)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우에 구절들의 설명을 마태복음 5:10-12 로 안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을 최고로 중요하게 하고 또 그것을 확실하게 그 제자들에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때 거기 모인 무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그리스도인 교사들에게 훌륭한 견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힘든 생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고 그러므로 소망을 확실하게 가르쳐 줌으로 인하여 그들의 천부와 말씀에 순종하는 각오가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매어주는 닻이 된다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그들의 현재 생활 속에서 축복을 받고 또 미래에 이보다 더 큰 상을 받는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또한 알고 계신 것은 자기의 관중들이 소망에 대하여 옳게 가르친 말씀을 별로 배우지 못한 것을 알고 계셨으므로, 구약성경에서 알려주는 말씀을 수집하셔서, 그것을 뚜렷하고 정렬 적인 fashion-패션[유행]을 제출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몇 천년이 지난 후에도, 누구든지 귀가 있어 듣는 자들에게는 이 훌륭한 그의 말씀이 지금도 큰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 9

## 죄와, 용서와, 그리고 거룩함

### *죄와 용서*

발견할 수 없는 암 종류와 같이, 죄가 눈에 보이지 않게 끔찍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죄의 영향이 현재 생활에 나타날 수 있고 또 그 대가를 받을 수 있지만, 이보다 더 깊은 뜻은 그것

들이 영원한 생활에까지 도달하여 상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미래 왕국에서 상을 받고 잃는 내용을 깨닫고 보면 죄의 행함이 참으로 얼마나 끔찍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들어냅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한 부분이 누구나 막론하고 제일 중요한 목표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결과는 죄의 행위가 관참은 편으로 여기게 되고, 이보다 더한 것은, 하다못해 받아 들일만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 보통 믿음을 따라서 보면, 작은 죄는 누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죄 많은 행위가 미래에 상을 잃게 한다는 사실을 무효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외에, 죄 많은 행위가 그 사람에 주님과 교제관계 생활에 비관적인 영향을 채워줍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행위가 현재와 미래에 매우 중요합니다.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죄스런 행위를 옳다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사람들이 죄를 무시해 버리는 이유는 그것을, 특히 어떤 죄는 깊이 박혀 있어서, 대면 하는 것이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결과로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전쟁을 하기”보다 오히려 그것과 “화해를 하여” 그것이 그들의 생활에 자리를 잡아 굳어집니다. 이러한 자들은 그 행위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주님의 심판 때에 그들이 긍휼을 요구하면 “이것들이 해결되겠지”하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정의로우시고,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라고 합니다(골로새서 3:25). 전에도 말했지만, 언재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으며(마가복음 8:38; 누가복음 9:26; 요한 1서 2:28). 그리고 그들이 일한 공로를 잃거나(요한 2서 8) 혹은 신원[별]을 받는다고 까지 했습니다(데살로니가전서 4:6).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그러나 그의 자비는 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 사람이 죄를 깨닫고 진실로 용서를 간구할 때에 보이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사람들의 죄를 무시해버리고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의 죄에 대가를 주지 않는다고 말하는 구절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대로 보면, 만일 주님께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경건하게 살려고 고생하고 발버둥 치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학살과 고문까지 받아가면서 가진 노력을 다한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이 보상해 주신다면, 그것이 주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생활에 습관적인 죄를 가지고 어쩌면 심판 때에 자비를 받을까 하는 “도박”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심판대 앞에서 자복하지 않은 죄로 인

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 들이든지, 그들의 생활에 습관적인 죄가 있을 것 같으면, 만일 그가 거짓말 장이, 도둑질, 우상숭배자, 술중독자, 화를 잘 내는가 아니면 bitter-쓴 마음[매정한], 성적인 죄에 얽매어 있는가, 혹은 이 외에 어느 것이든지, 이 것들과 대적하여 싸워서 끈을 수 있게 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이런 것들에 게 대담하게 나아가 끈을 수 있도록 애써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각자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또 누구든지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자 하여 그에게 간구하는 자들을 도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구절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

### **에스겔 33:11**

주 여호와야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 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 구절에서 가장 아름다운 점은, 이와 같이 다른 구절들 에서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짓는 것을 알아서 심판날을 기다리는 것에 신경 쓰시는 것보다 그는 사람이 그의 죄를 돌이켜 회개함으로 그가 용서 받기를 원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악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을 끊임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 **그 거룩함에 부르심**

온 성경에 하나님께서 각자의 거룩함을 명하시는 데, 그 뜻은 그들의 죄악 한 행위에 참석하는 것들을 중단하는 것과 주님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 **레위기 11:44a**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려 거룩하게 하고...

### **베드로전서 1:15**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일곱 교문 (로마서에서부터 데살로니가서)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들인데, 이것이 오순절 날에 시작되었고 그리고 들림 받음으로 끝납니다. 비록 성경에 다른 부분들도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교문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교문들이 하나같이 첫마디 시작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하거나 혹은 “...있는 성도들과...”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문들 안에서 어떻게 되어서 회개하는 것과 거룩하고 흠 없이 행하라는 특히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 줍니다. 개인상 거룩함을 교훈들 중의 하나로 교문 마다 특별히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교문들 안에 이 점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구절들이 너무 많아서, 개인적으로 거룩함에 대한 구절들을 찾는 데는 별로 힘들지 안 했지만, 그 교문에서 어떤 구절을 선택해야 좋을까 하는 점에서는 좀 어려웠습니다.

#### **로마서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 **고린도 전서 15:34a**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 **고린도 후서 7:1**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케 하자

#### **갈라디아서 5:24**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sinful nature**[죄의 성품]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

1. 이점에 더 많은 정보를 이 책 25 페이지에 footnote-

**에베소서 4:17, 22-24**

(17)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22)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23)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made-된]**

(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빌립보서 1:9 와 10**

(9) 내가 기도하 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0)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pure-순결]**  
**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골로새서 3:5-10**

(5)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6)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7)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느니라

(8)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훼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9)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10)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4**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 –

[영어 번역 **learn to control his own body-자기의 몸을 다스릴 줄 알고**"]

**데살로니가후서 3:11-13**

- (11)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 (12)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 (13)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이 구절들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죄를 짓지 말고 그 앞에서 거룩 하라고 하신 것에 의심이 갑니까? 물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지만, 여기서 주요점은 우리의 노력한 것이 미래에 영원히 값어치 있는 것을 믿음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Repent-회개하라” 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낮은 말입니다. “Repentance-회개”의 뜻에 대한 상태는 “변경시키는,” 똑바로 말해서, 죄를 그치고 하나님에게 용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간구가 죄에서 깨끗해지고 하나님과 화목해짐의 극히 중요한 진행입니다. 이것이 이치에 꼭 맞으며, 자연적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었고, 그리고 그가 이것을 알고 있다면, 당신이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지 않고는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 완전히 화목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죄를 그침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당신이 당신의 죄를 그에게 자복해야만 그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죄를 자복하면, 미국에서 흔히 쓰는 말로, 그가 “cleans the slate-점 판을 말끔히 하십니다.” 성경이 이 점을 매우 맑게 밝힙니다.

**역대하 7:14**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간구]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찌라

**잠언 28:13**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 이사야 55:7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 예레미야 3:12 와 13

(12)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며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 너희에 게로 향하지 아니 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 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13)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네 네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아래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 에스겔 18:21 과 22a

(21)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22a)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

2. 그리스말로 “confess-자백”이라는 말이 *homologeō-호모라지오*인데, *homo-호모*는 “같은” 이고, *lego-레고*는, “말하다” 혹은 “그렇다 하는 말을 입 밖에 내다” 라고 해서 두 단어를 포함한 말인데, “say the same thing-똑같은 말을 하다 혹은 입 밖에 내다” 입니다. 찾아볼 사전(Vine, op. cit., *Lexicon*. “confess-자백,” p. 216) *homologeō-호모라지오* 라는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이유는 “confess-고백”이라는 말의 그리스어로 포함된 말은 항상 무엇을 잘못했을 때에만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 말로는 꼭 잘못했을 때에만 이 말을 필요로 해서 포함하지 않습니다. 언제 고 잘못이 없을 때에는, “assert-단언,” “declare-선언,” 혹은 “profess-확인 혹은 시인” 이러한 말들이 “자백”이라는 말 보다 낫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예수를 주로 “profess-시인”이라고 (로마서 10:9) 하지만 그의 죄는 “confess-자백”이라고 (요한 1 서 1:9)합니다. 누구든지 *homologes-호모라지스* (자백이던지 시인 이던지)를 하려면 그가 말하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하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사전:Thayer, op. cit., *lexicon*, p. 446). 만일 누가 예수를 주라고 믿지 않으면, 그가 이것을 “시인”할 수 없습니다. 만일 누가 그의 죄를 진실로 회개하지 안 했고 그것에 용서 받을 필요가 없는 줄로 알고 있으면, 그것을 진실로 “자백”(호모라지오)할 수 없습니다. 누가 그 마음에는 하나도 죄송하지 않으면서 그저 입으로만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자백”이 아닙니다.

## 요한 1 서 1: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이 우에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용서해 주시고자 하고 죄인을 사죄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죄와 “악수 하지” 말고 그 대신 죄를 대적하여 계속 작전하며, 만일 넘어지면 그것을 자복하고 용서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행할 길을 또록또록 하게 기록하신 것과 또한 그는 사랑이시고 풍성하게 용서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훌륭한 것입니다 그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악에서 돌아서서 그에게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는 자들은 도와 주시지만, 그 동시에 언제 까지든지 그들의 자유의 마음의 결정을 존경해 주십니다. 이와 같은 동시에,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성경 말씀에:

## 고린도후서 6:2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긍휼의 때라,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고 하는 이러한 말씀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귀에 크게 울려야 되겠습니다. 그 심판때에는 정의를 위한 시간이며; 그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죄를 그만두어야 할 때는 *지금*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심판때에 부귀한 상 받을 것을 바라보며 살 때입니다.

## **싸우고 있는 두려움, 낙심, 정죄**

내가[이 책을 쓴 분] 심판때에 벌을 받고 상을 잃으므로 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지가 몇 십년이 됩니다[이 책을 쓸 때까지]. 내가 처음으로 나에게 닥쳐올 심판이 얼마나 신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에게 감정적 반작용이 일어나서 전영역에 들어 심각한 생각에서 두려워했습니다. 그 심판을 대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일생에 어떤 때는 내가 “참 잘한다.”하고 기분이 매우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는 심판을 대면하는 내 기분이 매우 편안하고 어떤 때는 “그날이 왔으면”하는 태도일 때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내가 참 잘한다.”라고 느낄 때가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싶을 때 보다 부족합니다.  
나는 이 시인과 같을 때가 자주 있음:

### 시편 51:3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아, 내가 내 죄를 얼마나 잘 알고 있으며, 또 내 죄가 얼마나 내 앞에서 확실한가. 미래 심판에 대하여 걱정 혹은 불안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내 생각과 같이 잘하고 있는가? 내가 어딘가 잘못해 놓고도 모르고 있지 않는가? 내가 그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거 정직 했어야 할 “큰 사진”을 잘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들이 내 머리를 스쳐 가는데, 여기서 축복을 가져오는 것은 이러한 생각들로 인하여 계속 말씀과 내 마음을 감찰하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충고 받는 것을 환영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다가오는 나의 심판에 대하여 대부분 내 마음이 평안한 기분이 들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작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항상 끊임없이 balancing-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나보고 금전상으로 주라 했으나, 너무 주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가 되면 안됩니다. 기도하라고 했으나, 기도함으로써 실상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정도에 맞지 않습니다. 내 믿음을 아직 믿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 했지만, 그 일만 하느라고 다른 그리스도 지체들과 교체할 시간도 없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항상 균형을 잡아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한 것들과 그것을 완전히 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항상 고통스러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수고로 지족하는 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정해 놓은 완전함에서 부족함으로 어떤 때는 내[작가] 자신을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나[작가]는 거룩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나, 그리스도 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에 사도들처럼, 내 마음에서는 원하되 내 육신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나[작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 말한 것과 같이 내가 이러한 것들을 가르친 지가 몇 십년이고, 가르침을 듣는 관중들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보여주는 심판에 관한 구절들을 보고 쇼크를 받고 불안해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발버둥치는 것을 말하면서 그들이 혹 상 받을 만한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특히 자기 의견이 이미 낮은 사람들이거나 혹은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사람에게 사실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순종한 그리스도인들 인데, 그들의 자신은 별로 좋은 그리스도인 같은 느낌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하나님이 심판 날을 우리로 하여금 근심을 이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은혜와 긍휼 안에서, 우리에게 심판날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일생을 신중히 하여, 그에게 순종과 하고 상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심판이 온다는 것을 앎으로써 내가 주님 동행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전에 이미 설명했지만 심판이 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어떻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동기를 주며, 그리고 이것이 나[작가]에게 와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앞에 오는 심판에 대하여 불안감이 듭니다. 하지만, 내[작가]가 깨닫게 해 달라는 간구, 슬기로운 사람들과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논의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므로, 내가 내생각을 다스릴 수 있고 현실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의 성품을 아시고 그는 매일같이 나의 영적싸움에 대하여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죄의 성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도 완전한 행위를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하다 하다못해 아담과 이브, 이 사람들은 죄의 성품이 없었는데도 이 사람들까지도 완전한 행위를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지 진실하게 죄를 간구하면 항상 받아들이십니다. 비록 죄를 짓는 것이 선한일이 아니지만 나의 잘못되기 쉬운 점을 인정하고 나에게 구세주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존경받아야 할 만큼 자기를 존경하지 않는 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좋은 점을 인식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좋은 점들을 훨씬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보는 일이 너무 자주 있습니다. 내가 만나본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죄는 정확하게 아는데, 그들의 좋은 점은 별로 잘 모릅니다. 이러한 면에서 어떤 때는 죄의 성품이 매일같이 생활속에서 영향을 주는 것 같아서 쉽게 지칩니다. 하다 못해 바울까지도 주님으로 감동받아 이렇게 강한 영향에 대하여 기록했음:

**로마서 7:15, 18-20**

(15)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18)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20)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속에 거하는 죄니라

물론 나에 일생을 사도 바울의 위대하고 효과적인 직무에다가 비교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도 역시 옛 구습과 새 사람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영향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송함은, 바울의 문제해결, 그리고 여러분과 나의 문제해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해 놓은 것과 사람이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 **로마서 7:24 와 25a**

(24)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 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 로다...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 로다. 하나님이 세워 놓은 그 높은 기준에서 우리의 잘못되기 쉬운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균형 잡을 수 있느냐고요? 우리가 죄를 지면, 낙심하고 패배해 바리는 대신에, 우리 스스로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죄와 각자의 약점들과 싸워야 됩니다. 이 모든 것 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것을 잊어버리는 분이십니다. 우리 천부께서는, 어느 부친과 같이, 그의 자녀들이 그들의 패배, 불만, 그리고 정죄로 타락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실패와 패배에서 일어나면 다시 기뻐하십니다. 잠언에서 의인의 행위 에 대하여 말해 줌: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잠언 24:16). 성 경이 확언하기를 의로운 사람은 넘어지고 매일 죄를 짓지만-그들은 스스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요한 2 서 8 절에서 우리가 일한 것을 잃는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평생에 한 선한 일을 모두 잃는 뜻으로 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내가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어떤 사람에게 전해서 그 사람이 거둬 놓았으면, 아무것도 이 사실을 무마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정의롭고, 그리고 그는 우리가 그를 위해서 수고한 일의 금액을 매우 높게 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죄의 성품이 있는 것을 아시며, 그리고 어떤 때는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도 아십니다. 그리스도인들로 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싶어하는 마음과 우리에게 죄의 성품이 있다는 사실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죄의식에 허우적거리고, 수치심, 그리고 정죄[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인들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혹은 용서하기가 힘들어서 포기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또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 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신을 용서해야 되겠습니다

# 10

## 이생의 가치

*우리 내생[미래 삶]의 생활 그림이 어떠함에 따라서 이생[현재 삶]의 생각에 영향을 줌*

사람에 내생[다음 생활]의 지각[...이 어떠하다]이 남자든지 혹은 여자든지 그들의 이 생을 보는 데에 뜻깊은 역할을 합니다. 미래에 삶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생에서 과도하게 살며, 그들의 태도가 “가질 수만 있으면 다 가져” 혹은 “누가 너를 치기전에 네가 먼저 쳐.”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집니다. 성경은 이러한 태도를 이사야서 에서 보여 줍니다.

### **이사야 22:13**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이러한 사람에 마음에는 악한행위의 최후의 형벌이 없거나 혹은 선한행위의 최후 상이 없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세상 삶과 그리고 무엇을 가져보는 것이 제일 중

요합니다. 여기에 또한 내생 [미래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내생에 대한 환상은 현재 생활과 완전히 끊어진 무슨 공허한 종류, 구름으로-채운 날개-달-린 천사 같은 세상으로 상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 삶은 값도 쳐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외면하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로 이 점이 나중에 이 과목의 첫 요점을 보여주기 시작 하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영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의 논점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영적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무례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사람들의 내생의 삶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주고, 또 그 사람의 이생의 삶을 보는 것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Spiritual-영적인”것이 무엇이다 라는 결정에 시도하는 것이 종교 세상에서 무척 많은 혼동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누가 어떤 것이 “spiritual-영적인”것이고 혹은 아닌 것이라고 하면 그 믿음이 그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가치를 다듬어주고, 그럼으로 그가 무엇을 행하는 데에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지정해 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 “spiritual-영적인”것의 바탕 설정이 하늘로 믿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하늘은 구원받은 영혼이 송고한 덧없는 기쁨 속에서 쉬는 곳, 그저 하나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이 가득한 곳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결과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에 이생에서는 거기에 대한 영적인 것들이 매우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spiritual-영적인”이라는 말을 좀더 노력해서 밝혀 보면, 첫째, 고쳐야 할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 spiritual-영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physical-육체적인 것에 직접 충돌된 공통 오해입니다. 이 오해를 기초삼아 보면, “spiritual-영적인”것은 “good-선”하고 “physical-육체적인”것은 “악”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spiritual-영적인”것의 반대가 “physical-육체적인”것이 아니라 “fleshly-육욕의” 혹은 “worldly-세속적인”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육체적인 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사람이 영적이든지 혹은 육체적이든지 거기에 집중하는 결정을 하십니다. 사람이 매우 영적인 반면에 또한 육체적인 것들을 즐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이렇게 창조하신 이유들 중의 하나가, 사람으로 그 형체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하늘에 매달아 두신 것이 그것들의 직분역할 외에

또한 그것들을 즐길 수 있게 한 것을 압니다. 그는 육축들[집 짐승]을 창조하셨는데, 개와 고양이 같은 것들을 보면 그것들은 그저 “일하는 동물”뿐만 아니라, 친구와 동반자 역할도 하는 것을 압니다(창세기 2:9). 그가 아담과 이브를 “에덴동산”, 곧 히브리어로 뜻이 “the garden of delight-낙원” 혹은 “the delightful garden-즐거운 정원”이라고 하는 곳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육체적 환경에서 즐겁게 살도록 하셨다는 것에 질문할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우기를 이 세상은 육체적이므로 “bad-나쁜-악”이고 여기에 비교해서 “하늘”은 영적이므로 “good-좋은-선”으로 여기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삶에 참 가치와 즐거움을 잃어 버립니다.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죽으면, 그들의 생활이 격렬하게 변하여 현재 알고 있는 모든 것들과 즐기었던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인 줄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매일 준행하는 많은 일과에 성취할 수 있는 효력을 자주 약화[약하게]시킵니다. 이 모든 것 후에, 다 잊어버림이 되고 지나가버리는데 무엇이 참 가치가 있는가? 그러나 만일 이 세상생활이 지나가 버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 만일 이세상이 다음세상 생활로 계속한다면 어떻게 되나? 이것들의 값어치를 쉽게 볼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그리고 미래 생활과 쉽게 관련시킬 수 있을 것이 아닐까요?

정통파 그리스도인 가르침에 의하면, 이 세상과 미래 세상 사이에 관련된 것이 거의 다 없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이 어떤 큰 실수나 하신 것처럼, 이 생의 길을 멀리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고대합니다. 하나에 좋은 질문은 만일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지 안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영원히 땅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진 죄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물론 아니지요.

---

1. 히브리어로 NIV 번역에 “livestock”과 KJV 번역에 “cattle” 또 한글 성경에 “육축”이라는 말의 뜻을 줄거리에 따라서 어느정도 들짐승도 되지만, 언제든지 들짐승이 아닌 것을 말 할 때는 그 뜻을 집짐승이라고 합니다.(창세기 1:24, “livestock-육축”을 “wild animals-땅의 짐승[들짐승]과 다른 것으로 대조했음). 읽어 보실 책 작가 R. Laird Harris, Gleason L. Archer, and Bruce K. Waltke, *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 (Moody Press, IL, 1980), pp. 279-81.

여기에 단 한가지 순리적인 대답은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는데 – 현재 부패된 땅에서가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서 완전히 아름답게 창조하신 땅 같은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영원히 땅에서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땅은 악하고 하늘은 훌륭하다”는 것이 사실일 수 없습니다.

그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그저 땅에 관계되는 생활이거나 혹은 “재미”있는 것이라 해서 그것이 영적이 혹은 값어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 생활에 영적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까? 있고 말고요. 물론 우리가 너무 세상 생활에만 투자하느라고 하나님의 일은 잃어버리고 세상 것들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크게 다른 점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찾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므로 진짜 값어치가 없지만 “진짜”는 다음 미래에 있는 세계라는 것을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크게 다른 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해야 된다고 재미있게 사는 것이 어딘가 경건하지 못하거나 신령하지 못하다는 사이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육체적인 몸으로 육체적인 땅위에서 살고 있으며, 많은 지상의 생활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경건하고 “신령”한지 모릅니다.

어느정도 반의 적인 사실은 하나님이 생명을 설계하신 이유는 자기를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땅 위에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을 제일 즐겨야 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들이요 됩니다. 불행하게도 하늘에 대한 오해와 무엇이 참으로 신령한 것인가를 오해한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들로 즐기라고 해 놓은 많은 활동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밭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시간과 힘을 들여 정신을 쏟아 집중해야 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그는 아담과 이브에게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으므로 그들이, 어느 부부와 마찬가지로 자녀들을 길러야 하며, 얼마나 분주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부모들이 애들을 기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힘을 써야 되는데, 이것이 사람이 저주에 떨어져서 그 성품 때문인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담이 죄를 짓지 안 했다면, 그 모든 아기들이 저절로 자랐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으로 일을 하도록 하셨는데, 거기에는 부모의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구원에 방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이것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끌어 나갈 때는 거룩한 것이고, 그의 말씀을 복종하는 것인데, 그것들은 사람의 영적 성장과 완전함을 보조하기 까지도 합니다.

***Don't Retreat[후퇴하지 말라]- Relish[풍미를 돋우라]!***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경건한 태도를 대조해 보면, 본질적으로 불 경건함이 바로 이 세상에

퍼진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딘가 모르게 사람들로 그들에게 주어진 삶에 서와 하다못해 하나님 주신 책임감에서 까지도 후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주는 것은 사사의 거룩함을 이루려면 세상에서 쾌락을 거부하므로 써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자주 배운 것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하다못해 이 삶의 책임까지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가르침이 가끔씩 있습니다. 잘 알려진 역사학자 Will Durant-위일 더렌트 분이, 초기 그리스도인 어느 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매일 삶에서 철수 하고 구원을 이루는 데에 추적하는데, 어쩌면 수도원으로 가든지, 탈주나, 혹은 어딘지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첫 세기 초경의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려면-혹 그보다도, 지옥을 피하는 가장 쉬운 길이 부모, 배우자, 혹은 자녀들을 버리고, 삶의 책임을 피하여 자기의 구원만을 위한 하나에 이기적인 겁난 추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을 다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믿는 어느 누구든지 이해하기 힘든 일이나, 그러나 그들은 “거룩함”을 어떤 “다른 세상” 어떤 “천당” 이 세상 삶의 활동에 필요한 것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에 따라서는, 가족을 돌보는 것이 그의 거룩한 소위를 위반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매일 삶의 일과가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천당”과 또 “진짜 신령한 것”과는 멀리 떠나 있습니다. 이것을 밝혀보면 그저 미래 삶이 땅이라고 정확한 깨달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미래의 삶이 어떻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이 세상에서 현재 삶의 가치를 알 수 있게 보충해 줍니다.

천당의 개념과 무엇이 진짜 영적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 사람들이 즐기는 활동들을 그들이 믿기로는 이러한 활동들은 어딘가 모르게 그들을 부정하게 한다고 믿기 때문에 거기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손상을 줍니다. 종종, 순결에서 나는 동기로, 자기를 따로 하는 이유는 그들이 “거룩한” 생활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즐기라고 지어 주신 것을 즐기는 자가 부정하게 되지 않는다는

---

2. Will Durant-위일 더 렌트 분의 책, *The Age of Faith-세대의 믿음* (Simon and Schuster, New York, 1950), p. 76.

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대한 것입니다. 춤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구약 시대 때 믿는 사람들의 삶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어쩌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들은 불 경건, 혹은 “거룩하지 못한” 것들로 종목을 잡았을까요? 어떤 분의 말은, “아~아, 이것들이 세상적으로 와 죄로 이끌어 가요”라고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어쩌서 이것들이 구약성경 때 믿는 사람들 사회에서 받아들인 활동들이었을까요? 왜 시편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악기, 노래, 그리고 춤으로 찬양하라고 했을까요(시편 150 등등)? 왜 천년 왕국에서 사람들이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최고 좋은 고기]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최고 좋은 포도주]로” 즐기게 하겠다고 약속 했습니까(이사야 25:6)? 만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경건치 못하거나 혹 세상 적 길로 끌여가는 것이 확실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120gallons-갈론 이 넘는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셨겠습니까(요한복음 2:5-10)?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죄의 행위로 혹은 죄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으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중지하라는 것은 거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수백 년 전에 뜻깊은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참 개념인 육과 뼈가 있는 몸으로 물체 적인 땅에서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비틀어서 육이 없는 몸과 천당으로 바꾸어 놓은, 이 믿음이 이 땅에서 즐기면서 사는 삶 에 참으로 경건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신중하게 단축시켜 놓았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활동 생활의 삶을 생각해 보고 미래 생활 활동의 삶에서도 많은 것들이 거의 다 바뀌는 것이 별로 없는 것을 발견할 때 거기에서 통찰력이 있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최고 좋은 고기와 여러 가지 야채와 맛있는 포도주 한 장을 겸한 맛있는 음식을 즐겨 보셨습니까? 만일 당신이 구원을 받았으면, 현재 당신이 즐겨 먹는 훌륭한 음식 맛을 돋우고 또 미래에 이것이 더 풍성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함으로 현재 당신이 즐기고 있는 것을 당신에게 즐길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미래 왕국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예지[미리 알다]”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뒤뜰에 나가 앉아서 맑은 공기를 들며 마시는 것과 좋은 경치를 즐겨 보셨습니까? 미래에는 이보다 더 풍성할 것입니다. 당신은 육체적인 활동과 효 득 있는 실시 계획 즉 농사일이나 혹은 따뜻한 봄철에 꽃이 활짝 피고 새들이 노래할 때 골목길을 걸어 본 적이 있습니까? 미래에는 당신이 사나운 사람이나 혹은 짐승, 모기, 독 있는 옷나무 혹은 가시 덩굴에 찔릴 염려 없이 안전하게 마음 놓고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프게 하는 독 있는 옷나무와 가시덩굴 같은 것들은 아담이 죄를 진 결과로 땅이 저주받아서 (창세기 3:17) 그렇지만, 미래 땅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없어집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는, 땅이 저주를 받았으며, 그리고 인생사리가 무척 힘들어 졌고 또 고통스럽게 된 것입니다(창세기 3:17). 이 모든 것들을 불구하고, 어찌되었든지 간에, 아직도 삶에서 큰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지구에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즐겨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럼으로써 그들의 삶을 부요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반사해서 더욱 더 서로 관계, 좋은 음식, 효능 있는 일, 그리고 명절과 잔치를 즐거움으로 “기분 좋은” 느낌이 하나님의 재건설한 땅에서 건강하고 힘있는 새 몸이 얼마나 더 기분이 좋을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필요성을 가져 옵니다.

# 11

## 이곳과 지금에 집중하다

*뗏목을 감시하지 마시오 - 배에 타서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영혼의 뗏목..."이라고 부릅니다 (KJV). 뗏목은 배가 폭풍에 날아가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자연적으로 떠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이 소망이 그리스도인들로 삶의 폭풍이 올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날아가 버리지 못하게 잡아주거나 혹은 썰물과 매일 흐르는 생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떠내려가지 못하게 잡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목에서는 언제 고 뗏목이 역할을 제대로 하면, 이것에 항상 신

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집중하겠습니다. 현대 배들에 닻이 감시하게 해 놓은 배가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 고 닻이 든든하게 잡히면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바쁘게 그들의 내릴 준비직무들을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누구든지 올바른 지식을 쌓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옳게 깨달은 소망을 그들 스스로 사용하면 각자가 이 생의 삶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단마음으로 집중하여 전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과목에서 미리 보여줌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미래에다가 너무 집중하므로 그들이 이 생의 삶에서 외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늘에 대하여 기도하고, 하늘에 대하여 노래하고, 그리고 말과 생각들이 모두 하늘에 대한 것 뿐입니다 그들은 하늘에다만 신경 쓰느라고 이 세상 생활은 그저 시간 낭비 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이 세상 생활을 즐기지 않고 혹은 거기에 대한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적인” 일들은 무엇이든지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사람을 보고 [미국에서 하는 말이] “is so spiritual he’s no earthly good – 저 사람은 너무 영적이라서 지상에서는 쓸모없다.” 라는 말 원리가 여기서 나왔나 봅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옛 찬송가 가사에서 나오는, “This world is not my home, I’m just passing through - 이 세상은 내 고향이 아니고 나는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말이 너무도 잘 형용해줍니다. 그들은 “지나가는” 이 말에 휩쓸려 들어가 거기에 너무 집중 하느라고 이 세상 삶의 본질의 값어치를 잡지 못합니다. 특히 이것이 언제든지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것에 실패를 가져 올 때는 비극입니다. 이보다 더 안 좋은 것은 경멸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하기를 “너무 영적인” 혹은 “good for-nothing – 좋은 것 같은데-쓸데 없다”라고 하며 이러한 사람들은 기도하고 항상 교회는 가지만 그 사람들이 진짜 할 일이나 혹은 이웃 사회에는 접촉하지 않는다는 비평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삶의 가치를 감소하고 멀어져가는 것과 반대로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왕국에 들어갈 때 훌륭한 환영을 받을 것을 보관하는 길을 뚜렷하게 밝혀 주시고 부귀한 보상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지도적인 실용적 말씀들을 순종하는 데, 세상이 좀 더 좋아지게 하는 일과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일을 힘써 찾아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 걸어 다닌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영적인 분이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짐작을 “넓힐” 필요도 없이 예

---

1. 이러한 태도가 어떤 때와 어느 장소에서 긴박하게 곁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작업을 지역 공동, 지방정치, 등등에 광대하게 활동하는 것을 참으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수님이 아마 제일(제일 보다 더) 훌륭한 목수 이었을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준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가구를 그저 아무렇게 만들어 놓고 하시는 말이, “이만하면 돼. 몇 년 후면 내가 하늘로 올라 갈 터인데.” 라고 하신다는 것을 상상해 볼 수도 없는 일입니다. 혹은 하루 종일 그저 앉아 놀면서 “진짜 중요한” 일을 할 것들이 없다고 불평만 하시지도 안 했습니다. 아마 그는 목수일을 하셨을 때 자기의 책임 직무에 최선을 다해서 가장 품질 좋은 목수의 일을 했을 것이라고 해도 안전한 짐작입니다. 기록된 성경 구절에 확실히 밝히는 것은 언제 고 그가 사람들을 섬긴 것을 보면, 그들의 필요한 수준에서 하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생활에 접촉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모든 행위를 여러모로 열심히 모방해[emulate-에물레이터 하다] 보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소망”이 든든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의 삶에 집중할 수 있고 또 무엇이든지 앞에 있는 일에 단 마음으로 초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건물에다 투자 할 수 있고 또 가족들의 관계와, 또는 그들의 주위에 누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도 와줄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식-스타일 생활-lifestyle 을 하면, 천 부 께 존경을 가져다 드립니다.

### **“선한 일- 하는 자”가 되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일 하는 자가 되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 줍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이 뜻이 비틀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선한 일이 단지 기도하고, 교에 나가고, 헌금 내고, 그리고 또 세상과 육체적으로 떨어져 사는 것인 줄로만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록된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해주며,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언제 고 하나님께서 “...polluted by the world-세상으로 오염되다”라고 하시는 말은 세상으로 영향을 받아 결국은 우리의 마음과 심장이 세상을 “본 받은” 것을 의미 합니다(로마서 12:2).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되 “세상 적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인들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낫 익은 계명입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그리스도인이 아닌 많은 사람들까지도, “the Golden Rule-황금 규칙[미국 사회에서]”이라고 해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을 낫 익게 알고 있습니다(마태복음 7:12). 이 두 계명 외에도 선한 일을 하라는 구절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아래에 이러한 구절들 몇을 내 놓았음:

**잠언 3:37**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에베소서 2:10a**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일을 위  
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골로새서 1:10**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  
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선한일에 대하여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 주는 구절을 아래에 제공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0:42**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  
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현재 집들은 대부분 수도물이 집 안에 있으므로, 사람들이, 특히 미국사람들은 대부분  
손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가르침의 뜻을 성경 시대 때 문화에서 모두 다 깨달은 종점을  
문어버립니다: 그때 시절에 “냉수”는 오직 공동 샘물이나 혹은 우물에서만 가져올 수 있는  
데 그 이유는 집안 물병에 들어있는 물은 더운 계절로 인하여 빨리 더워 지기 때문입니다.  
찬 냉수 한 그릇을 준다는 뜻은 자기의 불편함을 무릅쓰고 물동이를 가지고 공동 샘으로  
가서, 어쩌면 줄을 서서 기다려 가지고, 물을 길어서 그 다음엔 그 물동이를 집으로 들고  
오는데, 이러한 수고를 하는 이유는 오직 목마른 사람의 목마름을 면케 하기 위해서 입니  
다. 그리스도께서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을 미래의 보상에다 연결시킨 사실은 하물며 가장  
평범한 일 같지만 그 일에 가치가 있다는 힘있는 증거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한 일들과 나누어 주기를 좋아 하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18**

선한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 주기를 좋아하며

##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부한 자들에게]

이 구절이 종종 대부분의 미국사람들[요즈음에는 한국 사람들도] 마음에 “watered down-물을 타서 약해 졌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나 한국은 국내에 부자들이 너무 많아서, 부자로 인정받는 사람들은 보통 “매우 큰 부다”들만 부자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성경시절의 기준을 사용하면, 미국이나 한국인들은 평균 거의 다 부자입니다. 대부분 미국이나 한국사람들은 하루에 세끼를 잘 먹고 많은 사람들은 끈이 사이에 간식까지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경시절의 삶에서는 기준이 아니었고 또 지나간 모든 역사에 살아온 사람들 대부분에게도 이러한 것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하다못해 오늘날에도 세계에 있는 수 억만 사람들에게 이러한 생활이 그들의 기준이 아닙니다. 대부분 미국이나 한국사람들은 옷과 집이 없어서 얼어 죽을 염려가 없는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옷과 안전한 처소가 풍부한 때는 좀처럼 없습니다.

많은 미국이나 한국 사람들이 돈이 없고 “월급 책이 달랑달랑”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가 음식과 집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원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살았으므로 그들의 보상을 이미 받았다고 성경은 확실하게 말해 줍니다. 이 세상 삶에서 받았고 미래에는 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마태복음 6:1, 16-18). 모든 사람들이 각각 남자나 여자나 그의 삶을 평가할 필요가 있고 그들의 삶이 미래의 보상을 위하여 살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세상의 것들로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을 것인지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한 사업에 부하고”라 하신 것과 “나뉘 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하신 주님의 계명을 신중히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도 하나의 경건한 최우선 사항입니다.

### **디모데전서 5:8**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어 악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말씀으로 가족들이 얼마나 값어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밝혀 주시고 자기의 가족들을 보살피라고 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주의 하고 하나님께서 값어치 있게 여기시는 데에다가 우리의 값어치를 일치로 맞추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헌신 하겠다고 각오한 사람들 중에 불행한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교회 직무를 그들의 가족들 보살피는 것보다 앞세우는 것입니다. 언제 고 성경을 정직하게 보면, 혈육의 가족이 교회의 일 보다 앞 서있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 줍니다. 이 말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제외하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앞세우는 것을 유지하라는 경고를 요구할 뿐입니다.

어쩌면 이 구절을 읽어보았는지 모르지만 현재 선한 일이 미래 왕국의 상황에다 연결 시키는 명확한 구절들 중의 한 구절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판단”에 그리스도께서 대 환란 때 아마겟돈 전쟁을 치루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는데 그들이 - 왕국으로 들어갈 사람들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며 (에베소서 2:8 와 9), 이 대목 마태복음을, 유대인들에게 기록했으며, 모든 믿는 자들의 선한 일이 얼마나 중요하나는 것을 강조 합니다.

#### **마태복음 25:34-45**

- (34)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 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 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 (35)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 (36)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 (37)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궤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 (38)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 (39)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 (40)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  
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1)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42)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43)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44)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45)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이 구절들을 이 이상 더 명백하게 기록할 수 없습니다. 배고픈 자를 먹여 주고, 입을 옷과 거처할 곳을 주고, 그리고 병든 자와 감옥에 갇힌 자를 위로해 주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돌보아 주는 것이 우리 주님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자기들만 위하고 그들의 주위의 가난하고 빈궁한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만 배부르게 누린 자들에게는 매우 엄격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 **누가복음 6:24 절과 25 절**

(24) 그러나 화 있을찢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25) 화 있을찢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 로다 화 있을찢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 메시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빈궁하게 살겠다고 서원하는 어떤 이론의 제출이 아닙니다. 그보다 오히려 하나님은 부요하게 사는 사람들이 구렁텅이에 빠지기 쉬운 것을 염려하시므로 경고해 주는 소리입니다. 부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보다 그 부귀를 더 의지하기 매우 쉽게 하고 오히려 자기만 누리느라고 바빠서 다른 사람들 도우려고 하지 않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도움이 필요한자들에게 자비로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신중하게 힘써서 되도록이면 그들이 어떠한 고통을 받든지 간에 그것을 이기기 쉽게 도와주어야 되겠습니다. 이 저주아래 있는 세상에서는 고통을 완전히 제어해 버릴 수 없지만, 그렇다 해서 거기에 힘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을 올바르게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닳을 든든히 내려 놓고 그들의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을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언젠가는 Paradise-낙원이 와서 그때에는 지구에 정의가 가득 차고 거기엔 병든 사람이나 굶주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영혼에 닿입니다.

# 12

## 완전히 원형으로 돌아오다

*From paradise to paradise- 낙원에서 낙원으로*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인생이 훌륭한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셨으며, 평화와 안전, 고통과 죽음이 없는 생활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계획을 창시하시기를 아담과 이브를 웅대한 에덴동산에다 두었는데, 이것을 구약성경에서는 그리스어로 “paradise-페레다이스[낙원]”이라고 부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이 계획이 깨어지고 인생이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시지 안 했으며, 그리고 또 그의 원래 계획하셨던 것이 결국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것들이 결국은 “완전한

원형”으로 돌아옵니다. 인간이 훌륭한 땅에서 좋은 음식과 건강한 몸으로 영원히 즐기며 살 것입니다. 이 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훌륭한 땅에서 왕으로 지배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왕국을 성경에서 자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땅을 점령하시고 그의 왕국을 성취하시면, paradise-낙원을 재 건설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첫 부활에 가입한 자들도 그 왕국에서 의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아래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의미 있고 만족한 일과들이 있고, 그리고 각자 받을 직무가 남여 간에 이생의 삶에서 각자가 주님을 위해서 행한 대로 받습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소망을 “...영혼의 닻...”이라고 합니다. 미래 낙원에서 받을 보상을 벌 수 있거나 혹은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앎으로 인하여 오늘날 사람들이 그들의 그리스도인 각오의 태도에 도움이 되고 또 그들의 생활에 삶을 세밀히 감찰할 수 있는 원동력을 줍니다.

이렇게 훌륭한 이 소망을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보여 주심으로 누구든지 그가 이것을 원한다면 받을 수 있게 해 놓으셨습니다. 어쩐지 베드로가 기록하기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후서 3:13).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가 주님에게 순종하여 그토록 행한 것 처 럼 행하여야 되겠습니다. 남 여 모두가 “앞에 보이는” rapture-들림 받음 과 땅에서 이루어지는 왕국을 확실히 기대 할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화 두려움으로 하고...”(베드로전서 3:15)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들로서, 이 소망에 excited-흥분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쁨의 재료가 되며, 그 이유는 이세상에서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항상 미래에 있는 좋은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래의 훌륭한 생활과 우리의 새 몸, 곧 영광의 몸을 입는 다는 것에 enthusiastic- 신이 나아 되겠고 또한 이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 주고 싶어해야 되겠습니다. 좋아서 흥분됨과 기쁨이 우리 얼굴 모습에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누가 우리에게 물어보거나 혹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복음 전할 문이 열리고 그러면 우리가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그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kindness- 친절로 그가 우리에게 이 훌륭한 우리의 미래 소망을 알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잘 형용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kindness-친절[한글 성경에는 자비]로 회개심을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해야 되겠습니다.



## 부록 A

### 소망을 깨닫는데 알아야 할 중요한 사건들

- 1) **에덴동산.** Original paradise – 원 낙원 (창세기 1-3)
- 2) **구약성경.** 이 때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이방인과 상대하시다가, 그 후에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상대 하신 것입니다.
- 3) **예수님이 처음 오시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성장 하셔서 가지고, 섬기시고,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네 복음).

에덴 동산	예수님이 처음 오심.	Rapture 오순절 날	들림 받음	그리스도가 두번째 오심 & 아마겟돈 전쟁	첫 부활 & 양과 염소의 심판	사탄이 놓이다	마지막 전쟁 & 하늘에서 내려온 불	두번째 부활 & 천 보좌 심판
-------	----------------	------------------	-------	------------------------------	------------------------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구약 성경			그리스도의 교회		환란의 세대			천년 왕국				영원한 왕국

- 4). **오순절.** (사도행전 2 장) 이 행사가 그리스도교의 처음 시작입니다. 이 때 붙어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방]인이나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한 새사람...”의 지체가 됩니다(에베소서 2:14-17).
- 5).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 곧 비밀의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Cp. 에베소서 3:2 절과 9 절) .
- 6). **들림 받음.** 그리스도인들이 땅에서 들림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영접하고 (그리스도께서 그 때에 발을 땅에 대시지 않음)그리고 환란의 세대가 끝날 때까지 그와 함께 하늘에 머물러 있습니다(고린도전서 15:51-54; 데살로니가서 4:13-18).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진 후, 땅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만 남아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약성경때와 네 복음 때같이 각각 따로 상대 하십니다(요한계시록 7 장 등등).
- 7). **환란의 세대.** 구약에서 자주 예언으로 말해준 맹렬한 재난이 일어나는 때를 의미 합니다.
- 8). **그리스도가 두번째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을 싸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그의 군대들과 내려 오셔서(그의 두번째 오심) 아마겟돈 전쟁을 이기 시고, 그러므로 환란이 끝납니다. 그가 땅을 정복하고(요한계시록 14:17-20; 16:16; 19:21)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잡아서 불 못에 던집니다. 마귀는 잡아서 이천 년 동안 결박됩니다(요한계시록 19:20; 20:1-3)
- 9). **첫 부활.** 이것을 또 의인의 부활 이라고도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20:4-6) 오순절 전에 죽은 모든 의인들과 혹은 환란 때에 죽은 사람들을 부활 시켜서 심판합니다. 그리고 또 이때를 “양과 염소 심판”이라고도 합니다(마태복음 25 장). 환란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심판해서 의로운 사람들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동시에 불의한 사람들은 불 못에

던집니다.

- 10). **천년왕국.** 이 나라가 1,000 년 계속합니다(요한계시록 20:9 절과 10 절).
- 11). **사탄이 놓임.** 이 "짧은 기일에"(요한계시록 20:3), 그가 온 세계를 속입니다. 이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침범합니다(요한계시록 20:7-9).
- 12). **마지막 전쟁.**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적을 멸망시킵니다. 마귀는 불 못에 던져버립니다(요한계시록 20:9 절과 10 절).
- 13). **두번째 부활 (불의한 자의 부활)과 흰 보좌 심판.** 모든 세대에 죽은 불의한자들과 천년왕국 때 죽은 자들을 다 일으켜서 심판합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은 영원한 왕국으로 들어가는 동시에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불 못에 던집니다(요한계시록 20: 11-15).
- 14). **영원한 왕국.** 하나님이 땅에다 왕국을 세워놓으시고 그 왕국은 영원히 계속합니다.

## 부록 **B**

### **우리의 미래에 영원히 살 곳이 하늘이라고 한 아이디어를 보충하기 위해서 가끔 사용한 구절들**

#### *“어려운” 구절들*

성경에 있는 구절들이 무척 단순해서 어린 아이도 읽고 깨달을 수 있는 곧 말씀에 “도적질 하지 말라” 같은 구절들이 많이 있는 동시에, 한편 어떤 것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점에 탓할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는, 성경이 원래 기록되기를 다른 나라 말로 (Hebrew-히브리어, Aramaic-아람어, 그리고 Greek-그리스어 세나라말로)

그리고 기록된 배경이 다른 나라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떤 때는 “외국”을 방문 하는 것 같지 않고, 곧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격이 될 수 있습니다. 방문객에게는 그 나라가 “외국”이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고, 그리고 방문객이 거기에서 보고 경험하는 것들을 잘 못해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일로 인하여 성경을 옳게 깨닫는 것이 어렵지만, 아무도 이것 때문에 옳게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만일 성경에 있는 사실과 그것을 깨닫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디모데전서 2:4) 말씀이 진실한 말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바르게 깨닫는 것에 실패하는 이유를, 범위를 넓게 잡아서 보면, 성경에 있는 문화에 연결시키지 않아서 뿐만 아니라, 어떤 특별한 구절을 성경전체의 뜻에 연결시키지 않고 그것만 꼭 집어서 자기네 의사에 맞추느라고 잘못된 해석의 결과에 있고 또 바로 이러한 식으로 믿는 자들이 그들의 거주소가 하늘이라는 아이디어를 보충해 준 것입니다. 이 과목의 목적은 이러한 “어려운” 구절들을 성경 전체에 있는 밝은 구절들로 조사하여, 이 구절이 어디에 연결되는가에 질문을, 그리스어나 혹은 히브리어 번역 성경, 그리고 그때의 그 문화와 그 풍습을 조사하므로 그의 사실을 밝히겠습니다.

---

1. 사실 그리스어 성경에 따라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을 그저 알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full-가득 혹은 complete-온전한 knowledge-지식” 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Amplified Bible- 확대시킨 성경*에서 이점을 잘 표현 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그가 소원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increasingly-점점 더] 알아서 and-그리고분간할 줄 알고 and-그리고똑바로 알아서 and-그리고그리고 그 사실을 똑바로 [분별]하라” [여기서 원서를 이탤릭 글 체와 브래킷[]표로 표시 했습니다].

## 엘리야가 하늘에 있다

열왕기 하 2:11 말씀이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Elijah went up by a whirlwind into heaven” (KJV.-킹 제임스 번역).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선뜻 짐작하기를 엘리야가 승천해서 하나님 곁으로 간 줄로 아는데, 그때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안 했습니다. 첫째는, “heaven- 하늘”을 하나님계시는 곳 외에 다른데 다도 사용했습니다. 새들이 날아다니는 곳, 비와 눈이 오는, 등등에도 사용했습니다. 성경에 “...the fowl of the heaven-공중[하늘]의 새...”(창세기 7:23). “...rain from heaven-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사도행전 14:17. “...snow from heaven-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이사야 55:10 킹 제임스 번역). 이와 같이 다른 면에도 사용합니다. 그들은 엘리야가 공중으로 날아갔지만 결국은 어느 다른 곳에 떨어진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열심히 찾으면 그를 찾아낼 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열왕기하 2:16).

사람들은 그를 찾고 싶어 했지만, 엘리사는 만일 여호와가 엘리야를 거기 있기를 원하셨다면 그를 다른 데로 옮기지 안 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당시 풍습을 알면 이 대목의 말씀을 밝히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전진 시키라고 했습니다(열왕기상 19:16). 그럼으로 선지자로 전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엘리야를 다른 데로 옮겼어야 할 길을 마련해야 되었습니다. 바로 그 길이 회리 바람을 선택한 것입니다. 엘리야를 들어다가 하나님 계시는 곳에다 옮긴 것이 아니었으나, 그를 공중으로 들어다가 다른 곳에다 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단순히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시므로 거기서 남은 일생을 마친 것입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로 가서 산다고 할 수 없는 것은 그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는 거기에 엘리야도 포함해서 오직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정당한 값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만일 엘리야가 이미 하나님 곁으로 가서 영원한 삶을 즐기고 있다면, 구태여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를 위하여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 복음에서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가지 안 했다는 것을 똑똑히 밝혀 줍니다 그 말씀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13).

---

2. 비록 어떤 번역은 “heaven-하늘” 을 “공중” 혹은 sky-하늘” 이라고 했습니다만, 누구든지 히브리어나 혹은 그리스어 성경을 찾아 보면, “heaven-하늘” 이라고 읽습니다.

## 하늘에 있는 보상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상, 혹은 보물, 혹은 하늘에 있는 home-고향에 라고 까지 이 점에 대하여 말씀해 줍니다. 여기에 내놓은 구절들이 이러한 점에 포함된 것들인데 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5:12 절과 누가복음 6:23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마태복음 6:19 절과 20 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골로새서 1:5 (“...하늘에 쌓아 둔 소망을 인함이니...”) 그리고 베드로전서 1:4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러한 구절들과 또 이와 같은 구절들이 헛갈리게 하고 또 의인들이 하늘로 간다는 믿음으로 이끄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을 아는 (혹은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당연히 알아야 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아는 관념들이 글자 그대로 하늘을 물체 적인 것들로 생각하여, 즉, 상, 보물, 그리고 home-고향, 이러한 것을 현실로 하늘에 있다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것들을 “보관” 혹은 그것들을 기록하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의 영수증에 그 현실이 미래의 땅에서 일어납니다. 구약서 에서 사람들이 행한 대로 받는 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고 그리고 이것들이 왕국을 세운 다음에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행위를 살펴서 간직하신다는 아이디어가 구약서에 똑똑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 말라기 3:16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 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 하셨느니라.

### 전도서 12:14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요한계시록의 이 심판에 대한 경고가, 책들이 펴 있고 “...죽은 자들이 자기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요한계시록 20:12)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

3. Graeser, Lynn, 그리고 Schoenheit op. cit...분들이 내 놓은 책, *Is there Death After Life?- 죽음 후에 삶이 있는가?* 페이지 85 를 읽어 보시오.

상 혹은 보물을 하늘에 보관하신다는 것과 그들이 선한일을 하므로 거기에다 자기의 보물을 더 보탬 수 있다는 것이 유대교의 공통 개념이었습니다.

하늘에 보물이라는 하나에 생각, 부패된 것을 지나서, 이것이 유대 교에 공통된 종말론적 개념이었습니다. 의인은 이것을 아직 가지지 못하고, 이것이 미래에 있는; 그렇지만 현재 삶에서 별어서 보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의 신학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돈을 보물에다 모아서 저장하듯이 죄와 청결을 모으고 또 그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록하신 모든 죄와 청결과 그리고 때때로 그 책에 밸런스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관중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한 행위들을 신중하게 감찰하셔서 상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 고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땅에다 왕국을 세우실 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받을 것입니다.

###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마태복음 22 장 기록에 사두개인들, 곧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에게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한 여자에게 첫 번 삶에서 남편이 일곱이 있었는데 미래에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부활 때에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마태복음 22:30). 이 책에서 토론한 것에 무엇이 중요한가는 그리스도께서 땅과 하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는 “부활 때에, 사람들이 천사들과 같이 [그리고 하늘에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그가 큰 사실 둘을 드러내셨습니다: 천사들은 남편이나 아내가 없는 것과, 부활 후는, 구원받은 자들이 남편이나 아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

---

4. J. Emerton, C. Cranfield, and G Stanton 등의 책. *The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Matthew* (T 7T. Clark. Ltd., Edinburgh, 1988), 페이지 631

5. George Wesley Buchanan, 등의 책, *The Anchor Bible: To the Hebrews* (Doubleday & Company., Garden City, NY 1972), 페이지 xxv.

로 언제 까지든지 결혼에 대해서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서는 한 번도 죽은 후에나 혹은 부활 후에, 사람들이 천사가 된다고 말씀하시지 안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비록 사람이 죽으면 천사가 된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지만, 성경의 증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의 자연의 몸은 변해서 죽지 않는 몸이 되지마는 그들이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요한복음 14:1-3 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히 하늘에서 지낼 것이라는 가르침에 자주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14:1-4

- (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 (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 (3)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NIV 번역 3 절이 잘못 인도 합니다. 이 대목 “take you to be with me-너를 내 곁으로 데려가리라” 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느 곳, 하마 하늘로 데려가는 줄로 생각하게 합니다. 문자로 그리고 좀 더 올바른 번역은 이 대목을 “receive you unto myself-너를 내 게로 받아들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아무데도 “take-데려가지” 않고; 그들을 “자기에 게로 받아들이리라” 라는 뜻입니다. 킹 제임스 번역이 이 대목을 잘 취급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4:1-5 (킹 제임스 번역 )

- (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 (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 (3)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

- 를 내 계로 받아드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4)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5)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삽나이까

이 대목 구절들의 조사 시작은 여기서 뜻하지 않은 말이 무엇인가를 조심 있게 공부해야 됩니다. 여기서 뜻하지 않은 말은 “누가 죽으면, 그가 하늘로 간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한 말은 *그가 다시 그들에게 올 때에 그들과 함께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제자들이 죽으면 그들과 함께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비록 어떤 정당 파 그리스도인 까지도 만일 우리가 그와 함께 하려면 그리스도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오셔야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한 그들의 가르침은 각 믿은 자가 죽으면 그가 진짜로 오셔서, 그 영혼을 되찾아 가지고, 하늘로 다시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짐작의 바탕은 성경이 보충하지 않을 뿐더러, 이것이 매우 실용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매일 같이 수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죽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으로 왔다 갔다 하시려면 거기에 어떤 것 하나만이라도 거리끼면 되지 않을 것이므로 아무런 다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 구절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하늘로 가느냐 아니면 지옥으로 가느냐 하는 아이디어 가 잘 못인 것을 확실하게 밝힙니다.

어떤 다를 정당 파 그리스도 신학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을 아마겟돈 전쟁을 싸우러 오실 때 예로 연결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말하는 신학자도 제자들을 다 모은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하늘로 다시 데리고 간다는 것을 주장 합니다. 이러한 믿음에 한 가지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땅을 점령 하고 난 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다스린다고 하는 구절들이 이미 우리가 이 책에서 많이 읽어 보았듯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깨달은 것을 알려면, 이 대목에 연결된 구절들을 세밀히 조사해야 됩니다. 비록 그 제자들이 그의 하신 말씀을 완전히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그가 전에 가르친 모든 것을, 신중히 듣고 믿었으면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오는 왕국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미처 모르고 있었던 것은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고, 장사되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가 하늘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러한 행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준비 시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

시기 전에 먼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요한복음 14:1).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는 자기가 잡히고,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에 그들에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무시무시한 마음을 견잡을 수 있게 그들의 마음을 준비 시켜 주기 위해서 였습니다.

예수께서 연속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 “집”은 다가오는 아버지의 왕국을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말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집”에서 사신다는 것을 한번도 말한 적이 없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각각 다른 방에서 산다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천년왕국 때에 사람들이 그저 한 집 에서가 아니고 온 세계에서 사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왕국에서는 city-성 광이 네모로 1,400 마일이며,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저 한 집에서 살지 않는 다는 것이 확실 합니다. 성경시절에는 “집”이라는 말을 고통적으로 나라로 혹은 왕국으로 사용 했습니다. “the house of Israel-이스라엘의 집” 이와 같은 문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집”이 왕국을 의미해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라고 하신 것입니다(누가복음 11:17).

킹 제임스번역에 “mansions-대저택” 과 한글 성경에 “곳 혹 처소”가 처소들, 방들 혹은 거주하는 곳들입니다. 킹 제임스번역에 “mansions-대저택”이라는 단어가 옛 영문에서 나온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1611 년에, 킹 제임스번역이 기록되었을 때, “mansion-대저택”이 사람들이 거할 곳이었고, 그 곳이 크든지 작든지, 그리고 궁전이든지, 모두 “mansions -맨션들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의 문화에 의하면 “In my Father’s Kingdom are many places to stay-내 아버지의 [왕]국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는 것이 확실 합니다. 이 외에 다른 구절들을 많이 캐낼수록 왕국이라는 말이 확실한 사실이며, 여기에 사람들이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서 (이사야 32:18) 산다는 말씀도 여기에 포함된 말씀입니다.

이 구절의 사실이 나타난 것은 거기에 누구든지 오고 만 싶으면 많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왕국]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

---

6. 이 모든 것들을 concordance-칸콜덴스 에서 속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use of Israel-이스라엘의 집”을 킹 제임스 번역에 146 번을 사용했고, “house of Judah-유다의 집”을 41 번, 그리고 house of David-다윗의 집”은 26 번 사용했습니다.

실 때, 그는 계속 그의 제자들을 위로했습니다. 그의 말은 왕국에 거할 곳이 없어서 그들을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서 그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왕국을 가져오는 “예비”에 포함된 필요한 것들이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생을 완전히 구하는 것을 이루는데 에 필요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이 없이, 모든 죽은 사람을 죽음에서 살려서 왕국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이 “공중에 있는” 집 이라고 생각하지 안 했습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 완전히 외국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땅에 왕국이 있을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 복음 14 장 3 절에서 말하기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there-거기] 있게 하리라.” 성경 시사 해설자가 이 구절을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모르고 또 다른 시사 해설자들에게 다른 설명이 있습니다. 정통파들은 거의 다 mansions-대저택이 “하늘에” 있다고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들의 설명이 옳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 왕국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지만, 이 구절을 깨닫는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여기서 세가지 가능성 있는 설명을 조사했습니다. 이 모드가 요한복음 14 장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와(his Last Supper-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구약성경에서 무엇을 알고 있는 가의 바탕과 예수님이 무엇을 그들에게 가르친 것에 예민합니다.

“Last Supper-마지막 저녁”이 평시와 같은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네 복음서를 조사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때를 이용하셔서 가르친 제목이 여러 가지였습니다. 그의 상사됨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 그의 제자들에게 서로 어떻게 섬기라는 것을 가르치기를 그들의 발을 씻김으로 하셨고; 사랑과 순종에 대하여 가르쳤고; 새 계명에 참례하는 cub and bread-잔과 빵[음식]에 대하여 가르쳤고; vine and branches-포도나무와 가지들에 대하여 가르쳤고; 그의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것을 예고했고; 그의 승천을 가르쳤고, 이것이 바로 “...내 아버지께로 가서...”를 의미합니다(요한복음 14:12).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왜 요한복음 14 장 3 절 번역이 어려운 가를 알게 됩니다. 여기에 가장 적당한 번역 셋이 있습니다:

- 1)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죽음과 장사됨으로]. 내가 다시 와서 [부활해서], 너희를 내 게로 영접하여 [너희가 도망가고 내가 부활 한 것을 처음에는 믿지 안 했지만 너희를 내가 다시 받아들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there-거기 있게 하리라 [왕국이 땅에 세워지면 그 왕국에서].

- 2)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승천할 때],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두번째 와서 아마겟돈 전쟁을 이기고 땅을 점령할 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왕국으로 영접하여], there-거기있게 하리라[왕국에].
- 3).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나의 죽음, 부활, 그리고 나중에 승천함으로] 내가 다시 와서, [첫째 나의 부활과 그리고 나중에 내가 아마겟돈 전쟁을 싸워서 땅을 점령함으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첫째는, 비록 너희가 도망하고 처음에는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 안 했어도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서 환영하고 그리고 나중에 너희를 나의 왕국으로 환영해 들여서]; 나 있는 곳에 [왕국에] 너희도 there-거기있게 하리라.

사실은 세번째 설명이 첫 설명과 두번째 설명의 결합입니다. 첫번째 설명을 가지고 논쟁하는 사람들의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때에 자기의 승천에 대하여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던 것은 그의 죽음이 더 임박한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후에 더 그에게 40 일 동안 자기의 승천에 대하여 가르치실 기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번째 설명을 가지고 논쟁하는 사람들의 말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승천을 확실히 아셨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 큰 화제 꺼리라고 합니다(요한복음 14:12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그들의 말에, 예수께서 나중에 말씀하실 때에 그가 “going away-갔다”, 오신다고 했고,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이 확실하고 (요한복음 16:5-33) 그리고 무덤으로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번째 설명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그리스도께서 종종 그의 말씀과 문단에서 의미한 뜻 외에도 여러가지 뜻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러므로 첫째 둘째 설명에 둘 다 사실이니까 두가지가 다 옳다고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하며 그러므로 세번째 설명이 옳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떤 설명이 옳다고 하는 논의가 한정이 없을지 모르며, 또, 이 책의 주장에 포인트는, 꼭 어떤 것이 옳다고 결정적으로 해야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부의 목적은 구원 받은 자들의 미래 거주소가 땅이지, 하늘이 아니라는 것이며, 그리고 이 셋 설명이 모두다 이 사실을 보충해 주는 것을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14 장에,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where I go you know, and the way you know-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킹 제임스 번역 14:4).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그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가는 것과 “그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는 것은 무덤과 결국은 하늘로 (그의 승천)이고, “그 길”은 고문 받고, 죽음, 장사, 부활, 그리고 승천입니다. 그 제자들이 이것들을

“아는” 이유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었거나 혹은 구약성경에서 가르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그들은 알았지만 아주 믿지 안 했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혼동되었던 것입니다.

도마가 말하기를,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삽나이까?” (요한복음 14:5). 여기서 무엇이 확실하냐 하면 이 모든 것에 혼동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데에 연결됩니다.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는 것이 그의 영광에 들어가는 데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을 미처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아무데도 가실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그때 당장에 땅을 점령하고 왕국을 세울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한가지 더 마지막 포인트는: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 확실 합니다. 그들이 부활 후 예수께 묻기를 이스라엘 나라[왕국]을 회복시킴이 이 때냐 고 물었습니다(사도행전 1:6). 만일 제자들이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가신다는 것을 받아드리지 안 했을 것 같으면, 물론 그들도 하늘로 간다는 생각을 하지 안 했을 것입니다.

###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나라는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는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다른, “하늘”에 있다고 사람들로 믿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8:16 (킹 제임스 번역)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  
에게 넘기 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 라.

이 구절을 제대로 깨닫는 열쇠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세상에”라는 문단속에 있습니다. 보통 짐작한 것들이 유행된 이 뜻은 이 왕국이 물체 적인 땅에 있지 않다고 하지만 이 문단이 물체 적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것을 지금 오늘날 이 세상-마귀의 영향을 받고 부정해진 상태를 의미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 세대”라는 말과 같은 방향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 세상에”속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이 오늘

날 이 세상에서는 마귀의 심한 특징을 나타내는 영향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을 것은 이 세상은 마귀가 우영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요한복음 12:31).

오늘날에 세상, “이 세상,” 은 지나가 버리는데, 고린도전서 7:31 에서도 말하기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합니다. 이것이 물체 적인 형체가 실로 지나간다고 할 수 없는 것은 구약과 신약 양쪽 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란 문단의 뜻은 다른 구절들로 밝혀보면 부패된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는 “세상에 속한”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요한복음 15:19). 이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진짜 사람으로 진짜 물체 적인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 세상에”서 마귀가 영향을 주는 세상에 속하지 않다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이 제자들과는 정 반대로, 예수님이 그를 대항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들이 “이 세상에” 속한다고 했습니다(요한복음 8:23). 이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람이고 그들이 물체 적인 땅에서 살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악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제자들과는 아주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을 확실히 보여 줌으로 이 문단이 진짜 땅에 있다는 것이나 혹은 육체 적인 몸이 과해서 말한다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악에 속하는 것과 마귀적인 영향을 말해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그 왕국은 모든 것을 새로 “회복시켜서” 이 세상에 있는 악의 영향은 없어진 것으로 온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

7. C.K Barrett 분의 책,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The Westminster Press, Philadelphia 1987). 페이지 536

##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15:50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 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믿는 자들이 각다 받을 죽지 않을 새 몸이 육이 아니고 spirit – 영 혹은 구원받은 자들이 미래에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산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에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 둘 다 엉뚱하게 잘못된 아이디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의 영광스런 몸 모양의 몸을 줄 것인데(빌립보서 3:21), 부활한 후에도 육과 뼈인 몸입니다. 제자들에게 그가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spirit-영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반박해서 꾸짖었습니다.

누가복음 24:36-39

(36)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어다 하시니

(37)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 지라

(38)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39)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비록 NIV 성경 번역에는 “ghost-귀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그리스어로 이 말이 pne Uma-푸누마 이고 이 말을 “spirit-영”이라고 하는 것이 옳은 번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의 몸에, 육과 뼈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를 만지고 감촉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자들과 같이 음식까지 잡수셨습니다(누가복음 24:43). 그러므로 만일 왕국에 왕이 몸에 육이 있으므로 육이 물론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서 에서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혈과 육”이라는 말을 성경에 다섯번 사용했고 그 뜻은 세상의 상식 안에 있는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 (혈과 육 킹 제임스 번역)” (기타,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아버지시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17). 에베소서 6:12 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싸름은 “혈과 육”, (기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 장 50 절의 뜻은 **자연적** 사람이 하나님의 유업을 못 받는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현재 사람의 몸은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몸은 부패, 썩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몸을 그리스도의 몸 같은 것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여기에 설명이 더 있지만, 좌우지간에, 그리스도 사회 에서 자주 말하는 “양과 염소의 분별”에서는(마태복음 25), 의인은 땅에서 살고 그들은 썩을 수 있는 몸을 죽지 않을 몸으로 바꾸지 않고도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에서는 왜 사람이 죽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열쇠가 고린도전서 15:50 절 자체 마지막 대목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에 있습니다.천년왕국에서는 100 년을 더 살다가 죽는 다해도 죽은 후엔 유업을 계속할 수 없고 그 왕국을 방문 한 것만도 다행인 것입니다. 이 혈과 육은 반드시 “썩을 수 없는” 몸으로 만들어야 만이 이 왕국에서 실제적인 유업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 계속하기를:

고린도전서 15:51-53

(51)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 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 하리니

(52)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53)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 로다

우에 구절들 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된”것이, “spirit beings-영”으로 변한다고 말하지 안 했습니다. 변하는 것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그리고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썩지 않을 새 몸이 각 믿는 자들로 그 왕국을 “유업”으로 받고 거기에 충만한 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습니다.

###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

고린도후서 5:1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보다시피 이 구절이 구원받은 자들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반박 합니다. 여기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히 거주할 집이 하늘에 있는 것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고 성경을 해석하는 합당한 열쇠를 사용하는 그 방법들 중의 하나가, 이 어려운 구절을 많은 다른 구절들에서 땅이 인생들의 영원한 처소라고 확실하게 말해주는 구절들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1 절에, 단어 “영원한” 이 말이 단어 “집”을 형용하지 “하늘에 있는” 문구를 형용해 주지 않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서 영원히”집을 가진다고 하지 안 했습니다. 그 “집”이영원한 것이며, 비록 그 집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약속이지만, 이것이 변합니다. 이 구절에서는 다른 구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정을 표현 하는 것이고, 또 Church Epistles-교회에 쓴 편지에 각자 그리스도인들의 하늘에 속한 몸은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인들의 짐이 하늘에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뜻은 하나님께서 그의 창고에다가 “생명이 없는 몸 형 껍질”을 미리 가득히 저장해 놓고 기다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그것을 썩 뒤집어쓴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현 몸이 변해서 새 몸을 가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 줍니다(고린도전서 15:51 과 52). 언제나 하나님께서 현재 받아들일 수 없거나 가질 수 없는 것들은, “하늘에 있다고” 실제 있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먼저 부록 B “하늘에 있는 상”과 부록 E 틀림없는 예언을 보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들림 받을 때 각자에게 틀림없이 새 몸을 주실 것이므로, 바울이 그리스도의 집이 “하늘에 있다”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 **하늘에 앉혔다**

에베소서 2:6 절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혼동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는 것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6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땅에서 사는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또 그들이 똑같은 시간에 “하늘에 앉을 수” 있을까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우리가 “육적으로”는 땅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만, 그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이 하늘에 있

다는 말이 성경적이 아닌 것은 성경에서 성령이 그리스도안에서 인치되었다고 하고 우리는 아직도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6 절을 깨닫을 수 있는 열쇠는 보통 성경의 idiom-이디엄[관용구]은 언제 고 *미래에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은* 과거분사를 사용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이디엄[관용구] 이 성경학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또 이것을 몇몇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the prophetic perfect-틀림없는 예언”, the historic sense of prophecy-예언의 역사상 오감”, 그리고 또 “the perfective of confidence-온전케 한다는 것의 장담 성” 이라는 것도 여기에 포함 됩니다. 이것이 또 어떤 때는 “here now, but not yet-지금 인데 아직 아니다.” 라고도 합니다.

틀림 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모아서 하늘의 범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이 미래가 매우 틀림없으므로 이것이 이미 된 것으로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prophetic perfect-틀림없는 예언에 대한 정확한 견본입니다. 이것이 이렇다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서 영원히 계속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아마겟돈 전쟁 때 땅으로 내려와서 계속 땅에서 영원히 그와 함께 합니다(제 3 과목을 보시오). 많은 성서의 대본을 깨닫는 데에 the prophetic perfect-틀림없는 예언 idiom-이디엄[관용구] 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점에 대한 것을 부록 E 에 길게 취급해 놓았습니다.

---

8.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영적” 으로 하늘에 있지 않다는 생각에 전멸의 위험에 직면해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그들이 하늘에 그와 함께 있는 것 같이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에서 거주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그들 안에 성령의 은사[선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의 사람들과 하늘과 땅 사이를 두고 말씀하셨고 땅이 그가 사람들과 통화하시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안 했습니다.

## 저희가 더 나은 본향나라를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히브리서 11:16 절에서 “하늘에 있는” [country-나라]본향을 말합니다. 이 뜻은 본향이[coun Try-나라가] 하늘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뜻이 또한 하늘에 도시가 있어서 사람이 죽으면 혹은 부활하면 거기로 간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에”라는 이 단어는 원리의 어떤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것의 가치, 혹은 어떤 것의 지휘에 자리를 말합니다. 이 점에서는 “하늘에”라는 단어는 원래 가치 있는 본향을[나라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작가가 부르는 “약속의 땅”(11:9) “a heavenly [one]-하늘의 [것]”이라는 문단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을 가지고 땅을 의미한 뜻이 아니라 고 하는 것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3:1)이라는 말을 가지고 땅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뜻과 더 다를 것이 없습니다. 누가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6:4), 그후엔 이 사람들이 땅에서 살지 않는 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말이 진짜 땅 그것을 바라보는 애국자로서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로라”(11:13) 한 것이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성한 땅을 표현하신 것입니다(바침대들은 그의 것임).

히브리서 13:14 절이 히브리서 11:16 절에서 말하는 country-본향과[나라와] city-성[도시]에 대하여 더 밝혀 줍니다.

히브리서 13:14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city-도성이[도시가]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오늘날 이 땅위에는 “enduring-영구한 [오래 계속되는]”도시가 없습니다. 확대한 성경에서는 “permanent-영구”, 이 말이 잘된 번역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도시는 임시고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새 땅이 영광스런 곳이고 이것의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예루살렘을 땅으로 내려옵니다(요한계시록 21:2). 히브리서 13:14 절에서 사람들이 장차 올 이 도시를 찾는다는 말에 매우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 도시가 지금 현재 어디 있는 것처럼, 믿은 자들이 죽으면 바로 그 도시로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도시는 “장차 올”

---

9. Buchanan, op. cit., *Anchor Bible: Hebrew*, p. 192

미래에 있고 이것이 땅에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구약성경 참고가 많이 있으며, 여기에 땅에 대한 약속의 참고도 포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실 때 그리고 다른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받을 것이며, 구약성경 때에 이것을 소망한 믿은 자들에게 이것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약속의 땅”에서 “쉼[안식할]”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작가에게 기본적으로, 소망하나 혹 강렬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영광 속에서 약속의 땅을 받는 것과 대적들 혹은 외국의 규율에서 자유로 풀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그 약속을 물려받는 혹은 취득하는 것이라고 부르며 (6:11, 15-17; 11:13, 33, 39). 또 “rest-[쉼]안식에” 들어간다고 합니다(3:11, 18,; 4:1,3, 5, 8, 11). 그 약속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준 것인데 그의 후손들이 땅을 물려받고 거기서 능력, 부귀, 그리고 여러가지 많은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창세기 15). 또한 이것을 “rest-[쉬는]안식” (4:1), 그리고 그 받는 땅을 기업이라고 부릅니다(11:8). 만일 그 “rest-[쉬는]안식”을 이스라엘백성이 광야에서 불순종 하지 안 했으면 받았을 것인데 아직도 그 안식이 앞에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도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언한 그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4:1, 6) 모세와 예수님이 똑같은 “집”에 관한 것인데 – 모세는 사환으로 예수는 아들로입니다(3:2-6). “[쉼]안식”이라는 용어가 가나안 나라 취득한 것에 딱 가깝게 관계되기 때문에, 읽는 자들이 여호수아가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있다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쉼]안식에 들어간 줄로 걱정합니다. 히브리서 작가분이 여기에 대한 답이 들입니다: (가)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셨다면, 그 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른 날이라고 하지 안 했을 것이며(4:8); 그리고 (나)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일을 [노고-labor]쉰다고 했습니다(4:10).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험박이나 혹은 “일-노고”에서 풀려 계속한 끝에 약속한 안식에 한번도 완전히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도 바라고 있는 그 “안식”이 먼저 것 보다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것을 영원히 완전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의 기업의 약속을 가나안 땅에다가 풀리지 않게 동여매

10. Ibid., p 194

놓았으며, 애국자들이 나그네로 머무른 곳이 바로 이것입니다(11:13).

히브리서에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소망의 밝은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불행이도, 이 정보가 구약성경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표현한 약속들이기 때문에, 태반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관련 시키지 못합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하늘서 사는” 약속을 찾고 있지 “다 나은 나라”(히브리서 11:16)의 약속을 찾지 않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더 나은 나라”의 약속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한 것과 똑 같은 것입니다. “더 나은 나라”를 똑똑히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오기를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 부록 C

### 그리스도인의 영구한 구원 [잃을 수 없는]

이 부록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이 독특한 것을 보여드리고 또 이것이 무조건 이고 영구[잃을 수 없는] 한데, 한편 구약 성경 때 살면서 믿은 사람들과 네 복음에서 믿은 사람들과 또 환란 세대 때 믿은 사람들의 구원은 조건부의 였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동

---

1. 성경에서는 천년 왕국 시절에 영구한 구원에 대하여 조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에 사는 육의 사람들이 영구한 구원을 받는다는 예언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약성경과 네 복음에서 배운 것의 바탕으로 보면 조건부의 구원이기가 더 가능합니다.

산에서 쫓겨난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요구 했습니다. 이 책의 목적은 사람을 창조한 때 부터 “구원”에 대하여 세대마다 한정된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행함을 판단 하고, 어떤 사람은 영생을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 다고 했습니다.

이 책과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점은 읽는 자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단어들 “구원,” “믿음,” “의,” 그리고 “성도” 라는 단어들을 모든 세대마다 사용 하신 것을 인식 해야 됩니다. 이 사실이 혼동을 줍니다. 그 이유는 만일 단어가 같으면 거기에 동요하는 거들도 같을 것이라고 자동적으로 믿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믿은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도 믿은 사람이니까 구원도 똑같은 것이 다라고 자동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점은, 아브라함이 믿었으므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의 구원은 conditional-조건부였습니다. 바울도 역시 믿었으나, 하나님이 은혜의 세대에 교회를 은혜로 처리하심으로 새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not conditional-조건부가 아닙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하나님께서 같은 단어들 몇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사용하신 것을 가지고 혼동 되어서 구원이 모든 세대에 다 같은 줄로 생각하지 안 해야 되겠습니다.

따르는 단어들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사용한 것들입니다. 보시다시피 성경을 참고로 해서 지적하고, 이 단어들을 모든 세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원”** (시편 33:16-19; 이사야. 45:17 그리고 22; 마태복음 19:22; 19:24. 그리고. 25; 로마서. 10:9-13). 하나님은 사람들의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 이십니다. 그럼으로 구약 시대 때 살던 사람들

---

2. 하나님이 성경을 저자 하시기를 부지런하고, 기도를 해야 하며 또한 “나를 마음에 둬” 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단계에 와서는 감정이 상해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아는 것 처럼 어떻게 기록했어야 되는데 하고 또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해야만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 놓은 것을 불화합니다. 지혜로운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스스로 지혜 있어서 이미 알고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와 게을러서 기간과 힘을 다 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실을 감추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숨기신”다고 하시며(잠언 25:2), 그러므로 명철-(understanding-깨달음)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cry aloud-크게 울부짖으며), 만일 우리가 그것을 찾으려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부지런히 찾으면 여호와와의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잠언 2:3-5). 예수님이 아버지의 견본을 따랐고 그러므로 모인 무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비유로 말하신 것입니다(마태복음 13:10-15). 그 후에, 그의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마가복음 4:34). 비록 다른 세대에서 말하는 구원의 단어가 같을지라도, 부지런한 학생들은 세대를 따라서 다르게 사용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든지 신약 시대 때 살았던 사람이든지 그가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시는 것을 “구원 했다” 라고 합니다.

“**믿음**” (열왕기상. 18:3; 요한복음 4:41; 사도행전. 4:32).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으나 그가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로마서 4:11; 갈라디아서 3:7).

“**의[정당한-the righteous]**” (시편 34:17; 52:6; 말라기 3:18; 마태복음. 13:43; 사도행전. 24:15).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으매 의로 여기셨습니다(창세기 15:6). 언제 고 누가 하나님 앞의 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성도들**” 혹은 어떤 번역들은, “**the Godly ones-경건한자**” (시편. 31:23; 34:9; 52:9; 85:8; 132:16; 149:5 그리고 9; 다니엘 7:18; 22 그리고 27:2 골로새서 1:1; 에베소서 1:1). 헤브라이 어로는 “ 거룩, 구별해 놓음, 신성함.” 그리스어로도 “거룩.” 이라고 합니다. 그럼으로 “성도들” 은 하나님에게 영원한 생명을 받을 거룩 혹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

3. F. Brown, S. Driver, C. Briggs, *The Brown -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Hendrickson, Peabody, MA, reprinted 1996), pp. 872,1110. Thayer, op. cit., pp. 40-41.

4. 불행하게도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성경에서 나오는 신학상의 단어에 대한 책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리고 이 책에 단어의 조합 “Church Epistles-교문” 은 보통 바울의 일곱 교문(사실은 아홉 교문): 로마서, 고린도(전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전 후)서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것이 이보다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 디모데 전 후서; 디도서; 빌레몬;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 후서; 그리고 요한 1, 2, 3 서; 그리고 유다서. 이 점들의 어떤 것들에 대하여 논쟁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STF[성경 조사실의 이름 약자] 에서 이 모든 편지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것으로 지적합니다. 이 책, 이 그룹책들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것이라는 문어가 “Scripture to Christians-경은 그리스도인 들에게,” 혹은 “letters (epistles) to the Church-교 에게 편지 하노니,” 라고 이과 비슷한 문어가 있습니다. 동시에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모든 경은 하나님의 감동(호흡)” 그리고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profitable-유익 함”이라고 했습니다 (킹 제임스 번역) 만, 모든 성경이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addressed-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예를 들어서 할레 같은 것들).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 되었지만 전체가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addressed-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5. 그리스도인들의 교에 가 오순절에 시작한 것에 대하여 더 아시고 싶으신 분은 Mark H. Graeser 분의 책, *Defending Dispensationalism* 이라는 책을 보시오 (Spirit & Truth Fellowship International, Martinsville, IN,1999); Clarence Larkin 분의 책, *The Greatest Book On Dispensationalism In The World* (Rev. Clarence Larkin Estate, Glenside, Pa 1920), pp. 12 and 77, “The Church” chart; and Charles C. Ryrie 분의 책, *Dispensationalism* (Moody Press, Chicago, 1995), pp. 124-27

위의 용어들을 대조해서 본 단어 “그리스도인” 은 교문들과 특히 그리스도인들 교에 기록한 것들이 독특합니다. 특히 the Church Age-교회의 세대에 언급한 구원 받은 자들, 은혜의 세대, 곧 오순절 그리고 들림 받음으로 이세대가 끝납니다. “그리스도인” 이라는 단어를 온전히 깨달으려면,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영구한 구원, 이것이 은혜의 시대를 깨닫는 데에 필수적이며, 과연, 성경안에 있는 세대들의 개념입니다.

### **성경에 있는 세대들**

성경에서 가장 truths-진실한 것들 중의 하나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시대마다 다르게 취급해 오시는 역사입니다. 이 시대들, 혹은 세대들, 을 “administration-경영 혹은 “dispensation-통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순종과 불순종을 따라서 “규율”을 바꾸므로 옳고 그리고 풍부하게 사람들을 경고하신 것을 쪽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누가 성경에 있는 경영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이 서로 반대 되는 말씀이 많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만일 남자 아이에게 할례를 주니 않으면, 그가 언약에 가입하지 못한다고 하셨지만, 오늘 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자손들에게 할례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대 에서 세대로 바꾸신 규율들이 넘칩니다. 에덴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오직 채식을 하라고 했는데 (창세기 1:29), 하나님이 홍수 후에는, 사람들에게 고기도 먹으라고 규율을 바꾸셨습니다(창세기 9:3). 또 하나의 또룩한 건본은 안식일에 대한 것입니다. 모세 율법 전에는, 안식일에 대한 특별한 법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모세에게 주고는, 누구든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고 하셨습니다(출애굽기 31: 14). 오늘날 은혜의 세대에는, 하나님이 규율을 바꾸셨음으로 다시 안식일에 일을 하여도 죄가 아닙니다. (로마서 14:5; 골로새서 2:16 그리고 17. 물론 지금도 한 날을 정해서 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세대에서 세대로 결혼 규칙에 대한 규율을 바꾸시는 것에 또 한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모세 율법 전에는 아브라함이 그의 의붓 여동생 사라 와 경혼 했고, 그리고 아내를 하나 이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모세 율법 후, 율법의 세대에서는 하나님이 의붓 형제에게는 결혼을 못하게 하셨지만(레위기 18:9) 아직도 아내를 하나 외에 가지는 것은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교회의 세대에서는, 하나님이 일부다처제 금지해서 말씀하시기를 남자 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 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했습니다(고린도전서 7:2). 세대들이 다른 것들을 앞으로써, 그것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

리고 특히 그 세대에 속한 규율을 없애서는 안될 반대되는 많은 성경 구절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Martin Anstey-말든 앤스테이 분이 쓴 책에 “이 사태에 황금 규율이 세대를 구별 함이고 그러므로 어려운 문제들이 사라집니다.

사도행전 2 장에 유대인의 명절 오순절, 주님이 은사 성령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 주심으로 새 세대가 시작됩니다. 이 새 세대가 교회의 세대인데, 성경에서 이 세대에 부르는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세대]...” (에베소서 3:2), 어떤 때는 성경 선생이 “은혜의 세대”)라고 부르며; “the Administration of the mystery [secret]- [은밀한] 비밀의 세대...” (에베소서 3:9, NASB 번역); 그리고 “the mystery [secret]-[은밀한]비밀” (에베소서 3:3, 4 그리고 9).

불행하게도 많은 영어 번역에 단어 “mystery-신비” 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렇지 않음]. 왜냐 하면, 그리스어 *mysterion*-무스테리온 이라는 말 뜻이 “mystery-신비” 라는 뜻이 아니고 “secret-비밀”입니다. 영어로 “mystery-신비”는 무엇인지 알 수 없는데, 한편 “secret-비밀”은 무엇을 밝히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세대는 알 수 없는 “mysterion-신비한”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나타내시기 전에는 “secret-비밀”이었던 것이 확실 합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Administration of The Secret-비밀의 세대”라고 보는 그대로 평가해야 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것을 다른 세대 들에서는 알리시지 안 했다면, “The Administration of the Secret-비밀의 세대”라고 하시지 안 했을 것입니다.

---

6. 한 남자에 여러 아내를 가질 수 있었다는 세대에 대하여 더 자세히 공부하시고 싶으시면, John Schoenheit 분이 쓴 책, *Sex and Scripture: A Biblical Study of Proper Sexual Behavior* (Spirit & Truth Fellowship International, Martinsville, IN, 2000). P. 25-28.

7. Martin Anstey 분이 쓴 책, *How to Master the Bible* (Pickering & Inglis, London), p. 23

8. 그리스어 *mysterion*-무스테리온 뜻이 “secret-비밀” 이고 비밀은 들어내면 알 수 있습니다 (Vine, op. cit., *Expository Dictionary*, “Mystery,” p. 769; Bullinger, op. cit. *Lexicon* “Mystery,” p. 515; Thayer, op. cit., *Lexicon*, “mysterion,” p.420); 이 사실을 또 에베소서 1:9 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의 비밀을 성경 말씀으로 나타내 주심으로 우리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역사 상, 정통의 교가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것을 “mysterious-신비한”것으로 생각해 왔기때문에 번역할 때 “mystery-신비”로 번역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단어의 뜻이 확실 한데도 불구하고 그의 뜻을 바꾸어 그 단어로 번역의 “hedge-울타리를 치는 것이 똑똑하지 못합니다. Mysterion-비밀 이라는 말을 “mystery-신비”로 번역함으로 대개 성경적이 아닌 잘못된 교훈을 선전 했고, 하나님의 하시는 것들에 혼란스러운, 복잡하게 하는, 이해하기 어렵게 합니다. 더욱 나쁘게 한 것은 “mystery-신비”가 교회의 경건하지 못한 권세자들의 손에 빠져 이것을 이용합니다. 권세를 악용하여 비논리적인[이치에 맞지 않는]것과 성경적인 교훈이 아닌 것을 선전해 왔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들이 (현재까지도) 알 수 없는 “mystery-신비” 로 유지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세대가 “secret-비밀” 이었다는 것을 알고 나면 바로 어떤 질문이 생깁니다: 누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을 까? 이것이 누구에게 감추어 졌었을까? “왜 하나님 이 이것을 감추셨을까?” 언제 어떻게 이것을 알리셨을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이 모든 질문이 이치에 맞으며, 그리고 이 답변들이 교회의 편지들 안에 있으며, 그 편지들이 주님이 교회에게 보낸 것이며, 사실, 대개 이 질문들의 답을 단순히 에베소서 3 장을 읽으므로 “the secret-이 비밀”을 하나님만 알고 계셨지만 구약 성경과 네 복음시대에는 감추셨다는 것과 처음으로 알리신 것이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교회의 교문에서 온 세상에 알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에베소서 3:5

[The Secret-비밀]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 하셨으니

“Secret-비밀”한 것들은 비밀의 세대의 것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 unsearchable-측량할 수[찾아낼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이라고 합니다.

### 에베소서 3:8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찾을 수 없는-unsearchable]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단어 “unsearchable-측량할 수 없는[찾아볼 수 없는]” 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 을 다 “찾아” 보아도 그 풍성한 은혜의 세대를 알리지 안 했다는 것을 확실 하게 표현해 줍니다. 9 절에서는 그 은혜의 세대가 감추었던 것이라고 재 강조 합니다.

---

“mysterion-미스터리안”을 “secret-비밀” 이라고 번역한 성경책들: *The New English Bible*, *The International Standard Version*, David Stern 분의 번역 *the Complete Jewish Bible*, James Moffatt 분의 번역 *The Bible*, J. B. Phillip’s *New Testament*, Charles Williams 분의 번역 *The New Testament in the Language of the people*, Chester Estes 분의 번역 *The Better Version of the New Testament*, Joseph Rotherham 분의 번역 *Young’s Literal Translation*, 과 *The Emphasized Bible*. 성경에서는 전여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불구하고 “mystery-신비” 라고 공포 한 내용을 좀 더 알고 싶으면, Graeser, Lynn, 그리고 Schoenheit 분들이 쓴 책 “A Mysterious-신비한, 그리고 Unknowable-알 수 없는 하나님,” op. cit., *One God and One Lord*, pp. 388-90, 그리고 또 *mysterion-비밀*을 “mystery-신비로 번역한 정보를 더 알고 싶으면, 부록 A, 골로새서 2:2, pp. 512-513 를 보시오. 그리고 또 secret-비밀의 세대에 대하여 더 알고 싶으면, Bullinger 분의 책, op. cit., *How to Enjoy the Bible*, pp. 94-96, 141-44.

### **에베소서 3:9**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주였던 mystery[secret]-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들을 주의 해서 세밀히 잘 읽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성경에 다른 세대에서는 그 풍성한 것을 은혜의 세대 까지 알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풍성한 것이 구약 성경이나 네 복음에도 알려지지 안 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큰 일을 이루어 놓았다는 것을 참으로 알고 싶으면 Church Epistles-교문들 (바울이 교에다 쓴 편지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구절 들에서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것들 안에서 하나님이 특히 크리스도인들에게 “풍성한” 것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비밀, 곧 은혜의 세대가 하나님 속에 감주였었고 또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 하셨으니” 라고 했으므로,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되었을까 하고 질문 하는 것이 당연 합니다. 바울이 기록하기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라고 합니다(에베소서 3:3). 다시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바울에게 계시로 이 비밀을 알려 주신 것입니다.

### **갈라디아서 1:11 과 12**

- (11)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 (12)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비밀의 세대를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알리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안 했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셨다면 예수님이 바울에게 계시로 알리실 필요가 없으며, 또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로 부터 직접 이것을 알게 되었다고 지적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이것이 주님이 일곱 교문에 알리시기 전에 알리셨다면 누가 바울에게 가르쳐 주었을 것이고, 아니면 구약 성경을 읽고 거기서 배웠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것이 비밀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직접 그리스도께서 배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째서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고 난 후 까지 이 misterion-비밀을 알리지 안 했을

까요? 이 질문을 에베소서 와 고린도서 에서 답변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를 교회로 인하여 모든 정사와 권세들에게, 거기엔 마귀와 그의 악귀들도 모두 포함되어, 그들에게 알리고자 하신 것이라고 말해 줍니다.

### **에베소서 3:10**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군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그리스도 교에다 주신 것은 웅장하며, 그리고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야 합니다. 고린도서 에서 왜 하나님이 은혜의 시대를 감추신 이유를 좀 더 깨달을 수 있게 해 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박으시기 전에는 절대로 알리지 안 하신 것을 알게 합니다. 이 비밀의 세대는 굉장히 훌륭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찌나 웅대하든지, 만일 마귀와 그의 악귀들이 알았더라면 그들이 우리의 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지 안 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넘치는 성령으로 부음 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영구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에서 그리스도인 각자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 라” (골로새서 1:27)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이 어찌나 영광스럽고 강력한 힘이든지 사탄이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사는 것이 수 천명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것보다 나았을 뿐 했습니다. 고린도서 에서 이것을 매우 똑똑히 말해 줍니다.

### **고린도전서 2:7 절과 8 절**

(7)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8)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사탄이 그리스도교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주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후에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이것이 비밀인데 “...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정하신 것이라” 이것을 먼저 바울에게 그리고 이것이 교문에 기록 됨으로 온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 장에서 에베소에 있는 은혜의 세대 전에는 알리지 안 했다는 비밀에 대한 똑같은 말을 되풀이 합니다.

## 고린도전서 2:9 절과 10a

(9)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 하시느니라

바울이 "...기록된 바..."를 사용한 이유는 사람의 마음으로는 이 비밀의 세대에 대하여 생각지도 못했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교회에다 "알리셨다"고 구약성경으로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슬프게도, 이구절을 종종 그 구절에 연결되는 말에서 끊어서 사용합니다. 목사들이 설교할 때 이 구절들을 읽어주고 하는 말이 눈으로도 못 보고 귀로도 못 듣는 이유는 하나님이 미래에다 간직해둔 것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설교를 들어보는 것이 드물지 않습니다. 한편 그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구절이 그 점에 대하여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구절들은 구약성경의 인용문이고 또 그때에는 알려지지 안 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교인 들에게 알려진 것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똑똑한 가르침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네 복음을 읽을 때 그 때에 어떤 구절들을 가지고 비밀이 이미 알려진 것으로 해석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결과가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교의 독특한 것을 잃게 하고, 다른 세대들에게 가 아니다는 것과 그리고 깨달음이 흐려지게 하고 혼동을 줍니다. 둘째는, 그 복음 안에 있는 어떤 구절들의 사실의 뜻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어떤 분이 요한복음 3:3 절 "...I tell you, no one can see the kingdom of God without being born from above"(NRSV) – "...사람이 거듭나지[born from above-위에서 낳다]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Kingdom-왕국]를 볼 수 없느니라", 라는 구절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거듭난 것으로 해석 하며, 사실 그리스도께서 첫 부활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도 못 보고 지나갑니다.

---

9.요한복음 3 장을 부록 H. 에서 설명해 줍니다.

## 독창적이고 영구한 잃을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구원

우리가 일찍이 말했듯이,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무조건[조건 없는]이고, 또 영구한데, 하나님은 다른 세대들의 구원은 조건부[조건이 있는]였고, 또 영구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성경 때와, 네 복음 때, 그리고 환란의 세대 때 살다 죽은 사람들은 만일 그들의 마음이 주 하나님을 떠났으면 구원을 잃을 수 있으나,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부모에게 태어나듯이 태어난 구원이므로, 이것이 영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조건부의 구원을 무조건적의 구원으로 변경시키신 것이 큰 은혜를 부어 주신 것이며, 그러므로 이것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세대]...”라고 부르는 이유들 중의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3:2). 고린도후서 3 장에서 이 교회의 세대를 율법의 세대와 비교합니다. 율법이 선하지만 은혜의 세대에 비교하면, 이것을 “...the ministry that brought death-죽게 하는 의문[율법]의 직분...”이라고 부르며(7 절) 그리고 “...the ministry that condemns Men-[사람을 정죄 하는]정죄의 직분...”이라고 합니다(9 절). 사실은 비록 “영광되었던” 율법의 직무가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것이 “...has no glory now in comparison with the surpassing glory-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10 절)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영광이 어찌나 크던지 율법의 영광은 여기에 비하면 “영광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율법 세대에 믿은 자들 보다 상당히 다릅니다. 그 사실은 오늘날 믿는 자들은 그 구원이 영구한 그것을 주로해서 은혜의 세대에 비하면 율법은 “영광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

10. 만일 우리가 이 부록에서 구약성경, 네 복음 그리고 환란세대 안에서 구원이 조건부라는 것을 심하게 치며는 이 화재거리에서 떠나게 될지만, 어찌되든지 간에, 이 범위안에서는 구원이 영구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특정한 문학 작품이 담겨진 구절이 하나도 없는 것을 최소한 밝히겠습니다. 이 범위 안에는 [곧 구약, 네 복음, 환란시대] “sealed-인치심” “guaranteee-보장” 혹은 “New Birth-거듭 난[새로 난]” 이러한 단어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보다 더, 구원이 조건부라는 것을 확실히 밝혀주는 구절 곧 이와 같은 구절들, 신명기 6:25; 에스겔 33:11-16; 마태복음 10:22; 24:13; 그리고 요한계시록 2:10 절 그리고 11 절들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구한 구원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성령이 영원하다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Graeser, Lynn, 그리고 Schoenheit 분들이 쓴 책 op. cit., *The Gift of Holy Spirit*, pp. 13-16, 24-25, 74-80

한번 우리가 구원이 영구하다는 것을 알고 보면 그 사실이 은혜의 시대에 변경되었고, 왜 영구한 구원에 대하여 열성적인 논쟁을 하는 가를 알 수도 있습니다. 많은 성경교사들이 구원이 영구하다고 그들의 가르침에 보강하는 구절들을 줍니다. 다른 교사들은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그들의 가르침에 보강하는 구절들을 줍니다. 왜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까? 이 답에 대부분은 교회의 세대의 구원은 “출생”이고 영구한데, 구약성경 때와 네 복음 때, 그리고 요한계시록 때에는 충성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을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세대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처리하시는 것 보다 성경 “전체”를 통합 하여 구원이 영구한 편으로 선택 하였다가 그들의 위치에 화목 시킬 수 없는 구절들을 발견 함으로 써 이점에 대하여 많은 논쟁이 일어납니다. 성경 구절은 그의 각 세대 혹 경륜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조사해야 되는 것을 한번 알고 보면 구원에 대한 과목이 서로 맞아 들어 갑니다.

주님이 그리스도 교에 영구한 구원에 대한 말씀들을 큰 길이로[많이] 알려 주십니다. 여기에 대조해 보면 다른 단어들, 일찍이 이 부록에서 말씀드렸지만, “saved-구원 받았다” 그리고 “saint-성도,” 등등, 단어 “Christian-그리스도인” (사도행전 11;26; 26:28; 베드로전서 4:16) 이 말씀들 모두가 각사람에게 약속을 해 주었다는 것에 관련 씩니다. 교회의 세대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born-출생 입니다. 단어 “Christian-그리스도인” 이라는 말을 오직 은혜의 세대안에서만 사용 했고 이것을 구약성경 시대, 네 복음, 혹 요한계시록 에서는 사용하지 안 했습니다.

하나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특별하고 독특하게 “거듭난-born again” (새 출생-New Birth 라고도 번역 했음)자 입니다. 하나님이 “거듭난”이라는 단어를 조심해서 선택 하셨습니다. 아기를 낳아야 하면 먼저 아버지가 “씨-seed”(정액)을 기부해야 됩니다. 한번 아기를 나오면, 그 아기를 “못 낳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똑 같은 것을 표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버지의“씨-see” (그리스어: 스펠마-sperma, “seed, sperm-씨, 정액, offspring-자손”) 이 그 안에 있습니다(갈라디아서 3:29; 요한 1 서 3:9). 아버지의 씨가 없어지지 않듯이 하나님의 씨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씨-seed”와 그 “새 출생-New Birth”은 그리스도 교에 독특한 것입니다.

---

11. 교에 해당되는 기록된 말씀안에 좀 어려운 구절들 몇이 가끔씩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잃는 것같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점을 공부해 보면 볼 수록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잃을 수 없는 사실을 끈기 있게 볼 수 있습니다. 영구한 구원에 대한 이해 하기 어려운 구절들 을 다 설명하자면 이 책 과목의 목적이 없어 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주로 시인 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그들의 마음에 믿으므로 “born again- 거듭 난” 자들입니다(로마서 10:9, 10 절). 그 순간에 은사[선물]성령으로 “인치심-sealed”을 받았습니다(에베소서 1:13) 이 성경구절 사실을 더 발전하기 전에, 이 풍성한 은사 성령을 사도행전 2 장에서 말하는 오순절이 되기 전에는 부어 주지 안 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전에는 성령을 받은 믿은 자들이 몇명 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때에, 하나님이 70 명에게 성령이 있는 사람에게서 취하여 나누어 줌으로 모세를 도울 수 있게 했습니다(민수기 11:16-30).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수 백만명인데 70 명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좀더 많은 사람에게 성령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민수기 11:29b). 누구든지 구약성경을 읽을 때 몇 사람만 뽑아서 하나님의 은사 성령을 임하게 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보다 더한 것은 누가 축복을 받아 성령을 받았으나 불순종으로 그것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사울 과 삼손이 성령을 잃었지만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구하옵나니 이번만나로 강하게 하사...”(사사기 16:28) 로 인하여 다시 이것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밧시바와 간음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시편 51:11).

비록 구약성경 동안에는 몇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였었지만, 선지자들이 예언하기를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사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요엘 2:28)라고 했습니다. 이사야가 기록하기를,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이사야 44:3b) 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이 “birth-출생”으로 온다고 한 말은 없고 그리고 영구하고 믿은 사람 안에 인치심을 받는다는 말은 한번도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구약성경 예언에 오는 성령이 아마겟돈 전쟁 후, 왕국을 세울 때를 말한 것입니다. 우리 주로 인하여 그의 교회에 주신 것은 구약성경 때 감추어진 것입니다.

이 은사 성령을 구약성경때에 부어주지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네 복음 세대에도 이 은사 성령을 부어주지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하신 후에도 그의 제자들에게 이것이 오기를 “기다리라” (사도행전 1:4)라고 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지 10 일 후, 그리스도께서 은사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사도행전 2:4 절 그리고 33 절). 베드로가 모인 무리에게 “every one- 각각” 모두가 이 은사[선물]를 받을 수 있다고 확실하게 밝혔습

니다 (사도행전 2:38). 이것이 구약성경 그리고 네 복음과 매우 다르고 그리고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성경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단어로 소통하신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럼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며, 또 어디에서 말씀하시는가에 주의하고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교가 받을 수 있게 해 놓으신 독특한 사실을 알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문학 신약 성경에다 세심한 주목을 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하여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이 매우 특유하며,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그들의 구원과 다른 세대에 사람들이 받은 구원사이를 뚜렷하게 구별해 놓았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born-태어났고” 그리고 birth-출생은 영구[변하지 않은]합니다. 어느 부모든지 한번 아기를 나으면 그 아기가 그 가족이 된 것이 영구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구원이 영구하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출생에 대한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하심으로 지적한 것이 매우 확실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born Again- 거듭난**” 베드로 전서 1:3 절과 23 절에서는 그리스어로 anagennao-애나그네오, 이 단어는 두 단어를 합친 말인데 *ana-애나*는 “again-거듭” 이고 단어 *gennao-재네오*는 “to be Born-출생하다.” *Anagennao-애나재네오* 이 뜻은 문자 그대로 “born again-거듭 나다” 그리고 이것을 그리스도인에게만 특유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경험한 출생에 대한 다른 단어 paliggenesia-팔릭재네시아 라는 말이 디도서 3:5 에서 “**rebirth-중생[다시 출생]**”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말이 palin-펠린, 뜻이 “again-거듭, anew-새롭게” 그리고 *genesis-젠네시스*, 는 “origin, beginning, birth-본원, 시작, 출생” 입니다. 문자 그대로 “new origin-새 본원” 혹은 “rebirth-중생[다시 출생]” 입니다.” 세번째 나타난 단어는 야고보서 1:18, 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리스어로 apokueo-어포케이오 를 birth-낳다 로 번역 했는데, 이 뜻은 “to bring forth from the womb-자궁에서 나오다” 입니다.

세가지 뚜렷한 단어로 “birth-태어난”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각자의 출생으로 구원 받았다는 말을 오직 그리스도인 교에다 쓴 편지에만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을 사도행전 2 장에서 오순절 각자가 새로 출생 하기 전에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지 안 했고, 요한계시록에서 들림 후에 땅에 남은자들의 구원에도 안 했습니다. 이것을 증거해 주는 말씀들이

요한 일서 2:29, 요한일서 4:7, 그리고 이보다도 더 많은 말씀들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born-난” [*gennao-출생하다*] 자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신약성경 전체에서 birth-낳다 라는 말을 사람 아기를 낳은 것을 표준 하여 사용 했지만, 오직 교에다 쓴 편지 안에서는 *gennao-출생하다*라는 말을 사용해서 각자가 영적으로 출생한 것을 의미 합니다. 물론 “하느님으로부터 난”, 이 말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New Birth-새로 태어난” 것을 강조해 줍니다. 그럼으로, 요한일서 3:1 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children-자녀”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마서 8:15)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영구하다는 것을 표시하는 또 하나의 단어를 오직 그리스도 교에 쓴 편지에만 사용한 *huiothesia-휴아띠시아*, 라는 말 뜻은 “양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Vine 이라는 분의 노트에 *huiothesia-휴아띠시아* 뜻이 “누가 그 장소와 환경이 자연스럽게 속하지 않는 데에다 아들을 주는”것을 의미 합니다. 다른 구절들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born-출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어째서 로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양자라고 하는가 하는 질문이 자연적으로 생깁니다. 출생이 양자보다 더 낫지 않는가? 흥미롭게도 로마 세계에서는 그렇지 안 했습니다. 로마사람들은 아기를 낳면, 그가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안든지 “나온 그대로,” 로마 아버지들은 그 아들이 싫으면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12. 요한복음 1:13 절을 명백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13 절을 사용해서 New Birth-거듭 날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오순절 전에도 있었다고 주장 하는 데에 사용 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 시작이 홀 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좋은 증거가 있습니다. 비록 그리스어로는 구원자가 복수 쪽으로 읽기 쉽지만, 유능한 학자가, 교과서의, 전 후 관계의, 그리고 논리학의 이유로, 이 구절들의 시작하는 말씀들이 그리스도를 언급 하지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힙니다. 킹제임스 번역은, 그리스 어 본문과 문자 그대로가 훨씬 더 조합이 잘 되는데, 올케 읽어야 할 점이 “(12b)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에게는, (13) 이는[예수님을, 먼저 말한 “그 이름”다 다시 언급 해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서 난” 자라고 한 것입니다. 이 구절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New birth-새 출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을 말하며, 그리고 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계속 합니다. 이점에 대하여 더 아시고 싶으면 R. C. H. Lenski 분의 책, *The interpretation of St. John's Gospel- 신자 요한의 번역한 복음* (Augsburg Publishing House, Minneapolis, MN, 1961) pp. 63-70, 그리고 Bullinger, op. cit., *Companion Bible*, marginal note on John 1:13.

13. Vine, op. cit, Lexicon p. 24.

한편 다른 쪽은, 로마 법에, 만일 어떤 가족이 아이를 양자 하면, 그들이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양자 한 것이 영구[없애지 못함]합니다. 그럼으로, 로마 문화속에 깊이 물들어 있고 로마법을 잘 알고 있는 곳에 쓴 편지에는, 주님이 “양자”라는 말을 사용 사셔서 그리스도의 구원이 영구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로마서 8:15 절과 23 절; 9:4; 갈라디아서 4:5; 에베소서 1:5).

교에다 쓴 편지 에 하나님에게 나서 그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떻게 되는 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기록한 것이 교에다 쓴 편지에서만 있고 그전 교의 세대의 밖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말이 기록 되지 안 했다는 것을 기억 하세요. 언제 고 하나님 께서 썩지 않을 씨를 그리스도인 안에 넣어 주심은 그가 “a new creation-그가 새 피조물[창조물]” (고린도후서 5:17; 갈라디아서 6:15)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글자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created-창조 했음[만드심]” (에베소서 2:10)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a new Man-새 사람”(에베소서 4:24 킹제임스 번역)이 created-창조된[지으심]이것을 “inward man-속 사람”(로마서 7:22; 고린도후서 4:16 킹제임스 번역) 인 것입니다. 각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하나님의 creation-창조를 “Christ in you, the hope of glory-너희 안에 계신[있는] 그리스도 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 라”(골로새서 1:27)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훌륭하게 지음을 받았지만,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로 “a new creation-새 창조 물”이 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 그토록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속에 “새 사람”이 있어 본 적이 없었고, 그에 게 속사람이 창조되어 있지 안 했습니다. 그토록 훌륭한 애스터 역시도 한번도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가 없었습니다.

In birth-출생 하면, 이것은 부모에게서 자연히 전달되는 후손들 입니다. 사람인 부모들은 그들의 자연으로 사람인 그들의 특성인 아기들을 낳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게 “born-출생” 하며 는, 그가 “...partaker of the divine nature-신성의 참례하는 자가...”(베드로 후서 1:4 킹제임스 번역) 됩니다. 이 말씀은 독특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것입니다. 아무리

---

14. 킹제임스 번역 안에 “양자” 라고 한 이 구절들. 로마 세계 안에서 양자가 영구하다는 내용의 넓은 범위안에서 그리고 잘 취급한 문서로 내 노은 것을 Charles Welch 분의 책, *The Just and the Justifier* (The Berean Publishing Trust, London), pp. 208-13

잘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 교의 세대 전에는 신성의 참례하는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특권이 새 New Birth-새 출생에 따라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Holy-거룩” 하시고 또 “Spirit-영”이심으로,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을 넣으셨으므로, 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nature-성품, 등 등, “holy spirit-성령” 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filled-충만함** (사도행전 2:4)을 받고 그리고 **sealed-인치심**(고린도후서 1:22; 에베소서 1:13)을 받았습니다. “sealed-인치심”의 의미를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은 그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구약성경 때와 네 복음의 때에 사람들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지만, 교에다 쓴 편지에서만 사람들이 성령으로 “sealed-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말을 볼 수 있고 다른 데서는 볼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 장 오순절 전에는, 성령이 믿는 자 안에 특별히 인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조금전에 내 놓은 데서 보았듯이, 구약 성경에서 적어도 두 사람, 사울 왕과 삼손이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잃었습니다. 교에다 쓴 편지 안에 단어 “sealed-인치심”, 성경의 다른 대목들보다 특별하게 다르다는 것을 대비해 보면, 이것은, [은혜의 세대의 구원은] 영구한 구원의 강한 증거가 됩니다. 만일 이 구원이 참으로 영구하지 않다면, 왜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으로 “sealed-인치심”을 받았다고 하겠습니까?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는 우리의 기업에 “guarantee-보증” 이라고 합니다. “Guarantee-보증” (arrabon-아라반) 이라는 말이 오직 교에다 쓴 편지 안에만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2; 5:5; 에베소서 1:14). Zodhiates 분이 *arrabon-아라반* 을 이렇게 말 합니다:

“...진지한 돈, 하나의 서약서, 이것이 거래하기전에 얼마 값을 내 줌으로 앞으로 온전한 것을 받을 것에 확증 합니다. 이 비유를 오직 신약에서만 사용하고 그리고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믿은 자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들의 미래에 와 영원한 기업을 받는다고 장담해 주신 것 입니다.

---

15. Zodhiates, op. cit., *Word Study Dictionary*, p. 257

“Guarantee-보증”이라는 말을 우리가 미래에 받을 구원이 확실하다고 장담해야 되고, 또 그 이유는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이 없었고, 또 네 복음 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이 세대들에서는 구원을 guaranteed-보증 안 했고 혹 장담하지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 성령을 우리의 구원의 “guarantee-보증”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영구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실 이것을 다른 아무것 에다 보증 한다고 안 했으니 무엇에다가 보증 했겠습니까?

구약성경에는 감추었고 교에다 쓴 편지에다 알려준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 교가 그리스도의 “Body-몸”(고린도전서 12:27; 에베소서 1:23; 4:12; 5:23 절 그리고 30 절; 골로새서 1:18 ; 2:19) 이라고 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나 네 복음에서 교가 그리스도와 어찌나 친밀하고 영원히 연결 되었든지 우리를 “the Body of Christ-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몸의 지체는 영원히 붙어 있습니다. 고린도 서에서 발과, 손과, 눈, 그리고 귀를 말합니다. 우리의 손들이 우리 몸의 지체, 그리고 아무도 그 손들이 어떻게 해서 “떨어져서” 몸과 연결이 끊어지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도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조해서, 이스라엘은 “the Body of Christ-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이 특권을 비밀의 세대에 교에다가 예정 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문단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한 외에 는 다른 데는 사용하지 안 했는 가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것 같이 그리스도인은 “in Christ-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영구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개체 단어 *anagennao-애나그네오* (born again-거듭난), *arrabon-아라반* (guarantee-보증), 그리고 “sealed-인치심” 이와 같은 말로만 알려 주신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러가지로 표현 하십니다. 제 6 과목, 미래 왕국에서 보상, 교에다 쓴 편지 대목 대목들에 구원이 영구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10-17 에 수두룩하고, 하다못해 누구의 공력이 불에 타 버리는데 “...자기는 구원을 얻되...” (15 절)라는 것 까지 보여 줍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약속이 없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11-13 도 이 책 6 장에 구원의 영구한 것을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 부록에서 완전하고 굉장한 공부는 할 곳이 아니지만, 로마서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또 하나 건본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 8:36 에서 시편 44:22 절을 인용 한 말씀에 우리가 다 도살할 양같이 되었나이다 했으나 8:37 절에서, “No-아니요”[한글성경 번역은 “그러

나”] (야! 이거야 말로 구약성경하고 얼마나 바뀌었는가), 그리고 말씀이 계속하기를 다른 아무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로마서 8:39)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가혹한 차이가 납니다. 호세아 때에는 이스라엘이 어찌나 하나님을 불순종 했던지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love-사랑]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니라”(호세아 1:6b) 라고 했습니다. 얼마 못되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안으니까, 하나님께서 “...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니라”(호세아 1:9b)라고 더 강조 했습니다. 은혜의 세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으로 인치시고 영구한 구원을 주실 때, 그가 성령의 나타남의 두가지를 더해 주셨는데, 그것들이 바로 방언이고 방언의 통역입니다 (고린도전서 12:10). 방언은 기도와 찬송인데 그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 말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2, 14-17). 이것이 속에 있는 성령이 밖으로 나타남으로 성령이 속에 있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7). 이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4:2). 이것이 각자에게 덕을 세웁니다 (고린도전서 14:4).;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16 그리고 17). 성령의 나타남의 다른 일곱가지는, 거기에는 예언, 기적, 그리고 병 나옴 이 포함해서, 구약성경 과 네 복음 때에도 할 수 있었는데 이것들을 선택한 몇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만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언을 말함과 방언의 통역은 사도행전 2 장 전에는 할 수 없었고 이것에 대한 예언도 그리스도의 부활 후 까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 장에 오순절날 방언이 처음으로 나타나 그리스도인들이 시작해서, 사도행전 초대 그리스도교가 시행한 것이며 (사도행전 2:4; 10:46; 19:6), 그리고 지금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언을 합니다). 성령의 나타남의 이 모든 것들 중에서, 방언을 말함이 방언을 하는 사람에게 그의 속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장담해 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장담과 모든 다른 방언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가 말씀 하시기를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고린도전서 14:5b) 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방언이 그친다고 (고린도전서 13:8) 하는 말을 주목할 만 한데, 도대체 정확하게 언제 이것이 그친다고 했는 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들림 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 같은 것은 구약성경 예언에 천년 왕국에서 방언에 대한 말이 하나도 없

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 끝까지 충성하지 안 해도 구원을 유지한다는 점에 많은 사람의 싸움이 됩니다. 보통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그래,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 별에 별 짓을 다해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요.” 이 말이 참 좋은 논의 같은데, 이것이 사람의 기분의 바탕에서 나온 것이지 성경적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이 우리에게 거슬림이 되었습니까? 성경에 증거 현실은 무척 명확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잃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도 죄를 짓지 안 해야 할 좋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일찍이 보았듯이, 죄가 미래의 보상에 영향을 줍니다. 그보다 더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죄를 지면 그가 죄의 종이 되는데 – 바람직할만한 것이 못됩니다. 그리스인의 구원을 보장해 놓음으로 인하여 각자가 걱정을 놓고 미래에 신경을 쓰고 노력해서 성공을 하든지 실패를 하든지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입니다.

종말로, 비록 이 부록에서 이 주제에 관하여 굉장한 공부는 아니었지만, 교에다 쓴 편지에 이 주제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영구하다는 것에 관하여 조심해서 읽어 보면, 이와 다르게, 구약성경시대, 네 복음 때, 그리고 환란의 때 사말들의 구원은 조건부 이었고 일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대한 같은 단어를 다른 세대들에서도 많이 사용하셨지만, 은혜의 세대에서는 단번에 경험하는 New Birth-새 출생 이기 때문에 독특합니다.

---

16. 은혜의 세대의에 구원의 영구함을 많은 그리스도인 그룹들이 가르쳤고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한 책들도 많이 있으며, 여기엔 Joseph C. Dillow 분의 책, *The Reign of the Servant Kings* (Schoettle Publishing Co., Hayesville, NC, 1992) 그리고 Charles Stanley 분의 책, *Eternal Security* (Thomas Nelson Publishers, Nashville, TN, 1990).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영구 하다고 가르치는 것에 대한 배경을 더욱 더 보여주는, 작은 책: *25 reasons Why Salvation is Permanent for Christians and Becoming a Christian: Why? What? How?* (both available from; Spirit & Truth Fellowship International, Martinsville, IN).

# 부록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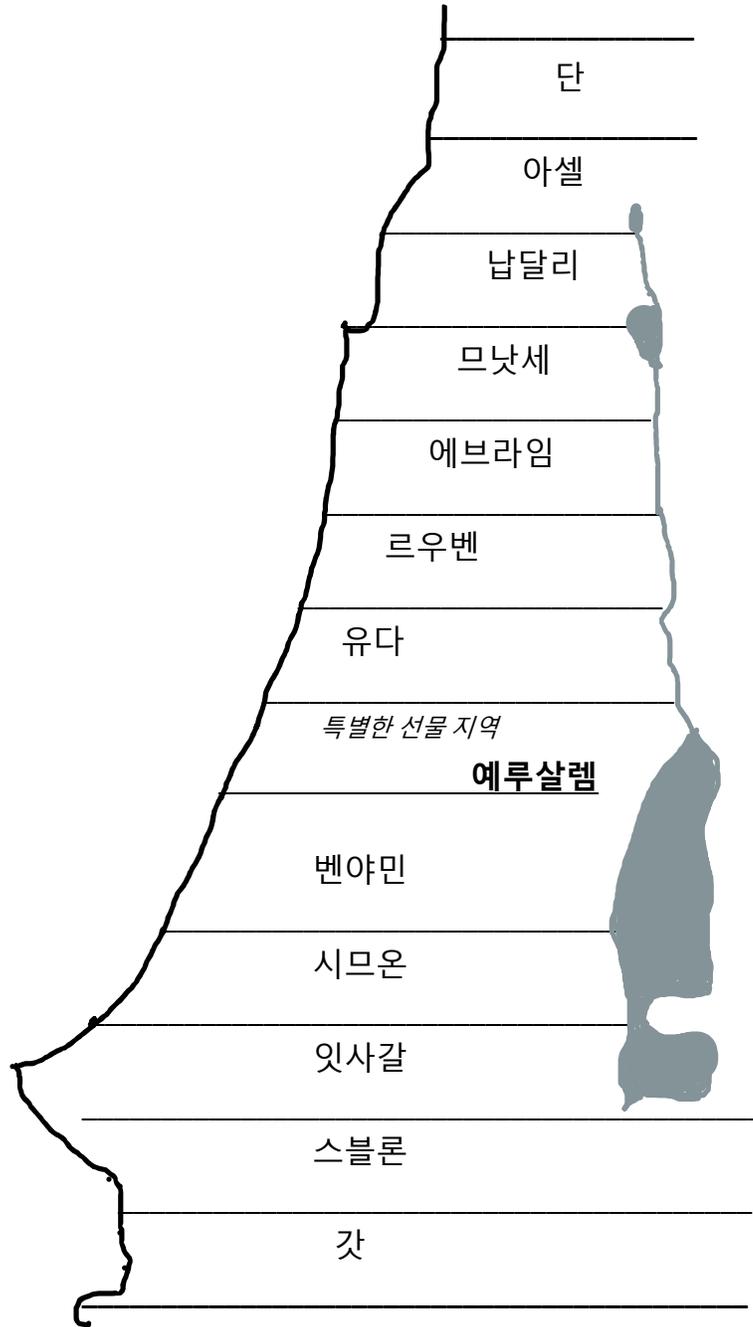
##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분배한 지역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분배한 지역들 (여호수아 13 장-21 장) 을 에스겔 45 장, 47 장, 그리고 48 장 에서 천년 왕국 때에 분배할 지역들을 비교해 놓은 지도

이스라엘 열 두 지파들  
(여호수아가 분배한 것)



이스라엘 열 두 지파들  
천년왕국 때에





## 부록 E

### 틀림없는 예언

성경을 기록할 때 시절에는 히브리어와 아람 말에 관용구가 있었는데, 무엇이든지 미래에 꼭 이루어질 것이면,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해 주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학자들이 이 관용구를 잘 알고 있으며 또 이것을 “the prophetic perfect-틀림없는 예언,” “the historic sense of prophecy-예언의 역사적인 느낌,” 그리고 또 “perfective of confidence-확실한 보장” 이라고 합니다. Semitic-셈 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또한 어떤 때는 “here

---

1. 사실 학자들이 이관용구에 대하여 한가지 이름으로 부르는 것에 동의 하지 않는다 해서 누구든지 이것에 혼동 되지 안 해야 되겠습니다. Idioms-관용구 들은 전형적으로 이름이 없습니다. 관용구는 오직 만일 문법적으로 중요한 주목을 받아야할 만한 내용 끝에 이것에 이름이 필요함으로 토론을 용이하게 합니다. 만일 영어를 못하는 사람 에에 말하기를, “stop on a dime-10 썬트 동전 하나에 중지”, 라는 말을 사용 했을 때, 영어 못하는 분이 이 말의 관용구가 무엇이나고 물어

now, but not yet-지금이나, 아직 아님” 혹은 “already-not yet-이미-아직 아님” 이라고 부르는 관용구도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관용구에 대하여 아무런 지식도 없습니다. 이것은 적절한 그 사실에 그 가세인의 광대한 다수가 곧 Hebrew-헤브라이 말, Greek-그리스 말, 그리고 Aramaic-아람 말 안에 나타나 있는 데 성경을 번역하는 자들이 그 글자 그대로를 영어로 번역 하지 않고 사실 그 문구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럼으로 “prophetic perfect-틀림없는 예언” 이 문구가 영어 성경에는 드물게 의도된 것입니다.

그 번역가들에게 공평한 점은, 영어에는 prophetic perfect-틀림없는 예언 문구를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구들을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인들 거의 다 오히려 성경을 읽을 때 혼동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 말 성경 유다서 14 절에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came 임하였나니” (이와 같이, NASB 성경도 “came-임하였나니”) 라고 했습니다. 성경적 언어 학자들은 이 말이 유다가 단순히 prophetic perfect-틀림없는 예언을 사용한 것을 미래에 주님이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는 것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을 강조한 것을 알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이 구절들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혼동이 되어 가지고 “언제 주님이 수만의 거룩한 자와 임하셨을까?” 하고 궁금해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직 첫 번 이고 한 번 임하셨으며 그때에 그를 따르는 자들은 유다서 에서 말한 예언에 비교하면 매우 작은 무리였습니다.

---

본다면, 그 답은 사실 그 문구의 이름이 없습니다. 주로 문구가 이와 같습니다. 그것들은 각각으로 이름을 주지 안 했습니다. Prophetic perfect-틀림없는 예언에 배당 된 두 이름이 있는데, Bruce Waltke 분과 M. O’Connot 분의 책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을 보시오 (Eisenbrauns, Winona Lake, IN, 1990, P. 490).

2. Dean 과 Susan Wheelock 분이 “Here Now, But Not Yet-지금이고 아직 아님” 에 쓴 책, *Hebrew Roots*, 발행 00-1; Vol. 4, No. 4 (January, February, March 1999), pp. 3-8. James D. G. Dunn 분의 책, *Jesus and the Spirit*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Grand Rapids, MI, 1975), p. 309.

3. 내가 이러한 문구가 “드물다” 고 한 이유는 영어에도 prophetic perfect-틀림없는 예언 같은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엄마가 아들보고 쓰레기 같다 버리라고 부탁 한다면, 아들이 대답하기를 “되었습니다.”라고 대답 했지만 물론 그 일이 아직 실행되지 안 했지만, 포인트는 그가 나중에 꼭 한다는 것이 강조된 것입니다. Prophetic perfect- 틀림없는 예언이 이와 같이, 미래에 될 것을 이미 “된” 것으로 표현 하는 것입니다.

E. W. Bullinger 분의 장엄한 작품 *Figures of Speech United in the Bible*, 이 안에서 말하기를 문자 그대로 미래일을 현재 과거일로 바꾸어 놓은 것을 기술적으로 figure of speech-비유 *Heterosis-히/트로시스* 라고 부릅니다. 이분의 기록에 미래를 과거로 사용함으로 그 일의 확실성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미래 분사를 대신 해서 과거분사를 사용함] 말 하는 사람이 표현하기를 그의 행 함이 이미 된 것으로 말 합니다. Divine-신성의 예언들에 이러한 발언의 공통이며, 비록 그 느끼는 것은 미래이지만 이것에 만족하지 않으므로 Divine-신성한 목적이 기어코 이루어질 것을 결심하므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합니다. 이 형용은 말한 것이 꼭 이루어 진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아마, 가장 현대에 인식해 주는 Hebrew-헤브라이 학자 가 Friedrich Gesenius 분(1786-1842) 일 것입니다. 이 분이 perfect tense-완벽한 문법에 관한 것과 또 이것에 다양한 사용에 대하여 기록 했습니다 (“perfect-완벽함” 을 어떤 때는 “past tense-과거 문법”으로 부르지만, Hebrew- 헤브라이 와 영어는 전적으로 동사를 이와 같이 보지 않음). 하지만 보통 이미 나타난 행함과 함께 협의 하며, Gesenius 분이 기록하기를 perfect-완벽함 을 어떤 점에서는 사실 미래에 사용했습니다. 이 분이 perfect-완벽함을 사용한 노트 입니다:

a) 미래행동을 표현하려면, 말하는 사람이 그의 말 한 것들이 완성된 것과 같이 혹은 성취된 사실들과 동등 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

4. Bullinger 분의 책, op. cit., *Figures of Speech*, p. 518.

5. Hebrew-헤브라이 어와 영어가 동사를 다르게 평가한 사실로 영어 번역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Hebrew-헤브라이 어로 “perfect-완벽함” 문법이 이미 성취한 행동을 전해주는데, 한편 완벽하지 못한 것이 아직 성취되지 안 했습니다. 그럼으로 영어로 어떤 때는 현재에 현재 분사 “imperfect-미 완벽”을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떤 때는 미래로, 그리고 어떤 때는 정보가 부족하게 주어 졌음으로 정확한 동등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b) 사실을 표현하자면 그 immanent-내재하는 (사물을 규정할 수 있는 원인)것을 의심할 수 없고, 그럼으로, 그 말하는 자의 상상에는,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이 perfect-완벽함을 사용함이 예언에 가장 자주 나옵니다 (*perfectum propheticum*-*펼뵁티엄 프로뵁티엄*[Latin-라틴어로 “prophetic perfect-틀림없는 예언 [완벽한 예언]). 예언자가 그의 상상에서 너무도 현실적으로 미래에 들어 갔던지 자기가 하는 말에 장래에 일어나는 사건이 이미 된 것으로 보고 들으며, e.g.-예를 들면, 이사야 5:13 *therefor my people are gone into captivity-그럼으로 내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 잡힐 것이요[사로 잡혔고]*; 9:1; 10:23; 11:9; 19:7; 욥기 5:20; 역대하 20:37. Imperfect-미 완벽을 perfect-완벽함과 같이 자주 주고 받지도 않고 일부나 혹은 더욱이 그 이야기 안에서도 평행하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문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나 히브라이 어-Hebrew 를 공부하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많은 경우에 성경구절들에 아이디어를 couplet-이행 연구로 나타내거나 혹은 parallel-평행으로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흔한데 그 경우들 중의 하나가

6. E. Kautzsch 분의 책, ed., *Gesenius' Hebrew Grammar-제세니우스 헤브라이어 문법*(Clarendon Press, Oxford, 1910). Pp. 312-13.

7. 구약 성경에서 시편과 잠언 만이 Hebrew-헤브라이 사람 시가가 아닙니다. 욥기와 많은 예언서들 안에서도 시가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어와는 다르게 Western poetry-서부 시가, Hebrew poetry-헤브라이 사람 시가는 rhyme-운[다른 단어의 소리와 비슷하게 들리는 소리로 끝나는 단어]의 바탕으로 하지 않고 혹은 rhyme-운 과 parallelism-병행론 길이의 단위도 상관 없습니다. Rhyme-운 은 강조된 수와 강조되지 않는 음절들을 바탕으로 하지 않지만 그 말의 중요한 총 중압 감 혹은 총 강조로 합니다. *Parallelism-병행론*에는, 시인의 생각을 첫 줄 안에서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줄 혹은 줄들에 서는 먼저 줄의 뜻을 성공시키는 말 여러가지를 보내줍니다. 가장 평등한 타입이 synonymous parallelism-동의어 병행론이며, 곧 둘째 줄인데 본질적으로 첫 줄에 있는 생각의 뜻을 되풀이 해 주는 말입니다 (시편 3:1). Antithetic parallelism- 대조 병행론 안에서는, 둘째 줄에서 생각이 첫째 줄 생각과 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시편 1:6). Synthetic parallelism- 합성 병행론 안에서는, 첫 줄에서 생각한 말을 둘째 줄에서 좀더 발전 시켜서 말해 줍니다 (시편 1:1 과 2 절). Emblematic parallelism- 상징적 병행론 안에서는, 첫 줄에서 상상한 것을 둘째 줄에서 직유 해 줍니다(시편 42:1).” *Ryrie Study Bible, Expanded Edition N, New International Version* (Moody Bible Institute, Chicago, 1994), Introduction to Psalms, p. 801

couplets-이행 연구이면 prophetic perfect-틀림없는 예언이고 다른 것은 문자 그대로 imperfect-미완벽 혹은 future tense-미래 문법입니다. Perfect-완벽함이 imperfect-미완벽과 함께 이행 하면 읽는 사람이 이것이 prophetic perfect-틀림없는 예언 관용구를 사용했는가에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 이유는 양편이 다 과거이고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행 연구가 아니면, 보통 전 후 관계와 주로 한 이야기거리가 읽는 사람으로 이것이 prophetic perfect-틀림없는 예언을 사용했는가 안했는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보충해 줍니다. 먼저 예를 들어 말했듯이 유다서 14 절과 같이, 비록 이 구절이 과거로 말했지만 이것이 과거에 실행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다른 구절들이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자들과 오신다고 가리킴으로 인하여 읽는 사람이 이것이 prophetic perfect-틀림없는 예언을 사용했는지 안했는지 밝힐 수 있습니다.

*Young's Concordance* 라는 성경 공부하는 도구의 책을 마련한 분 구별한 학자이고 작가 Robert Young, 이 분이 Bullinger 분 그리고 Gesenius 분과 동의 합니다. 그분의 글에: “과거를 자주 미래에 확실히 실행 될 것으로 표현해 줍니다,” Hebrew-헤브라이 문법가 C. L. Seow 분의 글에도:

어떤 경우에는, 말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의 내제[속표지] 사건의 확실성이 충분히 옹호[지킴]함으로 완전을 사용합니다. 이 완전을 보통, 특히 prophecies-예언들, promises-약속들, 그리고 threats-협박 혹은 위협할 때 사용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Hebrew perfect-히브리 완전을 English present-영어 현재 혹은 even future-미래 행사로 내야 됩니다.

종종 prophetic perfect-틀림없는 예언을 정확하게 번역한 것들은 past tense-과거 동사 시제로 한 것들이 *Young's Literal Translation of the Holy Bible* (YLT)-영스 리털로 번역 홀리 성경입니다. Robert Young-로벌트 영 분이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의 원 뜻을 보관 하는 번역에 매

8. Robert Young, *Young's Concordance*, (Wi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Grand Rapids, MI, reprinted 1964), Hint #60 in "Hints and Helps."

9. C. L. Scow, *A Grammar for Bible Hebrew* (Abingdon Press, Nashville, TN, 1987), P. 93.

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번역이 그때 시절에 보통 번역가 들 보다 매우 다르게 했으며 (1800 년 끝 무렵), 그리고 다른 번역들은 보통 미래인에 그는 왜 과거 동사 시제로 번역했는가에 질문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의 번역에 쓴 머리말에, 제목을 부치기를, “The Battle of the Hebrew Tenses- 히브리어 동사 시제 전투”라고 했으며 거기에 기록이:

과거는 틀림 있을 수도 있고 틀림 없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이 집에서 5 년을 살았다;’ 이 사실을 구별하려면 여기에 연결되는 이야기를 알아야 하는데, 작가가 보고 주장하는 모든 사건에 맞아야 됩니다.

이것의 발생하는 모든 다른 경우는, 이것의 양편 간에 이렇게 가리키는데-

- 1) 하나의 부드러운 명령형 문법, 예를 들면,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나 [sent-보냈나나]” 그리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 주소서 [has given-주었 소]” [왕 하 5:6] 스가랴 1:3 등등을 보세요: 혹은
- 2) 고정된 결정 그 확실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예를 들면,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have given-드렸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has given-드렸으되] 내 동족 앞서 당신께 드리오나 [has given-드렸으나],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 하소서,” [창세기 23:11]; 그리고 그의 대답;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have given-주었으나]” [창세기 23:13].

이와 같은 예를 든 prophetic perfect-틀림없는 예언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너무 많아서 이 부록에 다 내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에 따르는 참고들이 idiom-관용구가 보통이라는 것을 밝히는 데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prophetic utterances-틀림없는 예언의 말씀으로 어떤 미래의 사건 들이 결단코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증해 주십니다.

창세기/6:18. 이 6 장 에 하나님이 노아 에게 방주를 지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지라고 한 후에, 히브리성경으로는 하나님께서 말하시기를 “그리고 너는 방주로 **have come-들어 갔다.**” 아직 그때엔 방주도 건축하지 않았을 때 이었으며, 그리고 그것을 다 지었을 때에

10. Robert Young, *Young's Literal Translation of the Holy Bible* (Baker Book House, Grand Rapids, MI), preface, “The battle of the Hebrew Tenses.”

하나님이 노아보고 “방주로 들어가라” (창세기 7:1)하셨습니다. 창세기 6:18 절에 있는 prophetic perfect-틀림없는 예언이 노아가 결단코 방주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실 하게 해 줍니다. 태반의 영어 번역에는 읽는 사람을 혼동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And you will enter the ark- 그리고 네가 방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YLT 성경은 “...and thou hast come in unto the ark...- ...네가 방주에 들어갈 것이다...” [한글 성경은 “... 너는...그 방주로 들어가고”라고 읽습니다.]

창세기/15:18. 히브리어 성경에 이렇게 “To your descendants **I have given-네 자손에게 주었 노니**” 라고 읽습니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아직 그에게 자손이 없었을 때 그 땅을 주었 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고 약속 하신 것은 그 일이 틀림 없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강조 하신 것입니다. KJV. -킹제임스, ASV, (American Standard Version of 1901), YLT 성경, 그리고 NASB 성경 모두 가 past tense-과거 동사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18:26.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을 구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만일 그 성에 50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 하신 것을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prophetic perfect-틀림없는 예언을 사용 하신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소돔에서 50 명 의인을 찾으면 그 온 성을 **I have spared-내가 보존 했 노라**” 라고 합니다. YLT 성경에 히브리어 성경과 같이 과거 동사시제로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Prophetic perfect-틀림없는 예언의 강력이 연결 된 사연에서 약속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18:28 에, 하나님께서 prophetic perfect-틀림없는 예언을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 문자 그대로 미래를 말씀하신다면 만일 45 명 의인 을 발견 하면 그곳을 멸하시지 “않을 것이니” 라는 뜻입니다.

창세기/41:30.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일곱 해 풍년이 있겠고 일곱 해 흉년이 있겠다고 예언 했습니다. 일곱 해 흉년이 있겠다고 말할 때, 그것을 perfect tense-완전한 동사 시제, prophetic perfect-틀림없는 예언을 사용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요셉이 말하기를, “And there **Have arisen** seven years of famine-그리고 거기에 칠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읽는 자들을 혼동 시키지 않으려고, 영어번역들 거의 다 흉년이 “will Rise – 들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YLT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에 past tense-과거 동사 시제를 정확하게 반사했습니다. 일곱 해 풍년이 아직 올 것이고 풍년 후에 흉년이 올 것이라는 것이 연결된 사연에서 분명합니다. 그런데, 원성경에서는 흉년이 이미 온 것으로 들립니다.

과거와 미래의 일을 쌍 쥘 논 것을, 사연에 연결된 것이 prophetic perfect-틀림없는 예언 관용구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 주며 그리고 흥년이 결단코 올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민수기 21:34.*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오는 때에, 옥, 바산 왕이, 그리고 그의 군대들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으셔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handed him over-네 손에 붙였나니...**” (NIV). 흥미롭게도, 영어번역 거의 다 한글번역까지 합쳐서, 이 구절에서는 보통 하는 데에서 과거 동사 시제로 번역 하고 미래로 하지 안 했습니다. 그러므로, NIV 성경과 한글 성경에서도 아직 싸움이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민수기 24:17.*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을 예언자 발람이 prophetic perfect-틀림없는 예언으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메시아가 오기전 1,400 년이 넘어서, 히브리 성경에, “A star **has come forth** out of Jacob and a scepter **has arisen** out of Israel-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왔으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으니.**” 라고 영어와 한글을 읽는 자들이 perfect tense-온전한 관용구를 혼동 할까 봐 번역가들이 영어성경 거의 다 미래 동사 시제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YLT 성경은 히브리어 석경 past tense-과거 동사 시제를 정확하게 반사해 놓았습니다.

*사무엘상 2:31.* 이 구절은 엘리, 대제사장 에게 선언 예언 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past tense-과거 동사 시제로 읽는데, 문자 그대로 이렇게, “Lo, the days are coming, and **I Have** cut off your arm [i.e., “your strength”]. – 보라, 날이 오리니 네팔과 네 조상의 집 팔[예를 들어 “힘”]을 **내가 이미 끊었노니**,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 찌라. 이 구절을 현대 번역들이 거의 다 미래 동사 시제로 번역 한 것은 현대 인들이 읽을 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NIV 성경은 이렇게 읽습니다, “The time is coming when **I will** cut short your strength.... – 때가 오리니 그 때가 오면 **내가 네 힘을 끊으리니....**” YLT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대로 번역 했습니다.

*사무엘상 10:2.* 히브리어 성경에는 past tense-과거 동사 시제로 이렇게 말 합니다, “you **have found** two men. – 네가 두 사람을 **찾았느니라.**” 현대 번역에는 이 구절을 거의 다 past tense-과거 동사 시제를 미래로 바꾸어 놓음으로 현대 사람이 읽고 혼동되지 않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NIV 성경은 이렇게 읽습니다, “When you [Saul] leave me [Samuel] today, you

**will meet** two men near Rachel’s tomb.... – 네가 [사울] 오늘 나 [사무엘]을 떠나서 라헬의 묘지에 가까우면 두 사람을 만나리니....”

*욥기* 19:27. 이 구절에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에 대한 가장 큰 기록들 중의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욥은 언젠가는 자기가 죽으면 그후에 부활하여 살아나고 그리고 메시아와 함께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어 성경에는 미래의 부활이 틀림없이 된다는 것을 묘사하느 라고 과거에 일어난 것으로 번역 했습니다. NASB 성경은 영어성경들과 같이 거의 다 이렇 읽습니다, “Whom I myself **shall behold**, and whom my eyes **shall see**.... –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보리라....” 히브리어 성경에는 첫 번 동사는 imperfect-불 완전 (예를 들어서, 완전히 끝을 내지 안 했거나 혹은 미래로 했음) 그러나 두 번 째 동사는 perfect tense-완전 동사 시제로 했고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읽기를, “My eyes have **seen him** [the redeemer]. -내 눈이 그를 [구속자] 보았느니라.” 그럼으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문자 그대로 미래를 prophetic perfect idiom – 틀림없는 예언 문구로 짝지어서 욥의 선언을 확실하게 하여 줍니다. 그는 그의 부활이 미래인 줄 알고 있었으나, 그가 이것을 장담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미 된 것으로 말 한 것입니다. 영어성경 거의 다 (YLT 성경은 빼놓고) 읽는 사람이 혼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동사 둘 다 미래동사 시제로 번역 했습니다 [한글성경도 포함].

*시편* 45:7. 시편 45 장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7 절에서 메시아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 하십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Love – 사랑” 은 perfect (past) – 완전 (과거) 로 하고 동시에 “hate-미움”은 imperfect (not yet completed) – 불 완전 (아직 완성되지 않은)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더 자연스럽게 읽으려면, “You **have loved** righteousness, and hate wickedness – 네가 정의를 사랑 했고 악을 미워 하니” 라고 읽습니다. 바로 이것이 Gesenius – 재샌니어스 분의 말에 prophetic perfect -틀림 없는 예언 과 imperfect – 불 완전 미래 예언이 종종 나란히 짝을 지웠다는 것을 포인트 하는 것에 좋은 견본입니다. Prophetic perfect – 틀림없는 예언을 사랑에다 사용하여 강조 하고 미움에다 하지 않은 것을 주목 할 만 합니다. 대적에게 정의를 할당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다스리는 자가 정의를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필수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정의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가 태어나기 1,000 년 전에 prophetic perfect – 틀림 없는 예언으로 했기 때문에 읽는 자가 이것을 확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를 끄는 것은, 현대 번역에는 이

구절을 다르게 취급합니다. NASB 성경 과 ASV 성경에는 두 동사를 다 과거로 하고, 한편 NIV 성경 과 RSV 성경은 동사 둘 다 현재로 번역 했습니다. YLT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을 가깝게 따라 “사랑”을 과거로 “미움”을 현재로 번역 했습니다.

*잠언 11:7. 과 21.* 이 구절은 미래의 unjust - 불공평 과 just - 공평 사이를 재미나게 대조 합니다. 우리가 7 절을 읽어보면, “The hope of the unjust man **has** perished – 불공평한 자의 소망 없어 **졌는지라.**” 히브리어 성경에 과거 동사를 사용함으로 악인 들이 모조리 멸망 당 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강조 합니다. 21 절에서는, 의인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읽어 보면, “The seed of the just **has** escaped – 의인의 자손은 [멸망을] **피하였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또다시, 과거동사를 사용함으로 의인의 구원이 확실 하다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 아직도 미래에 있기 때문에, 태반의 현대 번역들이 악인의 소망은 끊어질 **것이고** 의인의 자손은 [멸망을] **피할 것이라고** 번역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의인과 악인에게 mete – 할당해[값아] 줄 것입니다. Idiom – 관용구를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강조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조심하라고 경고 해 주십니다.

*이사야 9:6.* 이 구절은 메시아가 오신 다는 것을 말합니다. 메시아가 미래에 반드시 오신다는 확실성을, 히브리어 성경에서 과거동사 시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낳기 700 년이 넘은 전에 이사야 가 이것을 기록했으며, 히브리어 성경은 이렇게 읽습니다, “To us a child **has been** born –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났고**, to us a son **has been** given –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and the government **has been** on his shoulders –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and he **has been** called Wonderful – 그를 기묘 자 [훌륭한 자] 라 **불렀고**, Counselor.... – 모사라 [상담자]....” 이 구절에 관하여, 해설자 Edward J. Young 분이 쓴 노트입니다:

이사야 에게 얼마나 깊은 감명을 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한번 관찰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는 아이 출생을 아이가 이미 난 것 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서도 그는 이것이 미래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 다. 이사야 가 과거에 일을 말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이치에 잘 맞지 않기 때문 입니다. 누구의 출생이며, 이사야 전에, 이 구절에서 형용하는 대로 성취한 일이 있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더욱

이, 이 구절에서 말한 난 아이가 또한 7 절에서 예언한 미래에 날 아이  
입니다.

*이사야 11:1 그리고 2.* 이 구절이 메시아가 다윗의 손에서 나온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이 미리 알려 주신 훌륭한 예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prophetic perfect idiom -틀림없는  
예언 관용구를 사용해서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을 강조 하셨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에 관용구 완전[과거] 와 불 완전[미래]을 나란히 짝 지어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A  
shoot **has** come up from the stump of Jesse and a branch out of his roots **will bear fruit** –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났으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열매를 맺을 것이요.” 히  
브리어 성경에는 2 절도 prophetic perfect – 틀림없는 예언으로: “And the spirit of *Yahweh*  
**has rested** upon him.... – 그리고 *Yahweh-야웨*의 신이 그 위에 **쉬시었 나니**....” 현대 성경 번  
역들은 거의 다 미래로 끝까지 번역 했는데 이렇게 읽습니다, “A shoot **will** come up from  
the stump of Jesse and a branch from his root **will bear** fruit –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며** [한글 번역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열매를 맺을** [한글 번역 **결실할**]  
것이요. And the Spirit of *Yahweh* shall rest on him.... – 그리고[한글번역 없음] *Yahweh* –  
*야웨*[한글 번역 *여호와*]의 신이 그 위에 쉬-[한글 번역 강림하]시나니....” 오신 다는 메시아  
가 확실 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prophetic perfect – 틀림없는 예언을 사용해서 나타내셨  
습니다.

*이사야 52 장 과 53 장.* 이 과목들 내용은 이사야 서에서 “Servant Songs – 하인[종] 노래  
[시]”에 관련 시켜 쓴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노래입니다. 흥미  
있게도, 많은 번역이 이 대목만은 히브리어 성경에 perfect tense – 완전동사 시제를 영어  
번역에 미래로 바꾸지 않고 과거 동사로 정확하게 번역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어떻  
게 해서 인지, 번역 가가 어떤 데에서는 prophetic perfect -틀림없는 예언을 잘 번역 했습니  
다. 그래서 영어를 읽는 분들은 번역가들이 한결같이 번역하지 안 했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에 완전동사[과거]인지 불완전동사[미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의 생활과 하  
실 일들을 예언 한 대목이 52:13 절에서 시작 하고 그리고 쪽 53 장 까지 입니다. 아래 내 놓  
은 구절들에 언제 고 NIV 성경에서 prophetic perfect – 틀림없는 예언이 없는 대목을 **진한**  
글로 표시합니다. 만일 NIV 성경에 prophetic perfect – 틀림없는 예언이 있는 대목은 *이탈릭*

---

11. Edward J. Young, The book of Isaiah – 이사야 서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Grand Rapids. 1996), Vol. 1, p  
329.

글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읽는 분이 한눈에 번역 가들이 어떻게 성경번역을 취급 한 것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어에는 불완전동사를[미래] 영어로는 완전동사[과거]로 번역했습니다. 현재 이든지 미래이든지 양편 간에 이것들도 불완전동사[미래]로 번역했습니다.

### 이사야 52:13-15 (이 책 쓴 분의 번역)

(13) Behold, My servant [the Messiah] acts wisely, He is high, and **hath been lifted up** and **hath been exalted**. - 보라, 내 종[메시아]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올렸고** 그리고 **지극히 존귀케 되리라**.

(14) Just as many *have been astonished* at you-his appearance so disfigured more than man, and his form more than the sons of men – 그의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 거니와*.

(15) So he will sprinkle many nations. Kings shut their mouth on account of him, for that which was not told to them **they have seen**, and that which they have not heard they **have understood** – 그가 열방을 sprinkle -뿌릴[한글 번역 놀랄] 것이요. 열 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하지 않은 것을 **보았고**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았는지라**.

### Isaiah 53:1-12

(1) *Who has believed our message? And the arm of Yahweh, to whom has it been revealed?* –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Yahweh – 야위[한글 번역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2) For he grows up as a tender plant before Him, and as a root out of a dry ground. He has no form or majesty that we should look upon him, and no beauty that we should be attracted to him –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 He is despised, and rejected by men, a man of sorrows, and acquainted with sickness. And like one from whom men hide their faces, he is despised, and we *esteemed* him not –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은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지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 Surely our sicknesses *he has borne*, and our pain-he *has carried* them, and

we have esteemed him plagued, smitten of God, and afflicted –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셨고[한글 번역 지셨고 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았으며[한글 번역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5) Yet he was *pierced* for our transgressions, *bruised* for our iniquities. The punish-  
ment that made us whole was on him, and by his wounds there is healing to us – 그  
가 찔렸음[한글 번역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했음[한글 번역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whole-완전함[한  
글 번역 평화]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느니라[한글 번  
역 입었도다].

(6) All of us like sheep have wandered, each has turned to his own way, and Yahweh  
*Has laid* on him the iniquity of us all –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Yahweh-야웨[한글 번역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시  
키셨도다*.

(7) He was *oppressed* and he was *afflicted*, yet he opens not his mouth. As a lamb to  
the slaughter he is brought, and as a sheep before its shearers is silent, so he opens  
not his mouth –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웠을[한글 번역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  
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 하였도다.

(8) By oppression and judgment he was *taken away*, and among his generation who  
Considers that he was *cut off* out of the land of the living? For the transgression of  
My people-punishment to him – 그가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  
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9) And they make his grave with the wicked, but with a rich man in his death, alth-  
ough he *had done* no violence, and no deceit in his mouth – 그가 강포를 행치 아  
니 하였고 그 입에 궤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10) Yet it was Yahweh's will to bruise him, He *has made* him sick. If his soul becom-  
es an offering for guilt, he shall see his offspring, he shall prolong his days, and the  
purpose of Yahweh will prosper in his hand – Yahweh-야웨[한글 번역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Yahweh-야웨[한글 번역 여호와]의 뜻을 성취 하리로다.

(11) Because of the anguish of his soul he will see-and be satisfied. By a Knowledge of him, of him, the righteous one, My servant, will justify many, and their iniquities he shall bear –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릴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12) Therefore I give to him a portion among the great, and he will divide the booty with the strong, because he poured out his soul to death, and he was numbered with the transgressors. For he bore the sin of many, and makes intercession for the transgressors – 이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대목 이사야 에 많은 완전동사들과 불완전동사들이 있습니다. 어쩐지 에디오피아 네시가 빌립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청컨대 문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킵 이뇨? 자기를 가리킵이뇨 타인을 가리킵이뇨? (사도행전 8:34) 20/20 hindsight [20/20/하인 싸일 라는 말은 사건이 일어난 후에 과거의 사건이나 행동을 이해함] 으로 보아서 오늘날 그리스도 인들은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동의 합니다. Prophetic perfect – 틀림없는 예언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미래에 메시아가 성취하실 것들을 확실하게 강조 합니다.

*예레미야 21:9.* 이 구절에서는 사람들이 바벨론 에게 항복하면 살아서 생명이 보장된다는 어떤 정보를 알려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이렇게 읽습니다, “Whoever goes out and Has surrendered...will live.... – 누구든지 [갈대아 인에게] 나가서 항복한 자는...살리니....” 물론 이 때에 아무도 아직 항복 하지 안 하였으며, 그럼으로 현대 번역에는, “...whoever goes out surrenders...will live....”라고 읽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prophetic perfect idiom – 틀림없는 예언 관용구를 나란히 짝지어서 사용한 좋은 견본입니다. “Surrendered-항복”은 perfect tense-완전 동사시제[과거] 로 하고 “will live-살리니”는 imperfect tense-불완전 동사시제 혹

12. 이 대목을 Septuagint – 뽀투진 성경에도 과거와 미래를 섞어 놓았고, 그럼으로 하다못해 에디오피아 내시 역시도 그리스어로 된 구약성경을 읽어도, 아직 그가 읽는 그 사람이 이사야 의 과거에 산 사람을 말 하는 것인지 미래의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혼동 된 것입니다.

미래동사시제 로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성 안에서 말했으며, 그럼으로 예레미야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 에게 나가지도 아니했고 항복 하지도 안 한 자들에게 말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든지 “had surrendered-항복했으면” 살 것이라고 하십니다.

요엘 2:21-24. 이 구절들에서 천년 왕국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땅에 가득할 것을 말하는데 이 축복이 이미 되어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prophetic perfect-틀림없는 예언을 사용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약속 하신 것이 실패하지 않는 다는 것을 장담하신 것입니다.

#### 요엘 2:24

(21) Be not afraid, O land; be glad and rejoice. Surely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s –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찌어다 LORD-주 [한글번역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다.

(22) Be not afraid, O wild animals, for the open pastures are becoming (lit., “**have become**”) green. The trees are bearing (lit., “**have borne**”) their fruit, the fig tree and the vine yield (lit., “**have yielded**”) their riches – 들짐승들이 두려워 말찌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문자. **났으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문자. **맺었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 (문자. **냈**) 도다.

(23) Be glad, O people of Zion, rejoice in the LORD your God, for he has given you the autumn [former] rains in righteousness. He sends you abundant showers, both autumn [former] and spring [latter] rains, as before – 시온의 자녀들이 너희는 너희 하나님 LORD-주 [한글 번역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찌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려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24) The threshing floors will be filled (lit., “**have overflowed**”) with new wine and oil –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문자. **넘쳤도다**).

C. F. Keil 분, 히브리어 학자 이고 잘 알려진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in Ten Volumes*, 책을 같이 쓴 작가분이 요엘서 에서 이 구절들에 완전동사[과거]를 사용한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완전동사[과거]는 말하는 사람이 보기에 그의 관점에는 사실 이미 완성된

것과 같고, 그곳에 이미 있는 것과 같고, 혹은 그것들이 과거에 속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말하는 사람의 행위 곧 그 뜻 혹은 생생한 장식은 이미 완성된 것과 같으며, 다시 말해서, 짐작에 조건 없이 모두 확실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현대 언어로는 현대동사 [혹 미래]입니다. 그 최근은 바로 여기에 사용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예언자가 divine-신성한 약속의 현실을 내놓을 때, 질문할 수 없이 확실하고 완성되었으나, 비록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겨우 시작이며, 최근 혹은 더 멀리 떨어진 미래 입니다.

비록 요엘의 말한 약속한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안 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perfect tense-완전동사[과거]로 인하여, 그것들이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 진다고 강조 합니다.

스가랴 12:10. 영어 성경 번역 거의 다, 번역자들이 히브리어 성경에 있는 past tense-과거 동사시제를 영어 번역에, 얼마는 그대로 했지만 전부를 하지 안 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이렇게 읽습니다, “And I **have poured out** on the house of David, and on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a spirit of grace and supplication, and they **have looked** upon him whom they **have pierced**, and they **have mourned** over him, as one mourns over an only child, and they weep bitterly for him, as one weeps over a first-born –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었나니, 그의 그 찢린 바 그를 바라보았고, 그를 위하여 애 통했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 하듯 하리로다.” 이 구절이 메시아가 이미 오셔서 찢린 것으로 여기게 하지만, 스가랴가 이 말을 할 때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500 년 전이었습니다. Prophetic perfect – 틀림없는 예언이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희생이 확실 하다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약 성경에도 히브리어의 idioms-관용구들과 문화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 W. Bullinger 분의 말씀에 의하면, 히브리어 idiom – 관용구와 문화가 그리스어 성경에도 반사했다고 설명합니다:

항상 기억해야 할 그 사실,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되어 있지만, 그 작인들과 성령으로 지시 받아 종사한 사람들은 히브리인 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

13. C. F. Kei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in Ten Volumes, Vol. X, Minor Prophet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Grand Rapids, MI, reprinted 1975), PP. 204-5

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그 “입” 그리고 목구멍 과 소리내는 줄과 호흡이 사람이었고, 말씀은 divine-신성이었습니다.

Phenomenon – 특이한 일[기적]은 아무도 알 수 없으며; 혹은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는 가를 설명할 수도 없는데: 성령의 인도가 현실이라는 것을 믿었고 받았으며, 그러나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고려된[이유가 되었던]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동시에, 그 *말은* 그리스 사람, *생각들과 idioms-관용구들*은 헤브라이 사람입니다.

이것을 계산한, 어떤 것에, 신약성경의 그리스의 비난 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훌륭한 작품의 예가 되지 못하고; 동시에 다른 것은 되며, 그들의 변호한 걱정이, 그리스의 작가의 훌륭한 예의와 나란히 사용하려고 노력했기 때문 입니다. 어쩌면 둘 다 신약 성경에도 *Hebraisms - 히브라이사람 주의*: i.e.- 예를 들어, 히브라이사람 표정 전달 과 생각이 그리스의 말 안에 있는 것을 인식한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Bullinger 분의 말이 히브라이사람 idiom – 관용구가 그리스성경에 들어왔다는 말이 맞으며, 그리고 비록 그분의 말에 신약성경만이 본래 그리스어라고 하지만, 본 그리스어 밑줄에 아람말이 그어져 있고 또 셈 어 맛이 들어있습니다. 마태와 요한이 분명히 자기네 본토 말 아람 어로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성경들을 그리스어로 번역 했을 것입니다. 따르는 대목은 신약 성경에 있는 prophetic perfect – 틀림없는 예언들의 견본들 입니다.

---

14. Bullinger, op. cit. *Figures of Speech*, pp. 819-20.

15. 신약 성경에서 prophetic perfect – 틀림없는 예언을 사용한 견본 둘이 요한복음 4:23 절과 요한복음 5:25 절 입니다. 이 두 구절 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a time is coming [literal] and has now come [prophetic perfect].... – 때가 오리니 [문자 그대로 미래] 곧 이때라 [틀림없는 예언]....” 요한 복음 4 장 23 절에서 앞으로 올 성령을 말 하신 것인 데, 그것이, 비록 아직 오지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 하신 것이 반드시 미래에 약속하신 그대로 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 장에

에베소서 2:6. 이 구절이 말하기를, “And God **raised** us up with Christ and **seated** us with him in the heavenly realms in Christ Jesus. –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이 구절이 보통 현대 번역 들 거의 다 그리스어 번역과 같이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번역한 것들이 문제를 만듭니다. 성경에, 대체적으로 번역자들이 “prophetic perfect – 틀림없는 예언”을 읽는 자들이 혼동되지 않게 하기위해서 미래로 번역 했습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동사 시제를 과거동사 시제로 번역했다는 것을 익숙하게 보지 못합니다. 그럼으로, 누가 읽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앉히셨으니” (과거동사 시제), 라는 말을 알 수가 없는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미래에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을 것이라고 도움되는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F. F. Bruce 분, 잘 알려진 언어 학자 이고 성서 학자분이 특별히 에베소서 2:6 에 대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은 Pauline – 폴린 모임집[구조 주요 부분] 어느 곳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의 아이디어 입니다.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깨달음은 하나님에 목적을, 그의 사람들에게 – 하나의 목적을 이루신 다는 그것이 매우 확실함으로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현재는 문자 그대로 땅에 있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으로, 우리가 머리를 올려서 하늘을 봅니다. 골로새서 3:1 에서 이와 같이 말해 줍니다, “...set your hearts on things **above**, where Christ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 “...위엿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

죽은 사람이 부활때에 살아난다는 것에 대한 것이며, 이것을 요한복음 5:28 절에서 확실하게 포인트 해 놓았습니다. 그럼으로, 예수님도 같은 idiom – 관용구를 구약 성경에서 기록한 것 같이 사용하셨습니다. 그가 미래와 짝지어 놓았는데, “...a time is coming...” - “...때가 오나니...,” 이것은 문자 그대로 미래 이며, thenon-literal – 그리고 또-문자 그대로 같이하여, “...and has now come...,” - “... 곧 이때라...” 이 두 문단을 합쳐서 사용 함으로, 듣는 자가 혼동되지 않고, idiom-관용구를 사용함으로 반드시 일어날 관 경이 확실 하다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16. F. F. Bruce,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The Epistle to the Colossians, to Philemon, and to the Ephesian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Grand Rapids, MI, 1984), p. 287

에베소서 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하고 있는 동시에, 골로새서 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합니다. 분명히, 두 구절이 다 문자 그대로라고 할 수 없고, 또 성경은 서로 반대 할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가 문자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현재 땅에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 “위에” 계십니다. 에베소서 가 prophetic perfect – 틀림없는 예언을 사용함으로 미래에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을 것을 강조 합니다.

유다 14. 이 구절은 예녹의 예언이며 그리고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읽습니다, “The Lord came with ten thousands of His holy ones.” –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자와 함께 임하셨나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주께서 아직도 임하시지 않으셨지만, 그의 오심이 너무도 확실함으로 그 예언을 이미 된 과거동사시제로 했습니다. 우리가 “prophetic perfect – 틀림없는 예언 idiom – 관용구” 같은 것이 번역자들을 애매한 위치에 놓은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혼동 시키고,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소통하는 강력한 무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prophetic perfect – 틀림없는 예언” 에 대하여 많은 중요한 견본들이 성경에 있으며, 그리고 이것들을 철저히 다내 놓으려면 매우 어려운 수집입니다. 그러나, 위에 내놓은 견본들이 앞으로 많은 사건들을 과거로 말하는 것들이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 질 일들을 강조 해 준다는 교훈에 족할 것 같습니다.

Prophetic perfect – 틀림없는 예언이 신약 성경에 많은 부분을 어떤 때는 “salvation, – 구원,” “justification, – 정판,” “redemption, - 구제,” glorification, - 영광을,” 그리고 “adoption, - 양자,”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진 현실이고 어떤 때는 그것들이 아직도 미래로 되어있는 가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인정하듯이, 이것이 신약성경을 깨닫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가끔씩 그리스도 사이에 다툼 까지도 하게 하는 결과를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8, “...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구절은 우리가 지금 구원이 진행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18, “...but to us who are being saved It [the cross] is the power of God” –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아직도 미래라고 한 말씀이 (로마서 13:11, “...our salvation is nearer now than when we first believed” –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8, 에서는 말씀이 이렇게 “helmet-투구”가 그

리스도인의 구원의 소망”)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 구원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려야 합니까? Prophetic perfect – 틀림없는 예언이 이 질문을 깨닫게 해 주는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죽음과 죄의 대과에서 건짐을 받아서 현상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도 죄와 싸움 하고 그리스인들이 매일 죽는 것을 봅니다. 이 구원이 문자 그대로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은 진행하시고 계시지만, 완전한 구원은 아직도 미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새 몸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죽음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죄와 질병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선물]성령으로 나눔을 받았고, 그것은 “...a deposit guaranteeing our inheritance until the redemption of those who are God’s possession...” –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에베소서 1:13 과 14 절; 고린도후서 1:22; 5:5). 우리의 구원은 사실 *guaranteed* – 보증 되었다라는 뜻을 성경적 idiom – 관용구에서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죄와 병과 죽음때문에 매일-매일 시름 하며 살고 있을 지라도, 우리가 “구원 받은” 자들로 여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래에 반드시 가질 것을 성경에서 과거와 미래 동사 시제로 말해 놓았습니다. 성경에 믿은 자들은 이미 구속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24; 에베소서 1:7; 골로새서 1:14), 그러나 또 구원을 기다린다고 (로마서 8:23; 에베소서 1:14;4:30) 말해 줍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양자 받았다고 (로마서 8:15) 합니다.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로마서 8:30) 하는데 또한 우리의 영광을 미래에 받을 것으로 (로마서 8:17 그리고 18; 그리고 골로새서 1:27 에서 우리에게 “소망의 영광”이 있다고 함)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의롭다고 (로마서 5:1) 말하고 있으나, 갈라디아서 5:5 에서, “...we eagerly await through the Spirit the Righteousness for which we hope” –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어로 “justified – 정당한” 과 “righteous – 정당한 말이 영어와 보다시피 한글로도 똑같은 말입니다).

성경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투는 것은 마치 여섯 봉사가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다고 다투는 격이 됩니다. 각자가 코끼리의 몸 부분을 잡고서 자기가 만짐으로 느끼는 것이 확실히 맞다고 열성적으로 방어하는 격이 됩니다. 코끼리 다리를 잡은 사람은 그 코끼리가 나무같이 생겼다고 하고, 그 귀를 만진 자는 부채같이 생겼다고 하고, 그 코 대

를 만진 자는 코끼리가 뱀같이 생겼다고, 남은 자들도 이와 같이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인들도 신약 성경에서 다른 구절들을 가지고 이 구절이 문자 그대로 사실이고 저 구절은 맞지 않다고 성경이 서로 반대하는 것 같이 서로 다투기 시작 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우리 그리스도 사회에 진리[사실]를 세울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었기 때문에 서로 반대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언어, 문화, 그리고 idiom – 관용구를 성경 시대들에 따라서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때 말하기를 “아하! 그들이 이것을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다”하고 기록한 것이 물론 아닙니다. 바울이 사용한 단어와 문단이 사실을 드러 냅니다. 사실을 Prophetic perfect idiom – 틀림없는 예언 관용구로 드러낸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구원, 구제, 혹은 영광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게 하기 위함 입니다. 비록 이것들이 아직 온전한 현실로 이루어지지 안 했다는 것을 이해 하지만, 언젠가 주님이 오시면 그리스도인 들 안에서 현실 하고 있는 성령과 예언의 확실한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보장 합니다.

---

17. Hazel Felleman 분의 쓴, ed., *The Best Loved Poem of the American People – 미국 사람들이 가장 즐기는 시*, “The Blind men and Elephant – 봉사들과 코끼리,” John Saxe, (Doubleday & Company, Inc., Garden City, NY, 1936) pp. 521-22.



## 부록 F

### 어려운 잠언을 깨닫다

잠언에 어떤 구절들, 또한 성경 어떤 대목들도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가 미래의 심판 과 보상에 대한 지식을 모르고 읽으면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구절들이 상식과 구절들 둘 다에 contradict-반대 됩니다. 이 점에 좋은 견본들의 하나가 잠언 15:10

잠언 15:10 (NASB 성경-1995)

Grievous punishment is for him who forsakes the way; He who hates reproof will die –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이 잠언 말씀 둘 다 어디에다 지적 하는 것이 모자라게 나타납니다. 마지막 말씀이 더욱 더 혼동을 주니까 이 말씀을 먼저 취급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고 말씀하시는 데 이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은, *모두다*, 견책을 싫어하는 자이든지 싫어하지 않은 자이든지 다 죽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경 교사들은 이렇게 부합리한 속에서 그 말씀을 건지 려고, 그 말씀이 “때가 차기전에 일찍 죽는”사람들 에게 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젊어서 죽는 사람에게 해당 된다고 다 툭니다. 이러 한 설명이 옳지 않으며, 그리고 둘 다 보통 경험하는 것에 위반하고 또 성경을 contradicts - 반대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경험하는 것에 위반이라고 한 것은 많은 훌륭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일찍 죽는 가 하면 한편 많은 못되고, 사나운 사람들과,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래, 오래 장수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반대 한다는 것은 성경이 보통 경험의 증거를 드러내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악한 사람들이 종종 오래 살고 번창한다고 말하며, 어떤 때는 이것이 알 수 없는 수수께끼며 가끔씩 이것이 의로운 사람에게 하나의 가시가 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성경이 증언 하는 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생에서 누구에게든지 좋은 일 이든지 나쁜 일 이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정의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믿는 세 사람이 욥의 miserable comforter – 괴롭게 하는 위로 자 들이었습니다. 욥에게 매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자손들이 그들의 집에 있을 때 집을 폭풍으로 다 쓸어 버림으로 인하여 다 죽고, 그의 적이 그의 모든 가축들을 다 가지고 가고, 그리고 그가 독종으로 몹시 아프게 되었습니다. 이 “miserable comforter-괴롭게 하는 위로 자들”의 말을 마무리하여 한마디로, 욥에게 숨은 죄가 있음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합당한 죄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먼저 엘리바스가 말 합니다.

---

1. 오직 그리스도인들이 Rapture – 들림 받을 때에 살아 있는 자들만 이 것들에게서[다들 죽는 것에서] 제외 합니다.  
 2. Kathleen A. Farmer, 이 분이 쓴 책, *Who Knows What is Good?* (Wm. B. Eerdmans Publishing Co., Grand Rapids, MI, 1991), p. 79.  
 3. Graeser, Lynn, and Schoenheit 분들이 쓴 책, op. cit., *Don't Blame God!* 이 책에서 위에서 말한 것을 포인트 해서 이렇게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욥기 4:7 (엘리바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욥이 엘리바스가 잘못 말한 것을 밝혀서 그가 죄진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말입니다.

욥기 6:24 절 과 29 절

24)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 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29) 너희는 돌이켜 불의한 것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돌이키라

내 일이 의로우니라.

빌닷이 자기가 보기에 신체적으로 “증거”해 주는 것을 보아서 죄를 진 것이 확실하고 강하게 생각 함으로 말을 꺼냅니다.

욥기 8:2-4 절 과 20 (빌닷)

(2)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3)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는가?

(4) 네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20)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 즉....

이러한 논의가 욥과 그의 “친구들” 사이에 오고 가고 합니다. 그러다가 욥이 21 장에서 말해 주는 말이 이 논의에 결정 되는 말이 되었어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경험에 대한 논의와 나머지 성경에서 하는 말씀들과 함께 동의 되는 말입니다.

욥기 21:7-15 (욥)

(7)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8)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9)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10)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배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11)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 보냄이 양 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12)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13)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14) 그러할찌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15)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랴 하는구나

욥만이 악인의 번영과 장수하는 것에 대하여 그에게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 [prophet-예언자] 예레미야가 매우 어려운 생활을 살아 왔는데, 그럼으로 여호와 주님께 말하기를 어째서 악인이 번영 하느냐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12:1 절 과 2 절

(1)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자의 길이 형통 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연고니이까?

(2) 주께서 그들을 심으시므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주 여호와께 이 세상 사리에 불공평한 것과 악인이 의인을 유용하는 것 같은 사실 때문에 매우 씁쓸하게 불만 했던 내용입니다:

하박국 1:2, 3 첫 반 구절 그리고 13 절

(2)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이리이까?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3 첫 반)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영어번역 “you tolerate wrong?- “주께서 패역을 용인 하시나이까?”]

(13)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귀찮은 자들을 방관 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전도서에서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보는 것이 악인들이 의인들 보다 더 잘  
사는 것같이 보인다고 합니다.

전도서 7:15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시인 아삽 이 또한 분 성경을 쓰신 분이데 그분도 역시 이 세상에 악인이 강하고 번성하  
는 불공평한 것에 대하여 많은 관심 걱정이 있었습니다.

시편 73:3-5 절 그리고 12

- (3)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 (4)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 (5)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 (12) 불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하도다.

아삽이 자기의 주위에 본 사실이 그를 그의 경건한 생활하는 것에 질문이 생기게 한 것입  
니다.

시편 73:13

내가 내 마음을 정히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  
되도다

아삽이 혼동 된 속에서 회복 되었고 그리고 악인들의 마지막이 어떠한 것을 깨닫고나서  
보니 자기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생각 할 때 사는 생활에 새 힘을  
주었습니다.

시편 73:16 절과 17 절

- (16)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17)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사람들의 결국을 깨닫는 것이 경건하고 원기 왕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것이 또한 성경에 어떠한 어려운 구절들을 깨달을 수 있게 해 주는 필수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비록 악인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번창하겠지만, 그리고 사람의 수명대로 늙을 때 까지 살더라도, 결국은 ruined-파멸 (시편 73:18), “destroyed-전멸된” (시편 73:19), 그리고 그들은 “perish-멸망할 (요한복음 3:16) 것입니다. 곡식을 까부른 겨와 같이, 바람에 날라가고 (시편 1:4), 혹은 쪽정이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리거나 (마태복음 3:12),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말라기 4:1). 그들은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집니다 (시편 37:20). They will exist “no more” – 그들은 “없으리로다” (시편 37:10), 그리고 그들의 등불 (생명) 은 “꺼지리라” (잠언 24:20). 행악자는 장래가 없습니다 (잠언 24:20). 언제든지 잠언 15 장 10 절과 비슷한 다른 구절 들에서 견책[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혹은 악인은 “죽을 것 이라”고 하는 말들이, 대체로 마지막 (혹은 두 번째 죽음) 흰 보좌 심판 후에 불 못이 일어나 거기서 타서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 15 장 10 절이 마지막 심판때라는 것을 한번 알고나서 보면, 그 구절 첫 번에서 한 말이 무슨 말인지 확실해 집니다. 한편 “도를 배반 하는” 자들의 생활에 “괴로운 형벌”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많은 냉정한 범죄인들이 범죄를 거듭 범하는 데에도 아무런 일이 없이 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일 악인이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부자 고, 강하고, 그리고 나이 많을 때까지 살았으므로 인해서 그 잠언이 사실이 아니게 됩니까? 아닙니다, 비록 보기에 는 이 사람들이 “괴로운 형벌을” 면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들을 계산 하는 날이 와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행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 15 장 10 절 과 또 이와 비슷한 말들이 “틀린”말이 아니며, 혹 “보편적으로 어떤 때는 사실일 수 있다고 한”말도 아닙니다. 이것들은 깊은 메시지들이고 또 하나님이 인생 삶을 보실 때에 다만 영원한 삶의 관점으로 보신 것입니다.

---

4. 잠언 15 장 10 절 과 이와 같은 비슷한 구절들을 이세상 사는 동안에도 가끔씩 해당될 때가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이 세상에서 축복하실 수 있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세상 생활에 축복하는 이 것이 첫째로 하는 뜻이 아닙니다.



## 부록 **G**

### **주님이 심판을 지금 하십니까 아니면 심판 날에 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오늘날” 판단하시는 것으로 믿고 있으며, 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일이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나쁜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사천 년 전에 욥의 친구들이 이러한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이 대 대로 오늘날 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많은 성경 구절들이 이러한 믿음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보충해서 가리키는 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판단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한번씩 이러한

---

부록 F 를 보시면 욥의 친구들에 대하여 좀더 특유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제외 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의 생활 하는 것을 판단 하시지 않지만, 심판 날 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에 판 단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 부록에서 하나님이 육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판단 하시지 않지만,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미래 심판 때에 상을 잃는 해를 받을 것이며, 부끄러움, 그리고 “벌을” 받을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점들을 더 확실하게 밝히는 동안에 구절들이 서로 반대 되는 문제들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어떤 구절들은 육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죄를 자복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죽으면 그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고 심판을 받아서, 상을 잃는 해를 받고, 벌을 받고 그리고 부끄러워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구절들 에서 어떤 구절들은 이 책 6 과목에 서 고린도전서 3:10-17; 고린도후서 5:10; 골로새서 3:23-25; 데살로니가전서 4:3-6; 디모데후서 2:12; 그리고 요한일서 2:28, 구절들을 취급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구절 들은 말 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justified –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로마서 5:1; 고린도전서 6:11)고 하며, 거룩함 (고린도전서 6:11), 그리고 accepted -받아 주셨다 (로마서 15:7)고 합니다. 이러한 구절들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적으로 살아도 상을 받지 않을 것이며 해를 받지 않고 혹은 부끄럽지도 않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성경은 절대로 서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언제 고 구절들이 서로 충돌하는 것 같으면,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한쪽을 선택하여” 그 한 구절을 선택하지 않고, 한 구절, 한 구절 씩 서로 대조해 보는데 그 반대 되는 것 같이 보이는 한 구절 을 같은 말을 하는 다른 많은 구 절들과 어떻게 화목 시키는가 하는 것에 부지런히 노력 해 야 되겠습니다. 만일 확실한 구 절들 아홉 이 있는데 한 구절이 그 이야기에 맞지 않는 확실 하지 않는 구절이 있으면, 정직 함과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 확실하지 않는 한 구절을 다른 아홉 구절들에 맞게 할 수 있는 가에 결정해야 되겠고 아홉 확실한 구절들을 무시해 버리고 확실 하지 않는 한 구절을 찬성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록에서 선뜻 보기에 서로 반대하는 구 절들을 서로 화목 시켜 드리 겠 습니다. 하나님께서 육 적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지 금 판단하시지 않지만,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진정 상을 잃는 해를, 부끄러움, 그리 고 “벌을” 그 심판날에 받을 것입니다.

2. Graeser, Lynn, and Schoenheit, 분들이 쓴 책 op. cit., *Don't Blame God!*, pp. 95-116.

3. Spirit & Truth Fellowship International, op. cit., *22 Principles of Bible Interpretation*, pp. 2-3; Bullinger 분의 책, op. cit., *How to Enjoy the Bible*, pp. 327-34; Panin 분이 쓴, op. cit., *Bible Chronology*, pp. 19- 21; Kay Arthur 분이 쓴, *How to Study Your Bible* (Harvest House Publishers, Eugene, OR, 1994), pp. 73-76.

언제든지 우리가 전공[주이야기 거리- subject]을 논의 할 때는, 우리가 그저 semantics-의미론을 가지고 다투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적인 죄에 뒤엎힌 생활 속에서 회개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punish-신원[형벌]한다”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 서 4:6).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확하게 어떠한 벌을 준다고 성경은 밝혀주지 않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받는 존경자리 보다 못한 자리를 받을 것이라는 것은 확실 합니다. 언제 고 성경에서 “punish-형벌”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그것이 “suffering loss-해 받음” 과 동등한 것으로 사용 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뜻은 보상을 받아야 할 만큼 못 받는 것이며, 혹은 아주 작은 상이거나 혹은 아주 상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Suffering loss-해 받음 [상실하는 해]”의 설명을 하자면 그것이 벌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동안에 행한 그대로 받는 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 줍니다. 만일 그들이 상속을 아주 작게 받거나 하나도 못 받는 것이 벌을 받는 것입니다.

---

4. 어떤 번역은 “punish-형벌”을 “avenger-복수자”로 사용했습니다 만 기본적으로 뜻하는 것은 모두 같습니다. 그리스어로 “an avenger-복수 하는 자, a punisher- 형벌주는 자”라고 뜻 합니다. “Avenge-복수자 뜻은 “누가 자신에게 잘못을 했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잘 못한 것에 벌을 지워 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언제 고 동기가 vindicate-정당화 할 때 혹은 정의로 다스린 끝에 혹은 언제 고 정당화 자격이 이르렀을 때 잘못을 행한 자에게 벌을 주는 것에 사용 합니다. “Avenge-복수를 하다,” 이 말의 설명은 “punish-벌”의 설명과 같으며, 고침 혹은 수정의 태도의 개념이 포함되지 안 했습니다. Vine, o p. cit., *Lexicon*, p. 82; *Merriam Webster’s Dictionary of Synonyms* (Miriam Webster, Incorporated, Springfield, MA, 1984, p. 78

5. Suffering loss-해 받음 [상실하는 해] 과 “punish-벌 받음” 사이에 동등한 가능성이 담겨진 것을 강하게 말해주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3:15 절 “suffer loss-해 받음 [상실하는 해] 라는 말을 또한 “suffer damage-피해 받는 해” 라고 혹은 “suffer punishment-벌을 받는 해” 라고도 번역 할 수 있습니다. Vine, op. cit., p. 691; Louw and Nida, cit., *Lexicon*, p. 490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는 형벌을 주어야 할 아무런 목적이 없는 것으로 믿는데 그 이유는 그 때에는 사람들이 모두 modified 수정 되었고 [고쳐졌고] 혹은 변화 받았으므로 경건하지 못한 행위들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는 것은 “punishment-벌”에 대한 기본 상식을 놓쳐 버립니다. Punishment-벌은 죄나 혹은 위반한 것에 벌금 혹은 consequence-결과[대가]입니다. Punishment-벌 이라는 뜻은 “잘못을 저지른 자에게 형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Punishment-형벌, 이 말의 definition-정의, 설명에 의하면, 이것이 어떤 사람의 행위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보다, 이것은 죄, 범행, 혹은 잘못에 consequence-결과[대가]입니다. Punishment-형벌은 정의에 극히 중대한 부분인 것은, consequence-결과[대가]가 없으면 거기엔 정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벌은 받는 동안에 태도를 옳게 하게 하는 동기를 주기 위하여 사용 합니다만, definition-정의, 설명으로는, 바르게 고치는 것은 punishment-형벌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just-정당하고 그럼으로 구원 받지 않은 자들을 불 못으로 던지고 그래서 타 없어집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변하는 태도가 없습니다. 그들은 간단히 그들의 땅에서 행한 그들의 Consequence-결과[대가]를 받은 것입니다. 사형법을 하나님이 구약 성경시절에 살인자들과 범죄자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처방해 주신 것이지만 그들의 행위를 고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점에서 알아 두어야 할 중요한 것은 이 punishment-형벌이 꼭 때림 들, 채찍 들, 가한 고통, 등등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하지 못한 생활로 인해서 상속을 못 받는 것이 punishment-형벌을 받는 것이며, 잘못을 저지른 데에 형벌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행위를 고치기 위하여 designed-의도된 consequences- 대가들에 대한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Chastise-벌하다[...을 몹시 비난하다] 보통 이 뜻은 벌을 강하게 줌으로 그의 행함을 보여 줌으로 그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고칠 수 있게 하는 뜻입니다. “Chasten-벌하다[억제하다, 지나치지 않게 하다]” 이 단어 뜻은 보통 벌을 줌으로 고치게 하는 암시입니다. “Discipline-훈련, 징계” 이 단어 뜻은 종종 벌을 줌으로 인하여 절제심을 재 건설하는 데에 사용합니다. “Correct-바르게” 이 단어 뜻은 종종 벌을 줌으로 목적을 향상 혹은 개정하는 암시를 합니다. 이렇게 하여, “chastisement-벌, 심한 비난” “chastening-벌, 억제, 지나치지 않게”

6. 사형 죄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정의에 매우 중요한 조직이었습니다. John Schoenheit 분의 책, *The Death Penalty-사형 죄가 Godly or Ungodly?- 경건 하나 불 경건하나?* (Spirit & Truth Fellowship International, Martinsville, IN, 2000).

7. 이 설명들은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라는 사전에서 가져 온 것임 (Houghton Mifflin Comp

“discipline-훈련, 징계” 그리고 “correction-교정”, 이러한 단어들 사람이 바르게 하고 나  
아지게 하고 행위를 고치게 하기 위하여 내놓은 punishments-벌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단어들은 판결[심판]에다 가는 관계로 사용하지 안 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이 판결, 심  
판 받는 것은 “correction-바르게 함,” chastening-벌, 억제, 지나치지 않게 함,” 혹은 “disi  
pline-훈련, 징계함,” 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각각 그들이 행한대로 상  
을 받고 상을 잃고 하는 데 그들이 과거에 어떻게 행한 대로 consequence-결과, 대가를 받는  
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6 절에서 “punish-신원[벌]”이라는 단어를 성적으로 죄에 뒤엎히고 그  
죄를 자복하지 안 한 자들 에게 판결때에 어떠한 것을 표현 해 줍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  
님이 말씀하시기를 불순종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consequences-결과, 대가가 있다는 것이  
며, 그리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년 왕국때의 임무를 제사장들  
과 레위 지파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그들의 첫 생에서 그에게 충성하지 않은 자는 반드시  
그들이 “...consequences of their sin-그들의 죄를 담당 하리라” 하셨고 그리고 또 그들이  
“...must bear the shame of their detestable practices-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에스겔 44:10-13) 했습니다. 그들이 첫 생에서 죄 속에서 살았고 그리고 그  
죄에 는 대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판결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간단히 “will suffer loss-손상 해를 받으리니”라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15). 사람이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10).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골로새서 3:25). 누구든지 주를 부인하거나 혹은 그리스  
도교회 [성전]를 mar red-망쳐놓으면[더럽히면] (디모데후서 2:12) 혹은 marred-망쳐놓으면  
[더럽히면] (고린도전서 3:17). 성경은 판결때에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옳게 고쳐서  
바르게 함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Consequences-결과, 대가 가 첫 생에서 “일”한 값을  
받은 것입니 다. 일을 잘 했으면 공의보상을 받습니다. 일을 잘못했으면 그 공의 손상을  
받습니다.

---

Pany, Boston, Third Edition, 1996) 그리고 *Merriam Webster's Dictionary of Synonyms*, op. cit., p. 653.

8. “mar-망쳐 놓다” 의 설명과 어떻게 설명해 놓은 것을 고린도전서 3:17 을 과목 6 에서 설명해 놓은 것을 보세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 누가 그의 생활이 불 경건한 스타일로 살고 한번도 그의 죄를 회개 하고 자복하지 안 했으면 하나님이 주신선물인 생명의 생활을 낭비한 “punished-벌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이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14).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그것을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으므로 이자도 붙지 못하게 한자에게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 종이 그 받은 것을 유용하여 그 달란트의 이익을 내지 않은 것을 보고 주인이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25:26 절 과 30 절). 이 비유에서 말하는 종과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달란트를 “talents-재능 들”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자기를 희생하여 피로 구원 시켜 주셨고, 성령을 주심으로 능력 있게 만들어서, 그리고 인도하는 말씀과 쓰여진 참조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준 “talents-재능들”을 땅에 묻어버리고 자기 생활을 허사로 낭비해 버리는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겠 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들은 “accepted-인정된”자 그리고 “justified-정판 된”자들이기 때문에 이 뜻은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에서 suffer loss-손상의 해, shame-부끄러움, 혹은 Punishment-벌을 받지 않는 다고 합니다. 이렇게 혼동된 말이 맞는 말이 아닙니다. 첫째는, 성경에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에서 손상과 부끄러움이 있을 거라고 가리키는 확실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28 의 말씀이, “그가 나타나신 바 되면” 만일 우리가 그를 순종했으면, 그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만일 우리가 순종했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암시 합니다. 디모데후서 2:12 (킹제임스 번역) 에서 if we endure, we will reign with Christ in his Kingdom, but if we deny him, he will deny us-우리가 견디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왕국에서 왕 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부인하면, 그가 분명히 suffer loss-손상의 해를 받는 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이 지금을 말하는 것이 아

---

9. 그리스어로 “talent-달란트” 가 저울에 달아서 주는 수공 비(어떤 돈은 저울에 달아서 줌) 이었는데 “happy coincidence-좋은 행운”인 것은 영어로는 “talent-달란트” 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준 재능-talent-텔런트와 스펠링이 똑 같습니다. 이리므로 영어로는 이 비유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준 talent-재능이 talent-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버린” 종의 비유와 똑같은 뜻을 영어로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니고 미래에 대하여 말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3:24 절에서 말씀이 누구든지 주 그리스도를 섬기면 유업의 상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뜻은 미래 왕국에서 유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 절에서는 누구든지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의”를 행한자와 같이 미래 심판에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교에다 쓴 편지 외에도 이러한 구절들이 기록한데 마태복음 16:27 에 있는데, 이 구절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갚으신다고 하시고 요한계시록 22:12 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속히”오신다고 하셨고 또 그가 줄 상이 *그에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희미하고 이 말에 반대되는 듯한 구절들은 이렇게 확실하게 말해주는 구절들을 비추어서 이해 하여야 됩니다.

둘째로, 왜 하나님께서 육의 사람들을 지금 판단하시지 않고 심판 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이유는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지금 “판결” 받는 결과를 보지 못하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과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 사이가 확실히 다른 것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버젓이 내놓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에 나가고, 그들의 시간과 돈을 주고 그들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매우 순종하는 생활을 합니다. 한편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교회를 가지만은, 주님을 순종하려고 신중히 각오를 세움이 없으며, 그리고 그러기 보다는 여러가지 죄에 뒤얽힌: 거짓과 사업에서 떼어먹는가 하면, 간음을 범하고, 불법 마약을 사용하고 그리고 혹은 여러가지 불 경건한 활약에 참가합니다. 여러분은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게 판결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모든 면으로 훈련 받고 그들을 그리스도인들 누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서 확실하게 구별해 놓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들[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자주 아릅니까? 그들이 더 일찍 죽습니까? 그들의 사업이 더 자주 망합니까? 그들의 자동차가 더 자주 부서집니까? 그들이 더 작은 집에서 살고 옷도 별로 없습니까? 그들의 생활을

---

10. 디모데후서 2:12 절 NIV 번역에서 단어 “disown-부인하다” 가 잘못 인도합니다. 우리가 상을 잃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에서 disown-부인을 당하고 영원한 생명에서 disown-부인 당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비극으로 삽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들은 모두 “아니요” 입니다. 사실, 순진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육적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못 사는 것을 더 자주 보이는 것 같은 때가 많습니다.

물론 육적인 그리스도인들 누가 이 세상에서 그들의 행위의 consequences-결과, 대가를 받는 것이 가끔씩 있습니다. 어떤 마약 중독에 걸린 그리스도인들은 그 더러운 주사 바늘로 인하여 AIDS-에이스 병에 걸리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운전을 너무 빨리 하다가 사고로 인하여 다리병신이 되든지 혹은 죽는 자들도 있고; 어떤 부정한정치가 그리스도인들은 나쁜 일을 하다가 들켜서 감옥소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인 여자들은 “여기저기 잠자리” 하다가 임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현재 판단하시니까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그가 판단 하실 때에는, 한사람은 판단하시고 한 다른 사람은 그 죄를 넘겨 버리시지 안 하십니다. 사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죄만 대가를 받는 것을 보아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리켜 주는 것이 확실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어리석은 행위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대가를 받거나 혹은 그들이 적의 침범을 당했을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한 “공평한 판단”을 받지 못합니다. 어떤 살인자는 사형을 받는가 하면 어떤 살인자는 몇 년 감옥 생활하고 나옵니다. 어떤 도둑은 몇 년을 감옥에 갇히고 어떤 이는 parole-석방 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결이 오시면, 이것이 공평합니다. 각 사람들에게 행한 그대로 받을 것이며, 그저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행한 죄의 대가에서 “한 부분만” 받지 않습니다.

---

11. 부록 F 에 악인이 형통하고 죄 없는 의인이 고통받는 것에 대하여 더 많이 설명해 놓았습니다.

12. 이 모든 행위들이 그리스도인을 구원에서 무마시키지 않습니다. 누가 육적인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래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이 책 다른 부분들 에서 취급해 놓았습니다.

사실은 이 지구[세상]가 전쟁터 입니다. 선에서 나오는 권력과 악에서 나오는 폭력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사탄과 그의 악한 폭력의 힘으로 “...흠치고 죽이고 그리고 멸망함...” (요한복음 10:10). 사탄이 정신과 육체에 병을 줍니다 (누가복음 8:26-36; 13:10-13).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 하고 어떤 때는 막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18).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 에게 가시를 줍니다 (고린도후서 12:7).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양편 다 victims-희생자 [상해]자 입니다. 이러한 동안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support-지원[도와] 하여 주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in all things-모든 것 속에서]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28). 하나님이 그의 사람들을 “의의 무기”로 갖추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7). 한발 더 나가서, 주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5) 라고 하십니다. 이럼으로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고 육 적인 교만한자는 대적하시지마는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축복해 주시려고 열심히 일 하십니다. 전쟁이 맹렬할 때에는 죄가 없는 자나 악한 자나 casualties-사상자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 상태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판단하신 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성경과 생활 상태를 보아서 하나님께서 지금 판단 하시지 않는 다는 것이 확실 한데, 그가 심판 날 까지 기다리셔 가지고 미래에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justified-정판 했고 혹은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만일 이 말이 심판에서 훈련 받지 않는 다는 뜻일 것 같으면, 지금도 훈련시키지 않는다고 말씀 하셨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각각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안에서 판결 받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정판을 받았다고 하는 위치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로마서 6:1-8 에서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고 그리로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밝히 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 구절이 그들이 손상의 해, 부끄러운, 혹은 벌을 심판때에 받는 것 이라면, 그 구절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지금에도 벌을 받을 수 없다는 뜻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인용한 구절들 에서는 아직도 육 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때는 suffer loss-손상의 해, 부끄러움, 혹은 벌을 받는 다고 확실하게 말 해 줍니다. 확실한 구절들의 바탕으로 해서 논리학으로 이것들이 미래 심판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결말을 집니다.

13. 지구[세상]에서 일어나는 재난이 단지 선과 악 사이에 전쟁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사람의 자유 뜻 안에 결정에도 있습니다.

14. 이점을 Graeser, Lynn, 그리고 Schoenheit 분들이 쓴 책, op. cit., *Don't Blame God-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pp. 9-40, 145-53.

언재이고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의 righteousness-정당함, justification-정판, 그리고 acceptance-받아들임 을 말 할 때에는, 이것이 영원한 보상에 관계 됩니다. 각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취한 일때문에 righteous-정당하고 justified-정판하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보다 더 큰 상을 주는 것을 보면, “justified-그 정당하다” 와 “accepted-받아들임” 이 보상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똑같은 상을 받는 다는 소리인데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Salvation-구원, justification-정판, 그리고 acceptance-받아들임 은 믿음으로 충당합니다. 보상은 벌어야 되고; 보상을 잃는 것도 “벌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각각 그리스도인들이 심판대 앞에 나타날 때에 모두다 흠 잡힐 것이 없기를 고대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한 생활 스타일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신령한 은사[선물]를 받았습시다 (고린도전서 1:7; 에베소서 1:3). 그들은 순종과 신성에 장비가 갖추어졌습니다. 한층 더, 언제든지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골로새서 1:22 그리고 23

(22)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23)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군이 되었노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마다 그의 사는 태도에 책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값어치 있는 부르심에 그리고 그가 주신 은사[선물]와 능력안에서 그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심판대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서서 우리의 들은 바 소망에 거하면 이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 부록 H

### “거듭나야 하리라”

#### 요한복음 3:1-10 절 에서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의 설명

요한복음 3 장에서 미래에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하여 힘있는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숙한 번역과 잘못 가르침의 결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실의 뜻을 완전히 숨겨버렸음으로 인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이 대목 부록에 목적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명백하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3:3).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야 하리라” 하실 때에 그 뜻은 첫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그이야

기는 구약성경에서 명백하게 선언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리라” 라고하는 말을 그리스 도인의 시대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사용하는 말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말을 은사[선물]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니고데모에게 이스라엘 인 에게 관하여 이스라엘나라의 그 소망, 곧 첫째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가장 좋은 공부 는 요한복음 3 장 자체를 읽는 것입니다.

#### 요한복음 3:1-10

- (1)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 (2)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 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 (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 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 (4)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삽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삽나이까
- (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 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 (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 (7)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 (8)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 (9)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 (10)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 하느냐

이 기록에, 니고데모, 하나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접근하여 대화를 걸었습니다, 그 바 리새인들은 그리스인들 과 같이, 몸이 죽으면 “soul-혼”이 나와서 계속 사는데 좋은 곳으로 가거나 혹은 고통 받는 데로 가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잘 못된 믿음을 잘 알 고 계셨고 그래서 이기회를 타서 니고데모에게 그 첫째 부활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도우신 것입니다. 그는 니고데모에게 직접 필요한 것, 말하자면,

죽음, 부활, 그리고 미래 생명에 대하여 잘 못 알고 있는 것을 고쳐 주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아는 데에 노력 하려면, 아래에 따르는 포인트를 각각 조심 있게 생각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 1) 니고데모, 하나에 지식 있는 자 그리고 하나에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알았어야 했던 것은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드러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 2) 요한복음 3 장, 그리스어로 번역하기를 “거듭나다-born again”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그리스도인이 “거듭나다-born again”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 3)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다”에 말씀하실 때는,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이것이 완전히 다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 4)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새로 거듭나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 5)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소망에 관하여 사실의 기록한 말씀, 곧 첫째 부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는 니고데모에게 장차 오는 그리스도인들 세대를 예언 하신 것이 아닙니다.

첫 번 포인트 생각은 니고데모 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알았어야 하고 알고 있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대화 중에서 순수 하게 두 번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실을 가르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한 니고데모가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았어야 된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이것들을 구약성경에 뚜렷하게 내 놓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surprised-기이히 [이상히] 여기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7 절 끝 반). 니고디모가 기이히[이상히] 여겼는데, 그러지 안 했어야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니고데모를 가르쳤으나 아직도 그가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좀더 강하게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하셨습니다 (10 절). 이 두 꾸짖으심을 보아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을 줄로 기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보고 교문에다 드러낸 새 생명을 모르느냐고 꾸짖으신 것이 절대로 아니었던 것은 구약성경에서는 이것을 예언하지 안 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예언들에서는 천년 왕국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라고 했지만, 사도행전 2 장에서 성령을 부어 줌으로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시작된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모로 보아서 어떤 면은 비슷한 점이 있지만 이것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구약성경에서 말한 예고는 *환란의 세대가 끝난 후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때 그때 에 성령을 부어줄 것을 말한 것이며, 그럼으로 이것이 그리스도인 교회에다 부어주는 성령으로 연결시킬 수 없는 것은 이것이 지금 현재에도 시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며, *아직 환란의 세대가 미래에 있기때문*입니다. 한 거름 더 나가서, 구약성경에는 사람들이 그가 부활 하기 전에 성령으로 “born-태어남”과 그리고 “sealed-봉인 됨[인치심]”을 받았다는 현실이 없습니다. 구약성경에서는 몇 사람들만 성령이 임했으므로 그가 축복을 누렸고 죄를 지면 (사울 왕과 삼손 과 같이)그 성령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비록 구약성경에서 성령이 온다고 예언을 했지만,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성령이 넘치도록 가득히 부어 줌을 예언한 것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 뜻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리스도인들의 New Birth-새로

---

1. 이 점에 대한 증거서류를 부록 c 에서 보십시오.

2.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이 그리스도인들의 거듭남과 같다고 한 아이디어가 사도행전 2 장 16 절(킹 제임스 번역)에 베드로가 한 말,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에서 나왔습니다. *The Companion bible* 안에 E. W. Bullinger 분이 부록 전체를 다 이 subject-점에 대한 것과 과 phrase-단어의 조합 [문법] 을 “this is that-이것 은 저것” 을 베드로가 사용한 것들을 내 놓았습니다. 그의 시작이: 이것이라는 말에 ‘이것’이 무엇이라고 한 말이 없고 그리고 ‘저것’이 무엇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단어 ‘this-이것’ 은 emphatic-어조가 강한, 그리고 단어 ‘but- 그러나’ 이 말이 베드로의 논의에 시작, 거기에 따르는 안에 대조합니다. 이것이 술에 취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을 물리치는 것을 보입니다(사도행전 2:13). 그럼으로 지금까지, “these men-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과는 멀리, 이 표적 과 기사를 증거하였다는 ‘this-이것’, 그 사도가 말한 것은 ‘that-저것’ 곧 요엘이 예언한 말세 에 일어날 것 (똑같은 것) 이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들이 말세라고 하지 안 했지만, 그러나 저것이 이것 (저것을 따르는)이 바로 요엘이 말하는 말세입니다. 그는 이것이 ‘then was fulfilled-그 때에 달 성했다,’고 하지 안 했으며 또한 ‘as it is written-기록했듯이,’라고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예언자가 말한 것과 비슷한 것인데 아직 미래에 있는 것을 말함으로 그 선지자에게 사람들의 시선을 끌은 것입니다. Bullinger 분이 사도행전에서 주는 성령에 대한 평가 다 맞습니다: 이것이 비슷하지만, 천년 왕국에서 성령 주는 일과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Bullinger, op. cit., *Companion Bible*, Appendix-부록 183.

3. 구약성경 예언들이 언제 성령을 부어주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 교회에다 성령을 부어주는 것과 이스라엘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두 사이가 다르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데에 매우 중요하고 도움이 됩니다. 구약성경 예언들이 모두 합창으로 그 성령을 환란 후// 그리고 왕국 에서 성령을 부어준다고 합니다. 이사야 32:15; 44:3; 59:21; 에스겔 39:29, 그리고 요엘 2:28 이 모든 구절들이 환란 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언급[돌리다]합니다.

태어남에 대하여 자기가 하시는 말을 못 알아듣느냐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구약성경에 있는 부활에 대하여서는 알고 있을 것을 기대 하셨습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이 믿고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그들이 “born-태어나”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예를 들어서, birth from above-위에서 내려온 태어남) 산다는 것을 드러내 줍니다. 한번 그들이 무덤에서 나오면 예수님이 땅에다 세우신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사실 요한복음 3 장에서 그리스어를 “born again-거듭나다”라고 번역한 것이 교에다 편지 한데에서 “born again-거듭나다”라고 번역 한 그리스어가 다릅니다. 이것을 보아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 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새로 태어난 것과 다르다는 것이 이해가 가며,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달라야 하는데, 그 것이 다릅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번역자들이 이 조합 단어를 “born again-거듭나다”로 요한복음과 베드로서에서 똑 같이 번역한 것이 맞지 않은 것은 그리스어로는 이 두 군데에 다 다른 말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한 것으로 인하여 요한복음에서 드러내 주는 사실을 잃어버렸습니다. 베드로서에서 둘 다 “New Birth-새로 태어난[한글번역 거듭난]” (베드로전서 1:3) 그리고 “born again-거듭난”이라는 말을 그리스어로 *nanagennao-애나그네오*에서 번역한 것인데, prefix-접두사 *ana-애나*, 그 뜻이, “again-다시” 혹은 “over again-거듭,”이고 그리고 *gennao-그네오*, 이 뜻은, “to beget-로 낳다” 혹은 “give birth-출생 하다” 입니다. 베드로서에서 “born again-거듭나다” 라고 번역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이 “born again-거듭 낳다”고 하는 것이 옳게 하는 말입니다.

*Anagennao-애나그네오*에다 대조해 보면, 요한복음 3 장에 “born again-거듭나다”로 번역한 단어 조합은 그리스어로 두 단어: *gennao-그네오* 그리고 *anathen-애나뎨*입니다. *Gennao-그네오* 뜻은, “to beget-로 낳다,” 그리고 *anathen-애나뎨* 뜻은, “from above-위에서,” “from the top-제일 높은데 서로” 혹은 “from the beginning-시작으로” 라고 합니다. *Anathen-애나뎨*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데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51 절에 성소 휘장이 “top-위로부터” (*anathen-애나뎨*) 아래까지 찢어졌을 때 었습니다. 이 말을 또 요한복음 3:31 절에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하는 말이: 위로부터 (*anathen-애나뎨*) 오시는 이 는...” 에서 사용했습니다. 여기에서, 번역자가 *anathen-애나뎨*을 “from above-위로부터”라고 옳게 번역했습니다. 야고보서 1:17 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anathen-애나뎨*)....” 이라고 읽습니다. 이렇 한 구절들이 *anathen-*

*애나뎨*이라는 말 뜻이 “from above-위로부터” 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여기에 매우 존경받는 성경 번역들에 “born again-거듭 나다”라고 하지 않고 “from Above-위로부터”라고 요한복음 3:3 절과 7 절을 번역 했으며, 여기에 그렇게 번역한 성경들을 포함 합니다: *the Jerusalem Bible, New Jerusalem Bible, The Message,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New American Bible, The International Version, Young’s Literal Translation of the Holy Bible, The Bible by James Moffatt, The Better Version of the New Testament by Chester Estes, The New Testament in the Language of the People by Charles Williams, 그리고 The Emphasized Bible by Joseph Rotherham.* 이렇게 많은 성경에 “born from above-위로부터”라고 번역 한 것들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거의 다 기독교 교 통에서 “born again-거듭나다”라는 단어를 인용 함으로 옳게 깨닫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 장에 “from above-위로부터” 낳다 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은, 구약 성경에서 사실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 니고데모의 잘못된 교훈을 옳게 바로 잡아 준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지식이 이 있고 현명한 사람이었으나, 그의 바리새인의 교훈이 구약 성경에 밝게 나온 가르침을 흐리게, 말하자면, 누구든지 미래 왕국에 들어가려면, 그의 죽은 몸이 “born from above-위로부터 출생 시킴”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들 에서는 믿고 죽은 사람들이 성령이 위로부터 올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력으로, 살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들어가 생명을 준다고 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생명을 줌으로 그들이 위로부터 “born-태어나” 고 무덤에서 “born-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났음으로 그들이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르는 구절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26:19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

---

4. NIV 성경과 NASB 성경이 어려운 단어 *napal- L//풀*, 을 “to fall-떨어지다” 라고 우수하게 잘 번역해 놓았고 그리고 이 말이 여기서 연결된 뜻은 “dropping-떨어짐” 예를 들어서 아이가 배속에서 떨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Brown, Driver, Briggs, op. cit., *The Broun-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p.658.* 이사야 26:19 절이 첫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Delitzsch 분이 쓰시기를: “The dew form the glory of God falls like a heavenly seed into the bosom of the earth; and in consequence of this, the earth gives out from itself the shades which have hither to been held fast beneath ground, so that they appear alive again on the surface of the earth. -이슬이 영광의 하나님에게서 내려와 하늘에 씨앗처럼 땅의 품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결과, 곧 그 땅 자체가 뿜어내는 그 그늘 그것이 땅 밑을 꼭 붙들고 있으므로, 그것들이 다시 살아서 땅 위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New Testament Apocalypse 성경에다 비교해보면, 이것이 “그 첫 부활” 곧 이사야 가 예상해 는

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 로다 – the earth will give birth to her dead-땅이 죽은  
자를 태어나게 하리 로다.**

이사야 가 사람들이 다시 “살아서-born” 무덤에서 나온다고 말 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또한 성신이 “from above-위에서부터” 혹은 “from on high-높은 데서” come-온다[부어준다] 라고 기록했 습니다.

이사야 32:15-17

- (15)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 (16) 그때에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 (17)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 이사야 에 있는 구절들이 연결된 말씀에 따르면 심판때와 천년왕국때 라는 것이 확실 합니다. 에스겔 에서 또 한 예언자가 기록하기를 성신이 믿고 죽은 사람들의 시체에 들어가 그들을 살려서 왕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Ezekiel 37:12-14

- (12) Therefore prophesy and say to them: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ays: O my people, I am going to open your graves and bring you up from them; I will bring you back to the land of Israel.
- (13) Then you, my people,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when I open your graves and bring you up from them.
- (14) I will put my Spirit in you and you will live I will settle you in your own land. Then you will know that I the LORD have spoken, and I have done it, declares the LORD,”

에스겔 37:12-14

- (12)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 (13)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

것입니다.” F. Delitzsch,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in Ten Volumes, Vol. VII, Isaiah* (William B. Publishing Company, Grand Rapids, MI, reprinted 1975), pp. 451-52.

(14) 내가 또 내 신[성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와 의 말이니라 했다 하라

믿고 죽은 시체들에게 생명을 주려면, 하나님께서 그의 신을 각자에게 넣어 주셔야 됩니다. 에스겔의 예언에 주 여호와께서 이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뼈에다가 말씀하시기를, *ruach-루악*, 생기로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난다고 (에스겔 37:5, 6, 8-10 절 그리고 14)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는 “the Spirit-신령,” 그가 그의 “신”이 죽은 시체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생명을 줍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디모에게 말하기를, “...the Spirit[God]-성령[하나님] 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6) 라고 하신 것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 천년왕국때에, 구약성경때와 환란 때에 믿고 죽은 사람들을 모두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그의 spirit-영으로 생기를 주어 죽은 것이 글자 그대로 “born from above-위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나서 예수님이 땅에다 세우실 왕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를 말하자면 예수님이 “왕국에 들어가는”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지,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많은 선생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를, 예를 들어서, 사람이 거듭나야 만이 “왕국에 들어간다”고, 하신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의 구원”과 같이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아닙니다. 언젠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으면, 그가 새로 낳은 것을 경험 하는데, 그가 왕국으로 들어가지 않으며, 바로, 그 왕국이 땅에서 이루어 지는데 아직 이것이 설립 되지 안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구원이 이 세상 생활에 이 땅에서 일어납니다. 이와 대조해

5. 불행하게도, 이 포인트가 영어와 한글 성경에 수건으로 가려서 감추어졌습니다. 히브리어로 “spirit-신”은 *ruach-루악*, 이것이 보통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하고 그리고 이것을 “spirit-신령,” “wind-바람,” 혹은 “breath-호흡”이라고 번역 했습니다. 많은 번역들이 에스겔 37 장에 “breath-호흡”이라고 했지만, 구절들 범위와 이 이야기와 관계되는 다른 예언들에 따르면, 이과목에서 *ruach-루악*은 “spirit-신” 이라고 번역 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 에 *ruach-루악*, spirit-신령, 이것을, “...I will make *ruach-루악*[spirit-신령] enter you-내가 루악, 신 으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5 절); “...I will put *ruach-루악*[spirit-신] in you-너희 속에 *ruach-신/령*[spirit-신령] 을 두리니...” (6 절); “...there was no *ruach-루악*[spirit-신] in them- 그 속에 *ruach-루악*[spirit-신]은 없더라” (8 절); “...Prophecy to *ruach-루악*[spirit-신]-*ruach-루악*[spirit-신] 을 향하여 대언하라...” (9 절); “O *ruach-루악*[spirit-신]-*ruach-루악*[spirit-신]아” (9 절) 그리고 “...and *ruach-루악*[spirit-신] enter them-*ruach-루악*[spirit-신]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10 절)이러한 말들 까지 포함해서 확실하게 알고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에 관심을 끄는 것은 이 37 장을 거의 다 *ruach-루악*이라는 말을 “breath-호흡, 생기”라고 번역해 놓고, 이 대목 (14 절)은, 번역자가 NIV 성경과 한글 성경에 “breath-호흡, 생기”을 “spirit-신” 이라고: “I will put my Spirit [spirit] in you and you will live.... - “내가 또 spirit-신을 너희 소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라고 번역 했습니다.

서, “왕국으로 들어 감” 은 오직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다 천년왕국을 세워야만 들어 갈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났”지만 왕국에는 아직 들어가지 안 한 것과는 다르게, 구약성경 때에 믿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새 생명을 경험한 것이 없이 왕국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만일 그리스도인들에게 “네가 거듭 나야 만 [그리스도에게 관한 새 생명] 왕국에 들어간다”고 말했다면, 구약성경 때 믿은 아브라함, 사라, 모세, 미리암, 다 윳, 에스더, 이러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들이 한번도 그리스도인 들과 같은 “거듭 남”이 없기 때 문에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 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구약성경 때 믿은 사람들을 제외 해 버린 것이 아닙니다! “왕국에 들어가는” 것과 새로 난 것에 우리가 혼동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단어들로 사실의 의사소 통을 해야 되고 그래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성경에서 정확하게 번역 하는 것이 위 급하게 중요 합니다.

네 번째 포인트로 깨닫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거듭나게 하는 것과 같이 새로 나라 는 것을 권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새로 남을 경험하는 것은 사도행전 2 장때 까지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대에 역사적 처음으로 은사[선물]성령으로 사람속에 “born-태어난” 것입니다. 사도들 까지도 그 오순절날 까지 성령 부어 줌을 기다렸어 야 했으며 (사도행전 1:8; 2:4), 그럼으로 예수님께서 니고디모에게 새로 남을 권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이 교회의 시대에 대하여 예언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순절 날 올 성령에 대하여 예언 하신 것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이유는 주로 “born again-거듭나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3 장에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의 생각에 그리스도 인들에 새로 난 것인 줄로 믿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는 확실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3 장에 있는 문단 “born again-거듭나다”가 번역이 잘못된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 위급하게 중요한 것은, 말하자면, 구약성경에 있는 예언들을 올바르게 깨닫는 것과 그리고 첫 부활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 장을 그저 단순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가 살고 있는 그대에 그에게 관계되는 사실에 대하여, 미래의 현실이 아닌 것 곧 니고데모가 “birth from above-위로부터 남”에 대한 것을 도무지 모르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birth from above-위로부터 남”, 예를 들어서,

첫 부활,에 대하여 반드시 그리고 꼭 알아야 했던 것은 확실함을 앎으로 그리스도께서 미래에 새로 태어남에 대하여 예언했다는 그 규칙 아이디어가 없어져야 할 것은 새로 태어남과 그것에 동반하는 것이 철저하게 비밀히 했으므로 만일 사탄이 알았으면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안 했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한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은 왕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말씀 하셨고, 바로 그것이 왕국이 확실히 세워지고 난 후 첫 부활 하면서 곧장 들어 가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결론은, 요한 복음 3 장에서 예수님이 그 첫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니고데모의 신학에 첫 부활을 명백하게 해주기 위한 것은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누구에게나, 진리의 값어치가 자유 하게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것에 대한 말씀은 구약 성경 예언자들이 수백 년 전에 이과 똑 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왕국에 들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신 이 위로부터 무덤에서 born-나게 함으로 거기에서 나와야 만 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해 한 것은, 그가 바리새인이므로, 성경에서 부활에 대하여 똑바로 가르침을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고쳐 줌과, 니고데모가 선생으로 써 그의 자신 자체가 이 진리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포인트 해 주고, 그 첫 부활이 구약에 있는 사실에 맞는 것들에 한 부분인 것을 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the Spirit[God] gives birth to spirit- 성령[하나님]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하신 말씀은 에스겔 37 장에서 일어난 곧 성령[하나님]이 위로부터 그의 영을 믿고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관 경을 따른 것 입 니다. 요한복음 3 장에서 그리스도가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의 그 본질은: "죽은 사람이 위로부터 신으로 생명을 주지 않으면 그리고 그가 무덤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인데 (예를 들 어서, "위로부터 남"), 그렇지 않으면 왕국이 세워 질 때에 거기에 들어갈 수 없고 계속 땅속 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 다".